

인천육군조병창과 에스컴 시티

제 4 권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 이 책은 부평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기록이다.
- 이번 편찬에서는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로 총 8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부평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폭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부평구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반환을 계기로,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밝혀낸 권으로 편성하였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 서술 대상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분구하기 이전의 계양구, 서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서술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9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20년 이후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3. 본문서술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 구술 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그 밖의 세부적인 집필방법은 국립국어원, 학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집필요령을 반영한 집필요강에 따랐으며, 집필에 통일성을 기했다.
 - 각 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설을 작성하였고, 각 장마다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말과 마무리 글을 배치하였다.
-



목차

총설

제1 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제1절 _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023
1. 침략에서 시작한 일본의 근대	
2.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국가총동원체제 구축	
3.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선택한 일본	
제2절 _ 공출당하는 한반도	044
1. 전쟁이 터졌다	
2. 한인을 공출하라!	
3. 인력동원의 종류별 동원 현황	
제3절 _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유적	072
1. 국내의 아시아태평양 유적	
2. 인천과 부평의 아시아태평양 유적	
3.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역사와 마주하다	

제 2 장 일제의 육군조병창과 부평, 그리고 부평 사람들

제1절 _ 일제의 중국 침략과 부평에 세워진 육군조병창	084
1. 일제의 중국 침략과 조선의 병참기지화	
2. 육군조병창의 부평 건설 이유와 관련 시설	
3. 부평의 육군조병창에서 만든 무기와 그 성격	
제2절 _ 육군조병창의 마지막 전쟁 준비, 그리고 부평지하호	118
1. 왜 일제는 전쟁 말기 한반도를 지하 bunker화 했는가	
2. 육군조병창은 어떻게 땅속에 건설되었나	
3. 부평의 땅속에 남은 일본군의 흔적과 식민지 피해	

補論 지역사회가 발굴하여 기억하는 부평지하호

제1절 _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한 부평지하호 사업내용	156
1. 추진배경과 경과	
2.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개	
제2절 _ 부평지하호 기본현황	161
1. 화랑마을지역(A구역) 지하호	
2. 청원유치원 인근(B구역) 지하호	
3. 새우젓 굴 지역(C구역) 지하호	
4. 육군부대지역(D구역) 지하호	
5. 기타 부평지하호의 자연환경과 구조물	

제 3 장 구술로 보는 조병창 사람들

제1절 _ 99(구구)식 소총을 만들던 김우식, 지원자에서 무단이탈자가 되다	175
1. 1925년생 김우식, 충남 청양에서 서울로	
2. 조병창 입창과 주변 환경	
3. 기능지양성소 입소와 기숙사 생활	
4. 제2공장 배치와 방아쇠 연마 작업	
5. 쓸모없는 일, 4년간의 방아쇠 깎기	
6. 조병창의 규율과 감시 그리고 헌병들	
7. '백마정'의 조선인 일반공 사택	
8. 사택 주변 풍경과 조병창 가는 길	
9. 혼인과 별거, 명절 휴가	
10. 기한 없는 조병창에서 무단이탈하다	
11. 평양군무예비훈련소 징용과 단식	
12. 해방 후 철도경찰 생활과 6.25전쟁의 참상	
13. 근현대사를 버텨온 다복한 노부부	
제2절 _ 여학생 지영례, '정신대' 동원을 피해 인천육군조병창에 지원하다	189
1. 부평 뚝방마을에서 태어난 지영례	
2. 소학교녀의 방공호와 조회 시간	
3. 학교를 중퇴하고 조병창 병원 서무과에 취직하다	
4. 조병창을 가로지르던 출퇴근길과 국방색 유니폼	
5. 병원에서 만난 나이 어린 환자들	
6. 조병창 병원 서무과 사람들과의 기념사진	
7. 거둬지는 방공훈련과 일본 군인들의 칼소리, 구두소리	
8. 해방 그리고 그 후	
제3절 _ 지원병을 강요받던 최덕원, 인천육군조병창 군속이 되다	197
1. 보령공립보통학교의 학창 시절	
2. 청년훈련소 수업과 '군인5개조'	
3. 지원병 강요를 피해 조병창에 지원하다	
4. 백마정 1번지, 조병창	

- 5. 제2공장 생활과 '월월회수목금'
- 6. 일성료에 거주하던 일반공들의 출퇴근
- 7. 언제나 배고팠던 시절, 지금도 기억나는 밥 냄새
- 8. 해방 후의 기계 청소와 문서 소각
- 9. 퇴직금을 받고 화물차로 귀가하다
- 10. 살아 돌아온 사람들과 도망가던 사람들

제 4 장 조병창에서 미군기지로

제1절 _ 해방과 애스컴 시티(ASCOM CITY)	210
1. 해방과 인천	
2. ASCOM의 설치와 기능	
3. 주한미군의 철수와 부평의 반환	
제2절 _ 6·25전쟁 발발과 부평	240
1. 6·25전쟁의 발발과 인천상륙작전	
2. 반격 및 휴전과 부평	
3. 6·25전쟁과 남북한 내부 체제	

제 5 장 캠프와 기지촌 형성

제1절 _ 부평의 기지촌	280
1. 부평기지촌의 형성	
2. 부평기지촌 형성에 따른 부평의 변화	
3. 기지촌 여성의 삶	
4. 기지촌의 숙명, 혼혈입양아	
제2절 _ 부평의 양키시장 형성과 부평의 변화	315

제 6 장 캠프 마켓 반환 운동

제1절 _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 운동	332
1. 부평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운동, 인천 시민사회운동사에 '한 획'	
2. 5·18광주민중항쟁 16주년 기념식에 올려 퍼진 '우리 땅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구호	
3.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을 둘러싼 두 진영의 행보	
4. 캠프 마켓 반환 운동을 주도한 인천시민회의	
5. 캠프 마켓 이전 운동을 주도한 '부공추', 다양한 활동 통해 캠프 마켓 이슈 쟁점화 주도	
6. 캠프 마켓 활용 방안 선거 단골 공약으로 등장	
제2절 _ 캠프 마켓 환경오염 문제	352
1. 캠프 마켓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심각한 것으로 계속 확인	
2. 맹독성 인천대책위원회 출범과 활동	
3. 맹독성 인천대책위원회, 캠프 마켓 주변지역 오염과 관련해 정부 책임 강조	
제3절 _ 캠프 마켓 문제 풀기 위해 머리 맞대 민관 거버넌스 운영	368
1. 캠프 마켓 문제 풀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2.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을 위한 부평구 자문협의회 구성 운영	
3. 81년 만에 개방된 캠프 마켓	

총설



정 해 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부평역 앞에서 시작하는 부평대로의 서쪽으로 가면 미군기지 철조망이 길을 가로막는다. 일제강점기에는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京畿道 富川郡 富內面)이었던 곳. 그리고 애스컴(ASCOM) 또는 캠프 마켓(Camp market)으로 불렸던 곳.

인천시가 소유권은 이관받았다지만 아직 시민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간에 열쇠 전달식을 하고 정문을 활짝 여는 개방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일부 공간(B구역 야구장)뿐이다. 전체 부지 중 일부분에 국한된 구역 공개이기는 해도 무려 81년 만의 일이니 뜻깊다.

이제 시민들은 금단의 땅을 의미 있게 시민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곳이 왜 미군기지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시민들의 발길을 막는 곳이 되었는지 아는 이들은 드물다.

『부평사』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는 바로 그러한 궁금증을 역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 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하는 장(場)이다.

먼저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장	주제	집필자
제1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정해경
제2장	일제의 육군조병창과 부평, 그리고 부평사람들	조 건
제3장	구술로 보는 조병창 사람들	이상의
제4장	조병창에서 미군기지로	이상호
제5장	캠프와 기지촌 형성	김정아
제6장	캠프 마켓 반환운동	한만송

본 권을 통해 그저 어렵것이 언론 기사에서 전해 들었던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이 무엇이며, 왜 부평에 만들어졌고, 나아가 이곳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학계에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 또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저 새우젓 보관 토굴로만 여겼던 함봉산의 지하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7년 부평문화원이 어르신문화콘텐츠사업을 통해 24개의 새로운 지하시설을 확인했을 때에도 그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했다. 일본군의 방공호라거나 인천육군조병창의 물자 은닉 장소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중 일본의 지하공장이라는 소수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의문점은 본 권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설치 목적을 담은 공식 문건을 발굴해내면서 해소될 수 있었는데, 해답은 바로 ‘소수 의견’이 맞았다. 함봉산 지하시설은 공습에 대비해 도쿄육군 제1조병창을 이전하기 위한 지하공장이었다.

지역사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계획했던 일본 현지 조사 기회가 무산되면서 자료 발굴의 가능성도 사라지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집필 과정에서 조병창과 부속 시설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고, 나아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부평사편찬실과 담당 집필자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책에는 광복과 6·25전쟁 중에 부평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나아갔는지,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까지 수록하였다. 따

라서 인천육군조병창의 시작부터 미군기지의 반환까지 씩 없이 이어져 온 역사의 물결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라잡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육군조병창을 이해하는 종합서이자 친절한 길잡이인 제4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철조망으로 사방이 가로막힌 곳. 아직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이곳은 바로 얼마 전까지는 미군이 관할하던 영역이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육군이 관할하던 무기공장 인천육군조병창이었다. 그리고 더 이전에는 부평연습장이었고, 일제가 한반도를 유린하기 전에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다.

평화로운 농촌에 무기공장이 들어선 것은 일본의 침략전쟁 때문이었다. 침략전쟁의 이름은 1931년 만주 침략(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45년 8월까지 15년간 계속된 ‘아시아 태평양전쟁’이다. 이 전쟁 때문에 아시아와 태평양의 민중들은 인력과 물자, 자금을 등을 동원해야 했고, 15년간 전쟁의 상흔을 입어야 했다.

조병창은 일본군의 병기와 탄약, 그리고 전투용 차량 등의 제조와 수리를 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일본 육군에서는 육군조병창이라고 하고 해군에서는 해군공창으로 명명하였다. 즉 인천의 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세운 군대의 군수물자를 제조·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었다.

일본의 육군조병창 역사는 1879년 10월에 설치한 포병공장에서 시작했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전쟁 말기 일본 열도에는 도쿄 제1·제2, 사가미(相模),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쿠라(小倉) 등지에 육군조병창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이 본토 외에 조병창을 운영한 지역은 중국 만주와 한반도 두 곳이다. 만주의 남만(南滿) 육군조병창과 한반도의 인천육군조병창이다.

만주와 인천, 두 지역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중국 전선에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만선 복지로 수송의 신속 안전 및 조선 내 병기 공업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경성 근방에 총기류의 생산을 주 임무로 하는 일 제조소를 설치한다. 본 제조소는 우선 고쿠라공창장의 예하에 두는데 1940년도에는 평양병기제조소와 함께 새로 설립할 조선공창(*인천육군조병창)에 예속토록 한다.(* - 인용자)

1939년 9월 1일 자 문서 육지밀(陸支密) 제3103호 내용 중 일부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을 설치하기 위해 육군조병창 장관 고스다 가쓰조(小須田勝造)가 육군대신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에게 보낸 여러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서에 기재한 ‘만선 복지’란 중국 만주와 중국 북부 지역을 의미하며, 제조소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 이 지역으로 수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3개월 이내에 승리로 끝낸다는 육군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는 중국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확장된 전선에서 강해진 중국군과 싸우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보급의 문제였다. 무기는 중요한 보급품 가운데 하나였다. 머나먼 일본 본토에서 무기를 생산해 중국 전선으로 수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서해안의 항구는 수송의 최적지였다. 무기 생산의 측면에서도 인천은 매력적인 곳이었다. 지리적으로 분지여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었고, 기계기기의 생산과 수송의 인프라가 갖추어졌으며, 경성 지역에서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달할 수 있었다. 평안남도 등 철광산이 많은 지역과 인접하다는 점에서도 원자재 조달의 이점을 가진 곳이었다. 일본군이 중국 각지에서 약탈한 동종이나 창 등 문화재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했다.

1939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 초에 총검공장과 견습공 연습공장 건물 공사를 완성하면서 무기 생산에 들어갔고, 1941년 5월 5일 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공식 명칭을 달고 문을 열었다. 조병창 본부를 비롯해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경성감독반, 부산감독반, 성진감독반 등을 통해 소총, 총검, 소총탄환, 포탄, 군도 등 무기를 생산했고, 차량과 물자수송용 잠수함까지 생산했다.

명확한 전력의 열세에도 멈추지 않고 만주 침략에서 시작한 전쟁을 중국 본토 전쟁을 거쳐 1941년 대미전쟁으로 확대했던 일본은 1945년 8월 패전을 꺼안아야 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군 통수권자인 쇼와(昭和) 천황을 비롯해 모든 각료가 포츠담선언 수락문서에 서명하고, 연합군에 보냈다. 그리고 8월 15일 정오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한반도 민중들은 광복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인천육군조병창은 부평 구민들 품으로 돌아왔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

았다. 광복을 맞았으나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군정 시기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었다.

8월 15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항복을 수락했음을 발표했고, 맥아더 태평양육군사령관에게 항복 수락을 지시하고 공식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한반도에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들어왔고, 하지 중장은 1945년 8월 27일 주한미군사령관이 되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27일 미 제24군단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8월 29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를 공식 편성했다. 9월 12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 본부와 본부중대가 인천에 도착했다. 임무는 군단의 군수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군수보급시설, 조직, 장비의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인천항과 남한의 철도를 관할하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9월 16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부평의 일본군 조병창 지역으로 이동했고, 당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부평 지역을 애스컴 시티(ASCOM City)로 명명했다. 미 24군단 군수지원사령부가 인천육군조병창 지역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은 후속 부대가 주둔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각종 시설을 철거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1947년 11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미소점령군의 동시 철수에 대한 결의가 통과된 것이다. 이 결의에 따라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의 철수를 완료했다. 1949년 6월 30일 부평 지역은 국군이 인수해 유지, 운영했다. 1949년 8월 1일 국군은 미군이 철수하고 떠난 부평에 부평 지역 위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군 조병창을 수리해 1950년 6월 15일에 제2조병창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조병창으로 활용하려던 국군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부평 전투를 거쳐 탈환한 후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는 여러 용도로 활용되었다. 일부(현 부영공원 자리)는 늘어난 인민군과 중국군 포로를 수용할 포로수용소로, 나머지는 보급부대(ASCOM)로 미군 관할이 되었다.

부평의 미군기지는 미국 문화의 전파소이자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미군기지를 통해 많은 음악인이 성장했고, 음악을 통해 전쟁 후 삭막한 한국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을 주기

도 했다. 그러나 미군기지는 환경오염과 미군 범죄의 부작용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또한 미군기지는 기지촌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낳았다. 기지촌 여성들은 고단한 삶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사회적 외면과 냉대를 피할 수 없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한 곳, 미군기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 초 한국 사회의 민주 정부 수립을 계기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인천 시민들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후 계양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 역량을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천 시민운동은 선인학원 민주화운동과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등을 통해 토대를 닦았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1996년 5월 17일,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한 5·18 광주민중항쟁 16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이 출발했다. 이렇게 시작한 시민들의 반환운동은 걷기 캠페인, 토요일 집회, 수요일 정치마당을 거쳐 674일 철야 천막 농성이라는 범시민적 투쟁을 거쳐 2002년 3월 29일 반환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와 국방부의 발표(캠프마켓 1단계 구역의 즉시 반환)를 거친 후 2020년 반환을 이루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은 비단 부평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운동으로, 예를 들어 부산시민공원(전 하야리아 부대 주둔지)과 같이 이미 반환을 받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부평의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특징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했으며 향후 반환 지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1939년 당시 일본 육군이 신설하려고 했던 인천육군조병창의 부지는 100만여 평을 넘는 규모였지만 현재의 미군기지 부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인천육군조병창의 부지가 미군기지에 머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어디까지가 인천육군조병창이었을까. 현재 캠프마켓은 물론 부영공원과 한국군 부대(제3보급단)도 인천육군조병창이 있었던 곳이었다. 당시 인천육군조병창이 있었던 부지의 상당수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상가가 되기도 했다. 비록 현재 인천육군조병창의 흔적을 남긴 현장은 미군기지와 부영공원, 제3보급단지지만 현재 부평구 관내와 인근 지역까지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수십만 개소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남겼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국 사회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많은 민중이 동원되었고 일상성을 훼손당하며 피해를 입었으나 경험자는 찾기 어렵고, 경험자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새기는 일도 귀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전쟁이 남긴 유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이 유적은 무슨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남았는가. 유적을 조성하는 데 동원된 사람은 누구이며 노역을 강요당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해방 후 전쟁 유적은 어떤 역사적 더께를 쌓아 나갔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유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유적과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전쟁 유적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이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세상을 떠나도 유적은 현장에 남아 한국 사회에 역사적 교훈을 남긴다. 전쟁 유적은 시민들이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국 사회가 피해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자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며 반전평화교육의 현장이다. 피해자성은 피해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공감하며 이를 통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힘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반도 전역에 있으므로 남북한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어두운 역사(Dark History)’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포함한 근대 전쟁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한 주제 [Negative Heritage, 부(負)의 유산]이기도 하다. 세계 시민들이 전쟁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함께 공유하려는 이유는 ‘전쟁 없는 21세기를 만들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보존하려는 노력 또한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자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일이다. 심지어 아시아태평양전쟁 가해국인 일본도 자국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부평은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2020년 10월 개방한 미군기지 자리와 제10 포로수용소가 자리했던 부영공원, 제3보급단 외에 함봉산 자락을 따라 분포

하는 24개의 지하시설, 미쓰비시(三菱) 제강공장이 있었던 부평공원 그리고 미쓰비시 출사택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이다.

2020년 11월 문화재청은 철거 중인 미쓰비시 출사택의 보존을 권고하는 공문을 부평구에 보냈다. 또 캠프 마켓 부지에 대해서는 2012년에 관내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관심과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부평문화원도 2019년부터 세계유산 등재 운동을 추진하며 범세계적 추세에 조용하고 있다.

『부평사』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에스컴 시티는 부평 구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하고, 평화의 마중물로서 세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 1 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제1절 _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제2절 _ 공출당하는 한반도

제3절 _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유적

제1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정 해 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근대 일본의 역사는 이웃 나라를 상대로 하는 침략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반도도 일본의 침략전쟁의 피해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일본 침략전쟁의 역사는 개국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1854년(안세이 원년) 개국과 함께 ‘침략하는 나라’가 되어 제국 건설에 나섰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국민통합과 자본주의의 파고를 넘어 서기 위한 방법으로도 적극 활용했다.

식민지를 확보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점령지를 늘려나갔지만 취약한 경제 토대와 미미한 국력이라는 현실의 벽은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이 벽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댄 것은 전쟁이었다. 청일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거듭되는 대외 전쟁의 경험을 통해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번영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라 여겼다.

국제연맹이 위임한 중서부태평양의 점령지에 만족하지 않고 1931년 만주 침략을 일으켜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의 막을 올렸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확전한 후 국가총동원체제를 확립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의 모든 인력·물자·자금을 총동원했다. 동원한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었고, 식민지 조선의 민중과 물자, 자금도 대상

이 되었다. 일본은 중북 인원 약 780만 명에 달하는 조선 민중을 동원했다. 물자와 자금의 피해는 그 규모조차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평은 한반도의 중심적인 군수물자 조달기지가 되었다. 부평 지역이 경험한 아시아태평양전쟁은 강제동원된 민중과 약 24개소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으로 남아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은 인천육군조병창이다.

76년 전에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끝났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패망했으며 조선 민중은 광복을 맞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자성을 회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원으로 평화를 선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부평 지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반전평화교육의 현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 제1절 |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1. 침략에서 시작한 일본의 근대

1) 침략받는 나라에서 침략하는 나라로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집권 후 군사정부인 막부 체제였던 일본은 미국의 검은 배 앞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일본은 1854년 1월 16일, 군함 7척을 이끌고 도쿄(東京)만에 나타난 미국 페리(Perry, Matthew Calbraith) 함대의 압박으로 1854년 3월 3일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했다. 그 후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 줄줄이 화친조약과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고 요코하마(横浜)·하코다테(箱館)·나가사키(長崎) 등 주요 항구를 열었다. 일본은 1867년 개국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은 막부 대신 왕정복고를 통해 메이지시대(1868~1912)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천황제 절대주의 체제를 확립했으나 불평등조약의 여파가 허약한 일본 경제를 흔들자 일본 사회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1884년 ‘중국을 멸망시켜야 유럽과 동등해진다’고 발표하고, 이듬해에는 서양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침략받는 나라’에서

‘침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에 들어서는데 초석이 되었다.¹

2) 제국을 확장하라

제국이 되기 위해 일본은 대외 침략에 나섰다. 메이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아이누족의 거주지를 점령해 홋카이도(北海道, 1869)로, 류큐 왕국을 무너뜨려 오키나와(沖縄, 1879)로 삼았다. 본토를 확장한 일본은 타이완(臺灣, 1895)과 조선(1910)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러일전쟁(1904)을 통해 러시아 남사할린을 차지한 후 가라후토(樺太)로 바꾸고 외지에 편입했다.²

일본의 영토 확장과 대외 침략은 대외적 효과와 함께 국내적으로 국민을 통치하고 결속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특히 메이지 시대 최초의 대외 전쟁인 청일전쟁은 정부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 사회는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교육하고 나라의 힘을 길러 그 힘을 나라가 명령하는 방향으로 집중한 결과라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사회는 침략전쟁을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번영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라 여겼다. 그러나 연이은 전쟁으로 국민에게 채권을 강매해야 했고, 채무국이 되었다. 패전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서 전쟁 비용을 만회해야 하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국민의 뭉이 되었다. 일본 국민은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지만 가난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러일전쟁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 전쟁을 통해 장기전을 할 수 없는 국력을 드러냈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영국과 미국 그리고 국민에게 빚을 졌다. 그러나 러시아군을 완패시키지 못했으며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은 컸다. 일본군 8만 명의 인명 손실은 청일전쟁의 사망자 8,000명에 비하면 10배에 달했다. 러시아가 계속 버틴다면 패전할 수 있었기에 일본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중재를 요청해 전쟁을 끝냈다. 그 결과 만주철도 부설권과 뤼순(旅順)과 다롄(大連)항의 조차권을 넘겨받았으며 조선에 대한 배타적 권리도 인정받았다. 만주에서 획득한 권익을 보호하고 철도를 수비한다는 명분으로 관

1 오구마 에이지 저, 한철호 역, 『일본이라는 나라?』, 책과함께, 2007, 21~26쪽.

2 1944년 내지로 편입되었다.

동군(만주에 배치한 일본군)을 만주에 주둔시킬 수 있었다. 이 관동군은 1931년 만주 침략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이 정도만 보면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큰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배상금을 받지 못했고, 유전지대이자 극동의 창구인 북사할린 대신 척박한 남사할린 땅을 건졌을 뿐이었다. 만약 일본이 북사할린을 차지했다면, 1년에 반 이상 어는 강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민중은 실망했고, 분노했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대가가 고작 이것이야’며 울분을 터트렸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조인한 날, 민중들은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강화조약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 고관 저택과 정부계 신문사, 파출소 등에 불을 질렀다. 놀란 일본 정부가 도쿄 등 5개 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였다. 침략하는 나라인 일본 이면에 자리한 일본 민중의 민낯이었다.

2.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국가총동원체제 구축

1) 천금 같은 기회를 얻은 일본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쟁(European War)이라 불렸으나 아시아 국가도 참전했다. 일본과 중국이었다. 중국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1917. 3.)에 참전했으나 일본은 개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이 유럽과 어깨를 견줄 절호의 기회라 판단한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외상은 한밤중에 다이쇼(大正) 천황의 별장으로 찾아가 설득한 끝에 참전하라는 재가를 받았다. 가토 외상은 영일동맹을 내세워 참전의 명분으로 삼고, 태평양의 독일군과 전투하겠다고 영국에 제안했다.

일본의 제안을 받은 영국은 주저했다. 영일동맹은 동아시아와 인도,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조약을 규정했으므로 독일과 무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동아시아 해역에서 영국 상선을 호위해 주는 정도’로 도와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가토 외상이 강력하게 참전을 주장하자 영국은 일본의 참전을 승낙하면서

요구조건을 달았다. ‘군사행동의 범위를 중국해의 서·남쪽, 독일 조차지인 자오저우만(膠州灣) 밖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태평양에 미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이 요구를 일본이 응하지 않자 영국은 일본과 합의했다며 일방적으로 일본의 조건부 참전을 공표해 버렸다.

1914년 8월 8일 일본 원로대신회의는 독일을 상대로 참전을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8월 5일 군부는 영국 동양함대를 응원한다는 명분으로 구레(吳)진수부 소속 해군 3등 순양함 치요다(千代田)에 출항 명령을 내렸다. 8월 23일 해군은 독일에 선전포고 후 영국과 일본이 함께 구성한 동양연합함대의 일원으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중서부 태평양 지역으로 쳐들어갔다. 일본 해군은 9월 30일 마샬군도의 얄루트(Jaluit Atoll, 현 미국령 켈루잇 환초)에 상륙한 후, 10월 12일 일장기를 게양했다. 공식적인 일본의 얄루트 점령 일이다.

8월 26일에는 중국 자오저우만을 봉쇄하고, 9월 2일 산둥(山東)반도에 상륙했으며, 11월 7일 칭다오(靑島)를 점령한 후 1915년 1월 중국에 21개조를 요구해 산둥성과 칭다오를 차지했다. 칭다오 점령은 일본이 거둔 큰 소득이었다. 독일이 1899년부터 1904년까지 부설한 자오지(膠濟) 철도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칭다오에서 지난(濟南)까지 산둥성을 동서로 관통하는 자오지 철도는 러일전쟁으로 만주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일본이 중국 중부와 북부 지방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2)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이 되었으나 불안감을 키운 일본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일본은 전승국이 되었고, 서양과 한패가 되었다. 러일전쟁 당시 민중들의 반응을 경험한 일본 국가권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그리고 자국민들 앞에 당당한 승전국으로 나섰다. 그러나 유럽의 평가는 일본의 기대 이하였다.

1919년 1월 18일부터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강화회의에 일본은 전승국의 일원으로 참가해 중국 산둥성에서 독일의 권익을 계승하고 적도 북쪽의 독일령 남양군도(마리아나제도, 길버트제도, 팔라우제도 등)의 위임통치권도 획득했다.³ 그러나 중국의

권익을 두고 중국·미국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양국은 ‘중국에 산둥반도를 돌려줄 것’이라는 1914년 8월 일본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결국 일본은 워싱턴 회담을 통해 중국 내 주요 철도에 대한 장기간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 산둥반도를 중국에 반환했다. 자오지 철도의 반환은 육군 군부 입장에서 아쉬운 결정이었다. 자오지 철도는 중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였다. 칭다오와 자오지 철도를 차지하면 유사시에 산둥반도의 자오저우만과 칭다오에 상륙한 후 철도를 통해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텐진(天津)과 베이징(北京)까지 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화회의의 결과에 대해 일본 고위층은 분개했고 굴욕감을 느꼈다. 게다가 강화회의 진행 도중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 1918년 1월 윌슨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발표한 ‘14개조 평화원칙’에 포함했던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민족자결주의는 폴란드, 벨기에, 세르비아 등을 대상으로 민족자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로버트 랜싱 미 국무장관은 1918년 12월 30일 일기에서 “이 선언은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있다. 실현될 수 없는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적었다. 랜싱 장관의 예상대로 전 세계 식민지인은 민족자결주의에 기대를 걸었고,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3·1운동이 발발하자 일본은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특히 3·1운동은 산둥반도 반환에 영향을 미쳤다. 3·1운동이 발발하자 미국 의회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비판하면서 산둥반도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베르사유 강화조약은 중국을 희생시켜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부당한 조약이다. 일본은 산둥을 식민지로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것은 한국의 3·1운동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히 가혹한 것이다. 이처럼 가혹한 식민 지배를 중국 본토에까지 시도하려는 일본과 타협했다”며 윌슨을 공격했다. 미국 의회의 지적은 미국 정부가 일본의 산둥반도 반환을 계속 주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미국 의회에 비판은 일본에 감정의 상처로 남았고, 상처는 1930년대 만주와 중국 침략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강화조약 후 시작된 군축 협상 결과도 불만스러웠다. 그리고 찾아온 경제공황이라는 폭풍 앞에 일본 사회의 위기감은 높아졌다.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은 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전쟁 종결과 함께 경제 상황은 악화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유럽 제국이 부흥을 진행하고 그 상품이 아시아 시장에 재등장하면

3 김봉식, 『인물로 보는 일본 역사11-고노에 후미마로』, 살림, 2019, 55-56쪽.

서 오히려 일본 경제를 불황에 빠트린 것이다. 호경기 중에 생산 설비를 확충했다가 전쟁 종결로 소비시장이 줄어들자 생산 과잉에 빠진 공장과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노동자와 봉급생활자는 실업자가 되었다. 전후 경제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지진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지대가 파괴되면서 일본의 경제공황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은 허약해진 일본 경제에 맹타를 날렸다.

가난해진 민중들은 불만을 해소할 방법으로 새로운 땅을 찾았다. 1931년 육군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민중들은 거리에 나가 만세를 불렀다. 일본 민중의 환호는 1941년 태평양전쟁 때 절정에 달했다.⁴

3) 제국국방방침을 개정하라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입은 인적 피해는 칭다오 공략전의 사상자(전사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가 1,250명으로 미미했다. 그러나 군부의 위기감은 높았다. ‘러일전쟁에서 8만 명이 죽었는데, 만약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몇 명이 죽을 것인가’하는 불안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격전지에서 사용한 탄알의 규모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래에 총력전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항공기가 정찰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면서 대대적인 항공기 생산과 조종사 양성 필요성을 실감했다. 군부의 긴장감은 일본의 중장기적 전략을 담은 문서, 제국국방방침 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제국국방방침은 러일전쟁 후 일본의 국방 설계를 정리한 비밀문서인데, 1907년 처음 세상에 나왔다. 육군 중좌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가 원안을 작성한 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⁵의 수정을 거쳐 완성했다. 군이 주도해 작성했으며 총리조차 의회가 담당하는 예산 부분만 볼 수 있는 최고 기밀문서였다. 물론 천황은 보고를 받았다.

4 정혜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19, 64쪽.

5 육군 원수이자 내각총리대신을 두 번 지냈고, 일본 의회제도 체제 아래 최초의 총리와 근대 일본의 군사와 정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군국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향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국가 성격에 각인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907 제국국방방침 가상 적국 : 러시아, 미국, 독일·프랑스

1918 제국국방방침 제1차 개정 가상 적국 : 러시아·미국·중국(공동 1위)

1923 제국국방방침 제2차 개정 가상 적국 : 미국, 러시아, 중국

1936 제국국방방침 제3차 개정 가상 적국 : 미국, 소련, 중국, 영국

제1차 세계대전 후 1918년에 첫 번째로 제국국방방침을 개정했다. 제정 이후 11년 만이었다. 두 번째 개정은 5년 만에 단행했다. 개정 간격을 단축한 것이다. 특히 1923년 개정 제국국방방침은 육군과 해군이 초안을 작성해 히로히토 황태자가 군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⁶ 이때 육군과 해군은 모두 가상 적국의 1순위로 미국을 꼽았다.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이 가진 위기감이 잘 반영되어 있다. 군부는 미국과의 전쟁을 ‘최후의 세계 전쟁’이라 여기고, 전략을 다졌다. 육군이 설정한 첫 번째 단계는 만주의 확보였다.

4) 일본의 국가총동원체제 구축

총력전은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의 모든 인력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하는 전쟁이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과정에서 근대 전쟁관인 총력전 사상을 접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프랑스가 처음 ‘총력전(guerre totale)’ 개념을 사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총력전 개념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전쟁 상황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병사들끼리 전투가 중심이었으므로 병사의 질과 양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대형 폭탄과 기관총·전차 등 대량 살육 무기의 출현으로 양상이 달라졌다.

이제 전쟁은 전쟁터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질이 좋은 병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많은 탄약과 연료가 필요했고, 군수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전비와 국력이 필요했다. 우수한 무기를 생산할 과학 기술도 필요했고,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나 대립도 없어야 했다. 외교력도 뛰어나야 했고, 국민이 전쟁을 감수할 의지도 있어야 했다.

6 박영준,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237쪽.

국민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안락한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각국은 사상 통제와 프로파간다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신적 단결을 도모해야 했다.

총력전은 동원 대상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므로 동원 대상을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체제를 평상시부터 준비하고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군사를 비롯해 경제, 정치, 사회, 사상 등 국가의 모든 요소(총력)를 동원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체제를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전쟁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총력전 체제 구축에 필요한 국가적 과제는 군대와 군수산업으로 국민동원과 군수생산능력의 질적·양적 충실화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들은 향후 이 체제 구축 없이 대규모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총력전 사상은 급속도로 퍼졌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15년에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관찰하고 연구해 일본도 국가총동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⁸ 이후 1918년 12월 육군임시군사조사위원회 제2반은 ‘국가총동원’의 개념을 담은 문서(교전 제국의 육군에 대하여)를 만들었다. 이 문서에서 밝힌 국가총동원은 국민동원과 공업동원을 포함한 개념이었다.

내각도 국가총동원체제 만들기의 한 축을 담당했다. 1918년 4월, 일본 내각은 육군의 독려 아래 「군수공업동원법」을 제정했다. 총력전 수행을 위해 평상시부터 전 국가의 자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시 보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6월 1일, 군수국을 신설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⁹ 1919년 12월에 「군수조사령」을 제정하고 ‘조선과 타이완’을 대상지역에 포함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29년 6월 18일 각의결정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총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930년에 국가총동원 기간

계획을 처음 마련했다.¹⁰

표 1 일본 국가총동원 기간계획 및 총동원 연차계획 일람표¹¹

기간계획	연차계획	책정연도	적용연도	담당기관	참고
참정총동원 기간계획	없음	1930~1932	1934~1935	자원국	실시하지 않음
응급총동원 계획	없음	1932~1933		자원국	만주 침략에 대응한 계획
제2차총동원 기간계획	없음	1934~1935	1936~1937	자원국	실시하지 않음
제3차총동원 기간계획	자료 없음	1936~1937	1938~1939	자원국	중일전쟁 발발 당시 일부 실시
	1939년도 총동원실시 계획	1938	1939~1940	기획원	실시
제4차총동원 기간계획	자료 없음	1940~1941	1942~1943	기획원	실시
	1942년도 국가총동원실시 계획	자료 없음	1941	기획원	실시
	1942년도 국가총동원 계획	자료 없음	자료 없음	기획원	실시
	1943년도 국가총동원 계획	자료 없음	1943	기획원	실시
	1944년도 국가총동원 계획	1943	1944	군수성	실시

일본의 국가총동원체제 수립 행보는 아시아 침략을 거치면서 더욱 빨라졌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1938년 2월 만주국에 이어 일본에서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5월 5일에 공포해 국가총동원체제를 확립했다.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은 전쟁 수행을 위해 총동원을 규정한 전시수권법(전문 50개조, 부칙 4개항)이다. 조선과 관동주, 화태(남사할린), 남양군도(중서부 태평양)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칙령을 통해 남양군도에 대해서는 5월 4일자 ‘남양군도에서 국가총동원에 관한 건’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5월 5일자 「국가총동원법」을 조선,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시행하는 건을 공포해 시행했다.

7 propaganda(러시아어: Пропаганда)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해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행위를 말한다.

8 박영준,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235쪽.

9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3~27쪽.

10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劃編』, 朝雲新聞社, 1967, 254쪽.

11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4쪽.

5) 전쟁으로 전쟁을 지속한다

1928년 1월 19일, 육군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 1889~1949)는 일본 목요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방 방침’이라는 발표를 통해 세계최종전쟁론을 주장했다. 목요회는 국책 결정에 필요한 미래전을 연구하기 위한 육군 엘리트 장교들의 전략 연구 모임이다.

이시와라 간지 : 일본 동북 지방인 아미가타(山形)현의 무사 집안에서 출생해 육군유년 학교를 거쳐 190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강제병합 후 조선에서 근무했으며, 1918년 장교의 출세인 육군대학을 졸업한 후 참모직으로 일하다가, 독일 주재 무관으로 파견되어 전쟁사와 전략공부를 하고, 군사학을 배워 유럽전술이론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니치렌슈(日蓮宗)의 신자로서 ‘일본이 다가올 세계대전 이후 황금시대에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는 교리를 확신하고 ‘일본이 황인종의 중심이 되어 백인종의 시대를 종식할 것’이라 믿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승진을 거듭했으나 1937년 중국 본토 확산불가론을 주장해 좌천당했다가 1941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판한 이유로 군에서 강제 예편 당했다.

그의 최종전쟁론은 소련을 패배시킨 후, 서양 각국의 식민지인 동남아시아를 ‘해방’한 후 미국과 대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당시 일본 국력으로 볼 때 중국 전선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일전쟁을 반대했고, 대미전쟁 발발 이후에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과 일본이 양대 강국이 되고 다른 모든 나라도 가세해서 항공기로 단숨에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세계 최후의 전쟁이다. ... 일본 본토가 한 푼도 돈을 쓰게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쟁해야 한다. 대 소련 작전은 몇 개 사단이면 충분하다. 전 중국을 근거지로 하면서 중국을 잘 이용한다면 일본은 20년, 30년이라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

이시와라 간지의 발표 내용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의 진영으로 나뉘어 항공기 결전을 치르는 ‘세계최종전쟁론’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근거지로 삼아 그 자원을 이용해 지구전을 펼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과 벌이는 최종전쟁의 시기를 1965년경으로 예상했다.¹²

이시와라의 제안은 엄청난 전비가 필요한 총동원 전쟁 준비에 고민하던 육군에게 명쾌한 해법이였다. 일본 본토가 한 푼의 돈도 쓰지 않는 방법(중국 침략)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시와라는 이후에도 나폴레옹의 주장인 ‘전쟁으로 전쟁을 지속한다’를 강조했다. 점령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물자와 무기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시와라의 제안에 육군 엘리트 장교들은 “만몽을 취하고 시베리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네모토 히로시(根本博) 참모본부 지나반장]”거나 “30년 내 만몽을 취해야 한다[스즈키 데이이치(鈴木貞一) 육군성 군무국 지나반장]”고 호응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도 1928년 3월 목요회 발표를 통해 “만몽에 완전한 정치적 권력을 차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련과의 전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¹³

3.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선택한 일본

1) 현실이 된 ‘세계최종전쟁론’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로 나왔다. 여성 노동자가 군수공장에서 만든 총알이 없었다면, 전선의 포성 소리는 빨리 그쳤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탱크가 등장했고, 항공기의 효과를 실감한 전쟁이자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참혹한 전쟁이었다. 민간인을 포함해 약 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인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군부는 전쟁만이 자립경제를 이루는 길이라 착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관료들이 지지하자 군부는 용기를 냈다. 맨 앞에 선 이시와라 간지는 일본 육군 관동군 참모 자격으로 만주 침략에 나섰다.

¹² 박영준,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277쪽.

¹³ 가토 요코 저,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303~305쪽.

만주는 일본의 상품시장 확대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소련이나 미국과 전쟁을 고려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요충지였다. 관동군은 만주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필수적 과정이라 판단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 후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관동주의 방비와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은 중동 철도의 남쪽 지선인 남만주철도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동군을 파견하고 있었다. 이시와라는 이 병력을 이용해 만주 침략을 감행했다.

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은 평톈(奉天, 현 선양; 瀋陽) 부근 류타오거우(柳條溝) 등지에서 ‘조작 만주철도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만주사변이라 부르는 침략전쟁이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1931년 9월 18일 오후 10시경 누군가가 만주철도의 선로를 폭파하고 일본 수비대를 습격’했다고 발표했고, 관동군은 ‘누군가’가 중국군이라며 즉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외무성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고, ‘누군가’는 중국군이 아니었다. 당시 선양에 있었던 모리시마(森島) 영사는 전쟁이 끝난 후 발간한 저서에서 만주사변은 ‘관동군 참모였던 이시와라 간지 중좌(중령에 해당)와 관동군 정보계 수장이었던 이타카기 세이시로(板垣征四郎) 대좌(대령에 해당)가 모략을 사용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 만주 침략 보도기사(『동아일보』, 1931년 9월 20일자)

9월 18일 군사행동을 시작한 관동군은 5일 만에 라오똥(遼東)·지린(吉林)성을 점령하는 등 파죽지세로 밀고 나갔다. 9월 21일에는 독단적으로 조선 북부에 있던 조선군(조선에 주둔한 일본군)까지 파견했다. 9월 19일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총리는 미나미 지로(南次郎) 육군 대신에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는 방침’을 지시했다. 그러나 확전을 막지 못했고, 내각은 12월에 사직했다.

관동군이 총리의 지시를 거스른 배경에는 천황과 일본의 여론이 있었다. 22일, 군 통수권자인 쇼와(昭和) 천황은 21일에 있었던 조선군 파견을 추인하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 주의하라”고 했다. 육군 대원수인 천황 자신도 모르게 일으킨 관동군 장교들의 독단 행동을 용인한 것이다. 1932년 1월 8일에는 ‘관동군 장병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칙어를 내렸다.

만주 침략이 일어나자 일본의 유력 신문들은 일본군의 행동을 찬미하는 기사와 사진으로 도배하며 전쟁 열기를 부추겼다. 이러한 언론 활동은 만주 침략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 여론을 형성했다.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중들은 새로운 탈출구가 마련된 듯 환호했다. 특히 1929년 경제공황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었던 농민들의 호응은 매우 컸다. 1930년 당시 농민은 일본 인구의 46.8%를 차지했다.

관동군이 만주를 어렵지 않게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항공력의 증강이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항공기의 중요성을 파악했고, 육군과 해군에 항공부대를 창설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국민당 정부 주석이자 육·해·공군 총사령관인 장제스(蔣介石)의 대응 문제였다. 장제스는 만주에서 군사행동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본거지를 토벌하기 위해 30만 명의 국민당군을 동원해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중국공산당 홍군(紅軍)과 전투를 벌이던 그는 전투행위 대신 일본의 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국제연맹에 제소하고 구미 열강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의 침략을 국제 여론으로 견제할 수 있고 후일 중일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 관심을 국제연맹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장제스는 군사·행정적으로 동북 3성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쉐량(張學良)의 권력을 약화하는 방법으로 정권 유지에 활용하고자 했다.

만주사변은 군 상부의 보고나 명령도 없이 일으킨 독단 행동이었다. 명령체계가 목

숨같이 중요한 군에서 이들의 독단 행위는 항명이었다. 그러나 이시와라는 처벌 대신 승진을 거듭해 우익 청년 장교들의 우상이 되었고, 육군의 항명은 혈맹단 사건이나 5·15사건(1932년 5월 15일에 일어난 일본 해군 내 극우 청년 장교를 중심으로 한 반란 사건) 등 이후 계속 발생한 군부의 쿠데타와 독단 행위의 문을 열었다. 15년에 걸친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은 이렇게 일어났다.



❖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의 최대 영역도(출처 :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9)

천황의 용인과 여론의 지지 속에 관동군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군부는 1932년 3월 청조의 폐제(廢帝)였던 푸이(溥儀)를 국가원수인 집정으로 삼아 만주국을 건국하고 중국에서 분리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가로 관동군사령관의 지배 아래 중국 침략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만주국의 각 대신은 만주 주민이 취임했으나 실제로는 관동군사령관의 지배 아래 일본인 관리가 실권을 장악했다.¹⁴

14 김봉식, 『인물로 보는 일본 역사11 - 고노에 후미마로』, 살림, 2019, 13쪽.

2) 만주를 넘어 중국 본토로

일본군은 만주국 지배에 만족하지 않고 국지전을 벌여 영역을 넓혀나갔다. 만주국 건국 직전인 1931년 10월에 관동군은 랴오닝(遼寧)성 서부의 공업도시인 진저우(錦州)를 공습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낸 후 1월 진저우를 점령했다. 진저우 공습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처음 일어난 도시폭격이었다. 이 폭격에 세계는 경악했으나 쇼와 천황은 “당시 정황상 당연한 일”이라 발언했다. 1932년 1월 일본군은 상하이(上海)사변을 일으켜 일본 파견군을 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하이 파견군은 1932년 3월 총 17개 해군위안소를 설치 운영했다.¹⁵ 1932년 2월에는 관동군이 만주국 북쪽에 있는 하얼빈을, 1933년 1월에는 허베이(河北)성 북동쪽 산하이관(山海關)을 점령했다. 같은 해 2월에는 만주국 남쪽,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러허(熱河)성을 침공했다. 이렇게 만주국 국경을 넘어 일본군은 행보를 확장했다.



❖ 관동군이 소련 국경인 동녕(東寧)에 구축한 지하군사시설 지 입구(2006) ❖ 견고한 동녕 지하호 내부(2006)

일본 군부가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만주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소련이 있었다. 일본은 미국과 벌이는 세계 최종전쟁의 걸림돌로 소련을 상정하고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만주국 소련 국경에 십여 년에 걸쳐 대규모 군사기지를 마련했고, 외교에 노력을 기울여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5 정혜경,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연표』, 도서출판 선인, 2018, 69~71쪽.

1931년 만주 침략 당시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었던 소련은 5개년 중화학 공업화 계획에 성공하면서 극동의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다. 일본 육군이 파악한 1934년 일본의 항공기수는 소련의 30%에 그쳤다. 불안감을 느낀 일본 육군은 만주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에서 소련군을 효율적으로 격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935년 '화베이(華北) 분리 공작'을 수립했다. 만주국 서쪽이자 만리장성 이남의 화베이는 당시 엄연히 중국 영토였는데, 이 지역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둔 다음 비행장에 일본군 전투기를 배치하려 한 것이다. 화베이 분리 공작은 베이징을 포위하고 화중 지역과 경계선을 맞대는 정도의 큰 영토적 확장이었다. 공작은 성공했으나 후유증을 남겼다. 중국국민당 정부와 대립각을 높인 것은 물론, 일본의 대중 무역은 감소했다. 당시 중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화중 지역과 상하이, 항저우 등은 만주·화베이 지역과 밀접한 경제 관계 속에서 번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베이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자 화중의 경제력이 약화되어 일본이 담당하던 대중 무역은 독일과 소련의 차지이 되었다. 화베이를 차지한 육군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3) 중일전쟁

중일전쟁은 우발적으로 시작되었다. 화베이 분리 공작으로 일본군이 베이징을 포위해 양국 군대가 베이징에서 대치한 상태에서 1937년 7월 7일 야간 충돌이 발생했다. 우발적으로 중국군이 일본군 1개 중대 머리 위로 총탄 10여 발을 발사한 사건이 생기자 일본군은 7월 8일 아침 루거우차오(盧溝橋, 노구교)를 수비하던 중국 제29군을 공격해 하루 만에 다리를 점령했다. 양측은 7월 11일 협정을 맺고 덮어 두기로 했으나, 전쟁 발발의 구실을 찾던 일본군 상부는 이 사건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다.

일본 내각도 힘을 보탤다. 7월 11일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은 일본 본토에서 3개 사단, 만주에서 2개 여단, 조선에서 1개 사단을 파견해 병력 증강을 결정했고, 중국 본토 침략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각의 방침에 힘입은 일본 참모본부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낸다'는 전략 아래 7월 28일 전면 침공을 개시함으로써 중국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내각은 8월 13일 각의결정을 통해 육군의 상하이 파견을 결정하고 8월 15일에는 전면 전쟁 개시를 선언했다. 각의결정과 동시에 해군항공대가 난징(南京)과 난창을

공습해 많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중일전쟁 발발 당시 육군 참모본부 작전부장이었던 이시와라 간지는 확전을 반대했다. 그는 전선의 확대는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만주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이 쳐들어오는 날에는 만주마저 잃을 수 있었고, 장기전을 치르기에는 인구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일본 수뇌부는 중국군의 완패를 확신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시와라 간지가 걸었던 길은 후배들을 자극했다. 후배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으킨 행동(만주사변)으로 출세한 선배가 부러웠다. 중국 침략의 길이 천황을 기쁘게 하는 길이자 일본 민중이 원하는 길이라 생각했다.¹⁶

일본 민중들은 군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답했다. 거리에 나가 환호했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일본의 국가체제를 바꾸어놓았고, 일본은 전시(戰時)를 맞았다. 당시 일본은 장기전을 치를 만한 국력이 아니었다. 인구도 적었고 물자나 자금, 석유도 부족했다. 이전에 일본이 승리를 경험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1년 이내의 전쟁이었다. 기습을 통한 기선제압 전략이 먹힌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독일령을 공략할 때도 단기전이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은 달랐다. 개전 초기 육군은 전쟁을 3개월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전시의 한복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일본 군부나 정부는 중국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하면 중국 정부가 항복해서 전쟁은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전황은 일본의 예상을 비껴갔다. 일본군이 1938년 10월, 한커우(漢口)·우창(武昌)·간요(漢陽) 등 우한(武漢) 3진을 점령하고, 1939년 2월 남부 하이난도(海南島)를 차지한 후 전선은 정지 상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 국력의 문제와 함께 중국의 대응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936년 중국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한 후 대일항전에 나섰으므로 전력(戰力)이 강해졌다. 중소불가침조약(1937.8.)을 맺은 소련은 중국에 전투기 924대, 자동차 1,516대, 대포 1,140문, 기관총 9,720정과 지원병 형태의 소련인 조종사를 보내 지원했다. 미국도 1938

16 가토 요코 저,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279-345-346쪽.

년 12월 2,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지원했다. 일본군은 갑자기 넓어진 전선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중국 내륙까지 물자와 무기를 공급하기도 버거웠다.

식사 문제도 중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은 야전취사차를 도입해 병사들에게 4~5시간의 휴식 시간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주로 병사 개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밥통으로 해결하는 취사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병사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강요함과 동시에 점령지 민중에게 커다란 재액을 가져다주었다. 군 수뇌부가 현지 보급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연료나 식량을 민가에서 약탈하는 것이 야전에서 병사의 일상이 되었다. 중국 민중들은 일본군을 ‘황군(皇軍, 천황의 군대라는 의미)’이 아닌 ‘황군(蝗軍, 메뚜기 부대)’이라 불렀다. 일본군이 통과한 곳은 메뚜기가 지나간 곳과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조롱이었다.

보병 제33연대의 소집병이었던 다카시마(高島)의 일기를 보자.

“비는 내리고 밥통으로 취사하는데 땀나무가 없다. 닥치는 대로 집을 부수어 불을 댐다 (1937년 11월 17일)” “빗장이나 가구를 부수면 양민이 곤란하다. 그렇지만 땀나무가 없으면 밥을 지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1938년 9월 21일)¹⁷

닥치는 대로 민간인의 집을 부수고 식량을 약탈했으나 중국 전선에서 일본 병사들의 절반은 굶어 죽었다. 군사사 연구자인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아사(餓死)하는 명령』(2001)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전사 일본군 230만 명 가운데 반 이상은 광의의 아사자라고 추정했다.

중국 전선이 고착되면서 환호하던 민중은 돌아섰다. 민중들은 일본의 명예·영광과 함께 평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길어지는 전쟁은 민중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희생을 요구했다. 한커우 점령 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 기대하던 민중들은 어려운 통제와 일상을 조이는 불편함에 실망했다. 배급 제도는 식량과 설탕, 간장 등 모든 먹거리에서 양말, 수건 등 모든 일용품으로 확대됐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매달 배급통장에 정해진 양만 살 수 있었다. 일상의 불편함이 늘어나자 전쟁에 대한 염증은 높아졌다. 정책을 지지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분위기는 예전만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군부의 고민은 있었다. 난징 함락 후 중국국민당 정부가 항복을 거부하고 충칭(重慶)으로 수도를 옮기며 장기전에 들어가자 일본 군부는 전쟁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육군성은 강력히 반발했으나 소련의 동향을 우려하던 참모본부는 중일전쟁을 빨리 수습하고 소련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노에 총리는 육군성의 편을 들었다. 전쟁 중단과 화평협약이 대외적으로 일본이 약해졌다는 이미지를 전파하고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¹⁸

장기전을 결정한 일본 육군은 모든 제국 일본 영역의 민중과 물자, 자금을 전쟁에 동원하는 시스템을 강요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1938년 2월 만주국에서 시작해 4월 일본에서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이다. 이 법 제정으로 일본 정부는 제국의회 승인 없이 인적·물적·자금을 통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전선은 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

4) 대미전쟁, 패배를 껴안은 일본

미국은 1939년 1월 대일 항공기와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지나친 공습과 폭격으로 유럽과 미국의 비전투원 피해는 그치지 않았다. 1937년 8월 말 일본 전투기가 난징에 기관총을 난사하는 과정에서 허게슨(Hugh Knatchbull Hugessen) 주중 영국대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9월 21일 난징 폭격에서도 서구 민간인의 피해가 있었다. 12월 13일 일본군 선도부대가 난징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항공기 공격으로 미국 군함 파나이(Panay)호가 침몰해 수십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¹⁹

이 사건에 대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격분했으나 이후에도 일본 항공기의 미국이나 유럽 선박 공습 사례는 그치지 않았다. 미국이 판매한 석유가 유럽과 미국인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자 세계 여론은 나빠졌다. 미국과 관계 악화는 일본에 타격을 주었으나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먼저 일본은 1940년 5월 독일의 공격에 프랑스가 항복하자 무주공산이 된 동남아 지역의 프랑스령

17 요시다 유타카 저, 최혜주 역, 『일본의 근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 논형, 2005, 168쪽.

18 김봉식, 『인물로 보는 일본 역사11 - 고노에 후미마로』, 살림, 2019, 20쪽.

19 마이클 A. 반하트 저, 박성진 이완범 역, 『일본의 총력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86쪽.

인도차이나 지역(베트남 북부 지역)에 눈독을 들였다. 그해 9월 30일 일본 육군은 프랑 스령 인도차이나 북부 지역에 무력 진주하고, 동남아 지역 전체를 장악할 계획을 수립 했다.

1941년 4월 22일 독일의 소련 침공과 1941년 4월 13일 소련과 불가침조약 체결로 소 련의 침공 가능성이 줄어들자 일본은 대미전 준비에 주력했다. 7월 2일 어전회의에서 영 국과 미국, 소련, 중국 등 4개국과 전쟁을 상정하는 내용(정세의 추이에 수반하는 제국 국책 요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연합국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프랑 스와 인도차이나 주둔 협정을 체결하자 7월 25일 미국은 자국 내 일본 자산 동결에 들어 갔다. 영국(26일)과 네덜란드(27일)도 일본 자산 동결에 들어간 후 8월 1일 미국은 대일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전쟁은 성큼 다가왔다.

1941년 10월 2일 미국이 일본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중국에서 철병을 요구하는 각서를 전달하자 11월 5일 일본 어전회의는 대미교섭최종안을 결정하며 대미전에 대비 했다. 어전회의 결정에 따라大本營²⁰은 미국·네덜란드·영국을 대상으로 작전준 비하령을 내렸다. 11월 26일 헐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대미교섭안을 거부하자 일본은 기 다렸다는 듯 12월 1일 어전회의를 열어 개전을 결정했다. 12월 8일 오전 2시 15분 육군이 영국령 말레이반도를, 오전 3시 19분 해군이 미군의 해군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 면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에 돌입한 후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 했다. 태평양전쟁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오전 6시 라디오가 보도한大本營 육해군부 발표의 첫 문장은 “제 국 육해군은 오늘 8일 미명(未明), 서태평양에서 미국·영국군과 전투 상태에 들어갔다” 이다. 그리고 그날 천황은 선전(宣戰) 조서를 내렸다.

개전 당시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일본의 12배 정도였다. 중화학공업과 군수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은 일본의 12배, 자동차 보유수는 160배, 석유는 776배나 되었다. 누가

보아도 열세였다. 그런데 군부는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 국민을 결속시키고자 위기를 강 조하며 민중을 선동했다. 선동은 통했다. 선전 조서를 접한 일본 민중들은 “감동에 몸을 떨면서 무지개처럼 흐르는 한 줄기 빛의 행방을 지켜보았다. …… 일본 국민의 결의는 하나로 불타올랐다. 상쾌한 기분”이라며 감격을 나누었다.²¹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군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자바, 버마 등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다. 그러나 1942년 6월 5일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일본군의 불패 신화는 무너졌고, 1944년 6월 마리아나 해전으로 전쟁은 결판이 났다. 마리아나 제도를 미군이 차지하면서 일본이 만든 비행장은 미군 손에 넘어갔고, 일본 본토 공습이 시작되 었다. ‘제국의 하늘’이라는 일본 본토의 상공이 뚫리면서 매일 퍼붓는 미군 비행기 B-29 의 소이탄 공격으로 일본 전역은 불바다가 되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 탄 투하에도 버텼으나 8월 7일 소련이 참전하자 8월 9일 포츠담선언 수락을 발표하고 14일 쇼와 천황이 서명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 도쿄대공습전쟁자료센터에 전시된 일본 열도를 불태운 소이탄 모습(2010, 사진 수요역사연구회)

20 전시 중이나 사변(事變) 중에 설치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大本營 명령(大本營 육군부 명령(大陸命),大本營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도 설치했다가 패전 후 해산하였다. 그 후 1937년 11월 20일 고노에 총리가 설 치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존속하였다.

21 가토 요코 저,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360~365쪽.

일본이 패배를 꾀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민중은 물론, 식민지와 점령지 민중들은 고통을 당했다. 1941년 4월부터 일본 6대 도시에서 쌀 할당 배급제를 실시했다. 1941년부터는 어류, 1942년 2월부터는 의료품과 간장·된장류 등도 모두 배급 품목이었다. 설탕과 성냥은 1940년 6월부터 배급 품목이었고, 그나마 미군이 일본 열도와 점령지를 해상봉쇄한 후부터는 구경하기도 힘들었다.

매일 배가 고파서 배의 벌레가 쪼르륵 쪼르륵 말해서 기분이 나빠 잘 수가 없습니다. 발리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국민은 기아 때문에 모두 병이 들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가망이 없게 됩니다. 쓸쓸히 사는 것이 싫어집니다.(도쿄 남자)

1944년 1월 일본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다. 외사과는 1943년 10월 이후 도쿄 주변에서 중국이나 만주에 보낸 외국 우편을 검열해 ‘통신 검열에서 보는 최근의 식량 사정과 국민사상의 동향’을 정리했다.²² 남성 외에 여성의 노동력도 동원했다. 일본이 이 정도였으니 식민지와 점령지 민중의 고통은 어떠했겠는가.

| 제2절 | 공출당하는 한반도

1. 전쟁이 터졌다

1) 일본 국가권력이 수행한 강제동원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만주사변(1931)·중일전쟁(1937)·태평양전쟁(1941)으로 이어진 침략전쟁이다. 일본은 일본 본토와 식민지 및 점령지, 전쟁터에서 다수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했다. 강제동원이다. 강제동원은 전시동원이며, 당시 일본이 점유한 모

22 요시다 유타카 저, 최혜주 역, 『아시아태평양전쟁』, 어문학사, 2013, 151쪽.

든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²³ 강제동원을 위해 당국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국가총동원법」은 법조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각종 통제 법령을 통해 국가총동원체제를 운용했다.

표 2 「국가총동원법」의 조선 적용 과정²⁴



23 일본 학계에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를 포함한 15년 전쟁을 ‘광의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이후를 ‘협의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 구분한다(요시다 유타카, 『아시아태평양전쟁(최혜주 옮김)』, 어문학사, 2012, 12쪽).

24 小林英夫, 「총력전 체제와 식민지」,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최원규 역음)』, 청아출판사, 1988, 58쪽.

2) 강제성이란

전시 강제동원은 몇몇 정책 수행자들의 자의적 행위가 아니라 일본 국가권력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수행한 업무였다. 당국은 행정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동원 대상에는 한반도와 조선 민중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⁵

이러한 점에서 한인 동원과 관련한 강제성 문제는 논란이 필요 없으나 논란이 있다. 주로 일본 정부와 정치가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와 한국의 역사부정론자들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당국이 전쟁 당시 공표했던 법과 제도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시 조선은 식민지였으므로 ‘식민지민인 한인이 식민 모국인 일본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에게 1910년 강제병합은 합법적 행위였다.²⁶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포승줄로 꿰여 가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무슨 강제’냐는 주장이다.

납치당하듯 끌려간 사람은 많았으나 나오라는 날짜에 맞추어 자기 발로 집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피할 방법이 없거나 속아서 그랬다. 항구와 역에 경찰이 나오기는 했으나 포승줄로 묶지는 않았다. 군대에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도 있었다. 모두 전시엔 강제동원된 사람들이다.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도, 일본 변호사협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규정했다.

한국 현행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특별법 제2조 제1항)이다. 한국과 일본 학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조문이다.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규정한 강제성이란, ‘신체적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 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에 의한 동원’이다. 2002년 일본변호사협회는 “강제란 육체적 정신적 강제를 포함하며, 이 개념은

25 강제동원(인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혜경, 『조선청년이며 황국신민이 되어라』(서해문집, 2010); 정혜경,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연구 II』(도서출판 선인, 2011);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도서출판 선인, 2014); 허광무 외, 『일제강제동원 Q&A(1)』(도서출판 선인, 2015)을 참조하였다.

26 이에 대해서는 정혜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20, 102~10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9세기 말에는 국제적으로, 20세기 초에는 일본 국내적으로 확립”되었다는 내용의 권고 보고서를 발표했다.²⁷ 그런데 이 내용은 학자나 변호사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1940년대 일부 지역에서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한 많은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정부 또한 요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More specifically,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의 공식 발언이다. 사토 대사는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조선·석탄산업’ 등재 대상 23개 시설 가운데 7개소 5개 작업장(미쓰비시광업,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미쓰이 미이케탄광,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이 강제동원 피해 관련 장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 사토 대사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므로 이 발언은 가해국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한 최초의 강제성 인정이자 일본의 공식 입장이다.

2. 한인을 공출하라!

1) 인력동원 피해 규모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당시 일본이 통치하던 모든 영역의 사람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해 치른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과 물자, 자금도 동원되었다. 세 가지 강제동원 피해 가운데서 한국 사회가 강하게 인식하는 피해는 인력이다. 일

27 洪祥鎭, 『朝鮮人強制連行の概念』, 『季刊 戦争責任研究』39, 2003, 34쪽.

본당국은 연인원 780만 명이 넘는 한인을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반도와 일본, 남사할린, 중부 태평양과 동남아, 중국 관내와 만주로 동원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2015.12. 폐지)가 산출한 인력 동원 피해 규모는 780만 4,376명(성동원 피해자 제외)이다. 780만 명은 위원회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여러 통계 수치 가운데 최소 수치를 채택했으므로 최소 통계다.

780만 명은 실제 인원이 아니라 중복 동원을 포함한 연인원이다. 피해자 1인이 여러 차례 동원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몇 명이 동원되었을까. 현재 한국 정부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뿐이다.

표 3 강제동원 피해 규모²⁸

		노무자동원		계	군무원 동원		계
한반도 내	도내 동원	5,782,581		6,488,467	일본	7,213	60,668
	관 알 선	402,062			조선	12,468	
	국민징용	303,824			만주	3,852	
					중국	735	
				남방	36,400		
				군인 동원		계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2,217		1,045,962	육군특별지원병	16,830	209,279
	할당모집				학도지원병	3,893	
	관 알 선	823,745			육군징병	166,257	
					해군(지원병 포함)	22,299	
합계				7,804,376			

비고 : ① (합계) 1인당 중복 동원 포함.
 ② (동원 실수) 최소 2,021,995명(한반도 노무자동원 중 도내동원 제외한 수) 이상으로 추산.
 ③ (지역 구분)
 - (국내) 6,552,883명(노무자 6,488,467, 군무원 12,468, 군인 51,948).
 - (국외) 1,251,493명(노무자 1,045,962, 군무원 48,200, 군인 157,331).
 ④ 군무원 총수는 피징용자 동원 수를 제외한 수.
 ⑤ 위안부 피해자 제외.
 ⑥ 군인(병력) 가운데 1945년 8월 기준 한반도 주둔군 숫자는 51,948명.

28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35쪽.

중복 인원을 제외해 200만 명 정도라 해도, 당시 조선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열명에 한 명꼴이니 적은 수가 아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쟁은 군인만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물자와 인력, 그리고 자금이다.

이 중 인력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에서 병사 한 명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필요한 민간 노동력은 13-18명인 것으로 산정했다. 무기는 물론, 옷이나 양말, 신발도 필요했고, 트럭이나 비행기, 군함도 필요했다.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 기계를 돌리려면 석탄이 있어야 하고, 군함과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이 필요했다. 캐넌 석탄이나 군수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화물차와 선박에 싣는 일손도 필요했다. 비행장과 도로, 철도 건설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물자와 노동력을 뒷바라지해야 병사들은 움직일 수 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국은 「국가총동원법」에 동원해야 할 물자의 종류를 규정했다.

표 4 한반도에 부과한 물자동원 내역

근거	내용
국가총동원법(1938.4. 공포) 총동원물자 법조문	①군용물자(병기·함정·탄약 기타) ②피복·식량·음료·사료 ③위생용물자(의약품·의료기계기구 등) ④운수용 물자(선박·항공기·차륜車輪 등) ⑤통신용 물자 ⑥토목건축용 물자 ⑦조명용 물자 ⑧연료 및 전력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 (1938~1941)	• 조선의 광물자원(일본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과 특수광물 등의 군수자원) 획득에 주목 *조선총독부 식산국(광산과·수산과·상공과), 농림국(농무과·축산과·임업과) 담당 •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의 주된 산업은 경금속, 비철금속 등의 금속공업과 철강이라 분류된 광공업, 석탄, 철도차량, 전력, 석유 및 대용품산업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 (1942~1943)	• 1941년 7월 이후 선박 부족으로 인한 선박수송력이 물자동원계획의 큰 틀을 결정했고, 배선(配船) 계획화도 동시에 검토했으나 1942.10. 물동계획 실행이 선박 부족으로 차질을 빚자 육상 수송에 주력해 대륙 물자의 중계 수송, 조선철도를 이용한 육송 등으로 계획을 수정 • 조선은 생산 확충 품목의 22%를 담당
제3차 생산력확충계획 (1944~1945)	•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은 1943년 90% 달성, 1944년 상반기 109%의 성과를 올림 *1944.4.부터 실시한 군수생산책임제와 중요광물 중점증산정책, 군수회사법 시행(조선에서는 1944.10. 시행)의 결과
생산책임제요강 (1944.3.31.)	• 전매 분야(소금·간수·연초·아편·인삼) 추가

「국가총동원법」에 규정한 여덟 가지 총동원 물자는 한반도 민중이 조선 땅에서 감당해야 할 물자였다.²⁹ 이 물자를 공출하기 위해 한반도 민중들도 공출 당했다.

2) 한반도를 공출하라

한반도는 공출의 현장이었다. 사람도 나가고 금붙이도 나가고, 민중의 울음소리만 남은 땅이었다. 2015년 말 기준 위원회 조사 결과, 한인을 동원했던 노무동원 작업장 총 1만 2,095개소 가운데 한반도는 7,467개소로 가장 많다.

표 5 동원 지역별 노무동원 작업장 실태

지역	작업장 수	주요 직종
한 반 도	7,467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일 본	4,119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남 사 할 린	77	탄광, 삼림채벌장,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태 평 양	112	광산, 군공사장, 항만운수,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농장
동 남 아	4	공장(제철소), 농장
중 국 만 주	316	탄광,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농장
합계	12,095	

(단위 : 개소)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한인 동원 통계를 보면, 한반도 내 노무동원 피해자(648만 8,467명)는 한반도 외 노무동원 피해자(104만 5,962명)의 4배가 넘는다. 1인당 중복 동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많다. 당시 한반도의 영토 규모나 인구는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니 조선 땅에서 펼쳐진 가혹했던 수탈을 짐작할 수 있다.

29 허광무 외, 『일제강제동원 Q&A(1)』, 도서출판 선인, 2015, 198쪽.

표 6 노무동원 규모

국민징용		할당모집, 관알선					
일본	한반도	남방	일본	한반도	남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222,082	303,824	135	798,043	6,184,643	16,113	5,931	3,658
526,041		7,008,388					
합계 7,534,429							

(단위 : 명)

한반도에 많은 노무동원 작업장과 피해자 통계가 확인된 이유는 한반도가 침략전쟁을 위한 기지였기 때문이다. 한강 이북 지역 군수공장에서 생산된 군수물자는 주로 중국과 만주 전선으로, 이남에서 만든 군수물자는 일본으로 보냈다. 미군의 해상봉쇄로 물자 수송이 어려워지자 인천에서 물자 수송용 잠수함을 만들기도 했다.³⁰ 조선의 공출 품목에는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많았지만 링거액 같은 약품도 있었다. 이같이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 부과한 의무는 무거웠다.

군인과 군 소속 민간인도 필요했다. 조선 땅에도 많은 군부대와 군인이 있었다. 해군 부대가 있었던 진해는 물론, 서울과 인천, 대구, 수원, 대전, 여수, 목포, 평양, 원산, 청진, 함흥 등지 대도시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2018년 12월 현재 확인한 일본군 부대는 13개도의 924개소다. 보병 외에 고사포부대와 해군도 있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주둔했을까. 1945년 8월 기준으로 5만 1,948명이 조선에 주둔했다는 연구가 있다.³¹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들은 군인(지원병, 징병)이지만 군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군시설(지하시설물, 비행장 등)을 만들기 위한 민간인(군무원軍務員)도 있었다.

3) 규모도 알 수 없는 물자와 자금 공출

아시아태평양전쟁 동원 대상은 인력만이 아니라 물자와 자금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30 1944년 8월 (주)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이 군의 명령에 따라 육군에 인계한 잠수함 4척을 지칭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산한 잠수함은 10여 척이 넘었다. 김재근, 『등진불-牛岩隨想集』, 정우사, 1985; 「병기증산에 수범 - 조선기계제작소 표창」, 『매일신보』, 1945년 1월 8일자.

31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중에서 해당 통계를 합산하였다.

1918년 물자동원 관련법(4.17. 「군수공업동원법」 제정. 10.1. 공포 시행. 조선과 타이완에 도 적용)을 제정하고, 1929년 자원통제운용계획을 수립했다. 당국은 이 계획을 토대로 중일전쟁 후에 물자동원 제도를 정비해 국가총동원법안준비위원회를 설치(1937.11.)했고, 1938년 1월에는 최초의 물자동원계획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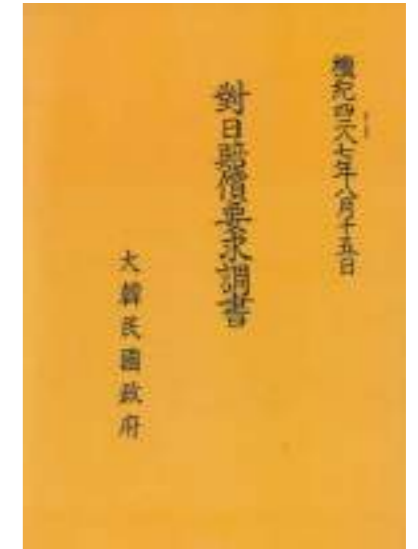
당국은 이 정책을 조선에도 적용해 1930년부터 조선총독부 차원의 제도를 수립하고 운용했다. 조선자원조사위원회 규정을 만들고(1930.6.9.), 250여 개 대상 품목 생산액 등을 조사했다.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물자동원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1937년부터 관련법 14건을 제정·공포했고, 전담 기구를 설치해 업무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의 자금통제제도는 1937년 「임시자금조정법」을 제정하면서 시작했다. 1939년 자금통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수요계획·자금축적계획·공채계획 등 3요소를 구성해 운영했다. 조선총독부도 임시자금조정법의 조선 시행(1937.10.14.), 금융통제기관 설립(1937.10. 조선자금자치조정단, 1938.12. 조선금융단)을 통해 실행했다. 1936년부터 강제저축을 실시했으며, 1937년 8월 폭리단속령을 시작으로 각종 법령에 따라 가격 통제에 나섰다. 그렇다면 한인들이 입은 물적·자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 차원의 조사나 공식 피해 결과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다만 한국 정부가 청구한 자료가 있다.

1949년 2월 정부가 기획처 기획국에 설치한 대일배상청구위원회가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이다. 이 자료에 기재된 규모는 총 314억 97만 5,303엔(인적 5억 6,512만 5,241명, 물적 113억 2,602만 2,105엔, 자금 174억 2,936만 2,305엔, 부정행위 손해액 2억 3,158만 5,215엔)이다. 여기서 인적 피해보상금 5억 6,512만 5,241엔을 제외하면 물적·자금 피해 규모는 289억 8,696만 9,625엔이 된다.³²

1961년 한일회담 당시 한국 측이 제시한 물적 피해와 자금 피해 보상 규모는 지금(地金 2억 4,663만 3,199g)·지은(地銀 6,754만 1,771g)을 비롯해 총 14조 4,868억 128만 3,416만 엔(일부 항목 유보)이었다. 그러나 이 피해 규모는 의미 없는 수치일 수 있다. 전수조사의 결과도 아니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다. 1965년 한일회담은 경제협력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 측의 요구와 무관한 결과였다.

32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중앙청 등사실 인쇄), 1954, 523쪽. 상세한 내용은 이상호, 「대일배상요구조서해제」(『한일민족문제연구』35, 한일민족문제학회, 2018)를 참조하기 바란다.



❖ 대일배상요구조서 표지(이상호 제공)

3. 인력동원의 종류별 동원 현황

1) 노무자가 된 한인

(1) 공출되는 전시노무이입자

인력동원 가운데 다수는 노무동원이다. 780만 4,376명 가운데 노무동원 규모는 753만 4,429명이다. 노무동원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정책적·조직적·집단지·폭력적·계획적으로 동원한 각종 산업 현장의 인력을 의미한다. 당시 문서에서는 ‘전시노무이입자(戰時勞務移入者)’나 ‘공출(供出)’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전시노무이입자란 ‘전시기에 노무자로 일본에 들어온 사람’을 의미하고, 공출이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의미다.

공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다. 1순위는 ‘끌고 가는 사람’이었다.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 정책결정자들이었다. 쌀을 공출할 토지를 가진 농민도 제외 대상이었다. 그럼 누가 공출되었을까. 토지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끌고 갈 권력이 없는 사람. 동네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공출되었다.

노무자로 동원한 지역은 한반도·일본·중국(만주, 중국 관내, 해남도)·남사할린·동남

아시아·중서부 태평양·타이완이었다. 직종별로는 군수공장·군공사장·토목건축현장·석탄광산·금속광산·항만운수 시설·집단 농장·기타(염전 등) 등이 있다. 이 중 석탄광산으로 간 사람이 가장 많았다. 아이들과 여성들도 동원했다. 직종에 따라 노동 실태는 달랐다.

당국은 일본 정부 책임 여부에 따라 동원 경로를 모집(1938.5.~1945.6.), 국민징용(1939.10.~1945.6.), 관알선(1942.2.~1945.6.)의 세 종류로 구분했다. 동원 규모(중복 인원)를 보면, 징용은 52만 6,041명이고, 모집과 관알선이 700만 8,388명이다.

세 가지 동원 경로의 공통 사항은 모두 공권력으로 집행했다는 점이다. ‘한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일본 기업)가 신청한 인원수를 일본 정부가 조정해 배당하고, 조선총독부와 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부처, 조선총독부, 남양청 등 통치기관이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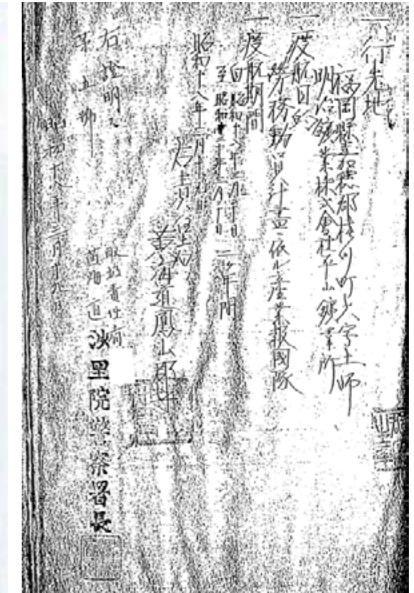
(2) 노무동원 경로 세 가지

세 가지 노무동원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징용(1939.10.~1945.4.)이란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생활을 박탈해 특정 직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용이라는 수단은 국가의 책임을 수반하며 사무절차도 단순하지 않았다. 국민징용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절차가 매우 복잡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정부로서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인력 확보라는 목적만 달성된다면, 다른 경로(모집, 관알선)를 더 선호했다. 초기에는 일본인이든 한인이든 특수한 기술직이 대상이었고, 규모가 작았다. 대규모로 동원한 것은 제3차 국민징용령 개정(1943.7.20. 공포, 8.1. 시행, 조선과 대만, 남사할린, 남양군도에서는 9.1. 시행)에 따른 1944년부터였다.

둘째, 모집(1938.5.~1945.6.)은 1910년대부터 조선에서 널리 사용하던 방법을 국가총동원기에 활용했다. 일본 기업이 파견한 모집원이 조선총독부가 할당한 지역에 가서 인솔하는 방식인데, 통첩이나 국민근로협력령 등을 통해 시행했다. 조선총독부는 모집 대상지역을 가뭄 등 천재지변의 피해지역을 우선 지정했다. 행정 당국은 서류 심사에 기초한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지방행정기구의 직원이나 경관을 내보내 기업 담당자와 함께 모집에 나섰다. 한반도 외 지역으로는 1939년부터 시작되었다. 노무자 인솔과 수송은 관할 경찰서의 몫이어서 경찰이 인솔했다.

셋째, 관알선(1942.2.~1945.6.)은 1942년 2월 13일 일본 내각이 정한 각의결정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을 근거로 7월부터 시행했다. 동원과 수송에 조선노무협회, 직업소개소 등을 활용했으나 여전히 지방행정조직의 역할이 컸다.



◆ 노무자 수송을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가 발행한 도항증명서(출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 사진으로 보는 재일코리아 100년』, 明石書店, 2008)

◆ 1943년 3월 19일에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의 한인을 후쿠오카현에 있는 메이지(明治)광업(株)탄광으로 보낸다는 경찰서장의 공문(이때 떠난 한인은 105명이었다)(출처: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하피징용자명부』)

이 세 가지 동원 경로의 차이는 무엇일까. 흔히들 모집 → 관알선 → 국민징용의 순서대로 단계별로 강제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강제성은 동일했다. 모집이나 관알선도 노무자를 선정하는 작업부터 기차와 배에 태워 보내는 과정까지 모두 도·군·면의 직원(노무계와 면서기)과 마을 이장, 그리고 경관의 몫이었다. 특히 노무자 인솔과 수송은 관할 경찰서의 몫이어서 경찰이 인솔했다. 1943년 3월 19일에 일본 메이지광업(株)가 모집한 한인 105명을 보내는 책임자는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경찰서장이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사고나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였다. 징용은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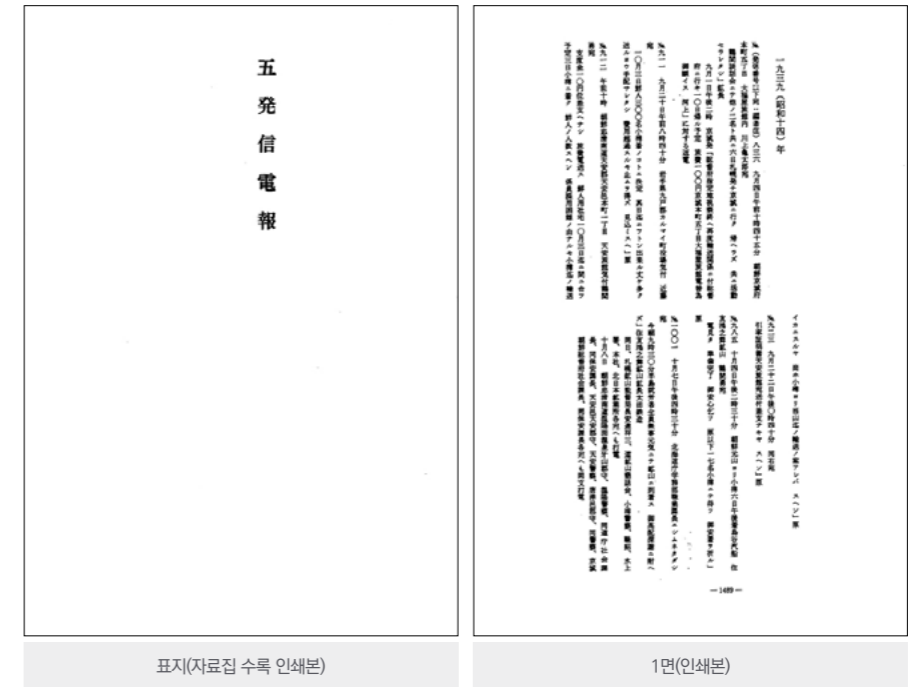
사고나 사망 부조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식량이나 수송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비해 모집과 관알선은 사고나 사망에 대한 부조금은 기업이 해결했다. 그런데 그 돈은 회사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노무자들도 모르게 각종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급에서 일괄 공제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심산이었다.³³

기업 입장에서 모집은 큰 이득이었다. 동원한 노무자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구매 방식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했고 노무자의 착취를 방임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노무자를 부려 생산량을 높이면 정부에서 받는 돈이 늘어나 이득이 커지므로 당연히 착취하게 되었다. 기업은 노무자를 데려오는 데 들어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했다. 연락선 승선비, 기차삿 등 교통비, 숙박비, 부산에서 입힌 국민복값을 임금에서 공제했다. 회사 모집인이 경성에서 묵었던 여관의 숙박비와 조선총독부 관리들에게 쓴 접대비도 한인 노무자 몫이었다. 물론 당사자는 모르는 빛이었다. 이들이 짊어진 빛은 ‘선대금(先貸金)’이라고 불렀다.³⁴

이런 사실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스미토모(住友)광산 주식회사 고노마이(鴻之舞) 광산의 모집인이 경성에서 본사로 보낸 ‘발신전보’라는 자료가 있다. 발신전보는 매일 사용한 접대비 내역을 빠짐없이 적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1년 12월 21일 242명을 데려오는 데 들어간 접대비용은 ‘8,300엔’이나 되었다.

33 상세한 이유는 정혜경 외, 『반대를 논하다-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 도서출판 선인, 2019, 38-4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34 이에 관해서는 정혜경, 「스미토모 고노마이 광산 발신전보를 통해 살펴본 조선인 노무동원 실태」, 『강제동원을 말한다 : 명부편(1)』, (도서출판 선인, 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 출처 :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9, 175쪽

항구에서 지급한 국민복과 신발값도 한인이 갚아야 할 빛이었다. 작업장에 도착해서도 빛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 탄광에서 쓰는 곡괭이, 일본 버선, 숙소 전등, 탄광용 랜턴 등에 모두 사용료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숙소 사용료와 이불, 식비도, 아플 때 받아먹은 약값도 월급에서 꼬박꼬박 빼갔다. 별의별 이름의 보험료와 주민세도 내야 했다. 이러저러한 것을 제하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빨간 숫자가 남았다. 열심히 빛을 갚아야 1년 후에 용돈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장은 열악했고 노동조건은 가혹했으므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것저것 다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어 고향에 송금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노무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노무자들의 불만이 고향에 널리 알려지자 모집이 어려워졌다. 관청이 무서워 모집에 응하기는 해도 부산항에 도착하기 전에 다수가 탈출해버렸다. 1939년에 5.2%였던 탈출자가 1940년에는 37.2%로 늘었다. 그래서 관알선으로 바꾸

어 수송 과정에서 탈출을 방지하고 대량 수송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탈출은 오히려 늘어나 1943년에는 40%가 되었다. 전황이 기울어가는 마당에 생산성을 높이고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할 수 없이 국민징용제도를 확대했다.

세 가지 동원 경로를 운영하고 주관한 담당 기관은 일본 정부 부처, 조선총독부, 남양청 등 통치기관이다. 조선총독부도 법령과 예규 등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를 설치해 운영했다. 행정부서는 처음에 내무국 사회과 노무계에서 출발해 일본 패전에 즈음해서는 3개 과로 늘었다.

내무국 사회과 노무계(1939) → 내무국 노무과(1941) → 후생국 노무과(1941) → 사정국 노무과(1942) → 광공국 노무과(1943) → 광공국 근로조정과·광공국 근로동원과·광공국 근로지도과·근로동원본부(1944) → 광공국 근로부 조정과·광공국 근로부 동원과·광공국 근로부 지도과(1945) → 광공국 동원과·광공국 근로부 근로제1과·광공국 근로부 근로제2과(1945)

모든 과정은 조선총독부가 주관했고, 관련 기업과 관련 단체인 직업소개소와 조선노무협회, 동아여행사 등이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했다. 동아여행사는 상업적 목적의 관광여행사가 아니었다. 1912년 ‘재팬 투리스트 뷰로’라는 이름으로 창립해 1942년에 동아여행사로, 1944년에 동아여행공사로, 일본 패전 후에는 일본교통공사(JTB)로 이름을 바꾼 후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동아여행사는 노무동원을 담당하던 조선총독부 후생국 노무과와 논의해 수송에 필요한 단체수송신고서를 철도국에 보내고, ‘단체수송계획표’를 작성해 동원하는 노무자들의 숙박과 도시락, 숙박, 수송을 담당했다.

이 같은 시스템 속에서 당국은 조선의 민중들을 속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동원했다. 한밤중에 습격하거나 길에서 납치하기도 했다.³⁵

35 동원 방식의 구체적 사례는 정혜경 외, 『반대를 논하다 -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 도서출판 선인, 2019, 46~53쪽, 73~8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3) 한반도 내 노무동원의 실상

흔히 동원지역에 따라 국외와 국내 동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국내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 사회는 ‘조선으로 간 것은 징용이 아니’라거나 ‘조선으로 갔으니 편했을 것’이라며 오해를 하고 있다.



❖ 멀리 평북 정주의 철도공사를 위해 1940년 전남 광양에서 동원한 ‘산업전사대’. 앞줄에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황기 2600년’은 1940년이다.(출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각난 그날의 기억』, 2013)



❖ 1940년 중앙선 철도공사장에 동원된 근로보국대. 소년들의 모습이 보인다.(출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각난 그날의 기억』, 2013)

조선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편했다거나 징용도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어디서나 강제동원 실태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독립국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한인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이나 만주, 사할린이 아니면, 강제동원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시를 독립국 시절로 착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가운데 다수가 보국대나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동네 작업장, 즉 도내(道內)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도내동원이란 거주지역 관내 도에 있는 작업장으로 단기간 동원한 형태였다. 이 때문에 '조선은 편한 곳'이라는 오해가 생겼다. 그러나 모두 도내에 동원된 것도, 모두가 편하게 일한 것도 아니었다. 경남에서 함경도로 간 사람도 적지 않았고, 한반도 북부 노동 실태는 매우 열악해 현장 사망자는 더 많았다. 탄광에서 사망한 12세 어린이도 있었다.³⁶

(4) 저항하는 한인들

경북 선산 출신 김선근(1921년생)은 오사카에 유학 갔다가 불온서적을 읽은 혐의로 퇴학을 당하고 1943년 구레(吳)해군시설부에 징용되어 동료 징용공 700여 명과 함께 비행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해군은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 출신이고 한인 사이에 신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작업반장에 해당하는 료장을 맡겼다. 적극 협조하라는 의미였으나 그는 당국의 기대를 무너트렸다.

1943년 8월 9일 오후 7시 30분경, 제1로 24반 소속 한인 청년이 일본인 지도원에게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며 식당에 들어서자 김선근은 일본인 지도원을 찾아가 따졌다. '맛을 짓을 했다'는 대답에 분개한 그는 700여 명을 이끌고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사건이 일어나자 즉각 해군이 출동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김선근은 해군 형법 제68조 제2호에 따라 징역 4년형(1944.3.27.)을 언도받고 해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개월 남짓 지난 1944년 5월 6일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 폐질환으로 위독했기 때문이다. 가석방된 후 한 달 만에 김선근은 사망했다. 해군 소속 공사장에서 지도원 폭행과 작업 거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다. 료장이었던 김선근이 모를 리 없었으나 동료가 당한 모멸감을 참지 않았다.

36 상세한 사례는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 아이들』(섬앤섬, 2019)를 참조하였다.

1944년 조선총독부가 제85회 제국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조선의 민중들은 징용에 맞서 '경관을 살해'하고 무기를 들고 투쟁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이 일본의 국가권력을 상대로 저항과 투쟁을 벌이려면 목숨을 내걸어야 할 정도의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용기를 낸 한인은 적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국민징용 등 노무사범 단속 상황표)에는, 1944년 1~6월간 노무관계사범 1,643건(1,897명) 중 국민징용령 위반자는 265건(270명)이고, 이 가운데 134건(137명)을 검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1944년 10월 16일부터 10일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실시한 일제조사기간 중에만 총 2만 3,166명이 단속될 정도로 식민지 조선 민중의 저항은 심해졌다.

저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39~1942년까지 일본에 끌려간 한인 가운데 25만 7,907명이 탈출을 시도했다. 일본 내무성 조사 결과이다. 연도별 탈출 비율을 보면, 1939년의 2.2%에서 1940년에는 18.7%, 1941년에 34.1%, 1942년에 38.3%, 1943년에는 39.9%에 달했다. 부득이 조선에서 탈출에 실패하고 부관연락선을 타야 했던 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파업과 태업으로 저항을 이어나갔다.

무시무시한 시절, 일본 땅에서 한인들은 2,554건의 파업과 태업을 벌였다. 이 중 강제로 동원된 노무자들이 벌인 파업과 태업은 1,784건에 달했다. 1939년 후 참가자 총 10만 8,978명은, 일본 지역 동원 노무자의 10%에 해당했다. 이러한 현상을 '굴종'이나 '체념', 개인적 울분의 표시로 설명할 수 없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저항 사례다.³⁷

탈출하는 한인 노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 당국과 기업은 동원된 지 1년 이내 탈출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권력을 이용해 잡아들이고, 폭력을 가했다. 한인을 데려올 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과 당국이 탈출자를 잡아들이는 과정을 담은 자료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과정에서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재상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37 정혜경, 「일제 말기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의 저항」, 『재일코리아운동과 저항적 정체성』, 도서출판 선인, 2016, 209쪽.

암성재상(岩城在祥, 이재상, 1922년생, 경남 양산군 출신)

1943년 9월 20일 홋카이도탄광주식회사 헤이와(平和)탄광 소속 마야치(真谷) 지갱(地坑)에 동원.

마야치 제1 협화료(協和寮, 료=합숙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1944년 5월 17일 오전 2시 경 도주하던 중 적발되어 목재로 앞 이마를 얻어맞아 유바리(夕張)탄광 광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오후 9시 30분 사망.

함께 도주한 금본선덕(金本仙德, 김선덕)은 붙잡히고 암성혜호(岩城惠鎬, 이혜호)는 격투를 벌이는 사이에 도망.

회사 측은 이재상의 죽음에 대해 '절대로 비밀에 붙이고 공표(公表)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붙잡은 김선덕이 진상을 폭로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서에 유치한 뒤 기회를 보아 북방(北方)으로 연행하기로 함.

이재상의 고향에는 도주 중 산속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기로 하고, 만약 경찰에 조회요청이 있을 시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조를 맞추도록 연락을 취함.

홋카이도탄광주식회사가 작성한 『쟁의관계(爭議關係)』자료철에 들어있는 문서 「이 입반도인에 대한 상해치사사건 발생에 관한 건」(1944.5.24. 작성) 내용이다. 이재상과 동료 3명이 현장을 탈출했는데, 모두 붙잡혀 1명은 매 맞아 죽고 다른 1명은 탈출했다. 사망한 이재상은 1943년 9월에 홋카이도로 동원되었다.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를 북방[지시마(千島)열도나 남사할린]으로 보내려 했다. 이같이 저항이나 투쟁은 목숨을 건 행위였으나 한인들은 탈출하고 노동자 파업을 하며 일본 국가권력과 파쇼에 맞섰다.

2) 황군이 되어야 했던 한인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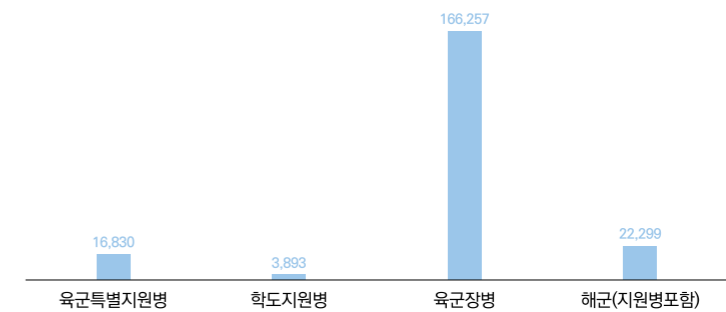
(1) 한인이 일본 군복을 입게 된 이유는

한인들은 처음에는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말기에는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일

본 군복을 입었다. 단계별로 동원한 이유는 식민지 청년의 군인 동원이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군부의 의견은 달랐다. 정부는 병력 부족을 예상하고, 한인을 군인으로 동원한다는 가정 아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주 침략 후 중국 전선의 후방으로서 보급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에서 민중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날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민중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대급부가 필요했다. 징병으로 전선에 끌고 가는 대신,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했다.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6년 8월,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임기 중 징병제 실현을 공언하고 교육 제도 개정을 추진했다. 「교육법」 개정의 목적은 전쟁터에서 일본군에게 충구를 겨누지 않게 황민화 교육을 강화해 한인 스스로 일본인으로 인식하도록 세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부는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1931년 만주사변 직후 군부에서 “한인이 우리 등 뒤에서 총을 겨누게 하려는가”, “피는 우리가 흘리고 과실은 한인과 나누라는 것”인가 하는 반발이 컸다. 군부는 한인을 전쟁터에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충량한 일본 신민’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교육 기간을 50년으로 판단했다.

그러다가 중일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사자가 늘어나자 식민지 청년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곧바로 징병제도를 실시할 수는 없었다. 한인이 권리를 요구하고 나올 염려가 있었고, 조선의 행정 체계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지원병 제도(육군·해군특별지원병과 학도지원병)였다. 이 외 해군징모병과 소년지원병으로 동원된 한인 청년도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림 1 종류별 한인 군인동원 규모



일본의 군인이 된 한인은 몇 명인가. 일본 정부가 밝힌 규모는 총 20만 9,279명이다. 그러나 입대했음에도 일본 정부 자료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2013년 12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에 의하면, 1945년 1월~8월 사이에 징병된 한인 명부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 일본 육군과 해군 관련 명부는 후생성에 전부 인계됐으나 전쟁 혼란 상황으로 인해 부대별 명부 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³⁸ 기록이 사라진 한인 규모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일본 패전 직후 군 관련 기록을 없앴거나 병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료가 없으니 학계에서도 일본군이 된 한인을 약 40만 명으로 추산할 뿐이다.

(2) 지원병과 징병

1938년 2월 당국은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실시를 결정했고, 조선 땅에 대대적인 ‘지원의 바람’이 불었다. 당국은 각도별로 할당 인원을 책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관변단체와 함께 선전과 회유, 중용 활동에 나섰다. 지원을 독려했던 대상은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주재소·소방서 등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는 등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지원’을 앞세운 회유책도 많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군인 봉급은 큰 수입이었고, 제대 후 일자리 기대는 강력한 유혹이었다.

38 「일정부, 조선인 군인군속 명부 증발 은폐 방치」, 『연합뉴스』, 2013년 12월 24일자.



1943년에는 그간 입영이 연기되었던 전문학교 학생을 동원하는 학도지원병 제도를 실시했다. 군부는 ‘지식층 병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고등교육기관 학생동원은 마지막까지 꺼렸다. 그러나 전세가 다급해지자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학도지원병은 적격자 100% 지원을 목표로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 유학지인 일본은 물론, 부관연락선과 항구 등지에서 대대적인 미지원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지원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오던 한인 청년들은 여지없이 연락선 사무실에서 지원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잠적한 청년들에게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원하지 않으면 남양 등지에 징용해 출병보다 더 생명의 보장이 없는 곳으로 처리”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불안한 상황을 조장했다. 당국의 강압으로 조선의 전문대학 재학생의 96%가 지원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당국이 정한 100% 목표는 깨졌다. 1943년 11월 21일 학도지원병 모집이 마감되었을 때 지원에 응하지 않은 4%의 기피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들을 ‘학도징용’, ‘응징학도’라는 이름으로 징용했다. 1943년 11월 21일 학도지원병 모집을 마감한 후 11월 28일 미지원자 징용령을 도지사 명의로 내렸다. 미지원자들은 검거되어 1943년 12월 5일부터 2주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3(공릉동))] 육군지원병훈련소에서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 시멘트 공장이나 철도공사장, 채석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징병(conscription)은 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전쟁 초기에 당국은 한인을 징병제도에 포함하지 않으려 했다. 근대 국민국가에서 징병이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를 수반하기 때문이었다. 당국은 한인을 징병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대신 일본 국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급박한 전세로 한인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했다.

1942년 5월 일본 정부는 한인 징병제 실시를 결정했다.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즉시가 아니라 1944년부터 실시였다. 이 결정에 따라 가장 먼저 교육제도를 정비했다. 제3차 교육령(1938.3.4. 공포)이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창설을 위한 것이었다면, 제4차 교육령(1943.3.)은 징병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였다. 황국신민으로써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전부터 국민학교 규정을 공포(1941.3.31.)했고, 1942년 12월에는 의무교육제도 시행 계획(1946년 예정)도 발표했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선청년특별연성소를 세워 교육했다.

징병 적령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준비도 필요했다. 당국은 1943년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을 공포하고, 호적을 정비해 징병 대상자 파악에 나섰다. 「조선기류령」은 본적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사는 징병 적령자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였다. 한인들은 2년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1944년 9월 1일부터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입대했다.³⁹

39 한인 군인의 현지 저항 사례에 대해서는 표영수, 「자료소개 - 평양학병의거사건 판결문」, 『한일민족문제연구』1, 한일민족문제학회, 2001, 247~255쪽; 정혜경, 「일제 말기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의 저항」, 『재일코리아운동과 저항적 정체성』,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2016, 205~20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군이 부린 민간인, 군무원

군무원은 현대 용어다. 당시에는 군속(軍屬)이나 군부(軍夫)라 불렀고, 법률상 용어는 군속이었다. 군무원은 군(軍)이 동원한 민간인이다.

군무원의 동원 경로는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각종 법령(해군징용공원규칙, 국민징용령, 육군군속선원취급요령 등)에 따른 동원 방식이다. 두 번째는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차출과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주로 상황이 급박한 전선에서 적용했다. 세 번째는 포로감시원과 같은 모집 방식이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한인 군노무자 사례는 해군징용공원규칙(1940.11.19.)을 근거로 동원한 해군공원이었다.

전방에서는 변수가 많았다. 사이판의 남양홍발(췌)은 1944년 4월 1일 현지 주둔군과 군민협정(軍民協定, 일명 矢野-小原협정)을 체결해 회사 소속 노무자를 군무원으로 동원했다. 사이판 인근의 로타섬에서도 ‘1944년 6월 이후 16세 이상의 군적(軍籍)에 없는 남자를 징용하여 육군부대에 편입’하고 사망자는 ‘군속’으로 취급했다.

군무원은 맡은 역할에 따라 군노무자(군에 소속된 노무자)와 기타 군요원(軍要員)으로 나눌 수 있다. 군노무자는 군무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데 군부(軍夫)나 고원(雇員), 용인(傭人)이라 불렀다. 군요원은 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 등이다.⁴⁰

40 포로감시원의 실태와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內海愛子, 村井吉敬, 『赤道下の朝鮮人叛亂』, 徑草書房, 1980; 정혜경, 『조선청년이여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유병선, 「일본 군정기 자바 조선인 군속의 항일 비밀결사와 암바라와 사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임시군속교육대 자리였던 부산시민공원 역사관의 포로감시원 관련 전시물

(4)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 '위안부'와 노무 '위안부'(기업위안부)로 구분된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이후 패전한 1945년까지 일본군의 성병 예방이나 군기 누설 방지, 현지 여성 강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의미한다. 노무 '위안부'는 탄광과 군공사장 등지에 동원된 여성을 말한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총수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동원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연구 성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규모를 2만~5만 명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현지의 각 부대 및 경찰대 등이 독자적으로 '위안부'를 추가 모집한 점, 군 '위안부' 교체비율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단기간의 감금·강간 사례가 다수 존재했던 점, 명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정확한 숫자 추정은 곤란하다.

당시 기록과 증언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위안소는 육군오락소, 구락부, 군인회관, 조선요리옥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피해자에는 당시 한인 여성은 물론 타이완, 중국, 동남아 및 태평양 현지 여성과 동남아 및 태평양에 거주하던 유럽인 등 다양한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군이 주둔한 지역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형태는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 세 가지 방법이었는데 대부분은 취업 사기로 동원되었다. 일본 당국은 위안소를 경영할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들은 취업을 미끼로 여성들을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도항증명서'를 받아 수송했으나 발발 이후에는 '군(軍)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송했다. 동원과 수송은 업자가 주로 했으나 주관은 군을 비롯한 당국의 몫이었다. 그러기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1993년 8월 4일 관방장관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해 '당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관헌이 직접 가담했음을 인정했다.'⁴¹



❖ 강도가 할머니가 동원되었던 타이완 소재 위안소(출처: 대일항쟁기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 - 들리나요』, 2013)



❖ 중국 운남성 소재 위안소(출처: 대일항쟁기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 - 들리나요』, 2013)

41 허광무 외, 『일제강제동원 Q&A(1)』, 도서출판 선인, 67~69쪽, 75쪽.



❖ 일본군위안소 배치 현황(출처 :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들리나오 - 열두소녀 이야기』, 2013)

[고노 담화]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정(設營)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하에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일본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有識者)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현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1. 국내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민중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일상성을 훼손당했으며 피해를 주었을까 하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경험은 구술과 영상 기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일제 말기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제 경험자는 찾기 어렵고, 경험자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새기는 일도 귀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수는 없는가.

전쟁이 남긴 유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이 유적은 무슨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남았는가. 유적을 조성하는 데 동원된 사람은 누구이며 노역을 강요당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해방 후 전쟁 유적은 어떤 역사적 터계를 쌓아 나갔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유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유적과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전쟁 유적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이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세상을 떠나도 유적은 현장에 남아 한국 사회에 역사적 교훈을 남긴다. 전쟁 유적은 시민들이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효과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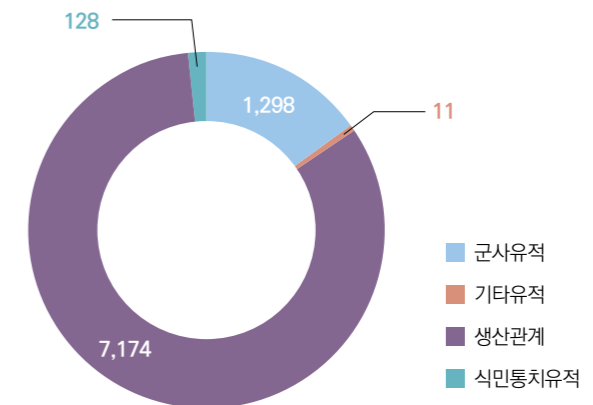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민중을 전쟁의 화마 속으로 내몰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태평양에 많은 전쟁 유적을 남겼다. 전쟁 유적은 전쟁이 낳은 유적이다. 전투지, 전쟁이 있었던 지명이나 건조물, 사건 유적지이니, ‘전쟁 관련 유적(War - Related - Sites)’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역사(Dark History)나 ‘부(負)의 역사’ 현장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가해국인 일본의 (사)전쟁유적보존네트워크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정치행정관계·군사방위관계·생산관계·전투지역 및 전쟁터관계·주거지관계·매장관계·교통관계·기타 등 여덟 종류로 구분했다.⁴²

42 정혜경, 『우리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8, 20~22쪽.

그렇다면,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몇 종류일까. 군사·생산관계·식민 통치·기타 유적 등 네 가지를 제안한다. 필자가 확인한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목록(「국가총동원법」 작성, 2019.12. 기준, 남북한 포함)은 8,611개소이다. 현재 유일한 자료이지만 정부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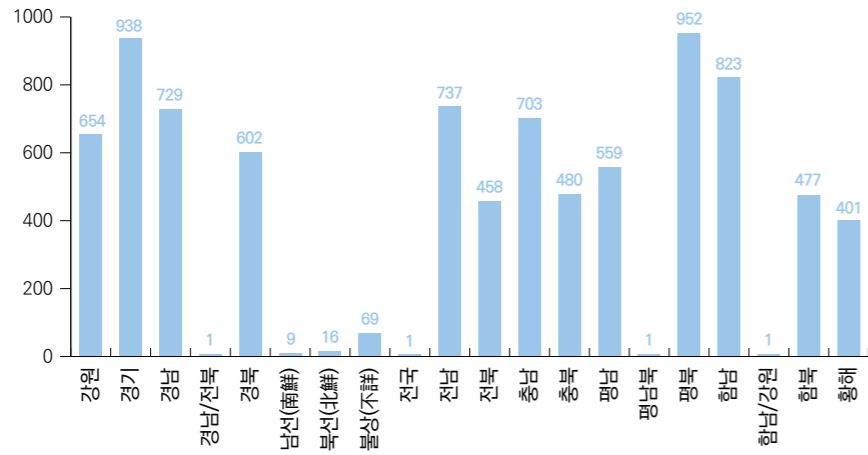
종류별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유적은 생산관계(84.89%)이고, 직종별 분포에서는 탄·광산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당국은 한반도 전역의 탄·광산에서 석탄이나 금·은·구리 등 일반 광물과 특수 광물을 채굴했다. 군사 유적은 군부대(군과 헌병부대, 군 소속 시설물, 군 소속 작업장, 포로수용소 등)와 각종 군사시설물(비행장, 지하시설, 방공초소 등)을 의미한다. 식민 통치 유적은 조선통치기관, 조선은행과 동양척식(주) 등 경제기관을 비롯해 일본의 조선 통치와 관련한 유적을 의미한다. 기타 유적은 노동자 사택, 군사 방위 관련, 추도 관련, 공동창고 등이다.⁴³

그림 2 한반도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목록-종류별(1945년 행정구역 도별, 2019.12.기준)



43 한반도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카페 (<https://cafe.naver.com/gangje#>)에서 반년마다 수정한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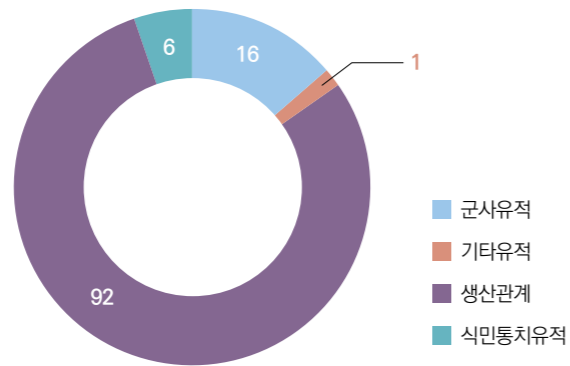
그림 3 한반도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목록-도별(1945년 행정구역 도별, 2019.12.기준)



2. 인천과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현재 인천 지역에는 총 115개소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이 있는데, 이 중 생산관계 유적, 즉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 현장이 가장 많다.

그림 4 인천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현황



이 가운데 부평 지역 현장은 23개소로 인천 지역 대비 20%에 달한다. <표 7>은 1945년 8월 행정구역 기준이므로 2017년 8월 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24개소이다.

표 7 부평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현황

(2019.12.말 행정구역 기준, 단위: 건)

유적 종류	유적 수	세부 현황
군사 유적	7	군사시설물 4
		군부대 3
기타 유적	1	미쓰비시 사택
생산관계 유적	16	군수공장 12
		항만하역 1
		토건 2
		기타 1
합계	24	

24개소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유적은 생산관계 유적이고, 세부 직종에서 다수는 군수공장(조병창 포함 12건)이다. 부평 지역의 공장은 미쓰비시(三菱)제강을 비롯한 대기업 소속 공장이 대부분이다. 부평 지역 공장 세부 직종은, 기계기기(8개소)·섬유 및 방적·화학·요업이 각각 1개소이다.

일제 말기, 당국은 부평을 한반도 이남 지역 최대의 군수기지로 평가했다. 당국이 부평 지역에 군수기지를 설치한 이유는, 분지여서 안개가 심해 연합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었고 항만과 철도시설이 인접해 수송이 용이해 군수기지로써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경성의 영등포 공업지대와 연결된 지역이자 수도권이어서 경성의 우수한 기술력과 학생 등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일반 토건은 2개소이다. 구체 주소를 알 수 없는 매립공사장과 조선 도시바전기(東芝電) 부평공장 건설공사장이 있다. 이 건설공사장은 1943년에 착공해 조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 패전을 맞았다.

부평의 군사 유적 5개소 가운데 지하호는 세 종류인데, 최근 지역 주민들의 조사를

통해 규모가 알려진 지하호는 부평문화원이 주관한 ‘2016년도 어르신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했다. 일제 말기에 인천육군조병창의 무기공장 자체를 이전하려던 곳이다. 일신동의 지하호도 무기 은닉장소로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현재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하호는 부평공원의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지하시설이다.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생산한 무기를 검수하거나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3.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역사와 마주하다

일본 제국주의 35년간의 경험을 자랑할 만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드물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되었던 일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통해 전쟁 피해의 역사와 만난다. 왜 굳이 마음 불편한 역사 이야기와 만나야 하는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자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국 사회가 피해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자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며 반전평화교육의 현장이다. 피해자성은 피해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공감하며 이를 통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힘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반도 전역에 있으므로 남북한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지역의 역사성과 유적 발생 배경, 해방 후 쌓은 한국현대사의 더께(공간의 계보학), 기존 근대유적, 보존 환경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적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 방안의 핵심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큰 틀의 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⁴⁴

국내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문화콘텐츠 활용 과정

실태조사(전수) → 연구 → 기초 Map 작성 → 필드워크(워킹투어) → 계획 수립 → 활용 가능 대상 유적 선정 → 문화재 등록 제도 활용, 적용할 문화콘텐츠 선정 → 다양한 콘텐츠 구축 → 시민사회 공유 및 활용

이러한 활용 과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역사 경험을 축적하고 축적된 경험을 다시 시민의 역사교육으로 순환할 수 있을 것이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 Suzuki)는 『우리 안의 과거 - 미디어, 메모리, 히스토리』를 통해, 역사문화콘텐츠를 일반 시민들이 역사와 만나는 창구로 설정했다. 일반인들은 학자처럼 사료를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고 상상력이라는 필터(소설가의 말, 사진가의 렌즈, 만화가의 그림)로 걸러서 전달한 과거의 표현을 접한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관련 역사문화콘텐츠는 역사의 진지함과 만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장은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첫발 떼기이다.

일제강점기 군수기지로서 부평이 걸어온 길은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 피해의 역사를 대표하는 역정(歷程)이었다. 부평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성한 군수물자 생산기지였다. 당국은 일본 육군 무기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을 비롯해 미쓰비시제강(주) 인천제작용 등 군수물자 생산공장을 운영했고, 이곳에서 생산한 무기와 잠수함을 중국 전선과 일본으로 수송했다. 일본은 일본 도쿄 제1조병창을 이전하기 위한 지하공장(함봉산 지하시설)을 건설하던 중 패망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부평평야는 사라졌고, 많은 조선 민중은 강제노역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재 부평에서 캠프 마켓이라 불리는 미군부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부평공원에 어떤 공장이 있었는지, 부평공원에 왜 강제노동자상이 자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아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삼릉사택이라 불리는 취약한 주거지를 둘러싸고 왜 문화재청은 철거 대신 보존하라는 공문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있다. 일제가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 과정에서 부평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44 정혜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8, 55쪽.

부평 구민들이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그 중에서도 식민지 유일한 육군조 병창이었던 인천육군조병창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으며 그 중 조선 민중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그 과정을 돕기 위한 개론이다.

아울러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부평과 한국 사회가 ‘어두운 역사’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반전평화의 마중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 세계의 전쟁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한 세계 시민의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의 전쟁 유적은 말이 없지만 시민들이 끊임없이 인류보편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전쟁 유적도 세계 시민들에게 반전평화의 교훈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부평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천육군조병창의 향후 역할을 설정하기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가토 요코 저, 윤현명·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각난 그날의 기억』, 2013.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일본군위안부피해 구술기록집 - 들리나요? : 열두 소녀의 이야기』, 2013.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9.
- 김봉식, 『인물로 보는 일본 역사11 - 고노에 후미마로』, 살림, 2019.
- 김재근, 『등잔불 - 牛岩隨想集』, 정우사, 1985.
-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중앙청 등사실 인쇄), 1954.
- 마이클 A. 반하트 저, 박성진·이완범 역, 『일본의 총력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박영준,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 오구마 에이지 저, 한철호 역, 『일본이라는 나라?』, 책과함께, 2007.
- 요시다 유타카 저, 최혜주 역, 『아시아태평양전쟁』, 어문학사, 2013.
- 요시다 유타카 저, 최혜주 역, 『일본의 근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 논형, 2005.
- 정혜경 외, 『반대를 론하다 - '반일종족주의' 의 역사부정을 넘어』, 도서출판 선인, 2019.
-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 아이들』, 섬앤섬, 2019.
- 정혜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8.
- 정혜경, 『일본 제국과 조선인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 정혜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19.
- 정혜경,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연표』, 도서출판 선인, 2018.
- 정혜경, 『조선청년이며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 정혜경,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14.





허광무 외, 『일제강제동원 Q&A(1)』, 도서출판 선인, 2015.
 内海愛子, 村井吉敬, 『赤道下の朝鮮人叛亂』, 徑草書房, 1980.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 陸軍軍需動員(1)計劃編』, 朝雲新聞社, 1967.

논문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유병선, 「일본 군정기 자바 조선인 군속의 항일 비밀결사와 암바라와 사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상호, 「대일배상요구조서' 해제」, 『한일민족문제연구』35, 한일민족문제학회, 2018.
 정혜경, 「스미토모 고노마이 광산 발신전보를 통해 살펴본 조선인 노무동원 실태」, 『강제동원을 말한다 : 명부편 (1)』, 도서출판 선인, 2011.
 정혜경, 「일제 말기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의 저항」, 『재일코리아운동과 저항적 정체성』, 도서출판 선인, 2016.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표영수, 「자료소개 - 평양학병의거사건 판결문」, 『한일민족문제연구』1, 2001.
 小林英夫, 「총력전 체제와 식민지」,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최원규 엮음)』, 청아출판사, 1988.
 佐佐木 啓, 「徵用制度下の勞資關係問題」,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568, 2006.
 洪祥鎭, 「朝鮮人強制連行の概念」, 『季刊 戰爭責任研究』39, 2003.

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연합뉴스』



웹사이트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https://cafe.naver.com/gangje#>)





제 2 장

일제의 육군조병창과 부평, 그리고 부평 사람들

제1절 _ 일제의 중국 침략과 부평에 세워진 육군조병창

제2절 _ 육군조병창의 마지막 전쟁 준비, 그리고 부평지하호

제2장 일제의 육군조병창과 부평, 그리고 부평 사람들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제1절 | 일제의 중국 침략과 부평에 세워진 육군조병창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1937년 7월 7일 노구교(盧溝橋,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고 그에 따라 한반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식민지 조선의 인민은 군인과 노무자, 군위안부로 동원되었고, 조선의 식량과 자원은 전쟁 물자로 수탈되었으며, 한반도의 토지와 해안은 전쟁에 대비한 시설로 채워졌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 말기로 갈수록 극심해졌으며, 전황이 나빠져 급기야 미군의 상륙이 기정사실로 되자 식민지의 일상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인천, 그리고 부평 지역 역시 이러한 시대와 전쟁의 운명에서 비껴갈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숙명을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은 그칠 줄을 몰랐다. 초전 승리와 이를 발판으로 한 강화 조약 체결. 이러한 전쟁 공식에 익숙했던 일제 군부에게 중국과의 전면전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중국을 겁박하여 쉽게 굴복시키려던 일본의 의도는 장개석(蔣介石, 장제스)의 항전 의지로 인해 오히려 분쇄되고 있었

다. 결국 계속되는 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은 새로운 군사시설을 계획하였다. 즉 식민지의 자원을 더욱 손쉽게 수탈하고 이를 이용하여 침략전쟁의 무기를 한층 더 빠르게 생산·수송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했던 것이다.

일제가 건설한 새로운 군사시설의 공식 명칭은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이었다. 바로 이 군사시설이 중일전쟁 장기화가 부른 일제의 야심작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부평의 넓은 분지에 대규모 병기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중국 본토의 자원을 끌어모아 침략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었다. 비단 군수공장뿐만 아니라 관련한 민간 군수공장도 세워졌고, 더불어 여기서 일할 수많은 조선 민중들의 숙소 또한 건설되었다. 당시 부평의 육군조병창은 한반도 병참기지화 정책의 총화이자, 전시총동원 체제 물자의 집수처이며 중국 대륙 침략의 최전선으로 자리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대륙 침략과 조선 병참기지화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던 육군조병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중일전쟁의 전황에 따른 병참기지로서 조선의 변화, 둘째 육군조병창의 부평 설치 이유와 그 조직, 그리고 함께 만들어진 공장들, 셋째 조병창의 역할과 성격으로 그곳에서 만들었던 침략전쟁의 무기들과 동원된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들에 관해 서술하겠다.

아직도 부평 곳곳에는 일제의 군사 건축물과 관련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1930년대 후반 이곳에서 꽤나 심각하고 엄중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무엇보다 부평 합방산 자락을 중심으로 개미구멍처럼 뚫려있는 지하시설들은 급박했던 전시 상황과 엄혹했던 식민지 상황을 상징처럼 보여 주는 유적이다. 과연 이것들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한 시설물이 현재의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무엇일까.

1. 일제의 중국 침략과 조선의 병참기지화

1) 중일전쟁의 시작과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중국 침략¹⁾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7일 밤 중국 하북성 노구교 부근에서 이른바 ‘의혹의 총격 사

1 중일전쟁기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중국 침략에 대한 일부 내용은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 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1~42쪽을 토대로 작성했다.

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야간 훈련 중이었던 일본군 부대와 인근 중국군 사이에 있었던 총격 사건은 양국군의 교전으로 확대되었는데, 사실상 그 심연에는 일제의 중국 침략 의도가 스멀스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전 초기만 해도 이것이 곧바로 중국과 일본 양국 사이 전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었다. 사건 다음 날 현지 일본군이 중국군 진지를 공격하여 노구교를 점령했지만 11일에는 양국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등 사태가 잠시 진정되는 듯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마되는 듯 보였던 국면은 정전협정 당일 고노에(近衛) 내각의 본토 사단 파견 결정으로 급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1일 밤 관동군 예하의 혼성 2개 여단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즉 조선군 제20사단의 화북 파견을 명령했다. 며칠 뒤인 15일에는 육군 항공 병력의 절반 이상을 모아 임시항공병단을 편성한 뒤 역시 중국 화북 침략을 위해 투입시켰다.²

사실상 7월 11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현지 야전부대와 관동군 및 육군 중앙의 사태 파악에 얼마나 괴리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해프닝에 불과했다. 현지 부대의 상황 판단과는 달리 이미 일본 육군 중앙은 노구교 사건 직후인 8일 일본 본토의 긴키(近畿) 지방 서편에 주둔하는 사단 병력에 대하여 제대 연기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전쟁에 대비하여 해당 부대에 동원령이 하달될 것임을 예고하는 조치였다. 관동군 역시 8일부터 2개 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10일 밤에는 참모본부에서 관동군 병력과 더불어 한반도 주둔군 상주 제20사단 및 비행 중대 3개, 그리고 본토 상주 제5·6·10사단과 18개 비행중대의 파병이 내정되어 있었다.³

노구교 사건으로 시작된 이 전쟁의 주모자, 그리고 책임자가 명확히 누구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참모본부의 대 중국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노구교 사건 이후 양국 간 협상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 때문에 실제 본토 사단의 파병이 두 차례나 유보되기도 했다고 한다. 노구교 사건이 중일전쟁으로 격화하는 필연적 촉매제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결국 중일전쟁은 이를 전쟁으로 확장하려는 누군가의 집요하고 명백한 계획과 의도 아래에서 자행된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이미 이 총격 사건이 전쟁으로 격화될 것을 예상이라

2 藤原彰, 『日本軍事史』上, 社會批評社, 2006, 290~291쪽.

3 林鍾國, 『日本軍의 朝鮮侵略史』II, 일월서각, 1989, 79쪽.

도 했다는 듯 본격적인 군사조치를 지체없이 수행했고, 고노에 내각으로 대표되는 일본 정부 역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모본부의 파병안을 추인했다. 전쟁의 주모자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움직임이었다. 일찍이 1931년 만주 침략 당시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사단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이미 모략 단계부터 관동군과 조선군의 주요 참모들이 잇속을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었고 예하 부대 역시 만주 침략에 깊숙이 개입한 바 있었다.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노구교 사건과 중일 전면전에 대한 개입은 6년 전 만주 침략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또한 적극적이었다.

1937년 7월 당시 조선군사령관이었던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육군 중앙에 예하 제20사단 병력을 즉시 화북으로 급파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전신으로 상신했다. 그리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흘 뒤인 7월 11일 일본 정부는 제20사단에 응급동원령을 하달하였다. 관동군과 일본 본토 사단이 그랬듯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중국 침략도 짜여진 각본 속 배우처럼 우물쭈물하거나 지체하는 기색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0사단장 가와기시 분자부로(川岸文三郎)는 곧바로 휘하 병력을 이끌고 철로로 국경을 넘어 중국 침략을 감행했다. 가와기시는 일단 사단 주력은 천진(天津)에 주둔시키고 일부를 당산(唐山)과 산해관(山海關)에 분산 주둔시켰다. 이후 제20사단은 일본군 제1군 예하로 편입되어 7월 28일 남원(南苑)에서 첫 전투를 치렀다. 남원 전투 이후에는 평한선(平漢線)⁴을 따라 남하하며 작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0사단은 제1군의 진로를 따라 9월 말 보정(保定)을 지나 10월 초에는 석가장(石家莊)까지 침입해 들어갔다. 여기서 제20사단은 침공 방향을 바꿔 서쪽의 산서성(山西省)으로 돌입, 태원(太原)을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허북(河北)과 산서(山西)의 경계인 낭자관(娘子關)에서 중국군과 격전을 치르고, 결국 11월 초 태원 남방에 도착했다. 이때 이미 사단 병력 중 약 3,100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⁵

4 북평(北平)에서 한구(漢口)에 이르는 철도선을 말한다.

5 林鍾國, 『日本軍의 朝鮮侵略史』II, 일월서각, 1988, 82~86쪽. 이하 중일전쟁 초기 제20사단의 전황은 임종국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한편 제20사단의 중국 침략과정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훗날 국군에서도 몸담았던 김석원(金錫源)이었다. 김석원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제28기)를 졸업한 인물로 중일전쟁 기에는 남원과 동원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으나 회복한 뒤 다시 참전하여 활동한 바 있다. 일제는 그를 전쟁 영웅으로 홍보하며 식민지 조선 일대에 크게 회자토록 했고 귀환 이후에도 각종 연설회와 좌담회에 출연시켜 조선인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활용하였다. 김석원 외에도 중일전쟁에 참전한 인물로는 이종찬·엄주명·유관희 등을 들 수 있으며, 김석원과 이종찬 등은 일제로부터 전공을 인정받아 금치훈장(金鷄勳章)을 수여받기도 했다.

중일전쟁에 참전한 한반도 주둔 일본군 내에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 육사 출신의 장교들뿐만 아니라 지원병제도를 통해 동원된 조선인 청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일제에 의한 조선인 지원병제도는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1944년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약 2만 명의 조선 청년들이 일본군으로 동원되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제20사단에 소속되어 중일전쟁의 참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다.

제20사단은 태원 공략 이후에도 전선에 남아 중국 침략을 이어간다. 다만 태원 전투 이후는 남서진하면서 1938년 2월 영석현(靈石縣)을 지났고, 계속해서 임분(臨汾)·운성(運城)을 거쳐 3월경에는 황하에 인접해 있는 포주(蒲州)까지 공격해 들어갔다. 제20사단의 공격로는 서안(西安)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사단의 공격 루트를 연결하면 북경에서 서안까지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사단은 황하 건너 서안을 침공하지 않은 채 퇴각했다. 중일전쟁이 계속되면서 애초 대륙 침략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도 담당해야 했던 제20사단 병력을 장기간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퇴각 이후 주로 화북 지역 경비를 담당하다가 1939년 11월 7일 동원령 해제와 함께 경성으로 복귀했다.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또 한 축이었던 제19사단의 경우 중일전쟁 기간 중 중국 관내 지역 전투에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다. 제19사단은 그 창설 당시부터 소련에 대비한 방어와 공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전선으로 동원할 수 없는 부대였다. 다만 중일전쟁 기간 중이던 1938년 7월 혼춘(琿春)에 인접한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분쟁에 참

전한다. 이른바 장고봉(張鼓峰) 사건이었다. 장고봉 사건 당시 제19사단 예하 보병 제73연대 주력부대가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서 소련군과 교전을 치렀다. 그러나 당시 극동 소련군의 군세는 제19사단과 격차가 컸다. 결국 우세한 공군력을 앞세운 소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거듭하다가 9월경 원 주둔지로 퇴각했다.

2) 일본군의 군비 확장과 한반도 주둔군의 확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사실상 1938년 초 이미 중국 전선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확대된 전장을 유지하기 위해 유출된 한반도와 만주 주둔군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치안이 위협받고 있었다. 일본 정계와 군부 일각에서는 장고봉사건에서 보듯 소련에 대한 전쟁 준비가 부족한 형편에서 더 이상 중국 전선에 군비를 투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일본 육군에서는 특별한 군비 충실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1. 지나사변의 장기지구화, 일반국제정세,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중국 제휴의 동향에 비춰 군비의 획기적 충실을 급성(急成)할 필요가 있다.
2. 1940년도까지, 상설 25개 사단(3단위 7개 사단, 4단위 18개 사단)을 정비하고, 그 외에 임시편성 약 10개 사단, 특설사단 14개 사단의 준비를 완성(完整)한다. 이상의 회계는 49개 사단으로 한다.
3. 더불어 제2과장으로서, 위 병력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여, 1940년도까지 제4단위 60개 사단을 완성하려는 열렬(熱烈)한 희망을 표명하였다.⁶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소련에 대비한 군비 충실을 위해서 육군 사단의 대규모 편성을 계획했던 것이다. 이 계획은 1938년 2월 11일 육군성과 참모본부 간 회의에서 참모본부 작전과가 육군성에게 요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소련과 중국이 연대할 가능성을 우

6 大本營陸軍部 防衛庁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 534쪽.

려하여 육군 사단의 대대적인 증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특히 1940년까지 상설사단만 25개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러 25개 사단 중에는 3단위를 7개, 4단위를 18개로 편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3단위, 또는 4단위란 사단의 기간을 이루는 보병 연대의 편제 규모를 말한다. 즉 3개 보병연대를 기간으로 하면 3단위제 사단, 4개 보병연대를 기간으로 하면 4단위제 사단이 되는 것이었다.

참모본부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1940년도까지 4단위로 완전 편성된 60개 사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전체적인 동원력,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계획은 계획이고 일단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누수된 후방의 병력을 다시금 채우는 일이 시급했다. 여기에는 중일전쟁 개시와 함께 동원되었던 제20사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1938년 2월 16일 일제 대본영 어전회의에서 참모본부는 중국 내 병력 배치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중지 방면 제9, 11, 101사단을 귀환시키고, 제3, 6, 13, 18사단 및 대만혼성여단을 배치하며, 그 외 신설사단을 필요에 따라 위치시킨다.
2. 북지로부터 귀환시키는 순서는 제20, 16(남만으로)으로 한다. 제5사단은 북지에 남긴다. 제10, 14, 108, 109, 114사단은 7월 복귀 예정.⁷

만주와 조선에서 동원한 사단을 복귀시키고 일본 내 상주사단과 대만군 예하 병력, 그리고 신설 사단을 새롭게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제20사단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히 복귀시켜야 할 부대였다. 물론 이 역시 계획에 그쳤고, 결국 제20사단이 복귀하는 것은 이듬해 말이 되어서였다. 전황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 해법은 군비 증강에 있었다.

육군의 군비 증강계획은 전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애초 계획되었던 1937년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내각의 제1호 육군군비충실계획은, 1939년 12월에 수정군비충실계획(제2호 군비)으로, 이듬해 7월에는 경개군비충실계획(제3호 군비)으로 다시

7 大本營陸軍部 防衛庁防衛研究所戰史室, 『戰史叢書-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 535-536쪽.

금 변경되었고, 1942년 봄 제4호로 기본군비충실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확대 계획에 주요한 방편이 된 것이 3단위제 사단의 신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3단위제 사단의 신설 방안이 제기된 것은 1935년 중반이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가는 극동 소련군의 규모에 대응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당시 3단위제 사단의 신설을 검토했던 육군성 편제관계과의 구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래의 4단위제 사단은 2개 보병여단사령부와 4개 보병연대를 기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1개 보병단사령부와 3개 보병연대로 고치고, 화력 장비를 증가하여, 全軍的으로 보아 전략 단위를 증가시켰다. 물론, 이 안에 대하여 극동의 광막한 지형에서 사단은, 구미 열강의 군단과 같은 임무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명의 장관을 가진 4단위가 오히려 적합하고 특히 넓은 정면의 전투를 담당하거나 일부 병력을 支分하면 3단위 사단으로는 결전 정면의 위력이 결핍되어 작전부서의 운용의 묘를 발휘할 여지가 적어진다고 하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명치 이래 전통이 오래된 여단편성을 폐지하고 3단위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었다.⁸

3단위제 사단 신설의 핵심은 전략 단위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조삼모사와 같은 형국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사단을 경량화, 정예화하는 한편 그 숫자를 늘려 확장된 전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계획 아래 처음으로 조선 내 3개 사단 편성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1935년 17개 사단이었던 병력을 3단위제로 변경하면 23개 사단으로 증가되는데 이 안에 조선 내 3개 사단 상주화가 들어 있었다.

2. 이 구상은 제2차 세계대전은 대략 1940년 전후로 판단하고, 그 국제적 위기까지 3단위사단을 다음과 같이 증설한다.(주, 육군성과 절충 결과 18년까지 지연)
 - 만주 10개 사단, 조선 3개 사단 → 전시 13개 사단

8 大本營陸軍部 防衛庁防衛研究所戰史室, 『戰史叢書-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 402쪽.

- 내지 14개 사단 → 전시 2배 동원 28개 사단
7개 독립보병단 → 전시 7개 사단
- 계 27개 사단, 7개 독립여단, 전시 47개 사단⁹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는 2개 사단 예하에 8개 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를 3단위제로 바꾸면, 1개 연대만 충원하는 것으로 3개 사단 상주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바로 실현되지 않았다. 위 인용문에 나오듯 당시 일본 육군은 대규모 병력이 투사되는 전쟁이 1940년경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3단위제 사단으로의 편제 변경은 그때, 혹은 그 이후인 1943년까지 완수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개시되고 예상과 달리 전선이 점차 확대되면서 3단위제 사단으로의 개편은 지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1939년 조선군을 포함한 일본 육군 사단의 편제 개편이 단행되었다.

제5 내지병비의 개선

1. 1939년 4월 사단을 3단위제로 개편하고 대체로 내지사단 14개, 조선 고정원사단 3개, 計 17개로 하며, 또한 보병여단사령부 및 야전중포병 여단사령부를 폐지함.
2. 1937년도 이후 차례로 다음과 같이 편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대체로 1942년도까지 정비를 완료함.
3. 보병 73에서 78연대의 국경수비대 대부분을 폐지함.
4. 고사포연대 및 전신연대를 개편 증설하고 또한 공병 무(戊)중대를 통합하여 독립공병 연대 약간을 신설함.
5. 조선, 대만 및 만주에 있는 주요 부대에 대한 동원 및 소집업무를 담당할 부대를 내지에 신설함.
6. 각 부대를 통해 편제 장비를 개선 향상함.¹⁰

9 大本營陸軍部 防衛庁防衛研究所戰史室 著, 『戰史叢書-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 402쪽.

10 大本營陸軍部 防衛庁防衛研究所戰史室 著, 『戰史叢書-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 405쪽.

조선 주둔군은 3단위제의 고정원 3개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사단 사령부는 제20사단과 제19사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용산과 나남에 위치하고, 신설하는 제30사단은 평양에 사령부를 두는 것으로 했다. 제19·20사단의 병력과 위수지역을 조금씩 나눠 갖는 형태로 편성된 제30사단은 그 위상과 역할 역시 기존 두 개 상주사단의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 요컨대 중국 전선과 만주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한반도 서북부의 치안 유지를 담당할 상주사단이 등장한 것이었다.

사이토의 바람대로 새로운 상주사단은 평안도의 중심지 평양에 신설되었다. 제30사단의 설치가 완료되는 것은 1943년 5월이지만, 이미 193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앞서 육군 중앙의 논의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2. 육군조병창의 부평 건설 이유와 관련 시설

1) 중국 침략의 병참기지가 된 한반도

일본 정부와 군부는 중일전쟁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미 군비확장은 물론 그와 연관된 국가총동원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다. 1937년 5월 내각조사국이 기획청으로 재편된 것은 이를 지원하는 조치였다. 기획청에는 육해군 핵심과 군부 출신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군부가 중요 예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결국 기획청은 설치 후 육군의 주도 아래 ‘중요산업 5개년 계획 요강안’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1937년 7월 중일 간 전면전의 시작과 함께 일본 내 총동원체제 구축은 현실화되었다. 1937년 9월 2일 일본 내각에서는 「지나사변에 적용해야 할 국가총동원계획 요강」이 결정되기에 이른다. 아울러 앞서 기획청과 자원국을 합쳐 기획원을 성립시키고 그 산하에 11월 10일 국가총동원법안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4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내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조선도 국가총동원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38년 5월 조선과 대만에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고, 그 파급은 노무·물자·자금·시설·사업·물가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¹¹

11 정해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19, 99~101쪽.

조선총독부와 한반도 주둔 일본군 역시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 시행을 위해 기구 준비를 서둘렀다. 1937년 9월 총독관방에 자원과를 설치했고, 1939년 11월에는 여기에 임시자원조정과를 통합하여 기획부를 신설하였다. 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 중앙의 조치와 동일한 맥락의 기구 개편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기획부에는 육해군 무관이 사무관으로 논의 선상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군이 직접 필요로 하는 동원 정책이 조선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경우 1938년 12월 「조선군제시설희망요강」을 입안하고 이를 군 중앙과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였다. 「조선군제시설희망요강」은 중일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 본토와 중국 전선을 잇는 한반도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곧 조선의 병참기지화를 본격화하는 조치였다. 다만 그 내용은 단순히 물적 자원의 활용에 그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중국으로 통하는 조선의 교통 정비를 비롯하여 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활용, 작전 준비, 군비 충실, 방어, 병역 등이 거론되었다. 조선 내 군사 시설 구축은 물론 조선인 징병에 대한 ‘희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1940년 3월에는 참모부 내 자원반을 설치하여 조선 내 총동원업무와 군수동원을 전담토록 하였다.¹²

아래는 한반도 주둔 일본군사령부 참모부 내 자원반의 주임참모를 열거한 것이다. 자원반은 일제의 한반도 내 전시총동원체제 수행을 위한 군의 핵심 기관이었다.

한반도 주둔군 내에 처음 자원과 관련된 직책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의 만주침략이듬해였다. 1932년 자원관계장교로 임명된 도요시마 후사타로는 당시 만주 침략과 관련한 편성으로 판단된다. 이후 1936년 이하라 준지로가 군사령부 내 ‘총동원업무’ 담당으로 임명되었고 침략전쟁에 따른 조선 내 군수동원의 기틀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39년에는 참모 중좌 야마우치 지로가 부임했는데, 중일전쟁 장기화로 인한 한반도의 병참기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군수산업 확충에 박차를 가한 인물이었다. 이후 1941년부터 자원반 참모를 역임한 시미즈 코타로, 미하라 시치로, 그리고 다케토미 시게후미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수산업 확충과 이른바 한반도 결전 태세 확립의 장본인들이었다.

12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82~83쪽.

표 1 조선군 자원반 주임참모 일람표

연도	자원주임장교(참모)
1932	중좌 도요시마 후사타로(豊嶋房太郎)
1933~1935	중좌 야마모토(山本)
1936~1938	소좌(참모 중좌) 이하라 준지로(井原潤次郎)
1939~1940	참모 중좌 야마우치 지로(山内二郎)
1941~1943	참모 대좌 시미즈 코타로(清水孝太郎)
1944	참모 대좌 미하라 시치로(三原七郎)
	참모 중좌 다케토미 시게후미(武富重文)

출처: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附表 「資源班主任參謀一覽表」, 不二出版社, 1989.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수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무기 생산에 직결되는 철강 생산량 증대를 위해 힘썼는데, 1930년대 후반부터 1944년까지 식민지 조선 내 철강 등 군수물자와 직결되는 자원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2 철광 생산 실적

종별	연도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선철	287	234	278	365	518	673
강괴	103	112	117	128	108	118	
제강원철	14	37	53	59	53	75	
철광석	939	1,094	1,693	2,277	2,346	3,867	

출처: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附表 第6-1 「鐵鑛生産實績及將來の見込」, 不二出版社, 1989.

<표 2>는 한반도 주둔군 측이 확인한 식민지 조선 내 철광 생산 실적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1939년 28만 7,000톤이었던 선철 생산은 1944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67만 3,000톤에 이르렀다. 강괴는 증산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1939년 10만 3,000톤에서 1944년에는 약 12만 톤으로 증가했다. 제강원철의 경우 1939년 1만 4,000톤이던 것이 1944년에는 7만 5,000톤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철광석은 1939년 93만 9,000톤에서 1944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386만 7,000톤에 달했다. 일제의 군수자원 증산 노력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원들은 침략전쟁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3 철광 생산 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년·천톤)

1943		1944	
목표	실적	목표	실적
670	518	960	673
126	108	135	118
83	53	126	75
3,050	2,346	4,550	3,867

한편 일제의 군수자원 증산이 실효를 거두기는 했으나 이는 애초 계획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예컨대 1943년 당시 식민 당국이 계획한 철광석 생산 목표를 305만 톤이었다. 실제 생산했던 234만 6,000톤과는 격차가 있다. 1944년에도 역시 일제가 수립한 철광석 목표량은 455만 톤이었지만 실제로는 386만 7,000톤에 그쳤다.¹³ 일제는 식민지 조선 사회 구석구석을 수탈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상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연도별 군수자원 생산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입은 피해 규모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수물자로 사용할 철 등 주요 자원의 생산 및 관리는 육군조병창의 역할이기도 했다. 인천육군조병창 역시 한반도 내 관할 공장의 철 생산량을 분기별로 관리·계획하고 있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이 철 생산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공장은 평양의 제철소를 비롯하여 부평의 가네가후치공업(鐘淵工業), 청진의 일본원철(日本原鐵)과 미쓰비시광업(三菱鑛業), 평양의 미쓰비시제강(三菱製鋼) 등이었다.¹⁴

13 宮田節子 編 解説,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社, 1989, 111~113쪽.

14 「昭和20年3月 隷下部隊長會同時狀況報告 仁川陸軍造兵廠」, 『隷下部隊長會同の際の兵器生産狀況報告 昭和20年3月』, (청구번호 中央-軍事行政兵器-41).

2) 육군조병창이 부평에 건설된 이유

일제가 육군조병창을 부평에 건설한 이유는 우선 그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 부평은 경성과 인천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면서 한강을 통한 수로에 접근이 용이하고 계양산·철마산·원적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평의 입지 조건은 당시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음을 증명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부평은 중일전쟁에 필요한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이 출발하는 인천항과 가까웠다. 부평에서 만들어진 병기는 조병창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철도를 통해 인천항으로 이송되었고 곧바로 중국 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다. 아울러 경성의 재화가 지체 없이 전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다. 한강의 수운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수로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사시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으로 부평은 교통의 이점이 무색할 만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다. 마치 인공적으로 구성된 듯 산지가 부평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지형이 전시를 맞아 이 지역의 활용도를 높였다. 요컨대 부평 지역은 분지였던 까닭에 안개가 자주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당시 일제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미군의 항공기의 공습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다만 실제 미군은 한반도 내륙에 대한 공습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평의 입지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전쟁 말기 미군이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미군 항공기로부터 부평 지역의 안개는 효과적인 방패막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1930년대 초까지 부평 지역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개발의 초점은 경성과 인천에 맞춰져 있었다. 부평 지역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부터였고 공업지대로 변모한 것은 중일전쟁 직후부터였다. 즉 1937년 벽돌공장과 자동차공장이 부평에 건설되었으며 이후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 부평공장과 조병창이 속속 건설되었다. 이후에도 조병창과 연계된 군수공장들이 연이어 부평의 너른 뜰을 채워갔다. 그렇다면 일제가 구체적으로 육군조병창의 부평 건설을 계획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일본 육군이 부평 지역을 육군조병창의 후보지로 낙점한 것은 1939년 초로 판단된다. 1939년 8월 9일 육군조병창 장관 고스다 가쓰조(小須田勝造)가 육군대신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에게 보낸 「토지 매수의 건 신청」이라는 문건에는 인천 부평 일대에 '조선공창(朝鮮工廠) 건설을 위해 토지 매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군수동원 실시에 따른 조선공창(가칭) 신설이 필요하여 별지의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20사단 경리부 소관 부평연습장 72만 8천여 평의 이관을 받는 것 외 붉은 글씨의 구역을 대략 다음의 목적에 의거 임시 군사비 축조비 영달 예산 내로써 토지 매수를 신청합니다.¹⁵

1939년 8월 당시만 해도 육군조병창장관 고스다는 부평의 해당 시설을 '조선공창'으로 가칭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공창 신설 부지가 애초 용산 주둔 제20사단 경리부가 소관하고 있던 부평연습장 72만 8,000여 평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즉 부평 지역 일대는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애초부터 일본군의 군용지로 점탈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역시 부평에 조병창이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평의 조선공창 건설은 같은 해 9월 들어 더욱 명확해졌다. 위 문건과 같이 편철되어 있는 1939년 9월 1일 자 문서에는 육군성이 고스다의 요청을 허가함과 동시에 조선에 '제조소' 증설이 필요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은 육군성 병기국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 내 제조소 증설의 설명 개요 1939.8.10.(병기국)

만선(滿鮮) 북지(北支)에 대한 수송의 신속 안전 및 조선 내 병기 공업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경성 근방에 총기류의 생산을 주 임무로 하는 제조소 한 곳을 설치한다. 본 제조소는 우선 고쿠라공창장의 예하에 두는데 1940년도에는 평양병기제조소와 함께 새로 설립할 조선공창에 예속토록 한다.

위 문서에는 부평의 육군조병창이 건설된 목적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첫째, 부평 조병창은 만주와 조선, 그리고 중국으로 수송할 병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둘째, 이러한 시설은 경성 근방에 건설되는 것이 효과적이었는데 부평은 그 적합지였다. 셋째, 부평 조병창은 설치 이후 총기류 생산을 주 임무로 할 계획이었다. 또한 위 문건에 따르면 인천조병창은 제조소로 계획되었고 고쿠라공창의 예하로 설치했다가 1940년도에 조선공창이 마련되면 그 예하로 개편할 예정이었다.

결국 조선의 육군조병창은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와 대정리에 소재한 부평연습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건설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부평연습장은 용산에 주둔했던 제20사단 경리부가 관할하는 부지였고 이것만 72만 8,000여 평에 달했다. 부평연습장을 제외한 인근의 토지는 임시군사비로 충당했다.

육군의 임시 군사비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예산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이어지는 시베리아 혁명 간섭전쟁,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 등 총 네 번의 임시 군사비를 운용했다. 결국 일제의 침략전쟁과 임시 군사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임시 군사비는 전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그 목적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 전용에 있었다. 애초 전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임시 군사비가 전용되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까지 쓰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임시 군사비를 이용한 군비 확장은 원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제국의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요컨대 부평에 육군조병창 부지를 임시 군사비로 매입한 것은 애초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선 북지로 수송의 신속 안전 및 조선 내 병기 공업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꾀했다는 점에서 이 시설이 전쟁과 직결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조병창이 명백한 군비 확장 시설로 계획되었음은 분명하다.

조선 내 공창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매입, 그리고 관련 시설물 공사는 이듬해 말이 되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선공창으로 가칭했던 시설은 공식 명칭을 '인천육군조병창'으로 하여 1941년 5월 5일 문을 열었다.

한편 부평의 육군조병창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도 있다. 요시하라 이사

15 「土地買收/件申請」, 『昭和14年 密大日記』 第5冊(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619300).

무(吉原勇)가 쓴 「인천에서의 70년」에는 다음과 같이 부평에 조병창이 설치되던 당시의 일화가 기재되어 있다.

1938년, 나가이 부윤이 부평 고쿠라 무기 제조창 분소 형태로 무기 제조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손에 의해 만주국이 건국된 군비 확충이 주장되고 있던 시대이다. 인천항을 갖고, 경성을 배경으로 만주국도 가까운 인천은 지리적으로도 우수했다. 고쿠라 무기 제조창 분소는 바로 인천 무기 제조창으로 격상되었다. 인천 무기 제조창 주변에는 아래 구축을 위한 기계 공장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¹⁶

요시하라는 조병창의 부평 설치가 부윤 나가이의 유치 운동에 힘입었다고 적었다. 조병창이 부평에 설치된 이유로 지리적·군사적인 것 외 해당지역의 적극적 유치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에는 당시 일본의 주요 토건업체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간토구미(関東組), 다다구미(多田組), 시미즈구미(清水組), 다마모구미(玉藻組), 하자마구미(間組) 등이다.

3) 인천육군조병창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었나

조병창은 일본군의 병기와 탄약, 그리고 전투용 차량 등의 제조와 수리를 담당하는 공장을 일컫는다. 이를 일본 육군에서는 육군조병창이라고 하고 해군에서는 해군공창으로 명명하였다. 즉 부평의 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의 군수물자를 제조·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었다.

일제 육군조병창의 전신은 1879년 10월에 설치된 포병공창으로 포병공창 제리(提理)가 통괄하는 시설이었다. 당시는 도쿄 포병공창과 지창인 오사카 포병공창 두 곳이 있었다. 1923년 3월 29일에는 그 명칭을 육군조병창으로 고치고 장을 장관급으로 변경하였다. 본 창에서는 무기 고안과 설계, 장관 직할 제조소의 관리, 그리고 관련 사무를 수

행했다. 예하로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에 공창을 두었다고 한다.

한편 화약과 폭약 제조를 주로 취급했던 공창을 화공창으로 명명하고 도쿄에 그 시설을 두기도 했다. 훗날 고쿠라(小倉)와 남만(南滿, 奉天)에 공창을 증설하게 되었다. 각각의 공창에서는 소총과 포 등의 제조소가 있었고 화공창에는 화약제조소를 두었다. 이 밖에 본창의 직할 제조소로 고쿠라 병기제조소와 평양 병기제조소가 있었다.

공창은 1940년 4월 1일에는 종래의 육군병기창과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이때 육군조병창은 육군병기창 예하 지창으로 편제되었다. 육군조병창은 공창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졌으며 도쿄 제1·도쿄 제2·사가미(相模)·나고야(名古屋)·오사카(大阪)·고쿠라·인천·남만 등지에 각각 설치되었다.

육군조병창에는 일반적으로 총무부·작업부·기술부·회계부, 그리고 공창과 직할 제조소 등의 하부 조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육군조병창은 1923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시 제정된 「육군조병창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보(陸普) 제985호 육군조병창령 제정의 건(1923.3.16.)

육군대신 아마나시 한조(山梨半造)

내각총리대신 남작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郎) 귀하

육군조병창령을 별지의 칙령안과 같이 제정하여 드리고, 이유서를 구비하여 각의를 요청합니다.

(칙령 제83호) 육군조병창령

제1조 육군조병창은 육군소요의 병기의 고안 설계를 하고, 육군 소요의 병기 기타의 군수품 및 일반 화약류를 제조·수리하며, 또한 이들 제품의 검사를 하는 동시에 해군 소요의 화약을 제조·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육군조병창에 총무부, 작업부, 기술부, 회계부, 공창 및 장관 직할의 제조소를 둔다. 공창은 도쿄(東京), 오지(王子), 나고야(名古屋) 및 오사카(大阪)에 두고, 직할 제조소는 고쿠라(小倉) 및 평양에 둔다. (……)

제4조 공창에 소요의 과 및 제조소를 둔다. (……)

제6조 육군조병창에 장관을 둔다. 장관은 육군대신에 예속하며 육군조병창의 업무를 처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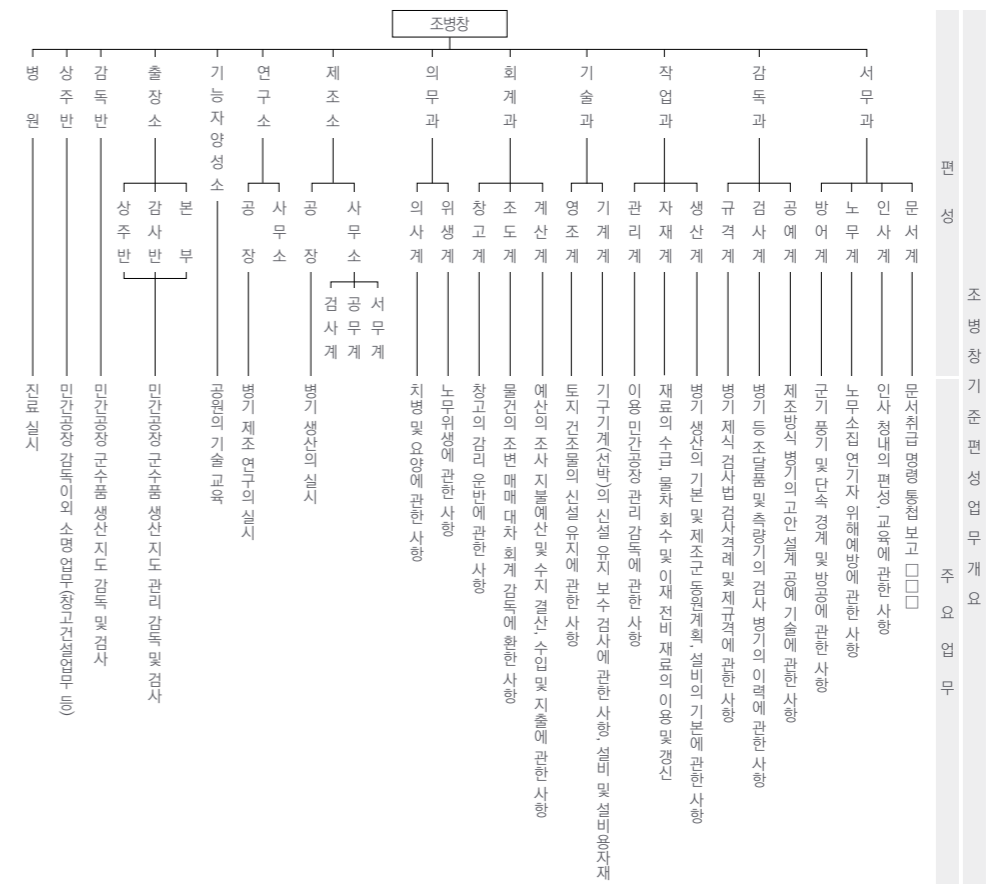
16 吉原勇, 「仁川の七十年」[仁川を想う會 홈페이지(<https://jinsendayori.jimdofree.com>)] '仁川のお話'에 게재된 자료].

또한 소할의 토지 및 건조물의 경영을 관장한다.(……)¹⁷

「육군조병창령」에는 조병창의 역할·조직·시설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중 역할 부분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 「육군조병창령」 제1조를 보면, 육군조병창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소요의 병기 기타의 군수품 등 외에 해군 소요의 화약을 제조·수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육군의 조병창에서 해군의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설립 초기부터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추가로 살펴보겠다.

육군조병창은 설립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이 부가되어 갔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병기 수요가 증가하자 군비 충실을 위해 병기행정의 효율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40년 4월 육군병기창과 육군조병창을 육군병기창으로 통합하는 한편, 육군병기창을 통괄하는 조직으로 육군병기본부를 두기에 이르렀다. 육군병기본부 예하에는 병기보급창과 조병창 등을 편제하였다. 1942년 10월에는 다시금 조직 통합을 피하여 육군병기행정본부로 개편되었다. 특히 육군조병창 자체의 조직 역시 더욱 세분화되었는데 일반적인 육군조병창의 조직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일제 말기 조병창 조직 및 업무표



출처: 『終戰直後の造兵廠現況綴』(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전쟁 말기 일본 열도에는 도쿄 제1·제2, 사가미, 나고야, 오사카, 고쿠라 등지에 각각 육군조병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밖에 만주에 남만육군조병창,¹⁸ 그리고 인천에 인천육군조병창이 각각 자리하였다. 남만육군조병창은 1938년 6월 육군조병창 기술부 봉천출장소 설치를 모체로 하여, 같은 해 8월 육군조병창 남만 공창으로 개편되었으며, 1940년 4월 남만 공창을 남만육군조병창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소속은 육군병기본부 예하였으나 1945년 5월 관동군 아래로 이관되기도 했다.

18 남만육군조병창은 봉천(선양의 옛 이름)이었고, 현재 랴오닝성 선양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17 「陸軍造兵廠令ヲ定ム」, 『公文類聚』 第47編 大正12年 第3卷 官職2 官制2(아시아역사자료센터, A131006 03600).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 개창 이래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제조소를 중심으로 병기 생산 및 수리에 전념했다. 제1제조소 아래는 3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마다 소총과 탄약, 총검, 군도 등을 나누어 생산하였다. 이 밖에 숙사와 병원, 매점, 그리고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기능자양성소 등도 만들어져 있었다. 설치 이후 조직 자체에 큰 변화 없이 운영되다가 1945년 초 본토결전 방침에 따라 제조소 신설과 부대시설 확충, 그리고 지하공장 등의 건축이 이어졌다. 1945년 6월에는 남만조병창과 동일하게 육군병기본부 역할을 벗어나 조선군관구 아래로 편입되었다.

인천육군조병창에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3명의 조병창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9년 설립 당시 조병창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942년에는 다이코 기사부로(大幸喜三郎)라는 인물이 조병창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이코 창장은 1943년 초 일본 화병학회(火兵學會)에서 발행하는 『화병학회지』36(5)집에 「화포의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아 화포 병기 전문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3년 10월경부터 1945년 패전 때까지 인천육군조병창장을 역임한 인물은 와케 다다후미(和氣忠文) 대좌였다. 1943년 10월 매일신보 ‘인사’란에 와케 창장이 인사차 방문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¹⁹ 신임 청장 부임인사차 방문이었던 것 같다. 이후 더 이상의 차장 인사는 없었다. 와케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반도 병참기지화의 핵심시설을 장악한 인물이었다. 와케는 교토제국대학 공학부를 1927년에 졸업한 인물로 같은 대학 공학부 전기과 교실 내 동창모임인 낙우회(洛友會)의 회보에 이름이 확인된다.²⁰ 그는 인천육군조병창장 재임시절이던 1941년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의 신산업 도덕의 제창』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었고, 이듬해 4월에는 『국방기술(國防技術)』이라는 책에 「국방기술과 과학 및 경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²¹

일본 본토를 제외한 조병창은 남만과 인천 두 곳이 있었는데 역할과 위상으로 볼 때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은 이채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인천육군조병창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중일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탄생했으나 전황 악화와 미국의 한반도 상륙에 이르러서는 미일전쟁에 대비한 시설로 탈바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에는 농장과 축사도 있었다. 이른바 현지 자활 명분으로 직접 관련 시설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병창이 스스로 생계를 꾸린 것이었다. 농장에는 수전(水田) 20정보, 전지(畑地) 20정보, 신개간지 10정보가량이 있었다. 전지의 경영은 대부분 직영했으며 이 외는 해당지역 공공단체 등에서 경작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944년 수전에서는 찹쌀을 경작하여 302섬을 수확했다. 전지에서는 채소류를 키웠는데 1만 5,700관을 거두어들였다고 한다. 신개간지에서는 잡곡류 1,650관, 피마자 11석을 수확했다. 피마자는 항공유 대용으로 사용할 피마자유를 얻기 위해 재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돼지감자 등 여러 작물을 경작하는 한편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야채를 재배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기도 했다. 축사에서는 말과 소, 돼지, 닭 등을 키웠다. 수레를 끄는 말 15두를 비롯해서 조선마 5두, 축우 90두, 돼지 100여 두, 닭 11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1945년에는 돼지를 400두로, 닭은 2,000마리로 늘릴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육군조병창이 들어서는 것을 전후로 부평 지역에는 관련 공장들이 다수 건설되었다. 주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히로나카상공(1937.6.), 조선제강소(1937.6.), 조선기계제작소(1937.6.), 도쿄자동차공업(1939.12.), 시바우라 제작소(1940.1.), 히다치 제작소(1940.3.)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육군은 부평에 기계와 금속 관련 기업들을 설치하고 이들을 연계한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했던 것이다.

전쟁이 심화되어 생산해야 할 무기가 늘어나자 조병창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간 공장에 관련 생산을 하청하는 일도 늘어났다. 민간 공장에는 주로 부품 생산을 담당케 하고 조병창은 이들을 받아 조립해서 완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조병창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에서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장 노동자로 동원되었다.

19 「人事」, 『毎日新報』, 1943년 10월 31일 자.

20 『洛友會會報』 25号, 昭和32年 8月 1日.

21 和氣忠文, 『高度國防國家の新産業道徳の提唱』, 藤田遷善堂, 1941; 「國防技術と科學及經濟」, 多田禮吉 編, 『國防技術』, 白揚社, 1942.

3. 부평의 육군조병창에서 만든 무기와 그 성격

1) 조병창에서 만들어진 무기들

부평에 육군조병창이 처음 계획되었을 당시 이곳의 월 단위 설비 목표는 소총 2만 정, 경기관총 및 중기관총 각 100정, 총검 2만 개, 군도 1,000개 등이었다. 그러다가 패전이 가까워졌을 무렵에는 매달 소총 4,000정, 총검 2만 개, 소총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군도 2만 개, 그리고 차량 200량 정도를 생산하고 있었다. 품목별로 증감이 있지만 상당한 수량의 무기들이 양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평의 육군조병창에서 생산된 병기들에 관해 요시하라는 인천조병창은 “단기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는 큰 공장”이었고, 여기에서 “소총·실탄·총검 등이 만들어 졌다”고 하면서, 부평에는 “일본 각지에서 육군 기술자와 군사, 그리고 직원이 모인 숙소가 지어졌고 부평국민학교도 신설되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 규모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천 무기 제조창의 생산력이 대단했음을 나타내는 통계로 총검 생산 개수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총검은 30년식이라고 하는 메이지 30년, 즉 1897년부터 생산된 타입이었지만, 인천 조병창에서 종전까지 45만 개가 만들어졌다. 일본 전국에서 만들어진 개수가 880만 개였 때문에, 5% 이상을 단기간에 생산한 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 특히 부평의 제1제조소에서는 육상병기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부평에서 만들어진 총검은 45만 개에 달해서 그때까지 일본 전체에서 생산된 30년식 총검 전체 수량의 5%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1946년 조선군잔무정리부(朝鮮軍殘務整理部)가 작성한 「조선 내 전쟁 준비(朝鮮に於ける戰爭準備)」(『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社, 수록)에 따르면, 종전 당시 부평의 인천 육군조병창에서 생산하던 주요 병기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다.

〈주요생산품의 종류 및 수량〉

소	총	4,000 정(挺)(1개월)			
총	검	20,000 진(振)(월)			
소총	실탄[實包]	700,000발(發)(월)			
대	포	용	탄	환	30,000발(월)
군	도(軍刀)	2,000 진(월)			
차	량	200 량(輛)(월)			
피	혁	마	제	품	200,000엔(월)
소	형	배[舟艇]	250(1944년 및 1945년도 분으로 함)		
무	전	기	200조(組)(1945년도 분) ²¹		

이들 병기들은 부평에 있었던 제1제조소와 평양의 평양병기제조소를 주축으로 각지에 산재한 조병창 예하 공장과 관련 시설물들에서 생산되었다. 이러한 병기들의 제조를 위해 인천육군조병창에서는 1942년 2,700만 엔, 1943년 2,630만 엔, 1944년에는 이전 해보다 훨씬 많은 4,500만 엔의 예산이 사용되었다.²³ 그런데 인천육군조병창이 생산한 병기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조선군개요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²⁴ 부평의 조병창에서는 매우 특수한 병기 생산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른바 마루유라고 불렀던 ‘3식수송잠항정(3式輸送潛航艇)’이 그것이다. 수송잠항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통상 잠수함으로 불리는 함정이었다.

잠수함 마루유는 그 특성상 부평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병기는 아니었다. 마루유는 인천 만석정에 있었던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생산되었으며 조병창은 제작소를 관리 감독하면서 전쟁 말기까지 잠수함을 생산해 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1944년까지 총 6

22 宮田節子 編 解説,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社, 1989, 117쪽.

23 1945년 확인된 예산액은 1,500만 엔이다.

24 『조선군개요사』에도 잠수함 진수에 관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조선군개요사』는 “잠수정 제조를 위해 인천의 조선기계제작소 공장에 선거(船渠)를 부설하고 그 제작을 개시해 종전 전에 1척을 진수할 수 있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척의 마루유를 진수한 바 있었다. 잠수정 건조에 참여했던 김재근 역시 조선기계제작소가 완공한 마루유는 총 6척이었고, 10척 정도가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²⁵

주목할 점은 마루유의 생산 목적이다. 마루유는 공식 명칭대로 잠항하는 수송정이었다. 전쟁 말기 일본군은 미군에 의해 해상이 봉쇄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수송용 주정을 생산하여 운용하거나 아예 잠항하여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수송용 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송잠항정 마루유는 생산 초기부터 문제점이 많았다. 잠수함을 해군의 주도 아래 만들지 않고 건조 경험이 전무했던 육군이 운용하는 조병창의 관리 아래 제작한다는 것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었던 육군은 잠수함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설비를 무시했고 이는 승무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쟁이 빨리 끝남으로 인해 마루유의 운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천육군조병창에서 1944년까지 생산한 주요 병기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1945년 3월에 작성된 「1945년 3월 예하 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문건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문건은 인천육군조병창장이던 와케 다다후미가 1945년 3월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종전 직전 조병창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²⁶ 와케는 인천육군조병창의 병기 생산을 1944년 현재 병기행정본부가 정한 최고 목표 대비 97%, 최저 목표에 대비해서는 105%를 달성할 만큼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2% 증대된 수치라고 평가했다. 아래는 와케가 보고한 1944년도 인천육군조병창의 주요 병기 생산 실태를 정리한 내용과 그 현황표이다.

25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68~69쪽.

26 「昭和20年3月 隷下部隊長會同時狀況報告 仁川陸軍造兵廠」, 『隷下部隊長會同の際の兵器生産狀況報告 昭和20年3月』. 이 자료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가 소장하고 있으며 인천조병창의 패전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자료의 구체적인 설명은 「II. 육군조병창의 마지막 전쟁 준비, 그리고 부평지하호」의 지하시설 관련 부분에서 기술토록 하겠다. 아울러 이하 작성된 인천조병창 현황은 별도 주석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소총 : 인공검(刃工檢)²⁷의 부족, 요원의 내지(內地) 항공 생산 협력을 위한 파견 등에 따라 일시 생산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현재 설비 특히 기계 수리의 철저, 인공검의 정비, 제조방식의 재검토 등 생산 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등 회복에 힘써 본년도에 6만 정은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소총의 증산은 인공검의 완비 여하에 있기 때문에 자주적 정비에 힘쓰고 있지만 또한 본부 및 관계 조병창의 협력을 절망(切望)한다.

총검 : 대개 예정과 같이 진척 중인데 신규 민간 공장(民工場)의 이용, 재료 특히 목재의 취득 곤란, 기술 미숙 등으로 인해 예정된 생산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생산 궤도에 오르게 되어 금후는 획기적 증산에 매진할 수 있는 태세가 된 상태이다.

지상 탄환 : 지상 탄환은 조선 내 능력을 전면적으로 이용하여 수행 중이다. 특히 증산 지령이 있었던 97식 곡사 100식 유탄 20만 발, 12센티미터 추격포 2식 유탄 5만 발은 각각 완성될 것이다.

항공 탄약 : 37밀리미터 포탄환은 14만 발을 완성하려고 노력 중으로 그 완료 후에는 신규 정비품목인 30밀리 포탄환으로 전환하고자 준비 중이다.

유(油)²⁸ : 이미 순차 보고된 상황처럼 동기(冬期) 작업은 어렵게 시행한 상태이다. 다소 작업 지연되어 이미 진수 완료된 것 6척, 이번 연도 내에 확실한 진수 7척, 또한 인도 완료는 5척을 예정하며, 그 달성은 특별히 내지 취득 부품의 촉진에 있으므로 관계 조병창과 밀접한 연계에 힘써 협력을 얻었다.

항공기 부품 : 본년도 약 10만 원 계획으로 그 전부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련 공구 450만 원 정도를 작업 중인데 소요 자재는 점차 최근에 입수되는 상황으로 현재 주의 깊게 그 촉진에 노력 중이다.

27 병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말한다. 전비재료라고도 하며, 인구·공구·검사구를 통칭한 것이다.

28 3식 수송잠항정 마루유(まるゆ)를 말한다. 동그라미 속에 'ゆ'를 써서 표기하였다.

표 5 1944년 주요 정비품 생산 상황

품 목	단위	정비계획수	생산 목표				대비% (최저 목표에 대한 %)
			1월까지 실적	2월까지 실적	3월 예정	계	
30년식 총검	振	219,000 (162,000)	121,800	25,000	30,200	177,000	98
4식 단검			11,000	10,000	19,000	40,000	(134)
99식 단소총	挺	65,000 (60,000)	44,550	5,000	10,450	60,000	91 (100)
99식 수류탄 갑탄환	箇	603,000 (543,000)	483,510	27,000	39,490	550,000	91 (101)
89식 중척탄통 및 유탄 탄환	箇	266,000	131,412	21,547	39,640	192,599 ²⁹	172
97식 곡사 보병포 및 100식 유탄 탄환	箇	255,000 (135,000)	112,390	33,918	53,692	200,000	78 (148)
92식 보병포 및 유탄 탄환	箇	65,000	72,091	2,890	34,519	109,500	108
94식 37밀리포 및 유탄 탄환	箇	150,000	152,156	2,061	0	154,217	103
1식 37밀리 전차포 및 시제 1식 유탄 탄환	箇	52,500	22,977	4,600	8,423	36,000	68
1식 기동 47밀리포 및 98식 유탄 탄환	箇	42,000 (30,000)	27,000	6,000	7,000	40,000	95 (133)
41식 산포 및 94식 유탄 탄환	箇	80,000	49,749	7,000	10,000	66,749	76
94식 경박격포 및 시제 2식 유탄 탄환	箇	15,000	15,000	0	0	15,000	100
92센티 박격포 및 시제 2식 유탄 탄환	箇	39,500	40,158	3,000	6,842	50,000	126
88식 10센티 야전 고사포 및 90식 고사 첨예탄 탄환	箇	101,500	109,081	6,392	18,527	134,000	132
91식 10센티 유탄포 및 91식 첨예탄 탄환	箇	8,000 (6,500)	0	1,800	10,200	12,000	150 (184)
기부부주(機附舟) ³⁰ 외 기관	隻	240	110	50	90	250	104
잠항수송정	隻	(9)	(6)	0	(1)	(7)	77
15마력 소옥기관(燒玉機關) ³¹	基	435 (415)	240	85	175	500	115 (120)
75마력 소옥기관	基	100 (30)	0	0	0	0	0

29 자료에는 192,600으로 기재되어 있다.

30 부주(舟)는 물자를 실을 수 있도록 밑바닥이 평평한 배를 말한다. 기부(機附)는 기관이 부착되었다는 뜻이다. 즉, 엔진이 부착된 수송선을 일컫는데, 일본 육군이 운용했던 주정(舟艇)부대의 대발동정(大發動艇), 일명 다이하츠 등이 그것이다.

31 야기다마라고 한다. 구리로 된 구에 화약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적진에 던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품 목	단위	정비계획수	생산 목표				대비% (최저 목표에 대한 %)
			1월까지 실적	2월까지 실적	3월 예정	계	
115마력 소옥기관 단조품	箇	260 (240)	0	0	0	0	0
선정(船艇) 수리용 기계기구	滿圓	20	0	0	0	0	0
94식 2호 을(乙) 무선기	基	100	0	0	40	40	40
차량 무선기 갑	基	60	0	0	0	0	0
경철조 철	箇			200	2800	3,000	
분해식 축두	組		25	10	10	45	
휴대 엔비(円匙) ³²	箇	180,000	135,000	45,000	20,000	200,000	111
십자초(十字鋸) ³³	箇	75,000	89,600	11,712	18,688	120,000	160
학취(鶴嘴) ³⁴	箇	8,000	8,000	0	500	8,500	106
소석공구(小石工具)	箇	930	900	200	0	1,100	110
29식 경중차 갑	輛	6,294	4,950	100	150	5,200	82
38식 경중차 만마(鞍馬) ³⁵ 용구	組	2,000	1,500	0	1,500	3,000	150
경중용 97식 태마(馱馬) ³⁶ 용구	組	3,000	2,000	0	3,000	5,000	100
41식 산포 격마구(擊馬具)	組	75	70	10	120	200	266
96식 포병 만마구 전마용(前馬用)	組	600	0	0	3,000	3,000	500
96식 포병 만마구 후마용(後馬用)	組	450	0	0	0	0	0
14년식 승마구	組	950	0	0	1,000	1,000	111
95식 장교 승마구	組		0	0	2,000	2000	
경중용 15년식 태마구	組		0	0	0	0	
94식 산포 97식 태마구	組		0	0	3000	3000	
차203 유탄대용탄 탄환 가신관공(假信管共)	箇	130,000	6,000	35,218	98,782	140,000	107
항공기 관련 공구	千圓	4,500	0	0	0	0	0
항공기 부품 생산	千圓	10	56	19	25	100	100

비고 : ① 본 표의 정비계획 수량은 1945년 12월 27일 병정조(兵政造) 기밀 제44-2호에 의한 1945년 1월에서 4월 정비 계획 하달에 따른 것임.

② 괄호 안의 수치는 최저 목표를 나타냄.

32 일본 육군 보병용 삽을 말한다.

33 십자 갱이를 말한다.

34 곡갱이를 말한다.

35 차량을 끄는 말을 말한다.

36 하물을 나르는 말을 말한다.

부평에 있었던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생산한 병기들은 크게 육상병기, 항공병기, 그리고 해상병기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소총·탄약 등 육상병기는 주로 부평의 제1제조소에서 생산했다. 잠수정을 비롯하여 주정 등의 운송정은 조선기계제작소 등이 맡았다. 전국에 산재한 항만의 공장에서도 관련 병기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항공병기는 평양병기제조소에서 주로 담당했다.

2) 육군조병창이 증언하는 일제의 침략전쟁

부평의 육군조병창은 한반도 내 무기 생산의 총화였다. 이를 토대로 일제는 전쟁을 수행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부평 육군조병창은 일제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조선군개요사』는 이러한 부평 인천육군조병창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인천육군공창(인천육군조병창을 말한다-필자)은 조선군 및 경성, 인천 간의 관민의 열의를 일본육군이 인정하게 되어 1939년(昭和14) 착공하게 된 것으로 주로 소총탄약, 소구경화포탄약, 총검, 수류탄, 경차량의 제작을 위해 조선하청공장을 전면적으로 배양 육성하고 또 잠수정 급조의 요구에 응해 인천조선기계공장을 감독해 그 완성을 도모하였다. 당시 공창에서는 조선청년을 공원(工員) 및 공원 견습으로 교육 훈련해 정신적으로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향상토록 한 바가 현저하고, 특히 조선 공원에게 자신 있는 기술을 부여하여 긴 밤의 꿈에서 깨도록 한 공적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군개요사』의 실질적인 저작자는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마지막 참모장이었던 이하라 준지로(井原潤次郎)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평의 육군조병창이 침략전쟁에 대응하여 병기를 생산했던 시설 그 이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제국주의 점령군 장교의 눈에 육군조병창은 조선의 청년들이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공간이기보다는 이들을 기술적·정신적으로 향상시킨 시혜의 장소였다. 나아가 조병창의 교육 훈련은 조선 청년들이 “긴 밤의 꿈에서 깨도록 한” 위대한 공적이었다.

실제 육군조병창에는 수많은 식민지의 청년들이 동원되어 일하고 있었다. 1945년 8

월 31일 기준으로 육군병기행정본부가 작성한 『조병창 현황』이라는 자료에는 침략전쟁기 조병창의 일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³⁷ 다만, 육군병기행정본부의 『조병창 현황』은 종전 후 본토에 있었던 조병창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천육군조병창의 실태를 살피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조병창 현황』에 따르면, 1945년 8월 현재 일제의 조병창 전체에 소속된 노무자 총수는 약 23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 중 여자가 30%, 학생이 25%를 차지했고, 이와 별도로 조선인이 2% 동원되어 있었다. 단순 계산으로 약 5,000명의 조선인이 일제의 조병창에 동원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조병창에는 청장년층의 남성들을 주로 고용했는데, 1942년 말기부터 남성들이 전장에 동원되는 비중이 늘어나자 다수의 여자 노무자를 채용했고, 1943년 말부터는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부평의 육군조병창을 제외한 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은 한반도에 건설되었던 만큼 그 건설과정은 물론 향후 운영 중에도 일본보다 더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과연 부평에 건설되었던 인천육군조병창에는 어느 정도의 조선인들이 동원되었던 것일까. 인천육군조병창의 조선인 동원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조병창 등 관련 시설물 건축 단계의 동원, 둘째 조병창 완공 이후 무기 생산 및 제반 설비 운영을 위한 동원, 셋째 전쟁 말기 조병창의 지하화를 위한 동원 등이다.

우선 조병창 건축 단계의 동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에 따르면, 일제는 일찍이 부평에 육군조병창을 건설할 당시부터 조선인들을 동원했다고 한다. 조병창 건축을 맡았던 시미즈구미(清水組) 등 5개 건설업체가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인근의 김포와 강화, 멀리서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 일대에서 동원했다는 것이다.³⁸ 이들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사 규모가 컸던 만큼 최소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직접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수천 명이고 관련된 여러 설비와 수송 인력까지 더하면 더욱 많은 인원을 추산할 수 있다.

37 陸軍兵器行政本部, 『造兵廠の現況』, 1945.8.31.(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청구번호 中央-軍事行政-軍需動員-195)

38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170~171쪽.

다음으로 육군조병창 완공 이후에는 공장에서 직접 병기를 생산하기 위한 인력은 물론 관련 설비와 유관 업무를 진행할 인력으로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군 측이 제작한 『유수명부』와 『임시군인군속계』 등의 명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수명부』 등 명부 가운데 인천육군조병창 소속으로 기재된 조선인들은 총 1만 2,584명이 확인된다.³⁹ 이상의 중복자를 제외하면 1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명부에 누락된 인원들을 더하면 동원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명부의 동원자 중에는 국민학교를 포함 중학교와 전문학교 등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증언들에도 부평의 육군조병창에 어린 학생들의 동원 정황이 확인된다. 『매일신보』 1944년 5월 10일자 제1면 첫 기사에는 「반도학도동원 제1회 발동. 인천조병창에 입창」이라는 제목으로 조병창에 동원된 학생들이 대서특필되었다.

인천조병창에 입창(入廠). 6남여 중등교생 3백 60명.

결전 비상배치요강에 바탕한 학도동원은 8일 제30회의 대조봉재일(大詔奉載日)의 가일(佳日)을 마치어야 인천육군조병창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어 이날 경성공업, 인천중학, 인천상업, 인천공업, 인천고녀, 소화고녀의 6남여 중등학교 생도 3백 60명의 학도가 우리 손으로 숙적 미영 격멸의 결의에 불타며 역사적인 입창식을 거행하였는데, 식상(式上) 조선총독부 학도동원본부장 전중(田中) 정무총감, 중정(中井) 조선군 병기부장, 화기(和氣) 조병창장은 다음과 같은 축사와 훈시를 하여 일층 학도의 약기(躍起)를 촉구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조병창에 학생들이 처음 동원된 것은 1944년 5월이었다. 당시 경성공업과 인천중학 등 6개교 학생 360명이 입창식을 통해 조병창에 들어가 노동력 동원 피해를 입었다. 불의의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이를 무리하게 지탱하기 위해 식민지의 청년들을 전쟁에 끌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 학생들까지 무기 생산에 동원하는 제국주

39 이상의 면담 및 해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군사편찬위원회, 2019, 4~6쪽.

의 일본의 민낯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 말기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조병창의 주요 시설과 무기들을 지하로 은닉하기 위한 시설물 구축 공사에 동원된 사례가 있다. 역시 조병창 지하화 공사에 얼마만큼 조선인이 동원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현재 부평 주위의 산자락에 남아 있는 지하시설의 규모와 개수로 추정컨대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육군조병창에는 식민지의 사람들만 동원된 것이 아니었다. 무기 생산이라는 명목 아래 식민지민의 숟가락, 낫그릇 등 생활 물자까지 몽땅 수탈하고 있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의 경우 주요 생산품이 소총과 실탄, 포탄 등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철과 구리가 필요했다. 조선총독부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식민지 곳곳의 철과 구리를 끌어모았다.

1941년 8월 일제가 공포한 ‘금속류 회수령’은 철과 구리 공출을 강제한 법령이었다. ‘금속류 회수령’은 1941년 8월 29일 칙령 제835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국가총동원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수물건의 양도 및 처분, 사용 및 이동에 관한 명령과 더불어 「국가총동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수물건의 양수(讓受)에 관한 협력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금속류 회수령’에 규정된 회수물건은 철과 동, 또는 황동, 청동, 그 외 동합금을 재료로 하는 물자였다.⁴⁰ 조선에서는 194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조선인이 가진 생활용품 중 일제가 필요한 금속류가 포함된 것은 강제로 회수되었다.

일제에 의해 회수된 조선의 숟가락과 낫그릇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바로 부평의 육군조병창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조선인의 생활금속을 조병창의 거대한 고로에 넣고 녹여 침략전쟁의 총과 총알을 만들었다. 강제 회수된 금속류들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조선인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사용했던 유산이며, 한 끼 한 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한 생명의 도구였다. 일제는 철이며 구리로 호명되는 금속을 넘어 조선인의 일상을 전쟁의 용광로 속에다 녹여 버렸던 것이다. 바로 그 ‘조선 일상의 용융처(鎔融處)’가 부평의 육군조병창이었다.

4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第4395號, (1941.9.15.).

육군조병창이 녹인 것은 비단 조선의 금속만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수탈해서 조병창으로 실어 왔다. 중국 전선의 점령지에서 발견된 역사 종교 유물도 예외가 아니었다.

종전 후 부평의 육군조병창에는 유독 버려진 역사 유물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현재 전등사에 걸려 있는 범종이다. 전등사 범종의 공식 명칭은 ‘전등사 철종’으로 보물 제393호로 지정됐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이다. 이 범종이 처음 발견된 곳이 바로 부평의 조병창 자리였다. 전등사 범종이 보물로 지정된 까닭은 이 종이 전통적인 한국의 종이 아닌 중국 북송시대 범종의 구조 양식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었다. 이 범종이 원래 있던 곳은 중국 하남성 백암산 승명사였으나 중일전쟁의 전화 속에서 버려졌고, 이를 일본군이 수탈하여 부평까지 끌어왔던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범종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직전 전쟁이 끝나면서 그 유래를 이어가게 되었다.

전등사 범종과 같은 운명의 유물은 다른 곳에도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육군박물관 옥외 전시 유물 중에는 중국 청대의 화포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화포가 발견된 장소 역시 부평이었다. 범종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군이 중국의 점령지역에서 노획하여 부평의 육군조병창으로 운반해 놓았던 것이다. 화포 역시 용광로에서 용융되는 불운은 피했으나 본래의 자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영문도 모른 채 자리하게 되었다.

전등사 범종과 육군박물관의 화포는 조병창에 회수된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제는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라면 역사도 종교도 불문이었다. 근대판 아시아식 반달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3) 부평 조병창의 최후

인천육군조병창은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건설되었다. 일제는 부평에 육군조병창을 건설함으로써 부평 지역을 군수산업 및 병참기지의 총화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제가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 그리고 만주를 잇는 병기 생산 벨트 구축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부평은 대륙 침략의 핵심 축으로 부각되어 전쟁 수행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1939년에 들어선 육군조병창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부평에 들어선 관련 공장들과 함께 중일전쟁에 필요한 병기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수많은 관련 공장들에서 막대한 양의 무기들이 만들어졌다. 인천육군조병창에서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병기들이 두루 만들어졌으며 이 중에는 마루유라고 불린 수송용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평에는 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수많은 관련 시설들이 주변에 들어섰고,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동 숙사도 다수 건설되었다. 육군조병창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규모는 1만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더욱이 이 중에는 국민학교를 비롯한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들을 군인으로 동원해서 전선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한편으로 후방에서는 그 동생과 자녀를 전선의 무기 제작에 동원했던 것이다.

부평은 조선의 노동자와 학생들의 동원지인 동시에 수많은 금속 생활물자의 수탈처이기도 했다. 조선인들의 생활용 금속 물품들이 ‘금속류 회수령’이라는 법령에 의해 강제로 공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평에는 중국 전선에 버려진 유물의 집결지가 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들은 한순간에 침략전쟁을 위한 무기 재료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도 당시 중국에서 건너온 유물들이 우리 곳곳에 남아 있다.

부평에 조병창을 만들고 수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확전을 거듭하다 결국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 조병창의 운명도 비극으로 치달게 되었다. 애초 중국 침략을 위해 건설되었던 조병창은 이제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본토결전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조병창 건설과 무기 생산에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이 이번에는 조병창의 지하화를 위한 시설 공사에 동원되었다. 조병창을 지하로 옮긴 것은 일왕을 지키기 위한 작전이었던 ‘본토결전’의 일환으로 미군과 마지막 순간까지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이 끝나고 부평에는 거대한 무기 생산시설과 생산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버려졌다. 동원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돌아가고 패잔병으로 남은 일본군은 미군에 대한 항복을 준비했다. 일본군 잔류 인원 중 대부분은 미군에 무장해제 되는 즉시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일부 인원이 대전의 위수관구사령부에서 잔무 업무를 처리하고 1945년 11월 귀

국했다. 미군은 일본군이 떠난 자리에 남은 병기와 탄약들을 바닷속에 몰아넣었다.⁴¹ 부평에 건설되었던 인천육군조병창의 최후였다.

제2절 | 육군조병창의 마지막 전쟁 준비, 그리고 부평지하호

1937년 중국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계기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전쟁은 1941년 일제의 동남아시아 및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기점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이미 중국 전선에 깊숙이 빠져버린 한쪽 발을 어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진창 속으로 다른 한 발을 내딛는 형국이었다. 초전의 대규모 승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전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943년 이후에는 중국 전선이 고착화 된 상태였고, 태평양 일대에서는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1944년 오키나와에서 패전한 일제는 결국 일본 열도와 한반도를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방어진지로 개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본토결전으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이었다.

중일전쟁 이후 중국 전선에 쏟아부은 전쟁 물자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던 인천육군조병창 역시 바뀐 전황으로 새로운 전국을 맞이하였다. 무엇보다 미군의 공습이 현실화되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을 이겨내면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과 생산한 병기를 은닉할 필요가 있었다. 공장과 병기의 은닉을 위해 선택한 최종 수단은 이들을 지하로 옮기는 것이었다.

군사시설의 은닉은 일본군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당시 일제는 본토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방어를 위한 지하 진지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1945년 2월 본토결전 작전의 개시에 따라 군 조직이 개편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전역은 커

41 일부 무기는 미군의 기념품이 되기도 했다. 미군에 의한 조병창 폐쇄와 무기 폐기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사 1(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 Part 1)』(국사편찬위원회, 2014)의 405~41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란 방어 병커처럼 변모했다. 일제는 제주도와 남서 해안에 대규모 지하 진지와 은닉 창고, 상륙 방어 시설을 구축했다. 대전과 경북 영동 일대에는 최후 결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령부와 제반 시설의 은신처가 지하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부평 일대에도 인천육군조병창이 들어갈 대규모 지하시설 공사가 개시되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미군의 상륙 예정지와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전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병기 생산 계획에 따라 지하화가 결정되었다. 일단 미군의 상륙이 현실화되면 제일 먼저 수백 대의 미군 항공기가 인천의 군수기지를 목표로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전쟁 말기 일제의 한반도 군사시설 건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미군 상륙에 대비한 해안 방비, 둘째 군사시설의 지하화이다. 지하화된 군사시설은 다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령부나 부대 주둔을 위한 시설, 탄약이나 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지하창고, 마지막으로 부평과 같이 공장 및 무기를 은닉하기 위한 지하시설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일제가 전쟁 말기 한반도에 구축한 지하 군사시설의 전체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창의 지하화와 관련된 조사 자료 및 문헌 등을 통해 한반도 내 지하시설을 조감해 보겠다. 이어서 육군조병창의 지하화를 주제로 그 계획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새로 발굴된 인천육군조병창의 관련 문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땅속 조병창의 본질에 접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의 패망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부평의 땅속에 남아 있는 일본군의 전쟁 흔적을 짚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다.

1. 왜 일제는 전쟁 말기 한반도를 지하 병커화 했는가

1) 전황 악화와 본토결전의 감행

1945년 들어 일제는 한반도의 지하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구축하면서 마치 한반도 전체를 지하 병커처럼 변모시켰다. 지금도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에 가면 야생동물의 은신처인 듯 송송 뿜어 있는 동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군의 대규모 상륙에 대비하기 위한 해안 방어, 그리고 수송용 주정 및 자살공격용 잠수함은 은닉하기 위해 파 놓은 지하 군사시설들이다.

사실상 전환은 기울었다. 일본 전역의 주요 도시들이 B-29를 필두로 한 미군 폭격기의 사정거리 안에 묶여 있었다. 지하 군사시설과는 별도로 수많은 방공호를 구축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방공훈련을 했지만 미군 항공기의 공습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었다. 오히려 밀집된 인구와 건물을 소개(疏開)⁴²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항복 선언은 없었다. 정부와 군부의 상식적 인사들은 자연스레 패전 이후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왕과 그 일족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끝날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불행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 불행의 그림자를 열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왕의 일족이 옥쇄를 부르짖으며 지하시설을 구축하기 이전 그나마 남아 있던 이성이 먼저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일왕 일족과 군부의 미치광이 인사들이 세운 작전은 최후의 1인까지 국체(國體)를 지켜야만 한다는 본토결전이었다. 국체는 일본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상징했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던 일왕 개인의 신체에 불과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으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 와중에 지금껏 내외지(内外地)를 그토록 분명히 구분하던 제국주의 일본이 '본토'라는 영역 속에 식민지 조선을 끼워 넣었다.

일제의 본토결전, 그리고 일곱 개로 구성된 작전구역 안에 한반도를 딱 하니 들여놓았던 것이다. 애꿎은 식민지민 침략전쟁의 곳곳에 동원해서 갖은 피해를 입히고 밥 먹는 손가락과 밥그릇까지 공출해서 일상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들의 왕을 지키기 위해 조선인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었다. 왜 일제는 한반도를 볼모로 잡았을까.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종의 완충지역으로 보았다. 전근대시기 일본 열도를 공고히 지켜주던 바다가 '흑선(黑船)'의 등장과 함께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륙으로부터 위협적으로 뻗어 있는 한반도를 세력권 안에 넣어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일본은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침략을 끊임 없이 시도하였다. 형세가 불리할 때는 일말의 고민 없이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을 들

고나와 한반도를 자국의 외교 도구로 사용했다. 결국 1910년 한반도는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후 35년간 일제는 한반도를 발판삼아 대륙 침략이라는 욕망의 방망이를 거리낌 없이 휘둘러댔 수 있었다. 바로 이 구도가 1945년에 와서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한반도가 갑작스레 본토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전화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한반도와 조선 민중들에게 아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만으로는 부족했다. 한반도까지 전선을 확장시켜 미군의 공격 루트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식민지민의 피해는 안중에 없었다.

둘째는 한반도를 최후 방어선에 포함시켜야만 열도의 주권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패전을 앞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고래로부터 온전히 유지되어 왔던 열도가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영토가 분할 점령되는 화가 닥쳤을 때, 그 희생양으로 제공할 땅덩어리가 필요했다. 그렇잖아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동족이며, 내선일체(內鮮一體)로 늘 하나가 되었다고 떠들어왔기 때문에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식민지 조선, 즉 한반도는 희생양으로 너무도 적합하게 보였다. 일제의 본토결전 속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함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된 연원은 이와 같았다.

일제의 전시 최고 통수기구인大本영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로 재편하였다. 제17방면군은 야전부대로 조선의 방위를 담당했으며 조선군관구군은 보충·교육·경리·위생·위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조선군관구사령관은 작전에 관해 제17방면군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제17방면군사령관과 조선군관구사령관이 겹치하면서 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17방면군 등의 편성에 따라 상주군이었던 조선군과 조선군사령부는 폐지되었다.

42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



◆ '본토결전'에 따른 일본군의 작전구역(1945.2.12.)

제17방면군의 편성과 더불어 조선 내 대규모 병비 증강이 뒤따랐다. 1945년 3월 나남에 제79사단, 제주도에 제96사단이 신설되었고, 4월에는 제주도에 제58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비슷한 시기 전북 고창에 제150사단, 이리⁴³에는 제160사단이 만들어졌다. 5월에는 제주도에 독립혼성 제127여단이 설치되는 한편, 만주 동녕(東寧)에서 제120사단이 대구로, 역시 만주에서 제111사단과 제122사단이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해방 당시 조선 내에는 약 25~30만 명 내외의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제17방면군 및 조선군관구의 편성과 더불어 미군 상륙에 대비한 방어기지가 한반도에 구축되었다. 주로 상륙이 예상되었던 한반도 남서 해안에 엄체호나 포대를 구축하고 물자 수송용 또는 자살 공격용 해안 동굴을 굴착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공습을 피하면서 한반도 내 본토결전을 총 지휘할 수 있는 지하시설도 구축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43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를 말한다.

라도 충을 만들어 최후의 일인까지 미군과 교전하기 위해 조병창 역시 지하 깊숙한 곳으로 옮기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2) 지하로 들어간 한반도의 일본군 군사시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12월 동남아시아와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다. 이로써 침략전쟁의 전선은 지구의 거의 3분 1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개전 초 기습공격을 통해 우세하던 전황은 1942년 미드웨이 해전과 같은 해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지속되었던 과달카날 전투의 패배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아가 1944년 말 레이테 해전의 패배, 1945년 초 필리핀 방어전 실패는 치명적이었다. 이제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군의 직접 공격은 시간 문제였다.

결국 대본영은 1945년 1월 20일 이른바 본토결전을 계획하였다. 본토결전은 조선을 포함한 일본 본토를 최후 결전지역으로 상정하고 그에 대응한 부대 동원과 배치, 그리고 관련 군사시설물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해당지역으로 규슈 남서부 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한반도 남서부 해안이 손꼽혔다. 1차적으로 해안에서 미군의 상륙을 최대한 저지시켜야만 했다. 총력전과 지구전. 일제는 최후 결전을 위해 미군의 공격이 상정되는 지역에 대규모 지하 군사시설물을 구축할 것을 계획했다. 최대한 패전을 늦추고 그사이 연합군과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강화조약을 맺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던 때였다. 이를 위해 군사시설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요컨대 1945년 1월의 본토결전 확립은 군사시설 지하화의 가장 중요한 전기였다.

일제가 전쟁 말기 한반도에 건설한 지하 군사시설로는 해안 동굴, 기관총 엄체 및 포대, 비행장 및 격납고, 부대 사령부나 창고·막사를 포함하는 주둔시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지하시설은 산이나 언덕 등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굴착을 통해 건설한 것으로 미군의 공습에 대비한 지휘시설이나 방공호, 또는 기타 군수물자의 보관용 창고 등을 포괄했다.

우선 해안에 구축한 동굴은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에 상륙용 선박 및 자살 공격용 병기를 은닉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다. 기관총 엄체 및 포대는 미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해안이나 기타 군사적 거점에 건설한 기관총 보호용 콘크리트 시설물이나 고사포 또는 곡

사포, 해안포 포대를 말한다. 비행장 및 격납고는 일본 육군과 해군항공대 소속의 비행기 이착륙을 위해 건설되었던 한반도 각지의 비행장 및 비행기를 은닉하기 위한 격납고, 아울러 연료창고 등의 유관 시설물 등을 지칭한다. 부대 사령부나 창고·막사 등 주둔 시설은 용산과 부평, 대구 등지에 남아 있는 일본군 부대 사령부와 영구 병사, 창고, 조병창 등의 시설물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2013~2015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군사시설을 조사하면서 이를 유형화시킨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일본군 시설은 진지·비행시설·정박시설·통신시설·주둔지, 그리고 기타 등으로 나뉘었다.

문화재청은 2013년도 부산·울산·경남·전남 지역, 2014년에는 대구·충북·경북·경남 지역, 2015년에는 대전·전북 지역과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해안 및 도서 지역, 그리고 제주도 일대를 조사하였다. 이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군사시설의 지역별·유형별 현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전쟁 유적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

지역별	유형별	진지	비행시설	정박시설	통신시설	주둔지	기타	합계
부산		11	0	0	0	41	10	62
울산		4	0	0	0	0	5	9
경남		5	0	0	0	18	15	38
전남		18	10	15	2	19	8	72
대구		0	1	0	0	5	19	25
충북		0	0	0	0	2	104	106
경북		0	8	0	1	1	4	14
경남		0	2	0	0	0	0	2
대전		0	0	0	0	3	0	3
전북		9	0	0	0	2	39	50
경남 해안		4	0	3	1	6	1	15
전남 해안		15	0	9	0	5	15	44
제주도		15	12	13	0	1	240	281
합계		81	33	40	4	103	460	721















출처 : 문화재청,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연구보고서: 태평양전쟁시기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 2016.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 군사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총 281개소가 자리하고 있는 제주도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과 전남 해안이 116개소, 충청북도 106개소, 부산 62개소, 경남과 경남 해안 53개소, 전북이 50개소 등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제주도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대규모 군사시설이 구축되었다. 일제 말기에만 7만여 명이 넘는 일본군이 제주도에 주둔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남 내륙과 해안, 부산, 경남과 경남 해안, 그리고 전북 일대 역시 미군 상륙과 공습에 대비한 시설물들이 많았다. 충청북도의 군사시설은 한반도 내 본토결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후 시설물 이전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 영동의 산간 곳곳에 길이 50에서 100여 미터에 달하는 지하시설이 다수 구축되었다.

부평의 땅속에 자리한 지하시설은 한반도 다른 지역의 일본군 군사시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충북 영동 지역의 동굴들과 같은 성격의 지하시설이었다. 즉, 부평과 영동은 미군의 공격을 직접 저지하거나 또는 저지할 병력이 주둔하기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기와 공장 등 주요 물자와 시설물의 이전을 추진했던 지역이었다.

한반도 곳곳에 설치된 일본군 지하시설들

지역	지하시설 사례	
부평 조병창 지하시설		
부산 가덕도 해안 진지		
광주 비행장 창고		
전남 목포 주정기지		
대구 비행장 관련 창고		
제주도 부대 진지		
서울 용산 지하 방공호		

❖ 출처 : 부평 조병창 지하시설은 부평문화원, 그 외는 필자 촬영

2. 육군조병창은 어떻게 땅속에 건설되었나

1) 일본군의 방공대책과 조병창 지하화의 배경

일제가 부평의 육군조병창을 지하화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일본군은 일찍부터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식민지 조선에 방공지구를 설정하고 방공부대를 확충했으며 민간인을 포함한 대규모 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본군은 한반도 내 방공지구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방공부대를 배치하는 한편 방공망을 편성했다.⁴⁴ 아직 전쟁이 중국전선에 머물고 있던 1941년 당시 조선의 방공지구는 북선·중선·남선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북선은 나진과 회령·나남·함흥 등지를 중심으로, 중선은 평양과 의주·경성·원산 등지, 그리고 남선지구는 제주도를 포함 부산 지역 일대를 포함하였다. 대체로 북부 지역에 치중하여 방공지구를 편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역시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소불가침조약의 체결, 진주만 공습 등 국제 정세 변화와 전쟁의 확대로 인해 한반도 방공지구 역시 변화를 맞는다. 한반도 북부보다는 남부의 방비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특히 미군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방공지구는 더욱 남쪽을 우선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 조선 주둔 일본군 방공지구의 변화
 ❖ 출처 :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에서 재인용.

44 조선 주둔 일본군의 방공부대 배치와 방공망 편성에 대해서는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15~125쪽을 참고하였다.

1945년 2월 일본군은 변화된 전황에 따라 한반도 방공지구를 동북·서북·중부·남부 등 크게 네 지역으로 개편하였다. 각 지역은 다시 여러 지구로 세분화했는데, 동북 지역은 나진·나남·함흥·원산지구로, 서북 지역은 북부 평의지구와 남부 평의지구로, 중부 지역은 북부 경성지구와 남부 경성지구, 남부 지역은 중부 지역 이남을 한데 묶은 것이었다.

동북 지역은 기존의 북선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서북 지역은 주로 황해도 지역을 지칭했다. 중부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남부 지역은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 일대였다. 이를 1941년의 방공지구와 비교하면, 기존의 방공지구가 소련에 대비한 함경도 중심의 방공 태세인 반면, 1945년 2월의 방공지구는 함경도 외의 다른 지역의 방공지구를 재설정하고 세분화함으로써 향후 있을 미군의 상륙과 공습에 대비한 모습이었다. 1945년 2월의 개편은 일본 본토와 한반도 전역이 미군 항공기의 공습에 전면 노출된 데 대한 교육지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방공지구 개편을 뒷받침할만한 방공부대나 방공망, 방공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반도 내 군사시설의 지하화가 1945년 초 본토결전으로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방공지구의 개편과 군사시설의 지하화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이때부터 부평의 조병창 역시 지하화를 위한 계획에 들어갔다. 당시 방공지구로 구분하면 부평 지역은 중부 지역의 북부 경성지구에 해당했다.

한반도 방공지구는 개편 2개월 후인 1945년 4월 한 차례 더 변경된다. 그만큼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4월 방공지구 개편의 핵심은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방공시설 확충이었다. 한반도를 네 지역으로 나눈 것은 기존과 같았으나 이전 두 차례의 지구 설정이 함경도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중심의 방공지구 설정이었다. 북선·중선·서선·남선으로 구분한 뒤 황해도와 함경도를 포괄하여 북선지구로 하고, 경기도와 충청도·강원도를 중선지구, 경상도를 남선지구, 그리고 전라도를 서선지구로 명명했던 것이다.

1945년 4월의 마지막 방공지구 개편은 사실상 한반도 북부를 하나의 지구로 묶고 남부를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공망의 충실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방공지구 개편으로 부평 일대는 중선지구에 포함되었다. 과연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개편한 방공지구를 방어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을까.

패전 이후 일본군이 미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지역별로 배치하고 있었던 방공부대 및 병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인천과 개성에 각각 방공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인천에 고사포 제151연대 1개 중대가 개성에는 고사기관총 진지가 자리했다. 부평이 포함되는 인천 지역의 고사포 1개 중대가 보유한 방공 병기는 고작 고사포 여섯 문 뿐이었다. 이 여섯 문으로 일본군은 인천 항만과 부평의 거대한 조병창 모두를 지키고자 했다.

부평 지역의 경우 미군의 상륙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만 대규모 병기공장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미군 항공기의 첫 번째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방공부대와 병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제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책은 조선인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 모든 시설과 물자를 지하로 옮기는 일이었다. 결국 식민 당국이 패전 직전에 식민지민에게 강요한 것은 가혹한 노동과 인내,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2) 조병창의 지하화 계획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방공지구 개편은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기에 급박해진 미군의 상륙에 맞선 임시방편적인 조정이었다. 특히 서선과 남선지구의 경우 방비를 위한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데 무리한 공사가 강행되었다. 부평의 육군조병창 역시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평 조병창의 지하화의 계획과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창의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기술이 있다. 우선 조선총독부 관료였던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가 기록한 것으로 패전 직전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작전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남조선이 전장이 될 때에 군사령부는 대전으로 전진하는데 그때 쓰고자 대전공원 중에 대규모 방공호를 파고 종전 시는 회철만 되어 있었다.(제17방면군 참모장 이하라 준지로 담) 당시 제17방면군 참모 겸 조선총독부 어용과, 육군 중좌 다케토미 씨의 담에 의하면, 군은 장기 항전을 기도하여 경상남도의 거창, 경상북도의 상주, 충청남도 대전을 잇는 산간 지구에 **작전에 필요한 자재와 제작기계 공장 건설을 계획, 검이포의 일본제철소 및 인**

천조병창의 일부를 이곳에 이주할 준비를 개시했다.⁴⁵

모리타 요시오에 따르면,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미군이 상륙하는 즉시 군사령부를 대전으로 옮기고 결전 태세로 전환하는 한편, 공습을 막기 위해 대전에 대규모 지하시설을 구축했다고 한다. 또한 장기전을 위해 거창과 상주, 그리고 대전을 잇는 산간에 대규모 군수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 지하 군수공장에 황해도 겸이포(兼二浦)⁴⁶의 인천의 조병창 일부를 이주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모리타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조병창의 지하화 계획은 기정사실이였다. 다만 그 장소가 어디인가가 문제였다. 실제 상주와 대전을 잇는 산간 지구, 즉 충북 영동지구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지하시설이 확인된 바 있다.

모리타의 기술은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그가 지칭한 내용이 현재 잔존해 있는 구조물로 확인되기도 했지만, 그 진술의 전달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신빙성을 더했기 때문이다. 모리타에게 한반도 주둔 일본군 군사시설의 지하화 계획을 이야기 한 사람은 제17방면군 참모장이었던 이하라 준지로와 조선총독부 무관 다케토미였다. 모두 실제 관련 기획을 직접 입안하거나 중요 사안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들이었다. 모리타의 기술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일본군의 지하사령부를 비롯한 지하시설 건설과 관련한 두 번째 기술은 1946년 조선군잔무정리부(朝鮮軍殘務整理部)가 작성한 「조선 내 전쟁 준비(朝鮮に於ける戰爭準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4절 남선지구에 대한 작전준비

…… 군은 장차 방면군 전투사령부를 대전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예정된 시설을 준비함과 동시에 전신연대를 대전에 전개시켜 간선통신망의 구축, 제1선 병단과의 연락 임무 등을 부여하고, 부산에 있는 독립자동차중대의 주력과 새로 전입된 치중병중대 등을 곧바로 제주도에 증파하였다. 한편 군수품의 집적을 위해 정찰을 실시하고 그 복곽적(複廓的) 중심지대를 남선의 대전과 대구 사이 지구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군비는 대거 팽창하였으나 군의 병기 생산과 정비에 이를 따르지 못하자, 방면군은 **중앙의 보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활적으로 병기 정비에 착수하여 인천조병창을 급히 정비하였다.**⁴⁷

위 문건에도 역시 군사령부를 대전에 옮기는 한편 대전과 대구 사이에 ‘복곽적 중심지대’를 선정했다는 문구가 있다. 일본군에는 ‘복곽진지(複廓陣地)’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복곽이란 군의 핵심시설을 최후로 방어하는 저항 진지를 말했다. 즉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선을 전진 진지, 주 방어선, 내부 방어선, 위곽, 복곽 등 여러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복곽은 그중 가장 안쪽에 자리한 방어진지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군의 병기 생산과 정비를 자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조병창을 급히 정비했다는 대목도 있다.

위 문건에는 지하시설에 관한 직접 언급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모리타의 기술과 접목해서 이해하면, 결국 동일한 맥락의 시설물 건축을 의미했다고 판단된다. 인천조병창 등의 시설을 자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곳에 정비토록 했던 것이다. 역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병창의 지하화가 실제 계획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대전과 대구 사이의 영동군 일대에는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이 펼쳐져 있어 대규모 지하시설을 구축하여 은닉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충북 영동군 일대에는 아직도 일본군이 건설한 지하시설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2013년부터 실시한 태평양전쟁 유적 일제조사에 따르면, 충북 영동 지역에는 일본군이 건설한 것

45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巖南堂書店, 1964.

46 겸이포는 황해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림항을 말한다. 청일전쟁 당시 군항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항구 건설 지휘를 맡은 일본군 와타나베 겐지(渡辺兼二)의 이름을 따서 겸이포라 불렀다. 겸이포에는 미쓰비시가 건설한 제철소가 있었다. 현재 황해도 송림시이다.

47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於ける戰爭準備』, 1946(宮田節子 編 解説,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社, 1989, 수록).

으로 추정되는 지하 동굴만 100개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천 부평의 조병창 주변 산지에도 일본군이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조병창의 지하화는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부평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함봉산 자락에 잔존해 있는 터널형 지하시설이 과연 조병창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던 중 비교적 최근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부평 육군조병창의 지하화와 부평 인근 지하시설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측에서 육군일반사료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군 중 『예하부대장 회동시 병기 생산 상황보고』라는 문서철이 있다. 그리고 이 자료군 속에 「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이하 「1945년 상황보고」)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는데 이 안에 패전을 앞두고 한반도 주둔 일본군 측이 계획·추진했던 육군 조병창의 지하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⁴⁸ 문서의 모든 내용은 ‘극비’사항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었다.

당시 육군병기행정본부는 매년 초 관할 조병창을 대상으로 그 해 생산할 군수물자의 현황과 계획, 그리고 관련 시설물 건축 등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인천육군조병창 역시 매년 병기행정본부 측에 해당 실태 및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중 1945년 3월 보고 자료에서 조병창의 지하화 관련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1945년 상황보고」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복무, 둘째는 1944년도 작전 수행 상황, 셋째는 1945년도 작업 수행상의 요구 사항, 넷째는 전국(戰局)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책 사항, 마지막 다섯째는 장래에 대한 기도 및 의견 등이다. 내용상으로는 1944년도 조병창 생산 실태와 1945년도 계획 및 의견 등으로 양분되는데, 이 중 1944년도 생산 실태에 관해서는 앞서 다룬 바 있다. 다만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본문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부록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1945년도 계획 및 의견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부록에 수록된 도표와 지도 등이다. 우선 지하화 계획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48 「昭和20年3月 隷下部隊長會同時狀況報告 仁川陸軍造兵廠」, 「隷下部隊長會同の際の兵器生産狀況報告 昭和20年3月」,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청구번호 中央-軍事行政兵器-41).

「1945년 상황보고」의 네 번째 항목에는 1945년도 조병창 운영의 목표를 “내지 의존으로부터 탈피하여 조선과 만주를 통한 생산 태세를 확립하고”, “조선 내 자급자전(自給自戰) 병기의 정비를 준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내지, 즉 일본 열도로부터 의존에 탈피해야 하는 이유는 미군의 해상 봉쇄로 사실상 군수물자 운반이 단절되었기 때문이었다. 본토결전 방침 아래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함께 그 대상지역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7개의 구획을 나누어 각 구획별로 독자적 보급과 전투를 수행토록 하고 있었다.

이 네 번째 항목 중 제10항에 ‘분산 및 방호’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아주 특기할 만한 기술이 눈에 띈다.

조선 내의 생산 제시설의 분석 및 방호에 관해서는 주로 참고에 있는 여러 재료를 분산하여 격납토록 하고 일단 실시를 완료했는데 다시금 그를 강화하기 위해 **당 창(인천육군 조병창-필자) 및 주요 민간 공장의 생산시설 중 중요한 것을 분산하는 데 또한 힘써 그를 지하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 준비 중**이다.

이미 한반도 내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창고의 여러 물자들을 분산해서 보관토록 했는데, 다시 이를 강화하여 조병창 및 주변 공장의 생산시설을 지하에 구축하도록 계획 중이라는 대목이다. 지하에 중요 생산시설을 은닉해서 전화가 직접 부평에 미치는 그 날까지 전쟁 무기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도였다. 그 계획이 1945년 3월 인천육군조병창의 공식 보고 문건에서 확인된 것이다.

조병창의 보고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단순히 지하시설을 계획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실시 요강을 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본토에 있는 생산시설을 부평을 비롯한 인천육군조병창 관할지역으로 이설하는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1945년 상황보고」의 부록 중에는 ‘이설(移設) 분산 및 방호 등의 진척 상황’과 ‘이설 분산 방호 실시 요강’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자급자전 태세 확립을 위해 도쿄 제1조병창의 ‘실포(實包) 생산 설비를 부평과 평양 등으로 옮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포는 화약이 들어 있는 탄환을 이르는 말이었다.

일본 육군은 조선, 그리고 연결된 만주에서 최후까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월 150

만 발의 실탄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부평과 평양에 있는 제조소의 설비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결국 도쿄 제1조병창에 있는 실탄 생산 설비를 이동시키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렇게 이동시킨 생산 설비의 일부를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조병창 측은 이설 및 분산 계획을 월별로 작성했는데 이를 표로 그리면 <표 7>과 같다.

표 7 이설 분산 실시 계획표

설비	구분	순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實砲設備	假工場建設	현 설비 이전																
		현 건물 개조																
	假工場으로移設	수송																
		기계 설치																
	地下工場建設																	
地下工場移設																		
一製	地下工場建設																	
	地下工場移設																	
附帶設備	宿舍設備																	
	動力地下移設																	
	瓦斯工場新設																	
	用水	京畿道水道工事																
		鑿井																
	引込線設備																	
	飯場設備																	
道路新設																		
기타	人員防護																	
	地下診療施設																	
평양	地下工場新設																	
	地下工場移設																	

비고 : 원 자료의 표에는 월별 작업 일정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위 표의 짙은 부분은 자료에서 실선으로 열은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 차이는 분명치 않다.

<표 7>의 맨 윗부분에 있는 ‘실포설비’가 바로 도쿄의 제1조병창에서 인천으로 옮기는 생산시설의 이동 및 설치 일정이다. 대체로 4월 중 도쿄를 출발 5월 중 도착하고 이후 연말까지 기계 설치를 마치는 일정이었다. 실포설비 일부는 가공장을 건설하여 옮기고 다른 일부는 지하공장을 건설해서 이설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표에는 실탄 생산 설비의 이설뿐만 아니라 부평의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그리고 부대설비 등의 건설 일정이 함께 드러나 있다. 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제조소와 평양제조소의 설비는 모두 지하공장을 신설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제조소의 어떤 설비가 옮겨지는 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병창의 주요 시설을 모두 지하화할 심산이었음이 분명하다. 표에 기재된 설비의 기타 항목에 보이듯 일본군은 지하에 진료시설도 만들고자 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부평의 지하시설과 관련한 지도도 소장되어 있다. 방위성 육군일반사료 중 「대동아전쟁 제17방면군 축성시설배치도」라는 제목의 지도가 그것이다.⁴⁹ 방위연구소 사료열람실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촬영 및 복사는 불가하다. 지도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2m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이 지도에는 일본군의 패전 직전 한반도 내에 주둔했던 제17방면군이 건설한 군사시설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경성을 비롯하여 인천·대전·대구·목포·부산·의주 등의 지역에 ‘야전진지(野戰陣地)’라고 명명된 군사시설이 그려져 있으며, 그 밖에 비행장과 각 부대 본부의 위치 및 편제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붉은색으로 세모를 그린 후 옆에 ‘병기격납동굴’이라고 써넣은 부분이 있다.

뒤에 나오는 <일본 방위성 소장 부평지하시설 지도>는 촬영 및 수집이 불가했던 까닭에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메모한 뒤 나중에 해당지역 지도에 옮긴 것이다. 거칠지만 인천과 경성 사이, 그리고 김포 남서편에 ‘병기격납동굴, 500㎡’라고 기록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삼각형의 위치는 부평 일대였다. 부평 일대에 병기 격납을 위한 500㎡ 규모의 동굴이 있다는 표식이며 그 용도는 병기 격납임을 밝히고 있다. 병기격납동굴을 표시한 빨간 세모 아래의 ‘8고×6’은 99식 8센티 고사포 6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표시였다.

49 「大東亞戰爭 第17方面軍 築城施設配置圖」, 請求番號: 滿洲-地誌資料-23(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 ❖ 일본 방위성 소장 부평지하시설 지도(원본 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필사한 후 현재 지도에 옮긴 것이다.)
- ❖ 비교 : 지도 속 김포와 여의도의 '#' 표시는 비행장을 나타낸다. 부평 원편으로는 아전진지를 구축했다고 표기되어 있었다.

3) 땅속에 건설된 조병창, 그 망상의 실체

일제는 인천육군조병창을 지하공장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패전을 맞았다. 앞에서 살펴본 분산 실시 계획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일정이었기 때문에 8월이면 굴착공사가 마무리되는 정도였을 것이다. 물론 전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지하 굴착 자체의 진척도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부평의 지하시설은 50~100여m 정도 되는 시설이 산 아래에서 수직으로 굴착된 형태이다.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바다와 벽, 천정 모두 별도의 마감을 한 흔적은 없다. 입구는 폭과 높이 모두 2미터가량이지만 지하시설 중간쯤에는 높이와 너비 모두 5m 이상인 공간도 있다. 단순히 물자를 보관하거나 부대 주둔 목적이 아닌 대규모 설비를 장치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병창 측이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지하공장의 모습은 어땠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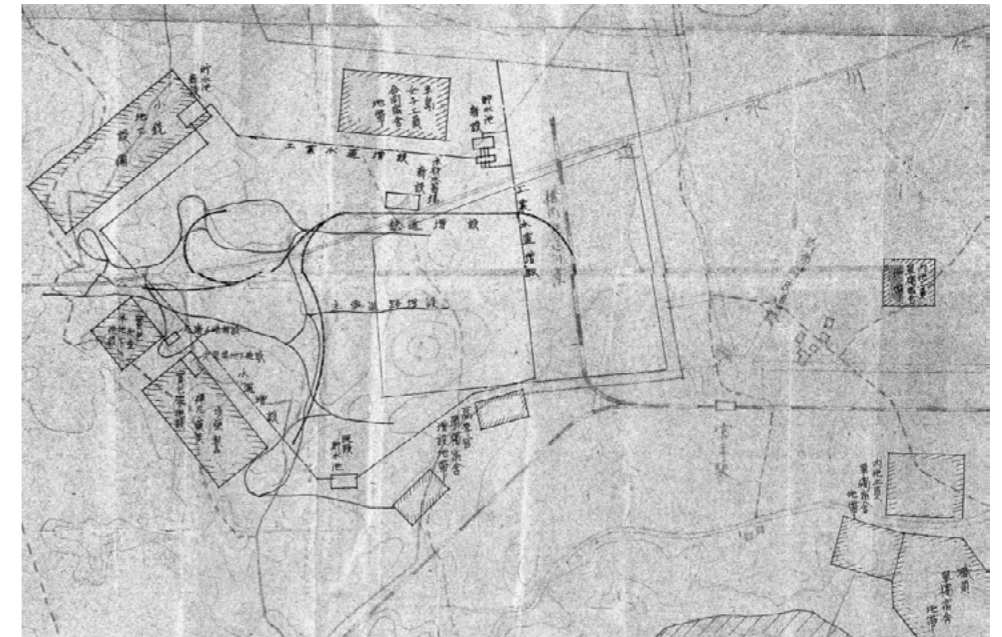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자료가 있다. 분산 이설 대상이었던 실탄 생산 설비의 지하화에 관한 것으로 공장별로 어떤 것을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할지에 대해 구분하고 넓이와 구조 등 구체적인 건설 내역까지 적고 있다.

표 8 실탄 월 150만발 생산 설비 실시 내역

지하/지상구분	사용구분	공장별	積量(평방미터)	寸法(미터)	構造	적요
반지하설비	地金	撰分工場	150		반지하 無筋콘크리트	
		配合工場	150		반지하 無筋콘크리트	각종 新古地金の 배합
		鑄造工場	800		반지하 無筋콘크리트	天井走行 起重機
		壓延工場	900		반지하 無筋콘크리트	天井走行 起重機
		燒鐵工場	500		반지하 無筋콘크리트	
		洗滌工場	500		반지하 無筋콘크리트	
		脂油庫	30		반지하 無筋콘크리트	
반지하	彈丸	彈丸工場	1,200		지하	原軸
		短針洗淨工場	300		반지하 철근콘크리트	原軸
		脂油庫	10		지하	
		工具置場	1,100		지하	
반지하	藥莢	藥莢工場	1,500		지하	原軸
		燒鐵洗淨工場	600		반지하 철근콘크리트	原軸
		工具置場	100		지하	
		脂油庫	10		지하	
		■置場	10		지하	
반지하	填藥	裝填工場	300		지하	原軸
		着管工場	300		지하	原軸
		■織■量工場	450		지하	原軸
		收函箱詰工場	400		지하	
		油庫	10		지하	
반지하	工具	旋工場	1,200		지하	原軸
		鍛工調■工場	150		반지하 철근콘크리트	
		鍍金工場	100		지하	
		油庫	10		지하	
반지하	製品	製品庫	300		반지하 철근콘크리트	
		합계	11,090			

지하/지상구분	사용구분	공장별	積量(평방미)	寸法(미터)	構造	적요	
지상	地金	事務所	180	6/30	목조		
		更衣室	180	6/30	목조		
		材料置場	180	6/30	무근콘크리트		
		淘汰場	180	6/30	무근콘크리트	각종 遺■撰合 및 利材	
		鐵屑置場	180	6/30	목조		
		浴室	100		목조		
		厠	100		목조		
	彈丸	事務所	180	6/30	목조		
		粉穀置場	18	6/30	목조		
		更衣室	180	6/3	목조		
		鋸屑置場	12	3/4	목조		
		厠	100		목조		
	藥莢	事務所	180	6/3.00	목조		
		粉穀置場	18	6/3	목조		
		鋸屑置場	12	3/4	목조		
		更衣室	180	6/30	목조		
		厠	100		목조		
	상	墳藥	木工場	120	6/20	무근콘크리트	素箱■理 其他
			雜品庫	120	6/20	무근콘크리트	
			空箱倉庫	120	6/20	목조	
			事務室	180	6/30	목조	
更衣室			180	6/30	무근콘크리트		
설	工具	材料雜品庫	180	6/30	무근콘크리트		
		工具用品	180	6/30	목조		
		事務所	180	6/30	목조		
		浴室	100		목조		
		厠	100		목조		
비	附帶	事務所	360	12/30	목조		
		更衣室	120	6/30	목조		
		業務用品庫	120	6/20	목조		
		機械部品庫	180	6/30	목조		
	本部	工具置場	120	6/20	무근콘크리트		
		脂油庫	12	3/4	무근콘크리트		
		物置	24	4/6	목조		
		厠	15		목조		
	附帶檢査	事務所	120	12/10	목조		
		更衣室	180	6/30	목조		
		檢査場	180	6/30	무근콘크리트		
		物置	15	3/4	목조		
		厠	36		목조		
합계			5,022				

실탄 생산 설비공장의 계획 규모는 총 1만 5,112㎡에 달했다. 이 중 지하공장으로 건설되는 것이 5,710㎡, 반지하가 4,380㎡였고, 지상설비는 5,022㎡였다고 한다. 생산 공장은 주로 지하에 설치하고 이 외 화약 설비와 창고 부대 건물은 지상에 구축하는 것으로 했다. 자료에는 이와 같은 계획을 그린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 실포·소총 이설 분산방호 전개도 중 일부

❖ 비교 : ① 실탄 및 소총 설비의 이설 분산 계획지도 중 일부이다.

② 원편 정사각형 안에 '소총지하설비', '실포 지금(地金) 반지하시설', '실포지하시설' 등의 글자가 보인다. 지하시설의 구조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략적인 위치와 용도를 아는 데 충분하다.

지하시설은 터널식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반지하시설의 경우에도 공습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지하공장의 경우 암반을 뚫어 구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필요는 없었던 듯하다. 반지하나 지상시설은 같은 콘크리트 건축의 경우에도 철근과 무근으로 구분했다. 실로 방대한 공사였다. 지하공장 구축을 위해 여러 건설회사가 참여했다.

표 9 공사 실시를 위한 청부업자의 공사장 군대 담임 구분표

공사별	청부업자	하부업자
지하공사	조선전업	가지마구미(鹿島組), 니시마쓰구미(西松組), 도비시마구미(飛鳥組)
숙사설비	조병창	다다구미(多田組), 다케나카구미(竹中組)
철도인입선	교통국	다마모구미(玉藻組)
가스공사	경성전기	경성전기
수도공사	인천수도	다마모구미
	경기도공업수도	
도로공사	조병창	다마모구미

「1945년 상황보고」에는 당시 공사를 맡은 건축회사들을 공사별로 구분해서 <표 9>에 보듯이 정리해 두었다. 공사는 지하공사, 숙사 설비공사, 철도 인입선 공사, 가스공사, 수도공사, 도로공사 등으로 나누었다. 공사별로 청부업자와 하부업자가 있었는데, 청부업자는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병창의 경우에는 숙사 설비공사와 도로공사만 직접 관리했다. 가장 중요한 지하공장 공사의 경우 조선전업주식회사가 청부를 맡고 가지마구미·니시마쓰구미·도비시마구미 등이 건설에 참여했다.

청부를 맡은 조선전업주식회사는 1943년 7월 조선총독부가 전력의 국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1942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임시전력조사회 심의를 통해 「조선전력국책실시요강」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전기 회사의 합병과 설비, 발송전을 담당할 회사로 설립된 것이 조선전업이었다. 더불어 가지마구미 등 건설회사들은 이전에도 오랫동안 군 관련 공사를 도맡아 해오던 업체들이었다. 이들 건설회사는 현재도 일본에서 사세를 유지하고 있다.⁵⁰

조병창을 지하화하기 위한 계획은 일본 육군이 수립했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과 인천육군조병창이었다. 실제 공사를 맡은 것은 일본 유수의 건설회사들이었다. 그러나 그 공사에 동원되어 노역에 시달린 것은 조선인들이었다. 조병창 측

50 가지마구미는 현 가지마건설주식회사의 모체이다. 1840년 설립되어 2019년 창업 180주년이 되었다. 니시마쓰구미 역시 현재는 니시마쓰건설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꾼 채 유지되고 있다. 1874년 설립되었다. 도비시마구미도 도비시마건설주식회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883년에 설립되었으며 1965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니시마쓰나 도비시마는 터널 굴착 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일찍부터 전문으로 해 온 기업이었다.

에서는 무기 생산시설의 분산 설비와 지하공장 건설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다. 조병창에 소속되어 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별도로 전쟁 말기 미군과 교전에 대비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1945년 3월 당시 조병창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노동자는 총 1만 1,300명이었다고 한다. 이 중 일본인이 12% 정도였고 약 90%가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 「1945년 상황보고」의 네 번째 항목 중 제8항의 ‘근로관리’ 부분에는 조병창의 노동자 현황과 향후 동원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3월 1일 현재 노무자는 약 11,300명으로 이 중 내지인은 약 12%이다. 1945년도 노무 요원은 제2제조소 신설 요원 약 1,500명, 지하공사 등에 따른 임시적 요원 약 3,500명, 합계 약 5,000명을 증원하고, 결원 보충을 위해 약 3,000명, 총계 약 8,000명의 취득을 필요로 한다. 지하 공사 등에 필요한 임시 요원은 모두 징용에 의거하고, 그 외는 관 알선 및 학도 동원에 의해 충족하도록 시책 중이다.(1945년도 요원 충족 계획 부표 제3) 또한 위 인력 외 내지 조병창 및 남만 조병창으로부터 공출을 의뢰받은 반도국민 학교 수료자 노무요원 약 2,000명의 취득에 관하여 각각 수배 중이다.

그리고 조선은 종래 노무요원의 급원지(給源地)를 담당해 왔는데 전국(戰局)에 대처하여 내지, 남만 및 군요원으로 공출된 자가 이미 약 90만 명에 달하고, 오히려 전국에 따라 발흥된 조선 내 생산 확충공업으로 흡수, 만주개척민 □□□, 본년도부터 시행된 징병제 등에 의해 최근 현저한 궁박(窮迫)을 고함에 이르렀다. 학도 동원의 이용은 다시금 활발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1945년에는 현재 학도수를 확보하고, 그 외 신설제조소 요원으로 약 600명(남자 300명, 여자 300명)의 증원을 수배 중이다. 이밖에 재차 장래는 학도로서 종업원의 반수를 확충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또한 3월 30일 현재 동원 학도 수는 약 930명으로 인천 및 경성의 주요한 중등학교는 거의 동원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 1945년 3월 현재 조병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1만 1,300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 약 9,000명은 조선인이었다. 이 인원은 이전까지 통상적인 조병창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모였다. 그런데 본토결전 작전 계획에 따라 조병창의 지하화가 결정되자 이를 수행할 추가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위 인용문에는 추가 노동력 동원 등을 비롯하여 종전 직전 조병창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첫째, 조병창은 부평에 제2제조소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역시 ‘자급자전’ 계획에 따른 확장이었을 것이다. 제2제조소 신설에 필요한 인원이 1,500명이었다고 한다. 이 역시 대부분은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충원했을 것이다. 나아가 제조소가 새롭게 설치되면 추가로 600명의 인원이 필요하여 이를 동원 중이라고 적고 있다.

둘째, 지하공장 건설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약 3,500명의 추가 노동력이 필요했다. 공사에 동원된 인원은 조선인들을 징용하여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 3,500명의 역할과 동원 계획은 <표 10>과 같다.

표10 지하공장 건설 노동자 동원 계획

(단위: 명)

구분	월일	3.20.	4.5.	4.10.	4.15.	4.20.	4.25.	5.1.	5.10.	5.20.	계	비고
지하공사요원		200		200		200		400	300	200	1,500	이 외 숙련 광부 500
도로, 수도, 철도공사요원			300		300		400				1,000	
숙사건설요원			300		400		300				1,000	
합계		200	600	200	700	200	700	400	300	200	3,500	

지하공장에 필요한 인력은 지하공사와 도로·수도·철도공사, 숙사공사 등으로 나누어 축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인력 동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하공장 건설에 1,500명, 도로와 수도·철도공사에 1,000명, 숙사 건설에 1,000명이 배정되었다. 위 표의 비고에는 이 외 숙련된 광부 500명을 추가로 동원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굴착 공사라는 특성상 광부들의 동원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다만 광부 500명을 합하면 지하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2,000명이 된다.

셋째, 지하공장 건설에 필요한 ‘임시요원’ 외 결원 등으로 인한 보충은 관 알선과 학

도 동원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관 알선은 조선총독부 당국을 통한 모집과 소개 등의 방안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강제동원이었다. 학도 동원의 경우 훗날 신문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고 조병창 관련자의 증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당장 필요한 인원 외 추가로 요구되는 인원은 학도를 동원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예 “장래는 학도로서 종업원의 반수를 확충하고자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강제동원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원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미 3월 30일 현재 동원 학도 수가 약 930명으로 인천과 경성의 주요 중등학교는 대부분 동원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요컨대 향후 학도 동원 지역이 경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에까지 확대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인천육군조병창의 부족 인력을 충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남만육군조병창에서 “공출을 의뢰”받아 국민학교 수료자 2,000명을 동원 중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수배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조병창에서 필요한 인력을 의뢰받아 직접 알선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1945년 3월 현재 전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일본과 남만, 그리고 군요원으로 동원된 자가 이미 90만 명에 이르렀음을 기술하면서, 조선이 “종래 노무요원의 급원지”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동원이 ‘궁박’하게 되어 이를 학도 동원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의 총총함과 무분별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1945년 상황보고」에는 이러한 인력 충원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표가 있다. 특히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제조소에 필요한 ‘공원(工員)’인력을 징용, 일반, 학도 등으로 구분해서 4월 이후 분기별로 계획한 것이었다.

표 11 1945년 공원 총족 계획표

(단위: 명)

地區	充足區分	新補區分	제1기 (4월~6월)		제2기 (7월~9월)		제3기 (10월~12월)		제4기 (1월~3월)		계	
			新規增加	減耗補充	新規增加	減耗補充	新規增加	減耗補充	新規增加	減耗補充	新規增加	減耗補充
仁 造	징용	남	3500									3500
		녀										
	일반	남	1000	600	300	600		800		600	1300	2600
		녀	200	100		50		80		80	200	310
	학도	남	300	150		200				450	300	800
		녀	300								300	
	여자정신대											
	계	남	4800	750	300	800		800		1050	5100	3400
		녀	500	100		50		80		80	500	310
	平 製	징용	남									
녀												
일반		남	200	300		200		300		200	200	1000
		녀	100	50				50		50	100	150
학도		남		200	100						100	200
		녀										
여자정신대												
계		남	200	500	100	200		300		200	300	1200
		녀	100	50				50		50	100	150
합 계		징용	남	3500								
	녀											
	일반	남	1200	900	300	800		1100		800	1500	3600
		녀	300	150		50		130		130	300	460
	학도	남	300	350	100	200				450	400	1000
		녀	300								300	
	여자정신대											
	계	남	5000	1250	400	1000		1100		1250	5400	4600
		녀	600	150		50		130		130	600	460
	비고											

「1945년 요원 총족 계획표」에 따르면, 1945년 4월부터 1946년 3월까지 부평의 조병창에는 남자 8,500명, 여자 810명 등 9,310명, 평양제조소에는 남자 1,500명, 여자 250명 등 1,750명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모두 더하면 1만 1,060명이다. 애초 조병창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 1,300명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조병창은 1945년에만 현재 동원되어 있는 인원만큼의 조선인들을 더 동원할 요량이었다.

3. 부평의 땅속에 남은 일본군의 흔적과 식민지 피해

1) 부평의 땅속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일본군의 흔적

부평의 지하시설은 현재 부평 지역의 왼편 산지인 선포산과 함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부평문화원의 조사에 따라 확인된 것만 10여 기가 넘는다. 특히 과거 미군의 캠프 그랜트(Camp Grant)⁵¹가 위치했던 곳 인근에는 길이 100m가 넘는 지하 시설물이 여러 곳 존재한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육군조병창과 연결되어 병기를 격납하거나 무기 생산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었다. 종전으로 인해 지하공장이 운용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 강제동원된 수많은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은 장소이다.

지금까지 부평의 지하시설이 어떠한 배경에서 건설되었고 그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부평의 땅속에 남긴 일본군 조병창의 흔적과 그것이 의미하는 식민지 피해의 본질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우선 땅속 지하공장을 만든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 기술하겠다. 1945년 초 전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조병창이 생산해야 할 무기는 더욱 많아졌다. 다른 조병창이나 무기 생산시설로부터 군수물자를 보급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천육군조병창이 갖는 부담은 배가 되었다. 미군의 공습이 현실화 되자 조병창의 시설과 물자를 지하 시설로 옮기는 일도 추진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 조선인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조병창이 만들어진 토지는 조선인의 것이었고, 조병창을 만든 것도 조선인이었다. 그리고 조병창에서 일한 것 역시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치른 전쟁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 때문이었다. 일제가 부평의 땅속에 남긴 동굴의 깊이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깊이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피해가 박혀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제1공장에는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가 있었다. 채병덕 소좌였다.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일본군 포공학교를 졸업했으며, 오사카 육군조병창을 거쳐 부평 조병창의 제1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일제의 문헌에

51 미군이 진주한 이후 조병창 지역을 여럿으로 나눈 뒤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북쪽 지역을 캠프애덤스, 서쪽 지역은 캠프그랜트와 캠프헤이스, 부평역 동북쪽은 캠프헤리슨, 그 위쪽은 캠프테일러로 불렀다. 이들은 현재 모두 반환되어 개발되거나 한국군이 사용 중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캠프마켓, 시장이라는 이름은 주한 미8군의 보급 및 저장을 담당하는 기지라는 취지로 지어졌다.

따르면 채병덕은 단순히 조병창의 병기 생산 공장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병창에 동원 되어 있던 조선인들의 지도·관리까지 맡고 있었다고 한다. 요컨대 해방 직전 일본군 부평지구치안대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치안유지에 주력할 때 채병덕이 이들과 협력하여 '반도인 공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⁵² 공교로운 것은 채병덕이 해방된 이후에도 부평치안대 대장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조병창의 지하화 과정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실탄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쿄 제1조병창의 설비를 옮겨오는 장면이다. 앞서 본토결전의 기만성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가 일왕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쿄 제1조병창의 실탄 생산 설비를 한반도에 들이는 것은 결국 일본 열도의 전쟁 물자 생산을 떠맡는 형국을 연출한다.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사용할 실탄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생산과 생산을 위한 시설 건축, 그리고 지하공장 구축에 결국 더 많은 식민지민과 자원의 피해가 유발될 것은 자명했다. 아울러 그만큼 미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 부평지하호 안내도(출처 : 부평문화원)

마지막으로 조병창 내 민족 차별에 관한 부분이다. 일제는 조병창의 운용과 확장, 지하화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동원 피해를 유

52 일부 증언에는 채병덕이 조병창의 조선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시동인(一視同仁)과 내선일체, 그리고 황민화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병창 내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간 차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숙소 면적에 차이가 있었다. <표 12>는 부평제조소 신설과 관련하여 추가 숙소 건축계획이다.

표 12 부평제조소 신설 추가 숙소 건축계획 직원 숙소

(단위 : 호·㎡·㎡)

	구분	호수	1호당 소요 면적	소요 면적	구조	완성 기일
고등관	좌관단독	20	77	1,540	목조 페치카	9월 말일
	위관단독	30	63	1,890	목조 페치카	
	계	50		3,430		
판입관 고원	준사관단독	10	63	630	목조 온돌	9월 말일
	하사관단독	30	49	1,470	목조 온돌	
	고원단독	10	31.5	315	목조 온돌	
	계	30		2,415		
합 계		180		5,845		

표 13 공원 숙소

(단위 : 호·㎡·㎡)

	구분	호수	1호당 소요 면적	소요 면적	구조	완성 기일
단독 숙소	내지인	200	31.5	6,300	목조 온돌	10월 말일
	반도인	500	15.0	7,500		11월 말일
	계	700		13,800		
합동 숙소	남	300	8.5	2,550	목조 온돌	6월 말일
	녀	500	8.0	4,000		6월 말일
	계	800		6,550		

숙사 건축은 군인·군속이 머물 직원숙사와 노동자들이 묵을 공원 숙소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공원 숙소 중 합동 숙소의 경우 6월, 단독 숙소인 경우에는 11월경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호당 숙소 크기에 차이가 있다. 일본인 숙소의 경우 호당 소요면적이 31.5㎡인 반면 조선인은 그 절반이 안 되는 15㎡에 불과했

다. 조병창 운영의 절대다수인 90% 조선인들은 이러한 차별을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병창에 동원된 조선인 중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와 민족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기도하거나 독립운동을 기획하기도 했다. 조병창 한켠에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종이를 붙였던 인천공업직업학교 2학년 양재형을 비롯해서 조병창의 무기 조작 기술을 습득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잠입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오순환, 1943년 조병창 내에서 고려재건당을 조직하고 이듬해 권총과 실탄을 입수해 임시정부에 인도하려다 붙잡혀 실행을 언도받은 황장연 등이 그들이다.⁵³

2) 일제의 패망과 조병창의 해체

인천육군조병창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운명을 다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조병창의 땅과 시설들은 여전히 일본군의 손아귀에 머물러 있었다. 미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상륙한 9월 8일까지도 일본군은 무기를 소지한 채 침략전쟁의 명령을 지키고 서 있었다.

제24군단이 9월 8일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인천에서는 무장한 일본군 헌병대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 이후 3일 동안 미군은 서울-인천지구에서 확인한 모든 물자 야적장, 보급시설, 조병창, 탄약 공장에 경비병을 배치했다. 여기에는 인천 근처의 대규모 조병창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인천지구에 주둔한 일본군은 9월 10일까지 25% 정도의 병력을 제외하고 무장해제를 완료했다.

『주한미군사』에는 미군이 조병창을 무장해제하던 시점의 상황과 추이가 간략히 적혀 있다. 미군은 인천에 상륙한 9월 8일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의 군수물자와 보급시설, 그리고 조병창을 접수해 나갔다. 10일경에는 조병창을 포함한 일본군 부대에 모여 있던 인원 중 25%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에 대한 무장해제를 완료했다고 한다. 다시

53 조병창 내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4를 참고하였다.

말하면, 25%의 병력은 패전 이후에도 무장을 유지한 채 최소한의 치안을 지키며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⁵⁴ 미군은 일본군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가 해방된 한국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국인들이 해방의 기쁨으로 ‘경거망동’할까 오히려 경계하였다. 인천육군조병창은 마지막까지 일본군의 손아귀에 남아 있다가 미군 제24군수지원사령부에 접수되었다.

“점령 부대는 조병창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후속 부대가 주둔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병창에 있던 여러 종류의 공구와 특수 기계를 철거해서 아무 데나 버린 것이다.”

조병창의 기계류를 철거해 버린 것은 군단 야전 명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심한 조치였다. 군단 야전 명령은 조병창을 점령하라고 했지 파괴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 장군은 조병창의 기계류를 파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다.

미군 제24군단 병기참모부는 조병창 해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보고서를 남겼다. 일제 조병창 최후의 모습이었다. 조병창을 점령한 부대가 후속 부대의 주둔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장 건물 안에 있었던 공구와 기계류를 철거했다는 것이다. 제24군단장 하지는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결전을 외치며 무기 생산에 열을 올렸던 일제의 조병창은 이렇듯 망실되었다.

지금까지 조병창의 지하화와 그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조병창의 지하화는 이른바 일제의 본토결전에 따른 것이었다. 미군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하여 미 항공기의 공습 아래에서도 병기를 생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병창의 공장시설과 무기들을 지하로 은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1942년 이후부터 육군조병창이 중점을 두어야 할 생산 병기와 활동을 특정하고 있었다. 즉 1942년에는 항공무기와 탄약, 1943년에는 항공무기, 탄약과 화약, 1944년 항공무기, 탄약과 화약, 그리고 주정(舟艇) 등이었다. 1944년부터는 조병창의 주요 임

54 패전 직후 일본군의 주둔 상황과 귀환에 관해서는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실태와 귀환』, 『한국학논총』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을 참고하였다.

무 중 하나로 ‘설비 분산’ 조치가 내려졌다. 1944년 12월 이후 미군의 본토 공습이 격화되자 조병창 설비의 분산 조치를 시행했고, 1945년도에는 철저한 방위 강화 대책에 중점을 두고 관련 시설에 대한 분산과 은닉을 추진하던 중에 패전을 맞았다.

당시 구축된 조병창의 지하시설은 현재 아직까지 부평 인근의 산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부평의 지하시설은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따른 한반도 병참기지화의 핵심시설이자, 전시총동원체제가 한반도 내 인적·물적 동원의 집합처이며, 일왕을 중심으로 한 일제 지배층의 생존을 위해 계획된 최후 결전, 즉 본토결전의 결과물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했다는 흔적이자 땅에 남긴 피식민의 상처이다.

요컨대 부평의 지하시설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가 중첩되어 구축된 시설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참상을 어둠 속에 머금고 남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부평지하호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의미를 던진다. 이 사실과 의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리고 경험시켜서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평지하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인류를 공포와 비탄에 빠뜨렸던 제국주의 전쟁과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지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 역사: 반환기지를 중심으로』, 2015.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1)』, 2014.
 문화재청,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연구보고서: 태평양전쟁시기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 2016.
 국사편찬위원회 편, 이상의 면담 및 해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20.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나남, 2014.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I, 일월서각, 1989.
 한만승, 『캠프마켓: 아픈 희망의 역사 부평미군기지를 말한다』, 봉구네책방, 2013.
 吉原勇, 『仁川の70年』, 2018.
 大本營陸軍部·防衛庁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
 宮田節子 編·解説,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社, 1989.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書店, 1964.
 藤原彰, 『日本軍事史』上, 社會批評社, 2006.

논문

배석만, 「일제시기 조선기계제작소의 설립과 경영(1937~1945)」, 『인천학연구』10,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신주백, 「일제의 강점과 조선주둔 일본군(1910~1937)」, 『일제 식민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2005.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정책'(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윤현명, 「중일전쟁기 일본 제국의회 의 임시 군사비 심의」, 『일본역사연구』46, 일본사학회, 2017.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조건, 「일제 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화와 강제동원 피해」, 『한국근현대사연구』 98집, 2021.
 조건, 「전시총동원체제가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실태와 귀환」, 『한국학논총』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山崎志郎, 「陸軍造兵廠と軍需工業動員」, 『商學論集』62卷 4号, 1994.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자료

「昭和20年3月 隷下部隊長會同時狀況報告 仁川陸軍造兵廠」, 『隷下部隊長會同の際の兵器生産狀況報告 昭和20年3月』
「朝鮮軍管區部隊」, 『部隊行動表 昭和20年』
『(航空·地上) 昭和19·20年 陸軍各造兵廠作戰計畫』, 1945.3.
朝鮮憲兵隊司令部, 『治安情報綴(朝鮮)』, 1945.8.15.~8.29.
陸軍兵器行政本部, 『造兵廠の現況』, 1945.8.31.



부평사
富平史

補論 지역사회가 발굴하여 기억하는 부평지하호

김 규 혁(부평문화원 사업팀장)

| 제1절 |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한 부평지하호 사업내용

1. 추진배경과 경과

화랑농장¹을 지나 장고개²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오래전부터 새우젓 굴로 불리던 토굴이 있다. 부평문화원은 2015년 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마침 이듬해인 2016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콘텐츠 사업에 부평문화원이 선정되어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실규명에 착수, 이곳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담겨진 곳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부평의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 상이용사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겨난 곳으로 부평의 대표적 통속지명 마을이다.
2 부평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현재 제3보급단이 위치해 있으며 부대 이전 후 도로가 관통될 예정이다.

새우젓 굴로 알려진 토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함봉산 인근 산곡1, 3동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곳 전체를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개의 토굴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이 24곳의 토굴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인천종합어시장(일명 연안부두 어시장)이 개장되면서 어민들과 상인들이 1975년부터 2016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새우젓 굴로 사용해 왔다. 현재는 모두 사용이 중단되어 새우젓 굴의 흔적만 일부 남아있다.

2016년 어르신문화콘텐츠 사업 진행 당시만 해도 이곳을 부평 새우젓 토굴로 알고 있었기에 명칭을 부평토굴로 불렀으며 사업 결과자료집도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로 표기하였다. 그 후 생존자 증언과 역사 자료를 통해 단순한 토굴이 아니라 일제가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 지면서 토굴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되었다. 그 무렵 2018년 11월 5일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부평토굴 토크콘서트에서 ‘토굴’이라는 명칭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전쟁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지하호’ 또는 ‘지하시설’로 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2019년도부터 ‘부평지하호(富平地下壕/Bupyeong Underground Facility)’로 변경하였다.

‘지하호’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일제가 전쟁수행을 위해 조성한 인위적인 동굴을 지칭하는 용어로 부평지하호 역시 당시 전쟁수행을 위해 조성한 동일 개념의 것이기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앞서 본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곳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제가 동경제1육군조병창의 일부를 이곳으로 옮겨오기 위해 조성한 지하공장이었음이 밝혀졌다. 현재의 캠프마켓 자리가 병기를 설계, 제조, 수리하던 인천육군조병창이었고 함봉산 일대의 지하호가 실은 동경제1육군조병창 총기공장이 자리할 지하공장이었다는 획기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르신문화콘텐츠사업으로 진행했던 부평토굴 조사사업이야말로 일제의 지하공장을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



❖ 조사결과보고서 표지 (2016)

낸 역사적인 성과였던 것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찾아낸 24곳의 지하호와 증언, 이것은 실로 역사에 기록할만한 조사사업이었던 것이다.

2.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개

부평문화원이 진행한 부평지하호 사업은 일제강점기 지하호 건설을 위해 강제동원된 어린 학생들의 아픈 역사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록화사업 : 2016년에는 부평지하호를 기록하기 위해 부평구의 어르신들과 함께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하호의 위치를 확인하고 규모와 형태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하호와 일제강점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구술을 채록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이곳을 새우젓 토굴로 이용해 왔던 소래포구 어촌계와 연안부두 어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했다. 채록한 구술 자료와 현장사진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부평구 어르신들의 체험담 등은 자료집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2016에 담겨 있다.

2) 역사탐방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 2017년부터는 일반 시민, 유관기관,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하호 탐방프로그램(필드워크)을 진행했다. 지하호는 눈과 귀 등 오감을 이용하여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교육적으로 매우 좋았으며 학생들의 호응도 남달랐다. 지하호 탐방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탐방 여건이 양호한 지하호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는데 부평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 QR코드를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근 등산로를 산책하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현장의 역사성을 알리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호와 관련한 부평의 근현대사를 설명하는 역사특강도 실시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평의 근현대사를 역사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역사특강은 학교 측과 학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내고 있다.



❖ 일반시민 필드워크(2017)



❖ 고등학교 연계 필드워크(2018)



❖ 일반시민 필드워크(2018)



❖ 혼혈입양인 부평답사(2019)



❖ 인천시장, 부평구청장 답사(2019)



❖ 해설사양성과정 답사(2020)



❖ 부평지하호 VR 온라인투어(2020)



❖ 삼산고등학교 특강 (2018)



❖ 작전고등학교 특강 (2018)



❖ 부개고등학교 특강 (2019)



❖ 인천고등학교 특강 (2019)

부평지하호 역사탐방프로그램은 2020년 코로나사태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VR을 제작하여 온라인투어로 대체 운영하고 있다.

3) 인형극, 연극 및 노래 제작 : 부평지하호의 역사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제작되었다. 윤극영 선생의 반달을 개사하여 만든 '부평토굴의 노래', 지하호 공사에 참여한 전진수 어르신들의 실화를 각색하며 만든 그림자인형극 '아픈 역사의 현장, 부평지하호',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주니어극단 인형극 '독립이의 그날의 기억, 부평지하호의 비밀', 시니어극단 은빛여울 어르신들이 선보인 연극 '세 남매의 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부평지하호 문화콘텐츠는 부평문화원 공식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시청 가능하다.



❖ 그림자인형극 '아픈 역사의 현장 부평토굴'(2017)



❖ 노래 '부평토굴의 노래'(2017)



❖ 시니어극단 은빛여울 '세 남매의 봄' (2018-2019)



❖ 주니어극단 푸른하늘 '독립이의 그 날의 기억, 부평지하호의 비밀'(2019)

부평지하호는 일본 동경제1육군조병창의 일부가 옮겨오기 위해 조성된 곳이자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을 확대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토지, 개발제한구역, 인접한 군부대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전기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전무하며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개선된다면 인천육군조병창(캠프마켓)과 함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 제2절 | 부평지하호 기본현황

부평지하호는 토굴에 대한 실지조사 당시 위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 4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화랑마을지역 지하호는 A구역, 청원유치원 인근 지하호는 B구역, 새우젓굴 지역 지하호는 C구역, 육군 제3보급단 지역 지하호는 D구역으로 구분하였다.







❖ 부평지하호의 지역별 분포도(2020)

A구역에서 발굴된 지하호는 7곳, B구역은 4곳, C구역은 7곳, D구역은 6곳으로 지하호가 제일 많이 분포한 곳은 A와 C구역이다. 청원유치원 인근의 B구역 4곳은 인천시 지도포털 사이트의 과거 항공사진으로만 확인된 곳으로 현재는 입구가 막혀 있어 실지조사 시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2016년 조사 당시 24곳이었던 지하호도 그 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부광고등학교 뒤편 화랑마을지역 A구역의 4곳이 사라져 2020년 현재 20곳만이 남아 있다.

1. 화랑마을지역(A구역) 지하호

	현장모습	특징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광고등학교 인근 한식당(고궁)에 대흥사로 가는 길 왼쪽에 위치함. 하수도와 연결되어 내부에 물이 고여 있음. 부평서중학교 방향 직진형태 약30~40m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광고등학교 측면 옹벽에 위치했으나 신축 빌라공사로 인해 2020년 소실되었음 2016년 당시 약 4~5m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광고등학교 측면 옹벽에 위치했으나 신축 빌라공사로 인해 2020년 소실되었음 2016년 당시 약 4~5m

	현장모습	특징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광고등학교 측면 옹벽에 위치했으나 신축 빌라공사로 인해 2020년 소실되었음 2016년 당시 인근 마을주민들이 입구를 돌로 막아 내부 확인 불가능하였음
A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광고등학교 측면 옹벽에 위치했으나 신축 빌라공사로 인해 2020년 소실되었음 2016년 당시 인근 마을주민들이 입구를 돌로 막아 내부 확인 불가능하였음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화랑교회 인근 주택공사 중 'ㄷ'자 형태로 발견. 이후 진행된 교회공사로 인해 일부 토사가 무너져 현재는 'L' 형태만 남아있음 약 5~7m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구 산47 2임에 위치 토사가 흘러내려 입구가 많이 좁아진 상태

화랑마을지역의 부평지하호는 마을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대부분 주택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건물 뒤편에 숨겨져 외부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특히 A구역 6번 지하호는 개인 주택 뒤편 옹벽 안에 'ㄷ'자 구조로 남아 있다. 주택을 건축할 당시 지하호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것으로 보이는 총알, 자동차 부품들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2019년부터 진행된 신축공사로 인해 A구역 2~5번 지하호는 사라져 버렸다.

A구역 지하호는 비교적 규모가 작아 개인 저장시설, 버섯재배, 창고 등으로 이용되거나 여름철 피서지 역할을 하였다.



❖ 화랑마을 지하호에서 기념촬영한 주민들의 모습

2. 청원유치원 인근(B구역) 지하호

항공위성사진 비교모습	
과거 항공사진 (1947년)	
구글어스 위성지도 (2019년)	
비교사진	

청원유치원 인근의 부평지하호는 광복 직후의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인천시 지도포털 사이트의 1947년 현재 사진을 보면 함봉산 자락 쪽에 4개의 지하호 출입로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B구역 1번의 입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도 후반에 지역주민이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한다. B구역 2번 위치에 해당되는 곳은 계단식 구조로 지어진 건물을 통해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B구역 3번 자리에는 고물 창고가 들어서 있다.

<청원유치원 인근(B구역) 부평지하호의 흔적>



❖ B구역 1번. 임마누엘장로교회 주차장 부지 덩굴 속에 지하호 입구를 막은 콘크리트가 있다.

❖ B구역 2번. 건물 측면이 계단 형태로 과거 지하호로 연결되는 도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B구역 3번. 양쪽 건물 사이 고물 창고 안쪽에 입구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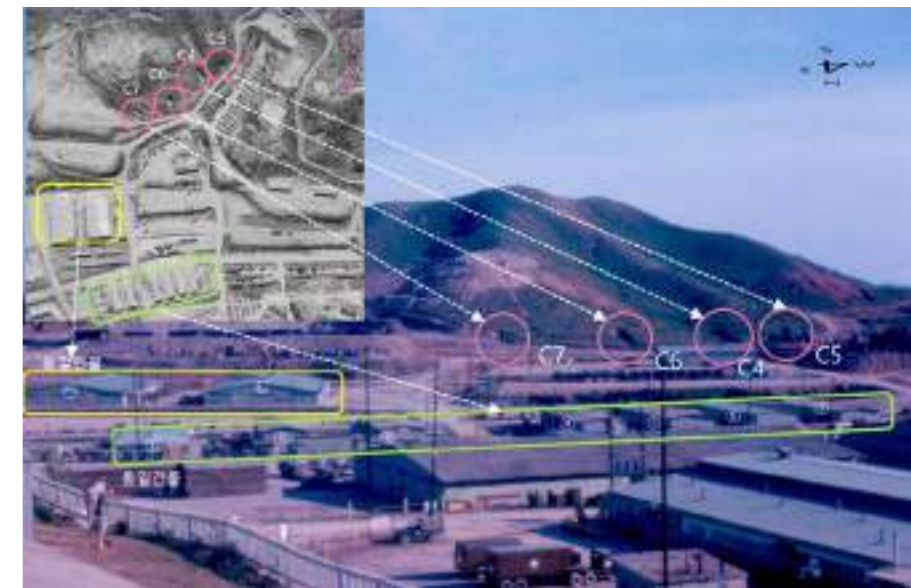
3. 새우젓 굴 지역(C구역) 지하호

	현장모습	특징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인근 구세군교회, 어린이 집 주차장 안쪽에 위치 • 문이 잠겨 있음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구역 1번 지하호에서 산길로 50여 m를 올라가면 절벽하단에 위치함 • 약 110m • 2016 어르신콘텐츠발굴단 답사 사진
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구역 2번 지하호에서 군부대 담벼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옴. 왼쪽 절벽 하단부에 위치함 • 내부는 'Y'자 형태로 약 40m • 2016 어르신콘텐츠발굴단 답사사진
C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구역 3번 지하호를 지나 언덕길을 내려오면 군부대를 정면으로 하는 삼거리 형태의 갈림길이 나옴. 왼쪽 길 바로 옆에 위치 • 소래포구 여촌계에서 과거 새우젓 굴로 사용되었다고 함 • 약 120m • 2016 어르신콘텐츠발굴단 답사사진
C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구역 4번 지하호를 지나 군부대담벼락을 따라 건다 보면 절벽아래에 위치 • 약 120m • 2016 어르신콘텐츠발굴단 답사사진

	현장모습	특징
C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건다 보면 오른쪽에 위치함 • 약 150m로 안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휘어짐 • 2019년부터 부평지하호 필드워크로 이용되고 있음 • 2016 어르신콘텐츠발굴단 답사사진
C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구역 6번 지하호를 지나 건다 보면 막다른 길에 위치 • 약 160m • 내부구조가 'ㅈ' 모양으로 2개의 가지굴이 존재하며 C구역 6번을 향함 • 2017년~2018년 부평지하호 필드워크 장소로 사용됨 • 2016 어르신콘텐츠발굴단 답사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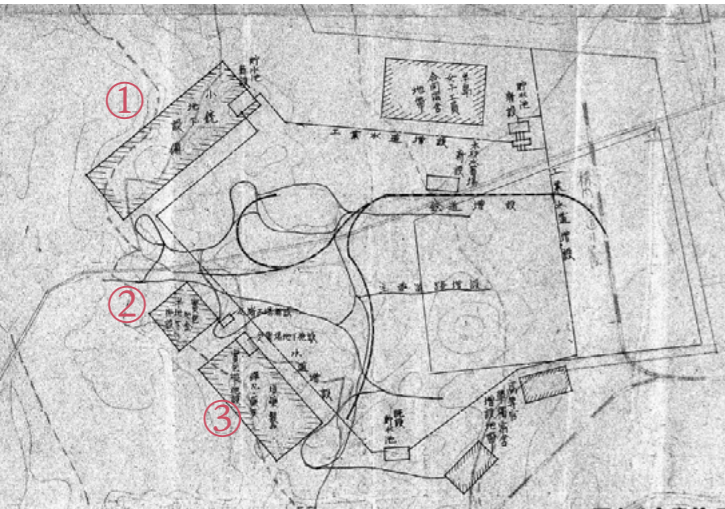
새우젓 굴(C구역) 지하호는 지하호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자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최근까지 연안부두 어시장과 소래포구 상인들이 새우젓 숙성굴로 사용하여 통상 새우젓 굴로 알려져 왔다. 지하호 내부에는 착암흔적과 측점인 나무쐐기 등이 남아 있다. 특히 C구역은 일제 문서를 통해 탄환과 약첩 등을 생산할 지하공장였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캠프그란트가 주둔했던 곳으로 당시 사진을 보면 C구역 4~7번의 지하호 입구가 선명하게 보인다. 사진 속 캠프그란트 자리에는 현재 한국 육군 제3보급단이 들어서 있다.



❖ 캠프그란트(Camp Grant) 주둔 당시 C구역 지하호 입구의 모습

아래 자료는 1945년 3월 인천육군조병창이 작성한 극비 문서로 현 제3보급단 인근 산 기슭에 소총과 실탄을 생산할 지하공장을 조성하는 계획도이다. 좌측에 ①~③ 빗금으로 표시된 사각형 지역이 소총과 실탄을 생산하는 지하공장이다. 여기서 ③번 사각형 지역이 부평지하호 B구역(1~4)과 C(1~7)구역에 해당된다. 지하공장은 터널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공사가 계속되었다면 관통되었거나 혹은 B구역과 C구역 지하호가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①번과 ②번 지역은 현재 제3보급단 부지 내에 포함된다.



❖ 극비문서(실포소총이설분산방호전개도)에 나타난 함봉산 지하공장 위치도(빗금의 사각형 지역)



❖ ③번 사각형 지역에 해당되는 지하호 위치

4. 육군부대지역(D구역) 지하호

	현장모습	특징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7여단에 위치 • 입구에 대피소라는 팻말과 함께 콘크리트로 완공일 1988.2.18.가 표시되어 있음 • 약 20~30m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보급단에 위치 • 부대 내 둔덕 기슭에 위치 • 약 10~15m •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음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보급단에 위치 • 부대 내 둔덕 기슭에 위치 • 약 10~15m •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음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보급단에 위치 • 부대 내 둔덕 기슭에 위치 • 약 10~15m •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음
D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보급단에 위치 • 나무 뒤편으로 2개의 지하호가 있으며 각각 'ㄷ'자 형태로 관통되어 있음. 따라서 외부에서 4개의 굴 입구가 관찰됨

제3보급단 지역(D구역) 지하호는 군부대 보안상 상세한 조사가 어려워 이미 알려진 장소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D구역의 2~4번 지하호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어 다른 지하호와 다른데 축조방식이 타지역역 일제강점기 구조물과 비슷하여 인천육군조병창을 운영할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타 부평지하호의 자연환경과 구조물

부평지하호 내부에는 지하수가 떨어지는 것을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다. 주변일대가 유문암³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며 이때 암석에 있는 석회성분이 물에 녹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천정에는 종유관이 형성된다. 한여름에는 1급수 지표종인 민물가재를 볼 수 있으며, 겨울에는 지하호 천정에서 떨어진 지하수가 지하호 입구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 땅바닥에서 솟아오른 고드름을 만들어낸다. 또한 C구역 부평지하호 출입구 쪽에는 새 우젓 창고로 쓰일 당시 침출수를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낸 정화조 구조물을 볼 수 있다.

3 정장석, 석영, 운모 따위의 결정(結晶)으로 이루어진 화성암. 규산이 많이 든 광석으로, 흰색을 띠며 물결무늬가 있다. 도자기나 건축 재료로 쓴다.



❖ 부평지하호 내부에 발달된 종유관



❖ 1급수 하천의 지표종인 민물가재



❖ 겨울철에 생기는 역고드름



❖ C구역 7번 지하호 입구에 만들어진 정화조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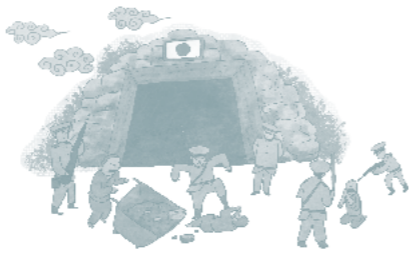
구술로 보는 조병창 사람들

제1절 _ 99(구구)식 소총을 만들던 김우식,
지원자에서 무단이탈자가 되다

제2절 _ 여학생 지영례, '정신대' 동원을 피해
인천육군조병창에 지원하다

제3절 _ 지원병을 강요받던 최덕원,
인천육군조병창 군속이 되다

제3장 구술로 보는 조병창 사람들



이 상 의(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인천육군조병창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에 의해 대규모 강제동원이 행해진 국내의 대표적인 시설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동원된 1만 3천 명의 ‘군속(軍屬)’들은 이곳에서 99(구구)식 소총을 비롯한 무기를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고, 물자를 하역하였다.

필자는 인천육군조병창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구술 면담을 진행하여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이라는 구술집을 출판한 바 있다.¹ 2017년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였는데, 구술자는 1941년 조병창 개창 이후에 동원된 사람들로, 당시 만 13~17세의 나이였다. 이 장에서는 그 중 동원 기간이 길었던 3명(김우식, 지영례, 최덕원)의 구술 내용을 재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천작가회의에서 발

1 이상의 면담 및 해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19.

행한 『작가들』에 발표한 것²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 제1절 | 99(구구)식 소총을 만들던 김우식, 지원자에서 무단이탈자가 되다

이 글은 인천육군조병창(이하 조병창) 제2공장에 강제동원되었던 김우식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구술자 김우식은 17살인 1941년 봄부터 1944년 12월까지 제2공장에서 99(구구)식 소총의 방아쇠를 만드는 반에 소속되어 ‘연마’ 작업을 하였다. 조병창 개창 초기 모집에 의해 들어갔으므로 조병창의 초기 주변 환경과 운영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조병창에서 작업장 내외의 엄격한 규율과 배고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조병창을 탈출하여, 드물게 해방 이전에 조병창에서 나올 수 있었다. 탈출 이후 평양군무예비훈련소로의 이중 징용을 경험했고, 6·25전쟁 시에는 철도경찰로서 대전역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진행된 수형인 학살과 산남면 매장 과정을 목격하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2017년 8월 23일(수)과 31일(목) 두 차례에 걸쳐 충남 청양의 자택에서 김우식을 만나 그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1. 1925년생 김우식, 충남 청양에서 서울로

김우식은 1925년 6월 20일생이다. 인천 신흥동에서 태어난 후 바로 충남 청양 남양면(구 사양면)으로 이주했다. 4대 독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5남매 중 셋째로 위로 누이 둘,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다. 현

2 이상의 인터뷰·정리, 「(르포)민중구술 : 인천징용노동자상의 모델 : 인천조병창 병원 서무과에서 근무한 지영례」, 『작가들』66,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8; 이상의 인터뷰·정리, 「(르포)민중구술 : 인천조병창에서 구구식 소총을 만들던 김우식, 지원자에서 무단이탈자가 되다」, 『작가들』68,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9; 이상의 인터뷰·정리, 「(르포)민중구술 : 지원병을 강요받던 최덕원, 인천육군조병창 군속이 되다」, 『작가들』71,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9.

제도 살고 있는 남양면의 집에서 자라면서 사양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였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일본인 학생도 두어 명 같이 있었다. 일본인 학교가 청양 읍내에 있어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중에는 일본인이 많았다. 아오야마 교장과 다나카 담임 선생님도 기억이 난다. 아오야마 교장은 10년 전쯤 한국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학교를 보고 싶다고 아들과 함께 와서 제자들 몇 명을 만나고 갔다. 다나카 선생님은 친절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요코하마(横浜) 스키제작소로 돈을 벌러 가신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도항증까지 받아 두었는데 막상 출발 직전 아버지가 만류하여 떠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조선 아이들이 일본에서 일하면 교육상 좋지 않겠다고 하고는 당신이 오히려 귀국을 하였다. 아버지는 일본인들이 조선 아이들 대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중학교 시험도 안 되고 독일도 좌절된 이후 서울로 향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그해 선달, 청양에서 한약방을 하다가 서울 수표동으로 이사 간 고모부의 소개로 현재의 을지로인 황금정 2정목에 있는 한약방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2년 가까이 전화로 주문이 오면 약 배달을 다녀오기도 하고 틈틈이 약 짓는 방법도 배웠다. 약방에서는 주로 성북동 부자들이 보약을 지어 갔다.

2. 조병창 입장과 주변 환경

그러던 어느 날 조병창의 사진 기사였던 온양 사람 김영환을 만났다. 그는 조병창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을 듣고 조병창의 모집에 응했다. 그때 그의 나이 열일곱으로 돈을 벌고 싶었다. 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사양국민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을 쓰고 나니 더 이상 쓸 것이 없었다. 김씨의 조카와 함께 김영환을 통해 원서를 접수했는데, 면접도 없었고 신체검사도 별것 없었다. 아마도 응모하는 사람이 적었던 듯하다. 그런데 막상 조병창에 도착해서 보니 말로 들었던 것과는 영 판판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차라리 한의원에 남아 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우식은 조병창의 초창기에 들어갔다. 초반에 3개월간 기능자양성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날씨가 더울 때 나와서 공장에 배치되었던 걸 보면 사월이나 오월쯤 들어갔던 듯하다. 그가 처음 조병창에 갔을 때 조병창 건물 말고는 주변이 다 벌판이었다. 백마정이라고 조선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가는 길만 나 있을 뿐 사방이 온통 논과 밭이었다. 길은 붉은 황톳길로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였다. 백마정에서 고개를 넘으면 주안염전이 있었다. 부평역 조금 지나면 철길 옆에 조병창보다 먼저 들어선 삼릉(三凌; 미쓰비시)공장이 있었다. 철길 이쪽과 저쪽으로 조병창과 삼릉공장만 있고 사람들이 사는 집은 몇 채 되지 않았다. 주변의 큰 건물은 경인선의 부평역뿐이었다.

조병창은 삼릉공장보다 훨씬 컸다. 들판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은 것 같았다. 원공장 건물은 처음부터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물이 많아진 것 같다. 그 안에서는 여기저기 다니며 구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정해진 장소에만 있도록 엄격히 단속을 했다. 사람도 점점 많아진 것 같지만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가 어려웠고 알려고 해도 안 되었다. 조병창의 드넓은 터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주변과 차단되어 있었다. 정문과 후문 등 곳곳에는 헌병이 지키고 있었다.

3. 기능자양성소 입소와 기숙사 생활

김우식은 조병창에 들어간 이후 3개월간 기능자양성소에 있었다. 초반에는 일반공중에서도 기능자양성소로 사람들을 뽑아갔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능자양성소에 들어간 학생들은 3년씩 머물면서 기능을 익히고 일반공과는 다른 지위로 배치되었다. 일반공은 무작위로 공장에 배치되었지만, 양성공들은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이 공부한 분야로 배정을 받았다. 차림도 모자에 빨간 테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일반공과는 차이가 나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들 양성공과 달리, 초반에 뽑혀간 일반공은 3개월의 단기간만 양성소에서 배우는 과정을 거쳤다. 김우식도 학생들처럼 그렇게 길게는 있고 싶지 않았다. 양성소의 양성공 중에는 일본인 학생도 있었다.

양성소에 있었던 3개월간은 기숙사에서 지냈다. 양성소에 숙소와 식당이 딸려 있어

다 함께 합숙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에서는 넓은 교실 같은 곳에서 반별로 한 줄로 죽 누워서 잤다. 양성소의 식당에서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큰 솥에 밥을 했는데, 밥을 풀 때면 그 솥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삽으로 푸곤 했다. 밥의 양은 엄청났지만 식당에서 개인에게 배정되는 양은 항상 부족했다. 한창 먹을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식당에서 몰래 음식을 훔쳐 먹다가 들키기도 하였다. 주변에 무언가 사 먹는 곳은 별로 없었지만, 조금씩 돈이 나오면 시장기를 달래려 떡 같은 걸 사 먹었다. 조병창에서 주는 돈은 봉급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액수가 너무 적어 쓸 만한 여유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조병창은 직장이 아니고 순전히 착취를 한 곳이었다. 그 슬한 조선 사람들이 전부 착취를 당했던 것 같다.

4. 제2공장 배치와 방아쇠 연마 작업

기능자양성소에 있는 동안에는 훈련을 받기보다는 공장에서 견학하다시피 하였다. 3개월간 딱히 기술을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쇠를 깎는 ‘젠마(研磨; 연마)’에 대해 배우고 나온 김우식은 제2공장으로 배정을 받았다. 조병창은 제1·2·3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장의 여러 건물들은 무기를 만드는 순서대로 있었는데, 제1공장에서는 쇳물을 부어 빼내는 주물 일을 주로 했고, 제2공장에서는 그걸 깎는 선반 일을 했고, 제3공장에서는 조립하는 일을 했다. 그는 오랫동안 조병창에 있었지만 제2공장에만 있었고 다른 공장에는 거의 가보지 못했다. 다른 공장보다는 제2공장이 가장 크고 사람도 많았던 듯 하다.

공장 건물은 무척 컸다. 건물이 죽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쇠기둥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쇠기둥 위에는 돌아가면서 피땀줄을 길게 연결해 놓았다. 제2공장 안에는 여러 개의 반이 있어서, 이쪽에 한 반, 저쪽에 한 반씩 반마다 따로따로 근무를 했다. 공장 안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이 계속 충원되었지만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부족했다.

제2공장에서 김우식은 99(구구)식 소총의 방아쇠를 깎았다. 주물공장에서 나온 방아

쇠 만드는 쇠를 전기 자석판에 붙여놓고 그라인더라고 하는 연마기로 관관하게 깎고,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깎는 작업이 그가 맡은 일이었다. 앞면 두 차례, 뒷면 두 차례, 총 네 번의 동작을 통해 두께가 딱 맞도록 재가면서 깎아야 했다. 전기를 넣어 쇠를 딱 붙게 해서 정밀하게 해야만 방아쇠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잘못해서 ‘기스’라도 나면 큰일이었으므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런 후에 그것을 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방아쇠의 옆면을 깎았다. 불량품이 나와 검사공에게 걸리면 큰일이 났다. 제2공장 안에는 너댓 명의 검사공이 있어 그들이 검사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검사공들도 잘못 만든 물건이 조립하는 데로 가서 문제가 되면 안 되었으므로 검사를 철저히 했는데, 불합격으로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제2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은 제3공장으로 가져가서 조립하여 총으로 완성하였다. 제3공장에는 피대 같은 것이 없고 공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5. 쓸모없는 일, 4년간의 방아쇠 깎기

조병창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번 부서에 배치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곳에만 있었다. 조병창에서는 이것저것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다른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이것저것 다 알게 되면 총을 만들게 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일 반공으로 갔던 사람들은 조병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총을 몇 자루나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도 조병창에 있던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아쇠 깎는 일만 하였다. 하루에 방아쇠를 얼마나 많이 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밖의 다른 기술은 배운 것이 없었다. 병기공장에 다니면서도 총 한 자루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는 채 겨우 부품 하나 잘 만드니 생각해보면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였다. 차라리 작은 공장에 다녔더라면 이것저것 만들면서 기술을 배웠을 텐데, 조병창에서 아무 쓸데없는 일만 했다.

그는 드물게도 양성소에서 찍은 사진과 조병창 반원끼리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양성소에 들어간 직후와 스무 살이 되던 1944년에 제2공장의 ‘젠마코

(研磨工; 연마공) 반장이 찍자고 해서 찍은 듯하다. 99(구구)식 소총의 방아쇠를 깎던 같은 반원들 중 반장과 부반장 2명은 일본인이었고, 이외 공원들은 모두 조선인이었다. 방아쇠 깎는 곳에는 일본인 일반공은 없었다. 같은 옷을 입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는 표시가 나서 바로 알아 볼 수 있었다. 일본인 반장은 가족이 모두 와서 같이 살림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사진에는 반장의 아이들도 같이 등장했다. 사진 속의 한 친구는 소래포구에 집이 있어서 그 집에 한 번 다녀온 적도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조병창에서 준 옷으로 재질이 부드럽지 않고 뻣뻣하였다.



❖ 인천육군조병창 제2공장의 방아쇠 연마 반원과 찍은 사진(사진 김우식)

6. 조병창의 규율과 감시 그리고 헌병들

조병창 안에는 정문과 여기저기 군데군데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그 넓은 조병창 안에서 창장이나 공장장 같은 사람들은 주로 말을 타고 다녔고 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조병창장이 말을 타고 다닐 때면 저 멀리 100m 앞에만 나타나도 경례를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헌병들이 쫓아와 경을 쳤다. 헌병들은 다 칼을 차고 다녔다. 공장의 책임자와 반장, 부반장 같은 간부들은 거의 다 일본 사람이었다. 하기노상이라고 하던 소장도 일본인이고 제2, 3공장장도 일본인이었다. 다만 제1공장장은 채병덕이라는 조선인 소좌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를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곤 했다.³ 간혹 일하는 사람 중에도 일본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부러먹고 피를 부리나 안 부리나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조병창에 출근하면 입고 간 옷과 모자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다. 본인의 기름복은 각자 챙겨야 했다. 퇴근하기 전에는 더러 신체검사를 했다. 부품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옷을 벗겨보지는 않았지만 안에 뭔가 들어 있지는 않은지 대충 짚어보곤 했다. 이전에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미리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공장마다 헌병대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는 지금의 중사나 상사급인 군소(軍曹)였다.⁴ 군소는 긴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에게 잘못 걸리면 호되게 맞고 거의 죽어 나갔으므로 공원들은 그를 사자라고 불렀다. 규율을 위반해서 그랬는지, 별 잘못이 없어도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 한번 걸리면 데리고 가서 죽는 소리가 나도록 때리곤 했다.

조병창은 참으로 감시가 심하고 규율이 엄했다. 엄격한 규제에 공장에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가 없었고, 마음대로 활동도 할 수 없었다. 공원들은 작업 도중 공장 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겨를도 없었다. 특히 명령에 따른 생산 책임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두들겨 잡다시피 하면서 바짝 더 심하게 굴었다.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면 잔업을 했다. 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하던 일을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계속해야 하는 야근으로, 졸음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하곤 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큰일이었다. 그런 때는 헌병대가 작

3 채병덕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였고,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에서 제1공장장을 지내던 중 해방을 맞았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과 육해공군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6·25전쟁에서 전사하였다. 조병창에 있던 사람들은 채병덕 혹은 오시마 헤이도쿠(大島乘徳)라는 이름의 조선인 간부로 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4 군소는 옛 일본육군의 하사관 계급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사에 해당한다.

업장에 와서 순찰을 돌곤 했는데, 헌병들이 슬슬 돌아다니면서 저만치서 바라보거나 옆으로 지나갈 때는 진짜 무서웠다. 고초(伍長)⁵의 위인 군소는 그리 높은 계급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권한이 세고 무서웠다.

7. '백마정'의 조선인 일반공 사택

기능자양성소에서 나온 이후 김우식은 일반공 사택에서 하숙을 했다. 공장에는 공장 시설만 있고 숙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숙소는 백마정이라고 조병창에서 뚝 떨어져 있고 기능자양성소에서 가까운 산 밑에 있었다. 처음 갔을 때는 공장만 있고 주택이며 별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백마정 사택을 지은 것 같다. 사택에는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거주하고 있었다. 그 근방에는 다른 공장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조병창 사람들 외에는 왕래하는 외지인들이 아예 없었다. 일반공 중에는 부천 소사 같은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숙소에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 숙소는 일본 사람들의 숙소와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조선인만 거주하는 한민촌이었다. 집이 기다랗게 죽 이어진 나가야(長屋) 모양이었다. 굉장히 넓은 곳에 길게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지었고, 나가야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만한 길을 내었다. 아오바료(靑葉寮) 등의 일본 사람들 숙소도 조병창 주변에 더러 있었는데, 그들의 숙소는 조선인 숙소와는 달리 별도의 주택으로 따로따로 지었다. 한민촌에서 지내던 숙소는 방 한 칸에 작은 부엌과 작은 방이 딸려 있는 모양이었다. 가족이 두어 식구 되는 집은 하숙을 주지 못하고, 식구가 없는 집은 조병창 공원 한두 명씩 하숙을 쳤다.

사택 주인은 같은 제2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조병창에 돈을 내는 것 같았다. 공장에는 식당이 없었으므로 숙소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 야근이라도 하려면 그 밥을 다 싸가야 했다. 같은 공원들이 하숙을 하면서 하숙비를 조금밖에 내지 못했으니 밥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다행히 조병창에서는 때때로 배급이 나왔다. 쌀을

배급해 주었는데 기름을 짜고 난 콩깍묵을 섞어서 주었으므로 도시락에도 콩깍묵을 섞어서 싸 주었다. 가끔은 간쑤메라고 부르던 납작한 생선 통조림도 나왔다.

8. 사택 주변 풍경과 조병창 가는 길

조병창에서 논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논다고 해도 기껏해야 근방에 다녀오는 것이었는데, 놀러 다닐 데라고는 주안 아니면 인천밖에 없었다. 숙소는 주변이 다 산이었다. 숙소에서 고개를 넘어 가면 바로 지금의 주안으로, 그때는 전부 다 염전이였다. 일요일이 되면 바닷가에 가서 조개 같은 걸 잡으려고 고개를 자주 넘어다니곤 했다. 하인천은 못 갔지만 가끔 상인천까지는 걸어 다녔는데, 그나마 인천은 돈이 필요했으므로 가기가 쉽지 않았다. 조병창 주변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다.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인절미 조금씩 파는 것 그것뿐이었다.

사택에서 조병창으로 가는 길 사이에는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형무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없어졌다. 숲속에 있었는지 몰라도 형무소 시설은 별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수인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었다. 백마정 주변은 황토가 참 좋았다. 거기서 수인들이 황토로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 숫자가 제법 많았다. 군데군데 감시원들이 있었고, 접근을 못 하게 막아 놓았다. 그들이 만든 벽돌은 조병창이나 한민촌을 짓는 데 쓰는 것은 아니었다.

숙소 일대에서는 조병창 사람들이 날마다 같이 출퇴근을 했다. 숙소에서 나와 20~30분 걸으면 조병창 문이 나왔다. 헌병이 지키는 문을 지나서 그가 다니던 제2공장까지는 다시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 공장에 들어서서는 각자 자신의 자리로 가서 기계에 전기를 넣어 자석도 기능하게 하고 피대도 돌아가게 하여 작업을 시작했다. 여덟시까지 출근했던 듯한데, 지각은 절대 하면 안 되었다.

5 고초는 옛 일본 육군의 하사관 계급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의 하사에 해당한다.

9. 혼인과 별거, 명절 휴가

김우식은 조병창에 들어간 이후 열여덟 살에 동네 처자와 혼인을 했다. 당사자들은 면식이 없었지만 부모님끼리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왜정 때 한창 처녀들 모집해 간다는 소문이 돌자 처자의 어머니가 막내딸 ‘모집’ 보내고는 못산다고 하면서 열일곱 먹은 딸의 혼인을 서둘렀다. 청양 일대에서 모집을 당한 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짓달 6일에 혼인을 하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휴가를 얻어 집으로 왔다. 남자는 말을 타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처가에 가서 혼례를 올렸다. 그런데 혼례를 치른 후 그는 다시 조병창이 있는 부평으로 가고, 아내는 한섬지기 밭을 가진 본가가 있던 지금의 동네에서 살기 시작했다. 혼인을 했어도 그때 조병창에서 받는 돈으로는 혼자 먹고사는 것만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뿐 도저히 살림을 장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살림을 합치지 못한 채 혼자만 사택에서 하숙을 하였고, ‘집식구’는 청양의 부모님 댁에 머물러야 했다.

군속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설이나 연휴가 되면 집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러나 휴가를 다니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으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다. 언젠가 같은 고향 사람인 동창생 두 명과 선배 한 명, 그렇게 넷이서 함께 설을 쇠러 청양 집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 중 한 명은 김우식보다 먼저 조병창에 들어갔고 두 명은 조금 늦게 들어갔다. 먼저 간 사람은 백마정 한인촌에서 살림도 하고 김우식의 동창인 처남도 데려다가 같이 지내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부평에서 충남 광천까지는 기차를 타고 갔지만 광천에서 청양까지는 걸어서 갔다. 차 시간도 없었고 차 탈 돈도 여유가 없었다. 설달그믐께 광천에 도착했는데, 별수 없이 집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 도착하니 새벽에 이미 차례를 모시고 난 후에야 도착했다. 그렇게 집에 다녀갔지만, 오가는 데 하루씩 걸리고 도착하면 며칠 묵지도 못한 채 그냥 다시 조병창으로 갔으므로 고생스러웠다는 기억만 있다. 그렇다고 아내가 면회를 다녀갈 형편도 안 되었다.

10. 기한 없는 조병창에서 무단이탈하다

그런 조병창은 좋다고 전해 들은 말과는 전혀 달랐다. 갈 데가 아닌 데를 간 셈이었다. 무엇보다 엄격하고 자유가 없는 생활이 힘들었다. 한약방에 있을 때도 봉급은 없었지만, 적어도 먹는 것은 걱정이 없었다. 먹고 입고 지내는 것과 용돈을 조금씩 받는 생활을 하면서 한약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돈을 벌러 간 조병창에서는 돈도 벌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맨날 배고프게 지내느라 힘이 들었다.

처음부터 마음이 그러니 공장에는 영 애착이 가지 않았다. 늘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안 되겠어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고 사직서도 받지 않았다. 더욱이 징병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도 나이가 찼으니 조만간 징병이 될 테고, 징병이 되면 집에서 아내하고 살지도 못한 채 곧바로 군대로 가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다. 계속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 1944년 12월 어느 날 징병 시기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무작정 기차역 방향으로 향했다. 출근한다고 나서고는 무단결근을 한 것이다.

뒤돌아보니 김우식은 열일곱 살이던 1941년 봄 조병창에 들어갔다가 1944년 겨울 스무 살에 조병창에서 도망쳐 나왔다. 짧은 시절 4년간 그곳에 있었는데,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기술을 배운 것도 없고 결혼을 하고도 아내와 떨어져 살아야 했다. 남들보다 오랫동안 조병창에 있었지만 매일 조병창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공장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무단이탈 이후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어차피 숨어있어도 잡힐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다. 부평에서 집으로 가는 방법은 기차밖에 없었다. 부평역으로 가서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탔다. 서울역에서는 장항선을 타고 예산에 내려서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동네에서도 훗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 남양군도의 야전병원으로 동원된 사람 등 징용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1. 평양군무예비훈련소 징용과 단식

집에 온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지서에서 연락이 왔다. 조병창에서 도망쳤다고 잡아 오라고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헌병대에 잡혀가면 큰일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서에는 일본인 지서장 와타나베와 조선인 순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닭을 잡고 계란을 삶아서 와타나베에게 들고 갔다. ‘와이로’를 써서 조병창으로 다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효과가 있었는지, 와타나베가 그에게 조병창이 아닌 평양으로 가라고 했다. 평양 지역으로 몇 명이 가도록 지서에 배당이 되었던 듯하다. 이웃 동네 정산 사람 두 명하고 김우식하고 세 명이 인솔자를 만나 대전역으로 갔다. 대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인솔을 했다.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간 후 다시 갈아타고 평양으로 갔다. 그래서 다시 가게 된 곳이 평양군무예비훈련소였다. 훈련소를 마치면 하사관이 된다고 했다. 도착해 보니 훈련병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훈련소에서는 겨울이라 그런지 매일 달리기 같은 기초 훈련만 받았다. 그런데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조병창으로 잡혀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간 그곳도 도저히 잇기 힘들었다. 하필 추운 겨울에 평양으로 가니 도착하면서부터 지내기가 힘들었다. 짚을 넣은 광목 포대 하나와 담요 하나를 주고 자라고 하는데, 도저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옆 사람과 둘이 합해서 자기도 했지만 추위를 버티기가 힘들었다. 아침이면 물이 얼어서 함을 들고 대동강에 가서 물을 떠다 세수도 하고 이것저것 썼다. 음식은 거의 굶다시피 하였고, 조금 나오는 것도 지붕 위에 얹어 놓은 시래기로 끓여주는 국뿐이었다. 견디기 힘들어 아프다고 의무실에 갔는데 피병이라고 하였다. 그는 집으로 갈 작정을 하고 아예 며칠간 계속 단식을 하였다.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아 보이니까 결국 훈련소에서 집으로 가라고 했다. 18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2. 해방 후 철도경찰 생활과 6·25전쟁의 참상

일제하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해방을 맞은 후 그는 면서기 시험을 보았다. 합격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군수 재량으로 면서기를 뽑았으므로 1년 내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합격이 무효가 되었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발령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면서기는 군대에 가야 했으므로 그는 차라리 경찰이 될 마음으로 철도경찰 시험을 다시 보았다. 다행히 합격하여 1948년 용산에 있던 철도경찰학교에 가서 3개월간 훈련을 받고 대전에 배치를 받았다. 배치 후 1년여가 지나자 6·25전쟁이 났다. 전쟁 중에 경주로, 포항으로, 대구로 후퇴를 했다가 조치원에 배치를 받았다.

그해 겨울 다시 1·4후퇴를 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큰아들을 낳고 청양 부모님 댁에 있었다. 아내를 두고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통편이 아무것도 없어 자전거를 하나 빌려 타고 청양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가 함께 피난 생활을 했다. 피난 과정에서 경찰 가족을 죽인다고 하여 피해 다니느라 아내도 고생이 많았다. 그 통에 그동안 썼던 일기와 사진들을 다 잃어버렸다. 조병창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일기는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겨 두었는데, 6·25전쟁 때 후퇴하면서 놓고 가서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전쟁 과정에 전투는 하지 않았지만 경찰로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경찰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6·25전쟁이 난 후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주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하고는 김우식이 근무하던 대전 철도경찰대의 서장실로 피난을 왔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를 치더니 벌어진 일이었다. 그 당시 인민군들이 서울에 와서는 형무소 문을 다 열고 수감자들을 풀어주었다. 수감자들은 일단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왔다. 다른 곳은 내릴 데가 없었다. 대전역에는 지하도가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그곳을 거쳐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하도에서 헌병대가 지키고 있다가 내려오던 수인들을 모두 다 잡아들였다. 수인들은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두 머리를 싹 깎고 있었으므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헌병대가 경찰서 넓은 광장에 헌병을 배치하고, 머리 깎은 수인들을 붙잡는 대로 그곳에 데려다 놓고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전부 다 절도죄라고 대답했고, 반공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헌병대는 무조건 칼로 가슴팍을

콕콕 찌르고는 그 사람들을 한 트럭씩 산남면으로 실어다가 붓고 또 부었다.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가 직접 본 것만도 수십 차로, 웅덩이에 넣고 다 죽였다.

13. 근현대사를 버텨온 다복한 노부부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도 못 할 짓을 많이 했다. 야당 탄압이나 하고 한밤중에 이승만에 반대하는 ‘빠라’가 붙어 있으면 그것을 다 떼라고 해서 김우식은 그런 일에 불만을 품고 소홀히 하고 있었다. 경찰 생활을 한 지 7, 8년 되던 해, 자유당 시절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의 가족이 모두 야당이라고 하면서, 경찰서장한테 가서 야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결국 경찰을 그만두게 되었다.

청양은 야당 지지세가 센 곳으로, 김우식과 처가의 가족들 모두 야당을 지지했었다. 청양에서는 일제하에도 일본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일본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일본이 항복을 한 이후 청양 사람 한 명이 그간 반감을 갖고 있던 일본인 양조장 주인을 칼로 찔러서 시끄러웠다. 양조장은 수입이 좋은 사업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에 와서 주로 양조장이나 정미소 사업을 하곤 했다. 사건이 일어나자 해방된 후인데도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동네로 들어왔다. 경찰들은 이미 도망을 갔지만 군인들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일본 군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대로 서 있으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겁이 나서 도망가자 군인들이 엉뚱하게도 그 사람을 사살하였다. 아내의 6촌 오빠도 일본 군인에게 총을 맞아 죽었다.

오랫동안 독자로 지내다가 뒤늦게 남동생이 생겨 독자를 면한 그는 혼인 후 아들 다섯에 딸 하나를 낳았다. 명절이나 생일을 맞아 자식들과 손주들이 내려오면 집 앞 길가로 차가 죽 늘어선다. 큰손자는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였다. 다복한 집으로 소문이 나서 방송국에서 촬영도 자주 해가고 군에서 표창도 여러 번 받았다. 구순의 노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대천으로 부여로 여행을 다니고 마을회관도 같이 다니면서 해로한다. 말 그대로 다복한 부부다.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버텨 온 그가 누릴만한 행복이다.

제2절 | 여학생 지영례, ‘정신대’ 동원을 피해 인천육군조병창에 지원하다

이 글은 인천육군조병창 의무과의 서무과에 강제동원되었던 지영례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구술자 지영례는 15살에 소화고등여학교를 중퇴하고 1942년 가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조병창 의무과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병창에 들어갔으나, 역사적으로 평가하자면 ‘정신대’ 동원을 피하기 위해 모집에 응하여 취입한 강제동원의 사례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지영례는 현재 부평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징용노동자상’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2017년 7월 25일(화) 인천시 동구 아벨서점 2층에서 지영례를 만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1. 부평 뚝마을에서 태어난 지영례

지영례(池永禮)는 1928년 10월 15일 부평의 뚝마을, 산곡동에서 태어났다. 4남 4녀 중 여섯째로, 위로는 오빠가 둘, 언니가 셋 있었고, 밑으로는 두 남동생이 있었다. 아버지는 동네 구장⁶을 보면서 농사도 지어 동네에서는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덕분에 지영례는 언니, 오빠와 더불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지영례가 다닌 인천부평동국민학교(현 인천부평동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50명씩으로 부평 지역에서 제일 큰 학교였다. 부근에 사는 일본 아이들도 한두 명씩 다니고 있었다. 일본인 학교가 동네에서 멀어 다니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학교에는 일본인 선생님도 있고 조선인 선생님도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일본인이면 조선어 시간에는 조선인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왔다. 지영례는 조선어 시간이 좋았다. 일본 글을 배우고 일본 역사를 배우는 것은 영 어렵고 신이 나지 않았다.

국민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 중에는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가 많지 않았다.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이나 배우지 많이 배워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 시절엔 그랬다. 하

6 구장(區長)은 옛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지만 중학교에 가고 싶었던 지영례는 다행히 언니들이 길을 닦아놓아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었다. 14살 되던 해 현재 부평동에 있던 소화고녀⁷로 진학하였다.

2. 소화고녀의 방공호와 조회 시간

부평역 너머에 있던 소화고녀는 2층 건물이었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거의 일본 사람이었다. 10대 학생이던 지영례의 고등여학교 생활은 생각과 달랐다. 공부를 하다가도 특하면 사이렌 소리가 났고, 그러면 비행기가 있는지 볼 새도 없이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쫓겨 들어가는 통에, 말이 학교에 다니는 거지 공부는 통 하기 어려웠다. 방공호는 학교를 지을 때 미리 파놓았는지 꽤나 넓었다. 그 안에 친구들과 줄지어 앉아서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방공호 안에는 재봉틀 여러 대가 죽 들어서 있었고, 선배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군복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학생들은 남자들이 지원병에 나갈 때도 전쟁터에서 살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적힌 천에 한 뼘씩 수를 놓아 주기도 하였다. 천명한테 꽃 수를 받아 위험을 예방한다고 하는 ‘센닌바리(千人針)’가 그것이다.

그때 배운 일본어는 지금도 기억이 난다. 곤색으로 된 교복을 입고 10리 길을 걸어가면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다 같이 줄서서 황국신민서사를 외치고, 학교 규칙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 그날 할 일을 선생님께 들었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조회가 끝나면 반별로 줄을 서서 교실로 들어가곤 했다. 날씨가 궂으면 교실 안에서 조회를 했다. ‘뽀뽀’로 갈아입고 학교 대청소도 하고 운동장 한쪽에 갈아놓은 밭에 반마다 나눠서 씨앗도 심고, 배추, 시금치가 자라면 그걸 묶어 동네로 팔러 다니기도 했다. 돈이 생기면 선생님께 갖다 드렸다.

7 1940년 설립된 ‘소화고등여학교’의 약칭으로, 해방 후 박문여자중학교로 개명하여 현재 박문중학교와 박문여자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3. 학교를 중퇴하고 조병창 병원 서무과에 취직하다

그러한 생활이었으나 지영례의 학창 시절은 길지 않았다.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열다섯 살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간다고 동네에서 죄들 난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면에서 와서 집집마다 여자아이들의 생일과 이름을 적어갔다. 아버지가 구장이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 명단 중에서 뽑히면 돈벌이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소문에는 ‘정신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신대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리고 겁이 났다.⁸ 다행히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정신대 가는 걸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가야 했다. 지영례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을 때, 같은 반 친구들 30여 명 중 10여 명도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한꺼번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한 반에 두세 명씩 있던 일본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에 남아 있었다.

지영례의 집 주변에는 일본말로 미쓰비시라고 하는 삼릉(三菱)공장이 있었다.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1939년부터 엄청난 규모로 공사를 시작하더니 1941년부터 총, 칼 같은 무기를 만드는 큰 공장이 들어섰다. 현재도 부평조병창이라고 부르는 조병창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은 대부분 이 공장으로 들어갔다. 지영례도 조병창에서 반장으로 일하던 큰 오라버니의 친구에게 지원서를 주고 소개를 부탁했다. 오라버니 친구가 언젠가 손을 다쳐 의무과에 갔는데 그곳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서무과에 물어보니 조병창 의무과에서도 여자들을 뽑는다고 하면서 소개해 주었다. 동갑 친구와 둘이서 조병창에 있는 병원 서무과에 들어갔다. ‘센반’공장⁹에서 기름칠하는 여자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빠 친구가 그건 힘들다고 서무과로 알아봐 준 덕이었다. 서무과에 들어갈 때는 시험도 면접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대개 알음알음 소개받아 오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에 오는 여학생들은 서무과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간호 보조로 배치되어 간호사를 돕거나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였다.

8 여기에서 정신대는 내용상 ‘일본군위안부’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당시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본군위안부를 의미하는 용어로 ‘정신대’가 사용되어 왔다.

9 선반공장의 일본식 발음이다.

4. 조병창을 가로지르던 출퇴근길과 국방색 유니폼

백마장 한쪽 끝에 살고 있던 지영례는 날마다 병원까지 걸어서 출근했다. 같은 백마장에 있어도 병원까지는 논길, 밭길을 지나야 했다. 더러는 목화도 심겨 있었다. 산곡동 쪽으로 난 뒷문으로 들어가 넓은 조병창을 가로질러 가야 했으므로 정문 쪽에 있는 병원까지는 40분 넘게 걸렸다. 지영례처럼 조병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녔지만, 멀리 사는 간호사들은 기숙사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였다. 출퇴근을 하면서도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그랬다.

조병창 정문은 부평역 방향으로 나 있었다. 철문으로 된 정문 양옆으로는 기둥이 있었고, 정문 밖에는 큰 노깡¹⁰이 있었다. 벽돌로 된 담장의 동쪽과 북쪽에는 나무로 된 샛문이 있었다. 샛문 옆에는 초소가 있었다. 주로 조선인 경비가 서서 지키고 있었다. 넓은 조병창 안에 있는 공장 건물들은 매우 컸다. 큰 공장이 몇 개쯤 있었던 듯하다. 샛문에서 정문으로 가로질러 가는 길은 전부 공장이 있어 공장을 피해 옆으로 난 골목으로 돌아서 가야 했다. 공장에는 높은 굴뚝도 있었다.

공장 건물들을 여러 채 지나자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소화고녀의 친구들과 부평동국민학교의 동창들을 만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니는 공장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 무기를 만드는 곳이라 그런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드나들 수가 없었다.

의무과에 취직하면 조병창에 마련된 국방색 유니폼을 새로 사 입어야 했다. 옷은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 지영례도 새 유니폼을 사 입었다. 서무과 직원은 스무 명 내외로 여직원이 많았다. 소화고녀를 졸업하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온 일본인 여자들도 있었고, 근처의 사택 같은 곳에 살던 나이 많은 일본인 여자들도 조병창으로 일하러 왔다. 새로 들어간 서무과 직원들에게는 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 간단한 기본교육을 시켜주었다. 이후 몇 달간 교대로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두세 명씩 짝지어서 조병창 근처 각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야 했다. 동네에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10 샘을 만들 때나 수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운데가 빈 원형의 콘크리트 통을 말한다.

지,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도 세 차례 정도 설문조사를 다녀왔다.

5. 병원에서 만난 나이 어린 환자들

의무과라 부르던 조병창의 병원은 개천 옆에 있는 흰색의 2층 건물 한 채를 따로 쓰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가 구분되어 과마다 칸칸이 공간을 따로 쓰고 있었고 입원실도 있었다. 병원이 커서 의사가 7, 8명 있었고 간호사들도 적지 않았다. 지영례가 근무한 서무과는 병원 건물 정면의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옆의 문이 있는 곳에 있었고, 서무과 옆으로는 복도를 따라 진료실이 이어졌다. 진료실에는 진료과에 따라 의사들이 들어가 있었다.

지영례는 집에서부터 유니폼을 입고 출근해서는 서무과에서 ‘우케스케(接受; 접수)’를 맡아 보았다. 환자들이 오면 종이로 된 진찰권에 이름을 쓰고 해당과의 도장을 찍어준 후 그 과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내과에 갈 사람이면 진찰권에 내과 도장을 찍고 이름을 써준 후 그리 가라고 하면 되었으므로, 고등여학교에 다녔던 지영례에게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조병창은 공장이 커서 날마다 많은 환자들이 의무과로 들이닥쳤다. 일하다 팔 떨어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병원에 다녀갔다.

가끔은 기계에 옷이 딸려 들어가 팔이 잘려서, 팔은 팔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대로 수술실로 가서 팔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안 되는 사람은 잘린 채로 두었다.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한 조그만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다친 아이들이 많았다. 어떤 날은 팔을 다친 아이들이 몇 명씩 오기도 했다. 아직 어려서 일은 서툰데 기계를 쓰다가 옷이 물려서 그냥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병창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훈련을 시킨다고 산곡동 산 밑에 있는 기능자양성소로 들여보냈다. 그 안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내용을 미리 교육시킨다고 했다. 기능자양성소는 큰길가에 있는 지영례의 집 뒤에서 야산 쪽으로 있었고, 그 옆에는

조선인 공원들이 거주하는 영단주택이 있었으며,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조병창 담에서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기능자양성소 건물은 그리 크지 않은 2층 건물이었다.

6. 조병창 병원 서무과 사람들과의 기념사진

병원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국방색의 옷을 입고 오전 7시면 집에서 나와 오후 7시면 귀가할 수 있었다. 지영례는 퇴근 시간이 되면 늘 어디 갈 새도 없이 바로 집으로 향했다. 점심은 집에서 ‘벤또(도시락)’를 싸간 사람은 그것을 먹고, 아니면 병원 건물 오른쪽에 있는 식당에 가서 사 먹었다. 병원 밥에는 잡곡이 많이 섞여 있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만큼의 비용을 그대로 제하고 월급이 나왔다. 다달이 이름과 액수가 적힌 월급봉투를 받으면 어른들에게 보여드리고 조금씩 떼서 썼다.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 푼 안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서무과 동료들 중에는 일본인이 많았지만 조선인 친구들도 서너 명 있었다. 병원의 조선 사람 중에는 서무 보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간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간호사와 의사는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다.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밖에 나갈 때는 국방색 옷을 입고 다녔다.

그녀에게도 간호사가 될 기회가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번 배워서 해보라고 하면서 수술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수술 도중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놓자 도저히 보고 있기 힘들었다. 우악질이 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기절할 것 같았다. ‘넌 안 되겠다.’고 해서 그만두었지만, 같이 서무를 보던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간호사로 간 친구도 있었다.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대부분 친절했다. 하지만 항상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서무 보는 사람은 또 그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지냈다. 그래도 지금 보면 그런 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가 재미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1945년경에는 니시하라(西原) 중좌가 새로 서무과장에 부임하여 서무과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금은 기억이 흐려져서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사진을 보고 있자면 입에서 서무과의 다

나카(田中) 소좌와 더불어 요시다(吉田), 요네다(米田), 소테노(袖野) 같은 일본 사람들 이름이 자꾸 맴돈다. 사진의 뒷면에는 ‘이케타니 나가코(池谷永子), 18세’ 라고 적어둔 그녀의 일본식 성명과 나이 글자가 아직도 선명하다.



◆ 1945년 인천육군조병창 병원 앞에서 찍은 서무과 단체 사진(사진 지영례)

7. 거둬되는 방공훈련과 일본 군인들의 칼소리, 구두소리

조병창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은 주로 조선인이었다. 여학생도 많았다. 공장 안에서 일에 차별이 있어서, 간부들을 알면 좀 편한 데에서 일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장에 가서 기름칠을 해야 했다. 기계를 만지다 보면 옷에 죄다 기름이 묻었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옷을 들고 다니면서 출근해서는 국방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고 퇴근할 때면 다시 입고 간 옷으로 갈아입고 갔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은 힘든 일을 안 하고 종일 놀다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공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곤 했다. 야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병창 안에는 기숙사도 있고, 완성된 무기를 쌓아놓

는 창고도 여러 개 있었으며, 조병창 안에까지 기차가 다니면서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날랐다. 방공호도 있었다. 그냥 연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국 비행기가 오는 건지 걸핏하면 ‘윙~’ 하면서 사이렌이 울렸고, 그러면 다 같이 방공호 속으로 들어갔다. 방공호는 공장마다 건물마다 지하에 따로 있었다. 병원에도 방공호가 있었다. 평소에는 쇠문을 닫아 두었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일하다 말고 다 같이 나와서 줄지어서 그리로 들어갔다. 방공호 속은 깊고 굉장히 넓었다.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구루마’에 태워 데리고 들어갔다.

조병창 안에서는 모두 일본말을 했다.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조선말을 했지만, 직원들이 있으면 일본말을 써야 했다. 조병창의 과장급이니 하는 상관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지영례는 그들이 군복에 긴 칼을 차고 ‘철컱 철컱’ 소리를 내면서 긴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나타나면 아무 데나 숨곤 했다. 일본 사람들이 무섭게 했으므로 조병창 안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반발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었다. 조병창이 워낙 넓어서 간부들 중에는 차를 타고 와서 일을 보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8. 해방 그리고 그 후

그렇게 3년 가까이 조병창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어느 날 서무과장과 일본인 직원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수군하는 게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일본 사람끼리 몰려다니고 그날따라 일하는 게 달라 보였다. 일본이 항복한 걸 자기들끼리 알려주느라 그랬던 것 같다. 조선 사람들도 죄다 모여서 수군수군하다가, 서무과의 조선인 반장이 “일본 놈들이 쫓겨 가게 되었다”고 말해서 해방이 된 걸 알았다.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산곡동 일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팽과리를 치면서 해방이 되었다고 외치고 밤새 골목마다 돌아다니고 난리여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다음 날부터는 조병창의 공장도 멈추고 병원도 운영을 안 하게 되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병창 병원에서 3년 가까이 해왔던 일은 이후 살면서 다시는 해본 적이 없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만나 보지 못했다.

해방 후에는 집에서 있다가 스무 살이 되던 해, 전매청에 다니면서 주안염전을 관리하던 후정리의 신 씨와 중매로 결혼을 했다. 6·25전쟁 때 공주까지 피난을 가던 길에 큰 딸을 잃었고, 이후에 또 한 아들을 잃어 삼 남매를 키웠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 부평에서 살다가 남편이 전매청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한 1958년부터는 현재 인천 동구 금곡동으로 이사해 살고 있다.

| 제3절 | 지원병을 강요받던 최덕원, 인천육군조병창 군속이 되다

이 글은 인천육군조병창으로 강제동원되어 제2공장 기술부에서 일했던 최덕원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구술자 최덕원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청년훈련소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경찰이 자꾸 찾아와 지원병에 응모하라고 독촉하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 1943년 2월 조병창에 군속으로 지원하였다.

그는 강제동원이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조병창에서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 해방 이후 조병창에서 서류철을 통째로 소각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해방 후 귀가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구술하였다. 필자는 2017년 8월 9일(수)과 23일(수) 충남 보령의 자택에서 최덕원을 만나 조병창 시절과 해방 이후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1. 보령공립보통학교의 학창 시절

최덕원은 1927년 충청남도 보령 읍내 주포면에서 태어났다.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을 때 환갑이 넘은 아버지는 서 마지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밥을 먹을 때면 아버지만 쌀밥을 떠서 드리고 다른 식구들은 모두 콩보리밥을 먹었다. 끼니마다 아버지가 밥을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참씩 지켜보았다.

아홉 살에 보령시 주포면에 있는 유일한 학교인 보령공립보통학교¹¹에 입학하였다. 선생님들 중에는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았고, 수업에서는 일본 역사와 일본 지리를 자세히 배웠다. 국어책은 일본어책이었고, 외국어처럼 조선어라는 과목이 있었다. 그나마도 5학년 때까지 배우고 없어졌다. 그래도 그때 김주경 담임 선생님은 조선어를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통학교에서는 누런 회포대로 된 월사금 봉투를 나눠주었다. 봉투에는 1월, 2월, 3월...12월이 적혀 있었고, 월사금을 내면 그곳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월사금은 1인당 50전으로 쌀 두어 말 값이었다. 형편이 어려워 그달에 월사금을 내지 못하면 선생님이 집으로 받으러 오기도 했다.

그가 다니던 학교에는 기념탑처럼 생긴 커다란 돌에 일본어로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을 새겨놓았다. 교장 선생님이 그 돌을 보면서 황국신민서사를 선창하면 학생들이 따라 했다. 동조동근(同祖同根)이라고 해서 조선인 정신을 짝 없애고 일본정신을 갖도록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성과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그도 가스야마 무스무(禾山睦)로 성과 이름을 바꾸었다.

2. 청년훈련소 수업과 ‘군인5개조’

최덕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통학교 졸업 후 진학을 하지 못하고 청년훈련소에 다녔다. 청년훈련소는 지역마다 있었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열여섯 살 된 남자는 지원병을 가거나 군속을 가기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빠지지 않고 다녀야 했다. 안가면 주재소에 끌려가서 마구 혼이 났다. 청년훈련소의 교육을 맡은 선생님은 ‘고쵸’(伍長; 오장)라고 지금의 병장이나 하사 같은 계급이었다. 일본에서 사범학교를 다니고 군대에 다녀와 ‘고쵸’가 된 이들이 조선으로 와서 선생님을 맡으면 청년훈련소 선생을 겸하게 되었다.

최덕원은 2년간 청년훈련소에 다니면서 매일 3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했다. 청년훈련소에서는 학과공부 1시간과 군사훈련 2시간의 수업을 했다. 학과공부의 내용은

‘군인5개조’를 외우고 쓰는 것이 다였다. 황국신민서사가 일반 국민들이 지킬 본분이라면, ‘군인5개조’는 군인의 기본 정신을 적은 것으로 전체 내용은 16절지에 앞뒤로 일고 여덟 장에 달했다. 군사훈련 시간에는 달리기를 하거나 지푸라기로 사람 모형을 만들어 총칼로 찌르는 훈련, 총 쏘는 훈련 등을 하였다.

3. 지원병 강요를 피해 조병창에 지원하다

주포면 주재소에는 이노우에라는 일본인 경찰과 이석필이라는 조선인 순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최덕원에게 찾아와 지원병을 나가라고 하면서 주재소로 출두하라고 했다. 징병은 만 20세가 되어야 했지만 지원병은 나이에 상관없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군인이 부족하니 반강제로 보내려고 했다. 25~30세의 징병 초과 연령자를 지원병으로 보내다가 병력이 부족해지니 20세 이하도 마구 뽑아 보내려는 것이었다. 안 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불안했는데, 면장인 사촌 형님이 나서서 차라리 군속을 가라고 말해주었다. 군속에 가면 지원병을 가지 않아도 되고, 지원병에 가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군속은 일만 하는 것이니 위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행정기관을 통해 각 지역에 전달이 되었으므로, 사촌 형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군속을 가려면 인천에 있는 조병창과 수원에 있는 비행기회사 중에 선택하면 되었다. 그는 같은 동네에서 김병원, 차영록, 김종현과 함께 조병창 군속을 지원했다.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지금은 장항선인 충남선을 타고 천안을 거쳐 갔다. 1943년 2월쯤 아직 보리가 조그마했던 이른 봄이었다. 그 당시 기차는 석탄 기차로 화통이 있었다. 주포역 다음은 청소역이고 그다음 역은 조금 큰 광천역이었는데, 그곳에서 기차가 두 시간 동안 머물렀다. 화통에다 물을 넣고 석탄도 실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계가 없던 때라 사람들이 바지개(바가지)로 쳐서 석탄을 부렸다. 출발한 지 일곱 시간 만에 경성에 도착했다.

조병창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시험을 보았다. ‘군인5개조’를 외우는 것이었다. 군인5개조의 첫 번째는 ‘군인은 충성하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내용으로, 청년훈련소에서 이미

11 1911년 충남 보령 주포면에 세워진 초등학교로, 현재 주포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익힌 쉬운 것이었다. 긴 내용을 다 외운 그에게 5개조를 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신체검사도 있었지만, “입 벌려봐라, 눈 이렇게 해봐라” 하는 간단한 것이었다. 당연히 4명 다 합격을 했다. 그때는 사람이 부족했으므로 지원하기만 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 신체적 결함만 없으면 모두 합격이었다. 그런데 4명은 숙소가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 배치되었다. 그중 한 살 아래인 김종현은 기능자양성소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공장으로 옮겨졌다. 기능자양성소 출신 군속은 일반 군속보다는 대우가 좀 나았던 것 같다.

4. 백마정 1번지, 조병창

조병창의 주소는 백마정 1번지였고¹², 주변은 들판으로 그가 사는 보령리의 두 배는 되는 넓은 동네에 공장이 있었다. 정문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이라고 쓰여 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안이 다 공장이고 조병창 안으로 기차길도 나 있어서 기차가 재료들을 실어 오고 다 만든 제품을 실어나갔다. 부평의 조병창에는 제1, 2, 3공장이 있어 이를 합쳐 제1제조소라고 불렀다. 육군 대령이 제1제조소장을 맡고 있었다. 제1공장은 망치로 때리고 불로 쇠를 녹이는 공장으로 당공장이라 불렀고, 공장장은 당시 소령이었던 채병덕이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채병덕은 제1제조소장과 일본 사관학교 동기인데, 소장은 일본 사람이라 빨리 승진하고 채병덕은 조선 사람이라 승진이 늦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소령으로 제1공장장을 맡고 있었지만, 다른 공장장들은 대위였다. 채병덕은 조병창 안에서 말을 타고 다녔다. 군복에 군모를 쓰고 번쩍번쩍 빛나는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빨간 말을 타고 뚜벅뚜벅 지나가는 모습이 늙름해 보였다.

최덕원은 제2공장의 기술반에 배정되었다.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기계가 고장 나거나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일반 직공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일을 했다. 기술반의 일반 직공들은 각자의 작업대 앞에 그날그날의 목표량을 그래프처럼

림 적어 놓았다. 일선에서 군인들이 죽자 사자 싸우는 것처럼 후방인 공장에서도 그런 정신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뭘 만들든 깎든 구부리든 구멍을 뚫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 목표량이 정해져 있어 주어진 그 일만 하였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합을 받고 혼이 났다.

5. 제2공장 생활과 ‘월월화수목금금’

제2공장에는 40~50대 어른들도 있었고 대학생들도 있었다. 그곳에서 보성전문 학생들도 보았고,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교대로 와서 일하는 것도 보았다. 그들도 똑같이 총 만드는 일을 했다. 군속들은 제복이 따로 있었지만,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채 일을 해서 교복과 모자가 기름 천지였다. 공장에는 과장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었는데, 간부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었다.

공장은 일거리가 많았으므로 주간반과 야간반 2교대로 운영되었다. 12시간 일하고 12시간을 쉬는 방식이었으므로 공장은 24시간 쉴 새가 없었다. 숙소인 일성료에서도 야간반은 낮에 자고 저녁을 먹고 밤에 다시 출근을 했다. 아침, 저녁은 숙소에서 먹었지만 점심과 밤참은 공장에서 먹었다. 결국 아침, 저녁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공장에 있었다. 토요일은 일을 했고 일요일에는 쉬었다. 그러나 해방이 임박해서는 월월화수목금금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에도 일을 했다. 아예 ‘게스게스카사이모꾸킨킨’이라고 부르는 노래까지 있었다. 그만큼 일본이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힘이 들어도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뿐, 누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묶어 갔으므로 다들 소리 없이 지내고 있었다.

제2공장 지하에도 공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1공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크다고 들었다. 조병창에서는 정해진 길 외로는 가볼 새도 없고 가볼 수도 없었다. 날마다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숙소에서 밥 먹고 자는 것 뿐,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거나 구경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했으므로 조병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공장에서는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

12 일본측 문서에 의하면 조병창의 주소는 경기도 부천군 대정리(大井里)였다(본권 제2장 참고).

도 있었다. 공장에서 피대를 이용해 기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피대에 사람이 말려 들어가면 손이 잘리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었다. 다친 사람이 많았으므로 조병창에는 전속 병원도 있었다.

6. 일성료에 거주하던 일반공들의 출퇴근

숙소는 잇세료(一性寮; 일성료)라고 불렀다. 단층 건물로 아주 작고 어쭙잖은 집이 길게 늘어서 있고 칸칸이 방이 나뉘어 있어 여러 명이 함께 거주했다.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일성료에서 거주하는 군속들이 아마 몇천 명은 되었을 것이다. 겨울철 난방은 이쪽 방과 저쪽 방 벽 사이에 당번이 무연탄을 때서 벽이 따뜻해지도록 했다. 바닥은 다다미방이라 차가웠지만 벽이 따뜻했으므로 그 온기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벽이 새카맣고, 당번도 무연탄을 캐서 때느라 손이 시커메져 비누칠을 해도 잘 벗겨지지 않았다.

일성료의 옆에는 관리 청사가 있었다. 일성료의 소장은 대령이었다. 관리자들은 전부 계급장 단 현역 군인들이었다. 일성료 뒤로는 산이 있었고 앞으로는 큰 광장이 있었다. 일성료의 운영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졌다. 6시에 아침 식사, 6시 30분에 광장 집합, 6시 40분에 출발 이런 식으로 일정표에 맞추어 1분도 틀리지 않게 지켜나갔다. 일성료에서 공장까지는 20분 정도 거리고, 공장별로 모여서 걸어가든지 뛰어서 가곤 했다. 아침밥을 먹고 옷을 다 입고 큰 광장인 운동장에 죽 나가서 서 있으면 머리가 하얀 소장이 단상에서 그날 주지시킬 일에 대해 말하고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잇데랏 사이”라고 “다녀오너라”라는 의미로 인사를 했다. 그러면 도열해 있던 군속들이 일제히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잇데키마쓰”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부서별로 줄지어서 가기 시작했다.

일성료는 방마다 열한 명 정도가 있어 분대라고 불렀고, 그중 분대장이 한 명 있었다. 분대장은 오랫동안 있었던 경험 많은 사람이 맡았다. 분대의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고,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또 부대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제일 중요한 전달사항은 규율을 잘 지켜서 개인 개인이 자기 목표량을 달성하라는 것이었다.

7. 언제나 배고팠던 시절, 지금도 기억나는 밥 냄새

조병창에서는 밥이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 밥은 쌀은 조금 넣고 보리와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공장 안에 트럭으로 밥을 실어 왔다. 트럭이 저만 치와도 벌써 밥 냄새가 났다. 개인별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 이부자리 등은 일성료에 다 있었다. 분대별로 통이 두 개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2명의 식사 당번을 정해서 한 명은 밥통, 한 명은 반찬통을 들고 공장 식당으로 밥을 타러 갔다. 삼으로 밥을 퍼 주었고, 반찬은 국이든 찌든 언제나 짭짜름한 건 한가지였다. 둘이 밥과 반찬을 주는 대로 갖고 오면 먼저 분대장 그릇에 밥과 반찬을 많이 푼 후에 나머지 사람들 것을 푼다. 그러면 서로 어떤 그릇의 밥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지 살펴보느라 눈이 벌게졌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배가 고팠으므로 다 굶어먹고 밥풀 하나 남기는 사람이 없었다. 점심은 군속들과 공장 간부들, 학생들이 같이 먹었고, 군속들은 아침, 저녁은 일성료에서 먹고 학생들은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갔다.

배가 고파 일요일이면 가끔 기차를 타고 누님댁에 가서 밥을 먹곤 했다. 노량진에 내려 언덕을 넘어 한참을 걸어 흑석동에 사는 누님을 찾아가면, 동생 왔다고 양은술에 쌀밥을 해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술 채로 들고 먹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으므로 저녁에 인원 점검하는 시간까지만 돌아가면 되었다. 왜정 때도 국경일이 있었다. 명치절이나 천장절, 지구절 같은 국경일에는 세끼항(赤飯; 적반)이라고 빨간 쌀을 넣은 찰밥이 나왔다. 그날은 밥도 많이 주고 반찬도 잘 줬다.

조병창에서는 먹고 자는 것만 부담했으므로 그 외는 모두 자기 부담이었다. 월급이 조금씩 나왔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하찮은 수준이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뱃값도 안 되었다. 주변에는 술집이 없었으므로 술은 일절 접할 수가 없었다. 일성료 기숙사 근방에는 매점이 있어 과자나 음료수, 빵, 치약, 칫솔 등을 팔았다.

시장하니까 그곳에서 간식을 사 먹곤 하였는데, 월급으로는 부족하여 집으로 돈을 부치기느라 오히려 집에서 돈을 부쳐 와야 쓸 수 있었다.

8. 해방 후의 기계 청소와 문서 소각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수군해서 해방이 된 것을 알았다. 조병창의 모든 기계의 생산 작업은 울스톱되고 서울에서 오던 대학생과 중학생들도 전혀 오지 않았다. 군속들만 남아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간부들은 군속들에게 총 만드는 기계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이게 다 너희들이 나중에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깨끗이 닦도록 하였다. 해방이 되었으므로 어서 정리하고 보내주었으면 했지만 보내주지는 않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계 청소만 하도록 했다. 청소한 후 나온 쓰레기들은 각 공장 바로 옆에 있던 소각장에서 태웠다.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기름기가 많았으므로 옷가지도 걸레도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면서 확 타올랐다. 그러던 중 일본 사람들이 소각장에서 서류철과 종이 박스 등을 멍치째로 직접 전부 불살라 없었다. 그때는 하얀 연기가 났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 ‘천황’의 종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은 용산의 제20사단사령부에 따라 미군들이 인천에 상륙할 경우 일전불사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무장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용히 귀국하라고 명령을 했는지 한동안 잠잠하였다. 당시는 해방이 되었지만 사회질서나 폭동 같은 것은 여전히 일본 군인들, 일본 행정관이 다 이려고저려고 했다.

9. 퇴직금을 받고 화물차로 귀가하다

최덕원은 조병창에서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해방 후에는 잘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해방 후 귀가하라는 말이 없어서 한동안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되고 답답하였다. 그래도 꺾속말로만 할 뿐 크게는 말하지 못했는데, 27, 28일경

일본에서 명령이 왔다고 하면서 조병창을 정리하고 군속들을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더니 29일경 줄을 길게 지그재그로 묶어 놓고서는 군속들을 세워놓고 퇴직금처럼 돈을 나누어주었다. 최덕원도 지금 돈으로 몇십만 원은 될 만한 돈을 받았다. 만 2년을 근무한 사람으로 치면 그리 큰돈이 아니었지만, 평소 받던 월급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었다. 또 일성료의 방 하나마다 리어카 하나씩을 주면서 그곳에서 사용하던 이부자리와 식기를 나눠 가지라고 하여 큰 ‘니쿠사쿠(배낭)’에 꼭꼭 집어넣었다.

8월 30일 조병창 안으로 화물차가 끝도 없이 들어왔다. 전부 화물 싣는 창고차로 석탄을 때서 운행하는 화통이 있었다. 그 화물차를 경부선, 경춘선, 경원선 등 지역별로 구분해 군속들을 태웠다. 그 중 천안에서 장항까지 가는 사람이 타도록 경부선의 뒤쪽 일부에 화물차 두 칸을 배정하였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또 다른 칸에 타게 하였다. 해방 후 38선이 만들어졌는데, 조병창에는 이북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사람과 경기도 위쪽 사람도 있었다. 지역별로 기차를 타는데, 10시경 열차가 출발하자 그곳에 조병창장과 제1제조소장, 제조소장 식구들이 다 나와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기차는 부평에서 서울로 해서 수원을 거쳐 천안으로 갔고, 장항으로 가는 열차 두 량을 거기에서 떼놓았다. 전라도와 경상도로 가는 차는 더 갔고, 경남철도주식회사 화통이 와서 열차 두 칸을 달고 온양에 가서 내려주고, 예산에서 내려주고, 홍성에서 내려주고, 주포에서 내려주고 하였다. 주포에서는 함께 갔던 4명이 내렸다. 인술자였던 일본 육군 소위가 내려서 손을 붙잡고, 창장님이 너희들을 꼭 부모님께 인계하고 오라고 명령했으나 보다시피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므로 그냥 간다고, 부모님 만나서 잘 살라고 인사를 했다. 빈말인 줄은 알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10. 살아 돌아온 사람들과 도망가던 사람들

8월 30일에 집에 도착한 후 조금 지나니 추석이 되었다. 동네에는 군인 갔던 사람, 징용 갔던 사람, 보국대 갔던 사람들이 속속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죽은 사람들도 있던

했지만 다들 사지에서 살아서 온 것이 좋아서 희희낙락하였다.

최덕원의 집은 읍내에 있었는데, 읍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 중 현재 주포 면사무소가 있는 자리에 좋은 집을 짓고 살던 일본인 부자 정전용태가 있었다. 그는 일본 '시코쿠(四國)'에 딸린 작은 섬 출신으로 조선에 와서 조선총독부 지원으로 서해안 간척지를 막고 구수제 수리조합을 만들어 팔천석꾼 부자가 되었다. 조선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큰 집을 지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가 무식하다고 흉을 보곤 했다. 왜정 때 일본인들은 조선에 와서 땡땡거리고 잘 지냈고,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조선으로 오면 월급에 가봉을 받았고, 만주로 가면 가가봉을 받아 돈을 많이 벌었다.

읍내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정전용태 집 응접실에 모여 일본으로 귀국할 일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해방이 되니 아이들도 일본 사람들을 하찮게 보았다. 어느 날 아이들이 그 집 응접실 유리에 자갈을 갖다 던졌다. 정전용태가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물가에서 놀고 있던 징용, 징병 다녀온 청년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화가 나서 그 집 현관문에 돌맹이를 던져 문이 부서졌고, 일본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했다. 청년들은 일본 사람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돌을 던졌다. 일본 사람들은 대천에 있던 일본부대를 불러오느니 하더니 그 이튿날부터 속속 지역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단행본

이상의 면담 및 해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군사편찬위원회, 2019.

논문

이상의, 「구술로 보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동방학지』18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이상의 인터뷰·정리, 「(르포)민중구술 : 지원병을 강요받던 최덕원, 인천육군조병창 군속이 되다」, 『작가들』71,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9.

이상의 인터뷰·정리, 「(르포)민중구술 : 인천조병창에서 구구식 소총을 만들던 김우식, 지원자에서 무단이탈자가 되다」, 『작가들』68,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9.

이상의 인터뷰·정리, 「(르포)민중구술 : 인천징용노동자상의 모델 : 인천조병창 병원 서무과에서 근무한 지영례」, 『작가들』66,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8.





제 4 장

조병창에서
미군기지로

제1절 _ 해방과 애스컴 시티(ASCOM CITY)

제2절 _ 6·25전쟁 발발과 부평

제4장 조병창에서 미군기지로



이 상 호(건국대학교 겸임교수)

1. 제1절 | 해방과 애스컴 시티(ASCOM CITY)

1. 해방과 인천

1) 일제의 패망과 미국의 한반도 전후처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과 소련에서는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먼저 소련은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 말부터 일본의 패배를 예측하고 전후질서 구상에 착수했다. 외무인민위원부가 중심이 되어 전후 동아시아에 관한 프로그램을 세우기 시작했다. 1942년 1월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전후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체제에 관한 외교자료를 준비할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의 작업을 토대로 1944년 1월 외무인민위원부 마이스키(Ivan Maysky) 차관은 스탈린(Joseph Stalin)과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에게 ‘장래 강화(講和)의 바람직한 기본에 대해서’란 제목의 체계적인 전후 구상을 제시했다.¹

1 下斗米伸夫, 『아시아冷戰史』, 中央公論新社, 2004, 14~16쪽.

이 구상에는 아시아와 관련하여 ①소련의 참전 없는 일본 군국주의 해체, ②민주적·진보적·민족적이며 소련에 우호적인 중국 만들기 등이 과제로 거론되었다.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1945년 6월 29일에 작성된 외무인민위원부 제2극동국장 주코프(D. A. Zhukov)와 부국장 자브로딘(E. G. Zabrodin)이 작성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①일본은 한국에서 영원히 축출되어야 한다. ②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 소련에 대한 공격근거지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③한국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④한국이 신탁통치를 받게 되면 소련은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 한다”² 등이 그 핵심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련의 對한반도 정책은 안보적 측면에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전후 구상도 소련과 비슷한 시기에 입안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국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CFR)는 전쟁과 평화 기획(War and Peace Studies Project)이라는 연구기구를 설립했다. CFR은 전후계획의 목적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창립에 두었다.³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미국의 주도적인 입장은 대지역(Grand Area)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는데 CFR의 광범위한 연구와 토론은 최소한 대부분의 비독일 점령지역을 제외한 ‘대지역’이 자유로운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그것은 서반구, 영국, 영연방의 나머지 지역,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1941년 중반 이후부터 CFR은 추축국의 패배를 전제로 정치, 경제, 국제 조직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미국의 지도력이 관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계획하고 있었다.⁴

2 김성보,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1945~1946」,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분단 50년과 통일 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56~57쪽;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9~10쪽.

3 Laurence H. Shoup & William Minter, Imperial Brain Trust—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Authors Choice Press, 2004 Reprinted) pp. 117~118.

4 Laurence H. Shoup & William Minter, op. cit., pp. 135~141.

1942년 연말 이후 자문위원회 산하에 있는 정치소위원회(Subcommittee on Political Problems)와 영토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itorial Problems)는 극동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처음부터 한국을 신탁통치 적용 지역으로 설정했다. 한국문제에 관해 특기할 것은 태평양상의 도서(島嶼)들과 마찬가지로 안보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한국문제에 관한 논의의 전제가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국 문제를 둘러싼 열강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⁵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자, 미국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 제국의 해체를 중심으로, 만주, 대만, 한반도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었다.

1945년 7월 초 미영연락장교단(American-British Conversation: ABC)은 전후 점령 지역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다.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in the Post-Defeat Period’라는 명칭으로 작성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만주와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도록 하고 한국은 적절한 시기를 거쳐 독립시키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전략지역을 점유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능력에 맞추어 각각 다른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 일본의 패배 후 즉시, 미국은 일본 내의 유일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군사령관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연합국자문위원회는 주로 읍저버의 자격만이 주어져야 한다. 일본과 달리 미군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연합국의 협정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긴박한 시간 안에 한반도에 진주할 지상군은 소련군이나 중국공산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4대국 신탁통치안이 종전 후 한국에서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이전의 협정을 고수해야만 한다.⁶

5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9~33쪽.

6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in the Post-Defeat Period”, NARA, RG 165, ABC File, 014 Japan, Sec. 4-A, Box 21.

그리고 미국은 전략지역으로 점령해야 할 최대한(maximum)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일본지역으로는 쓰가루 열도(Tsugaru Straits)-홋카이도, 도쿄-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고베-교토, 후쿠오카-모지-시모노세키, 쓰시마와 류큐, 보닌, 마리아나, 대만 지역 그리고 한반도는 부산-진해, 서울-인천 지역이었다.

한편 위의 최대한의 요구 조건이 불가능할 경우, 홋카이도와 쓰시마는 러시아에, 쓰가루 열도는 연합국 관리, 오사카-고베-교토는 영국, 대만은 중국, 서울-인천은 국제 관리나 영국 혹은 중국이 관할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극동 지역에서 미국의 목적과 이익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이익은 알래스카를 포함한 국토와 부차적으로 서반구 전체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주요 관심은 다른 강대국에 의한 자원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은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일본 점령에 있어서 러시아의 참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향후 조직될 국제연합안보기구의 감독 하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신탁통치 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작전은 미국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 승리에 있어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미국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⁷

1945년 7월경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는 “Korea”에서는 한국을 일본과 군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2) 일본과 한국에 대한 침공 작전

태평양 전쟁의 전황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 본토 침공 작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1945년 2월 9일 몰타에서 열린 미영 합동참모회의에서 검토

7 “American Aims and Interests in the Far East”(1945.7.5.), 신복룡, 『한국분단사자료집』Ⅳ, 원주문화사, 1992, 193~210쪽.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 합참에서도 맥아더로 하여금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일본 본토로의 진격이 가능해진 1945년 초 맥아더는 태평양 지역의 육군 지휘권 통합을 건의, 미태평양육군(United States Army, Pacific: USAFPAC)의 창설을 본국에 건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건의에 대해, 1945년 4월 4일부로 맥아더를 태평양육군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제 맥아더는 태평양 지역의 모든 육군을 관할하게 되었고 니미츠의 작전구획선에서 자유롭게 되었다.⁸

같은 날 미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일본 본토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작전계획을 니미츠 제독, 아놀드 장군과 협력하여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의해 일본 공격과 점령에 관한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일본 본토 및 한국을 포함한 주변 식민지에 대한 상륙작전은 다운폴(DOWNFALL)이라는 암호명으로 1945년 4월 8일 최종안이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다시 하부 작전으로 두 개의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올림픽(OLYMPIC)으로서 규슈의 남쪽 섬을 예비적으로 공격하는 작전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넷(CORONET)으로, 혼슈의 칸토평야에 상륙하는 것이었다.⁹ 올림픽 작전은 11월 1일로 예정되었고, 코로넷 작전은 1946년 3월로 예상되었다.¹⁰

그런데 맥아더와 니미츠는 이 작전과 병행하여 일본 및 그 식민지에 대한 점령계획안을 자신들의 작전 참모에게 준비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3) 블랙리스트 작전의 구체화

바로 맥아더의 블랙리스트(BLACKLIST) 작전과 니미츠의 캠퍼스(CAMPUS) 작전이었다. 니미츠의 작전 구상은 해군과 해병대가 도쿄만을 점령하고, 주요 항구의 근처에 있는 비행장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다. 맥아더가 이끄는 육군은 이 작전이 종료된 후 진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에 맥아더의 작전구상인 블랙리스트는 22개 대규모 육군 사단을 동원하여 해군과 공군의 협조 하에 점령 작전을 전개하는

8 竹前榮治, 『GHQ』, 岩波書店, 1983, 16쪽.

9 C. L. 호그 저, 신복룡·김원덕 역, 『한국분단보고서』상, 풀빛, 1992, 54~55쪽.

10 E. B. 포터 저, 김주식 역, 『태평양전쟁, 맥아더, 그러나 니미츠』, 신서원, 1997, 588쪽.

것이였다.¹¹ 블랙리스트 작전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제1국면에 서울에 상륙하고, 제2국면에 부산 지역으로 상륙하여 북으로 진격하며, 마지막으로 군산-전주-대구에 진주하는 계획이였다.¹² 물론 이 점령에 있어서는 기존 일본 통치기구의 이용이 고려되었다.¹³

일본 점령에 관해 태평양함대사령관 니미츠와 맥아더 사이에는 끊임없는 경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도 1945년 8월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링컨(George A. Lincoln)이 미 합참에 보고한 비망록에서 올림픽작전을 주요 작전으로 채택하고, 니미츠는 지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¹⁴ 니미츠와 맥아더 사이의 오랜 논쟁은 일본 붕괴 뒤 미군 병력을 어떤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지연시켰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북부, 만주 등에 병력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미루어졌다. 당시 주중미군 사령관 웨드마이어는 만주와 중국 연안의 항구들을 우선적으로 점령하여 중국 공산군의 선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미츠는 일본과 한국을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맥아더는 일본의 신속한 점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⁵ 이러한 지연이 당시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살리는 평가했다.¹⁶

맥아더가 올림픽 작전을 주도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비계획인 점령계획도 블랙리스트 작전이 고려되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평화적 진주와 점령을 위한 전략적 계획인 블랙리스트는 일본이 항복하기 6일 전인 8월 8일에 최종판으로 공표되었다.¹⁷

블랙리스트의 관련 지령에는 군대와 민간인들에 대한 지배의 확립, 지시된 항복 조

11 D. Clayton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vol. II - Triumph and Disaster 1941~1945,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p.771~772.

12 C. L. 호그 저, 신복룡·김원덕 역, 『한국분단보고서』상, 풀빛, 1992, 54~55쪽; 竹前榮治, 『GHQ』, 岩波書店, 1983, 14~19쪽.

13 竹前榮治, 『GHQ』, 岩波書店, 1983, 22쪽.

14 "Memorandum for the Chief of Staff"(1945.8.1.), 신복룡, 『한국분단사자료집』IV, 원주문화사, 1992, 233~235쪽.

15 D. Clayton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vol. II, 1975, p.771.

16 Michael Schaller,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114.

17 C. L. 호그 저, 신복룡·김원덕 역, 『한국분단보고서』상, 풀빛, 1992, 77쪽.

건의 강요, 전후 일본의 본토 및 한국 정부와 점령군의 수립을 위한 준비 등의 일반임무가 있었고, 특별임무에는 군사정부의 수립, 전후의 점령 정부와 군사기구들이 설치되었을 때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동안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 등이 있었다. 한국 점령사령관에게는 다음의 문제들을 그의 첫 성명에 포함하도록 하였다.¹⁸

- ①사령관은 한국 내에서 입법·행정·사법권을 책임진다.
- ②모든 시민과 군인들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의 직위에 남아, 이 기구 하에서 계속 평상적인 공무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③모든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각자의 힘에 따라 법과 질서의 유지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직위에 그대로 남아서 태평양사령관의 직원에 의한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4) 미 제10군의 한국 점령

8월 11일 스틸웰이 지휘하는 제10군은 BLACKLIST에 따라 한국을 점령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제10군에 소속된 예비부대로는 제24군단, 제7 및 제27보병사단, 그리고 제10 육군기지창(ASCOM X)이 있었다. 8월 11일 저녁 제10군 참모장으로 임명된 프랭크 메릴(Frank D. Merrill)중장은 참모들에게 제10군이 조선을 점령하게 되며 B-day(작전을 개시하며 동시에 평화협상이 개시되는 것으로 고위사령부가 계획한 날짜)로부터 27일째부터 조선 점령 이동이 개시된다고 공포하였다. 제10군과 함께 제7사단 및 기타로 구성된 제24군단이 점령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뒤이어 공포될 예정이었다.

점령기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미군이 적정부의 최고기관을 장악하고, 두 번째는 군대를 무력화하며, 세 번째는 중요산업·정치 중심과 해상 수송의 요충지를 장악하는 단계 등이다. 그 다음 단계는 식량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군소지역의 점령, 중요한 외곽과 연안 통로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조선과 관련해 선택된 지역들은 제1단계(phase I) : 서울-인천 지역, 제2단계 : 부산

지역, 제3단계 : 군산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즉 “베이커-포티(Baker-Forty)”로 명명된 한반도 점령 임무는 3개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제24군단을 포함한 제10군에게 부여되었다. 조선점령군의 최초 임무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통신통제체제의 확립”으로 그 임무는 12가지였다. 군정의 수립, 법률·질서의 유지, 자유상거래의 촉진, 연합군 전쟁포로 및 민간 억류자의 구출, 점령군에 위협을 가하는 개인·조직 활동의 억압, 전범체포, 미태평양함대사령부에 원조 등이 포함되었다.

점령군은 오키나와에서 인천으로 직행하도록 결정되었다. 부대명단(블랙리스트를 비치한 부대명단)이 GHQ를 경유해 보고되었다.

5) 한국 점령의 임박

8월 9일 소련군이 만주와 북조선에 진격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소련군은 8월 10일에는 용기를 점령했고 13~16일 사이에는 소련군함이 국경에서 남방 70마일 지점인 청진항에 입항하는 등 한반도 점령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2~13일 밤에 2번의 공습경보가 울렸고 전함 펜실베니아 호가 어뢰에 맞기까지 하였다.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도쿄에 폭격을 감행했다.

8월 13일 스틸웰은 곧 연합군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에 임명될 맥아더와 회담하기 위해서 마닐라로 향했다. 8월 14일 스틸웰은 참모장에게 전문을 보내 기본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통보했고 한국점령부대는 3개 지대로 나뉘어서 2주간 간격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다. 임무는 일본인의 무장해제, 연합군 전쟁포로 석방, 평화유지, 질서유지 등 블랙리스트작전에 기술된 내용이었다.

미 제10군의 참모장인 메릴은 한반도 진주에 앞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인구의 95%가 조선인이며 이들은 ‘준우호적’일 것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정치집단들 간의 분쟁도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선발대가 인천근교에 전투착륙(Combat Landing)하기로 하였다”

18 C. L. 호그 저, 신복룡·김원덕 역, 『한국분단보고서』상, 풀빛, 1992, 82~83쪽.

6) 한반도 점령군의 변경과 미 제24군단

8월 15일 미대통령은 일본이 항복을 수락했음을 발표했고, 맥아더에게 항복 수락을 지시하고 공식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8월 15일 저녁 메릴 장군은 제10군 참모에게 2가지 중요한 말을 전했다. “오늘은 B-day이다. 그러나 제10군은 한반도에 가지 않는다. 점령군은 제24군단이다. 제24군단 참모는 제10군 참모출신 장교·인사로 보강될 것이다”라는 언질이였다.

제24군단은 1944년 4월 8일 하지(John R. Hodge)중장을 사령관으로 하와이 섬에서 창설된 전투부대이다. 하지는 북 솔로몬군도의 부겐빌에 있던 아메리칼 사단장에서 제24군단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는 ‘군인 중의 군인(a soldier’s soldier)’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은 아니지만 제1차 대전 중 정규군에 소위로 임관되었다. 그 후 보병장교로 생미엘(St. Mihiel), 뫼즈아르곤(Meuse-Argonne)에서 싸웠으며, 항공대전술학교를 졸업한 몇 안 되는 육군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계속 보병으로 복무했다. 또한 보병학교를 졸업했으며 지휘·참모학교와 육군대학을 졸업하며 전문 장교로의 경력을 이수했다.

하지는 제25사단 부사단장으로 과달카날(현 솔로몬제도)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이 전투 후 진급해 제23사단(아메리칼, Americal) 사단장이 되었다. 몇 달 뒤 맥아더는 일본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극심하게 쇠약해진 제43사단을 뉴조지아에서 잠정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지를 선발하였다. 그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집단을 전투사단으로 재조직할 수 있었다. 이후 하지는 부겐빌 전선에 나가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투혼을 보이다 부상당했다. 솔로몬군도에서의 결정적 지도력을 인정받아 공로훈장(Legion of Merit)과 수훈훈장(Distinguished Service Medal)을 받았다. 일본이 패망한 후 하지가 이끄는 제24군단이 한반도 점령군이 되었고, 하지중장은 1945년 8월 27일 주한미군사령관이 되었다.



❖ Missouri 호에서 열린 항복문서 조인식에서 일본 제국과 정부를 대표해 일본 외무상 시게미츠 마모루(重光 葵)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모습(1945.9.2.)(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7) 제1차 인천상륙작전의 준비

8월 28일 하지는 태평양사령부에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였다. 같은 날 제24군단은 한국 점령 문제를 다룬 야전명령 55호(Field Order 55)를 발표했다. “9월 3일 오후나 4일 오전에 제7사단이 중장비와 수송수단을 탑재하지 않고 출발한다. 9월 7일 첫 번째 만조에 인천에 도착하며 동일자에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제7사단은 15대의 공격수송함(APA)과 1대의 화물수송함(AKA)을 사용하고 제40사단은 파나이에서 가능한 빨리 선적해서 한국에 10월 1일쯤 도착할 것이다. 그 후 제96사단이 필리핀 민도로(Mindoro)에서 수송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날씨 때문에 4일에 출발하지 못했다.

8월 28일 발표된 제24군단 야전명령에는 9월 7일을 잠정적인 E-day(군사 작전 개시 예정일)로 설정했다. 제7사단장은 H-hour(작전 개시 시간)를 선포했다.

제7사단의 임무는 인천항에 상륙하여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제24 지원사령부가 대

제한 이후 동쪽으로 진격하여 인천-서울 지역의 중요 군사·민간 시설을 장악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서울 외곽 5마일 더 동쪽으로 점령하고 북으로 개성까지 동으로는 한강·북한강까지 확장 준비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제40사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파나이(Panay)에서 전개해 인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제7사단이 담당할 인천-서울 간 고속도로를 인계하고, 한강 남쪽 지역 책임을 분담하며, 수원 바로 아래까지 이동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제24군단의 한 부대인 제96사단은 10월 7일 이전에 인천·부산·군산 중 하나에 상륙하는 것으로 임무를 부여받았다.

8) 제24군단의 한반도 상황보고 접수

하지가 이끄는 제24군단에 일본군으로부터 8월 29일 조선에 관한 최초의 상황 보고가 들어왔다. 물론 이 보고는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맥아더사령부를 경유하여 수신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북조선 상황은 8월 23일 이래 최악의 것으로 돌변했고 일본 거류민의 생명·재산은 임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상황은 남조선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평화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현지 일본 당국을 극도의 혼란 속에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현지 일본 정부당국은 남조선에서 일본 당국으로부터 평화·질서 유지책임을 떠맡을 연합군의 조속한 상륙을 열렬히 기다리며, 연합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진행시키고 일본인의 손에서 행정기구를 이양해 가기 전에,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긴급히 희망한다.

맥아더는 이 상황 보고를 전달하며 하지에게 보낸 8월 29일자 전문에서 일본이 보낸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남한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24군단은 직접 무선 연락 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했다. 2일간에 시도 끝에 주저하는 목소리로 “여기는 경성”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1945년 8월 31일의 일이었다. 통신이 개방되자 양쪽에서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최초의 직접 메시지는 일본군 사령관이 하지에게 보내는 것으로 38선 이남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제24군단과 협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메시지에서는 당시 한반도 상황이 일부 세력에 의해 혼란스럽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의 의도를 은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평화와 질서를 혼란시킴으로써 상황의 이득을 얻으려 음모를 꾸미는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선동가들이 조선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후로도 일본군 사령관은 적색노조 등의 사보타주 가능성이나 미군 상륙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서울 지역을 이미 러시아인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오보까지 전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한반도의 혼란상을 강조함으로써 미군에게 자신들의 무장력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해방된 한국인들을 다루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지는 항해 도중 38도선 이남이 소련군에 점령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9) 한국인에 전단 투여

하지는 상륙전 미군의 생각을 한국인에게 전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이를 준비시켰다. G-2에서 영문(일어번역이 포함된)과 한글로 두 종류의 전단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하지 장군이 조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전단에는 ①미군 상륙입박, ②내부혼란 회피당부, ③신국가건설에 힘을 모아줄 것 등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전단에는 미군이 질서유지와 조선을 보다 민주적 질서 하에 운영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조직이 하룻밤 사이에 설립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천명했다.

제308폭격단의 B-24기가 2명의 관측병과 13만 장의 전단을 싣고 9월 1일 아침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하였다. 시계가 매우 양호한 상태 하에 1,000~3,000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전단이 정확하게 투하되었다. 서울에 7만 장이 투하되었고, 부산에 3만 5,000장, 나머지는 2만 5,000장은 인천과 경기 일원에 투하되었다. 비행기가 선회하는 동안 수많은 시민이 전단을 발견하고 읽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이때 일본 측의 방해는 없었다.

10) 상륙전단의 준비와 출발

9월 1일 바아비 제독은 자신의 기를 마닐라의 AGC(상륙전기함) 캐톡틴(Catocin)호로 옮겨 조선으로의 이동을 지휘하기 위해 북상했다. 그러나 일기불순으로 지연되어 마

닐라에 4일 오후 내지 5일까지 도착을 예정하고 E-day를 48시간 지연하자고 제안했다.

병력은 9월 3일 오전 8시에 탑승을 시작했다. 섬 서부에서 몰아치기 시작한 태풍이 그칠 기미가 없자 해군 장교들과 회합 이후 하지는 맥아더에게 9일을 새로운 목표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4일에 기상 상황이 호전되어 저녁에 모든 병력이 탑승하였다. 미군 부대는 5열의 밀접한 대열을 이루고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오후 3시 45분 출항했다.

한편 선발대는 일본의 항복과 미군 상륙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날아갔다. 선발대는 9월 4일 아침 B-25 8대에 분승하여 오키나와를 출발했으나 기상 상태의 악화로 2대의 비행기만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나머지 선발대는 이틀 뒤인 9월 6일 오후에 도착하였다. 선발대가 도착하기 전 하지는 무선전신을 통해 선발대의 안전, 임무, 환영 준비를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선발대의 전체 임무는 하지의 요구에 대한 일본 당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전방지휘소(ADCOM)를 세우는 것, 항복을 위한 예비 계획을 세우는 것, 미군 상륙과 그에 따른 숙박시설을 점검하는 것 등이었다.

11) 한반도 상륙작전의 내용

1945년 9월의 한반도 상륙작전은 당시 일본군과 태평양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진행하던 미군의 한반도 및 북중국에 대한 점령 작전인 캠퍼스&벨리거(CAMPUS&BELEAGER) 작전의 일환이었다.

캠퍼스&벨리거 작전의 목적은 일본, 한국, 중국의 주요 전략지역과 해안지역에 부대를 전개하는 것으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연합국 전쟁포로를 구출하는 것이다. 이 작전은 일본의 해당지역과 한국의 서울 및 주요 지역 그리고 중국의 해안 및 대만 지역을 예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임무는 미 제7함대의 제7상륙군(제78특수임무부대, Task Force 78)이 담당하였다. 이 부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 ①한반도의 서울 지역과 필요하다면 부산 및 군산-전주 지역에 미 제24군단의 상륙부대 배치
- ②북중국의 텐진과 칭타오 지역이나 상하이 지역에 제3해병상륙군단의 부대를 배치
- ③아군의 작전에 방해가 될 적의 잠수함에 대한 제거 작전 수행
- ④전쟁포로와 억류자를 제7함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후송 작전 수행
- ⑤목표 지역에서 제7함대 사령관에 의해 점령 정책이 완료되었다고 선언될 때까지 항구의 관리와 해군 지원을 위해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행할 사령관을 임명

미군의 추산에 의하면 당시 한반도 주변 일본군의 병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먼저 만주-한국-중국 지역에 가용할만한 일본군 항공 전력은 약 2,000대, 한국에 주둔한 지상 병력은 총 37만 5,000명이며, 이 가운데 12만 명은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북중국의 일본 병력은 총 40만 명이였다.

12) 상륙작전 준비와 부대 구성

상륙준비를 위해 미군은 다음과 같이 상륙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항구로 약 60마일 떨어져 있다. 인천의 조수 간만의 차는 약 30피트(약 9.2m)이다. 조류 역시 매우 빨라 약 8노트(시속 15km)이다. 간조 시에는 개펄이 넓게 펼쳐져 있다. 해안 방어를 뚫고 이 지역에 상륙하려면 다수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제7상륙군(특수임무부대 78)은 한반도 상륙을 위해 키랜드(Kiland)예비역 제독(준장)이 이끄는 제7상륙공격단(Amphibious Group)과 데이비스 예비역 제독(준장)이 이끄는 제13수륙공격단의 지휘 하에 상륙 준비를 하였다. 한국점령군인 제24군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4군단 - 9월 8일 인천에 상륙 - 하지 중장(Lt. General)

제7사단 - 9월 8일 인천에 상륙 - 레디(Ready) 준장(Brig. General)

제40사단 - 1개 연대는 인천, 나머지는 부산에 9월 22일 상륙 - 마이어스(Myers) 준장(Brig. General)

제6사단 - 10월 16일 인천에 상륙 - 허디스(Hurdis) 소장(Maj. General)

제308폭격단과 기타 부대 - 인천과 부산에 각각 9월 8일과 9월 20일 상륙

한반도 상륙작전계획(해군작전명 CAMPUS, 육군작전명 BLACKLIST)은 1945년 8월 14일 마닐라에 있는 제7수륙양용군 사령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로부터 5일 후에 제7수륙양용군 참모가 제24군단 참모들과의 협의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향했다.

13) 한반도 상륙작전의 계획

한반도 상륙작전의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제1단계 - 서울 지역의 점령

제2단계 - 부산 지역의 점령

제3단계 - 군산-전주 지역의 점령

제1단계 작전 개시일은 제7사단이 상륙하는 9월 11일로 정해졌고, 제2단계와 제3단계는 제40사단과 제96사단의 상륙 날짜로 정해졌다. 그러나 소련이 이미 38선 이북 지역을 8월 말에 점령했기 때문에 미군은 좀 더 빨리 한반도 상륙을 결정해야 했다. 그래서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인천상륙을 9월 7일로 앞당겼다. 한반도 상륙을 위해 2개의 상륙부대가 작전을 구상했다. 오키나와에 있던 제7상륙군 사령관은 제24군단과 제7사단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필리핀의 일로일로(Iloilo)에 있던 제13상륙군 사령관은 제40사단과 필리핀에 주둔 중인 지원부대를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였다.

한반도 상륙작전에 가장 곤란한 문제는 바로 기뢰였다. 기뢰는 일본군과 미군 양쪽에 의해 대량으로 살포되었다. 일본군은 서해 입구와 대한해협 쪽에 광범위하게 기뢰

를 부설했다. 미 전략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부산과 다른 남한 항구에 자기 기뢰(Magnetic mines)를 살포했다. 미 제5함대의 기뢰제거부대 소속 기뢰제거 함정 20대가 서해의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인천에 최초로 상륙한 이후 제24군단장 하지는 제40사단은 부산에 상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산지역의 기뢰는 일본군에 의해 부설되었는데, 여기에 연합군이 전쟁 말기 설치한 기뢰도 상당했다. 이 지역 역시 미군의 기뢰제거 함정에 의해 소거되었다.

9월 8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된 미 제7사단의 상륙은 오후 5시 30분에 완료되었다. 제7사단은 일본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상륙할 수 있었다. 9월 9일 오후 늦은 무렵 제7사단의 모든 주요 병력이 인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 후 인천 지역은 제17보병연대에게 인계되었다. 미군의 이동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저항 없이 전체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예정일이었던 9월 7일보다 하루 늦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태풍의 영향 때문이었고, 전체적으로 상륙작전은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14) 일본에 대한 항복조인식과 맥아더 장군의 포고령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항복문서 조인 후 한반도에서도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 일본군에 대한 항복 조인식이 9월 9일 오후 4시에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조인식에는 연합국 측 대표로 제24군단 사령관 하지 중장과 태평양방면 해군 사령관 킨케이드(Thomas C. Kinkaid) 대장이, 일본 측에서는 조선군관구 사령관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중장과 진해경비사령관 야마구치(山口儀三郎) 중장, 조선총독 아베(阿部信行)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하지는 “태평양방면육군총사령관 맥아더대장을 대신하여 나는 남조선 지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자 조인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정식으로 항복 조인식이 끝나자 당일 자로 하지는 한국인에게 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인민제군이여!

태평양방면육군총사령관이요 연합국총사령관 맥아더대장을 대신하여 나는 오늘 남조선지역에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조선의 경제 상태를 양양시키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기타 국제법에 의하여 점령군에게 과하여진 기타 제 의무를 이행하노니 점령지역에 있는 제군도 또한 의무를 다하여라.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제군은 연합국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장차 발할 나의 명령을 엄숙히 지켜라. ……

제군은 평화를 유지하며 정직한 행동을 하여라. 이를 지키는 이상 공포의 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만약 명령을 아니 지킨다든지 또는 혼란 상태를 일으킨다면 나는 즉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취하겠노라. 이미 확정된 항복조건을 이행함에는 나는 시초에 있어서는 현 행정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노라. …… 신문, 라디오는 금후 곧 조선 사람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이다. 나는 조선인 제군이 장구하고 또 귀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노라. 또 제군이 과거 수십 년간 제압박하에 신음하여 온 것도 잘 알며 제군의 대망이 무엇이 라는 것도 잘 아는 바이며 제군이 생활상태 개선을 하루바삐 수행하고자 하는 제군의 열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것도 잘 아노라”

이와 같은 하지의 성명에 뒤이은 다음 날 10일 미국 태평양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포고 제2호, 제3호가 발표되었다. 맥아더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 육군최고지휘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연합군은 금일 북위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오랫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 조항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포고함.

제1조 조선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해야 함.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신속히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제4조 주민의 소유권은 이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함.

제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간에 해석 및 정의가 불명 또는 같지 아니할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함.

위와 같이 포고함.

1945年 9月 7日

요코하마에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이어지는 포고 제2호는 범죄 및 법규위반에 관한 건이며, 제3호는 통화에 관한 건이었다. 포고 제1호를 보면 한반도의 ‘38도선 이남 지역 및 동지역 주민에 대한 군정 실시’가 언급되었다.

15) 조선총독부의 폐지와 주한미군정청의 수립

1945년 9월 19일 조선총독부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주한미 육군사령부 군정청(USAMGIK)이 수립되었다. 남한 민정에 대한 정책 지침이 1945년 10월 13일 확정되었고 이는 10월 17일 맥아더에게 하달되었다. SWNCC(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176/8(초기 기본지령)은 1947년 7월에 새로운 민정 지침으로서 하달된 SWNCC 176/29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미군정 조직과 민정업무 수행을 규정한 기본지령이 되었다. 미국이 구상한 한반도 전후 처리 방안은 신탁통치하의 국제민간행정기구 수립으로 집약할 수 있다.

「SWNCC 176/8: 한국의 미군 점령지역 내 민간 행정에 관해 미 육군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 주는 초기 기본지령」인 이 문서는 1945년 10월 13일 삼부조정위원회가 최종 승인하였고, 10월 17일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되었다.

1945년 12월 24일 도쿄의 맥아더사령부는 제24군단에 하달한 전문을 통해, 한국의 중앙 군정조직으로 주한미군정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4일자로 전술점령군의 지휘계통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서 ‘주한미군정’을 수립하였다.

2. ASCOM의 설치와 기능

1) 일본군조병창의 흡수와 미 제24군단 군수지원사령부(ASCOM) 건설

1945년 8월 27일 미 제24군단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가 8월 29일에 공식 편성되었다. 병력은 6만 2,724명의 전투부대와 2만 9,076명의 지원부대로 구성되었다.¹⁹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초기에 인천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이동해야 했다.²⁰ 초기에

제24군수지원사령부 편성은 사병과 장교 5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8월 30일 750명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사령관에는 오키나와 육군기지 사령관 길버트 셰비스(Gilbert Cheves) 소장이 임명되었다.²¹

1945년 9월 9일 제24군수지원사령관이 도착하여 동월 11일 인천 지구에 대한 통제권 확보하였다. 1945년 9월 12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 본부와 본부중대가 인천에 도착하였다. 임무는 군단의 군수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군수보급시설, 조직, 장비의 운영 등을 책임지는 것이었다.²² 또한 인천항과 남한의 철도를 관할하는 임무도 부여되었다.²³

1945년 9월 16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부평의 일본군조병창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당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부평을 애스컴 시티(ASCOM City)로 명명하였다.²⁴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후속부대가 주둔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병창에 있던 각종 시설을 철거했다. 또한 이 사령부의 임무 가운데에는 인천 지역과 경기 지역에 주둔 중인 일본군 송환 작업도 부여되었다. 인천 지역에서 이들이 일본으로 송환한 일본군은 약 2만 명 정도였다.

ASCOM 24의 일정표

- ① 1945년 9월 9일 제24군수지원사령관이 조선에 도착
- ② 1945년 9월 11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인천 지구에 대한 통제권 확보
- ③ 1945년 9월 12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 본부와 본부중대가 인천에 도착
- ④ 1945년 9월 16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일본군조병창 근처 지역으로 이동
- ⑤ 1945년 9월 16일 부평을 군수지원사령부시(ASCOM City)로 명명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부평 군수산업단지를 접수하고 각각 구역을 나누어 4개

19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1, 돌베개, 1988, 40쪽. (원 문서는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in Office of the Chief of the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로 인용서는 영인본임. 이하 『주한미군사』로 표시)

20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1, 돌베개, 1988, 46쪽.

21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1, 돌베개, 1988, 56쪽.

22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1, 돌베개, 1988, 56쪽.

23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1, 돌베개, 1988, 244쪽.

24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주한미군사』1, 돌베개, 1988, 268쪽.



❖ ASCOM의 제382위수병원 전경 (1948.1.15.)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 ASCOM의 신축 교회(1947.5.4.)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의 캠프를 운영했다. 캠프 그랜트(Camp Grant), 캠프 마켓(Camp Market), 캠프 타일러(Camp Tyler), 캠프 헤이즈(Camp Hayes)가 그것이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는 2개의 감옥 캠프도 갖고 있었다.

2) 군수의 역할

군수(Logistics)란 군의 전개와 기동을 위해서 항구, 도로, 철도, 배관, 창 및 보급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기동성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전술적 기동성은 작전 전구 내에서의 개발된 병참 및 보급 분재 체계에 달려 있다.

야전교범(Field Manual) 100-10은 전투근무지원 교범으로 전투근무지원의 원칙 및 특징,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구조와 책임, 보급, 수송, 정비, 의무 지원, 병력 지원, 야전 근무, 입원 및 환자 수송, 영현 및 등록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수사령부의 유형과 병력은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상이하였다. ①3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전투부대나 증강된 사단에 병력과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A유형, ②10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전투부대나 증강된 군단에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B유형, ③40만 명을 초과

하지 않는 전투부대나 야전군에게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C유형 등이 있다.²⁵

3) 군수사령부의 편성과 구조

군수사령부는 군의 후방 경계선의 전방지역과 협조하여 병참지대, 필요한 기지, 중간 및 전방지역 설치에 적합한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부평의 군수사령부는 군단(약 7만 명)의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 B유형의 군수사령부를 유지하였다.²⁶

군수사령부의 인사는 부대 교대와 위로 휴가 등의 전투부대의 운용과 현지의 노동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포로의 노동력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부대원의 매장과 영현등록도 담당하였다. 한편 보급은 탄약소요에 따르는 보급과 장비 및 수리부속의 보급, 정비, 저장 등의 관리계획이 주를 이루었다. 수송은 보급지대와 전투지역 사이에 중간 창이나 보급소를 적절히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수송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철도

25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Record Group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p.21~22.

26 Terrence J. Goup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7, pp3~17.

관리와 해상수송에 따른 항만관리도 군수사령부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유류수송을 위한 송유관 및 유조선 운용도 담당하였다.

4) 군수사령부의 기술근무지원

군수사령부의 기술근무지원으로는 다양한 소속 기관이 구성되어 그 임무를 담당하였다. 화학단(화염방사기, 방독면, 발연기), 공병단(도로 건설, 교량 건설, 비행장 건설, 소방), 병기단(장비복구 및 개선, 폐품 수집), 병참단(유류 지원, 영현 등록, 세탁, 제빵 운영), 통신단(유선통신, 무선통신, 비둘기,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이 있었다.

3. 주한미군의 철수와 부평의 반환

1) 주한미군의 철수

미·소 양군 철군 문제는 1946년부터 공식적으로 소련에 의해 주장되었다. 1946년 10월 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지의 경제고문이었던 번스(Bunce)는 소련 점령군사령관의 정치고문인 발라사노프(Balasanov)가 “소련은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서 미소 양군 철퇴를 열망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고했다.²⁷

이미 당시 미 군부는 한국에서의 조기 철군을 희망하고 있었다. 1947년 4월 4일 패터슨 육군장관은 애치슨 국무장관 대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서의 조기 철군을 요청하였다.²⁸ 이에 대해 3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한반도를 넘기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한반도를 소련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하였

다.²⁹ 이미 3부조정위원회에서는 미국의 대외지원에 대한 정책과 절차 비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SWNCC 360/1이다.³⁰ 이 문서에서 3부조정위원회는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순위에 한국을 그리스,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지정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중요성에서는 조사 국가 16개국 가운데 15번째로 규정했다. 결국 미국의 국가안보와 현재의 긴급성을 종합한 결과 한국에 대한 중요성은 16개 국가 가운데 13번째로 판단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1947년 9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미국의 한국문제 유엔이관에 대한 소련의 대응은 양군 동시 철수 제안이었다. 26일 회의 석상에서 슈티코프 소련 측 대표는 1948년 초까지 미소양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조선인 자신들에게 맡길 것을 제안했다.³¹

이러한 진행 상황 속에서 1947년 11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미소점령군의 동시 철수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면 가능한 90일 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³²

1948년부터 미 군부, 주로 육군참모총장 아이젠하워와 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한국의 전략적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³³ 주한미군의 철수가 공식적인 미국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1948년 4월 2일 NSC에서 채택된 NSC 8이었다.³⁴

27 “The Political Adviso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10.9), FRUS 1946, Vol. VIII, pp.743~747;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9쪽.

28 “The Secretary of War (Patterson)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1947.4.4), FRUS 1947, Vol. 6, pp.625~628.

29 “Report by the Ad Hoc Committee on Korea: United States Policy in Korea(SWNCC 176/30)” (1947.8.4.), FRUS 1947, Vol. VI, pp.738~741.

30 “Meme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1947.5.12.), FRUS 1947, Vol. I, pp.735~738.

31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9쪽.

32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7년 11월 21일자.

33 “John J. Muccio Oral History Interview by Jerry N. Hess”(1971.2.10.),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Selecte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Harry S. Truman Library Relating to Korea.

34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ouers) to President Truman” (1948.4.2.), FRUS 1948, Vol. VI, pp.1163~1169.

이에 따르면 미국은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수립되면 90일 이내에 점령군들을 철수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던 것이다. NSC 8에서 미국은 미군 철수 이후 어떠한 침략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을 남겨놓지 않는 한 미군의 철수는 극동의 우방국들에게 배신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주한미군 철수 이전에 북한 또는 기타 군대의 공공연한 침략행위에 대해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훈련 장비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NSC는 한국군의 병력을 5만 7,000명의 국방경비대와 3,000명의 해안경비대 그리고 3만 명의 경찰을 포함하여 총 병력 9만 명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반해 북한군은 12만 5,000명으로 추산하였다.³⁵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시점을 1948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군부와 국무부 사이의 갈등으로 첨예화되자, 이에 대한 실사를 위해 1948년 말 미 육군장관이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장군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했다.³⁶ 이미 웨드마이어는 1947년 말 중국과 한국을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여 현지의 문제를 파악한 이후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었다.³⁷ 당시 웨드마이어가 작성한 계획에 따르면 미군의 한반도 철수는 1949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것이었다.³⁸

1948년 11월 9일에 국무부는 육군부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3월 31일에서 훨씬 뒤로 연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주한미대사 무초(John J. Muccio)의 보고를 첨부하여 다시 한번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및 상황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49년 1월 27일 무초는 그동안의 한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를 국무부에 올렸다. 이 가운데 군사적 상황에 대한 언급은 다



❖ 김포비행장에 도착한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대사를 맞이하는 드럼라이트(E. F. Drumright) 참사관(1949.3.29.)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음과 같다.³⁹

한국군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고 있다. 여수반란 이래 반역세력이 소탕되어 사기와 신뢰성이 개선되었다. 육군은 6만 5,000명, 경찰 4만 5,000명, 해군 4,000명에 달하였다. 우리는 육군의 기본 구성 요소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보급품들을 완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추가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해군에 요구되는 경비정과 여타 품목을 제공해야만 한다. ……

한편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수년 동안 전투경험을 가진 조선인 부대를 총원받아 병력이 1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이들이 모두 소련제 무기와 장비로 완전히 무장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현재 한국군은 내부안정성을 적절히 유지하며, 북으로부터의 침투에 잘 맞서는 한편 멀지 않은 장래에 이미 알려진

35 “The Position of the U. S. with Respect to Korea”(1949.3.16.), 『한국전쟁자료총서 1 -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 국방군사연구소, 1996, 15~35쪽.

36 “John J. Muccio Oral History Interview by Jerry N. Hess”(1971.2.10.),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Selecte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Harry S. Truman Library Relating to Korea.

37 “Report of the President on China-Korea, September 1947, Submitted by Lieutenant General A. C. Wedemeyer”, (1947.9.19.). FRUS 1947, Vol. 6, pp.796~803.

38 “John J. Muccio Oral History Interview by Jerry N. Hess”(1971.2.10.),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Selecte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Harry S. Truman Library Relating to Korea.

39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State”(1949.1.27.), FRUS 1949, Vol. VII, pp.947~952.

북한군의 공개적 침략조차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만주에서 전투로 단련된 북한군이 이용될 경우 남한군은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무초는 NSC 8의 재평가를 주장했다. 이미 NSC 8에서 상정한 상황 상 식량사정, 한국군의 전력 및 효율성, 한국정부의 동향, 경제상황, 북한과 중국의 사태 진정 등이 변화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⁴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군부와 미국의 세계적 위신문제로 인한 주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국무부 사이의 갈등은 결국 1949년 6월 30일 철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⁴¹ NSC 8/2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남한 정부가 공산 지배하에 들어가는 사태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미국이 실질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수 시점을 1949년 6월 30일로 하고 최종 철수 이전에 6개월간의 비축저장량을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949년 4월 29일 미 육군부는 1949년 6월 30일을 주한미군의 최종 철수 완료일로 결정하고 국무부에 통보하며, 이를 비밀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⁴²

1949년 6월 29일 1,500여 명의 미군부대가 인천항을 출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는 완료되었다.⁴³ 주한미군의 수송선은 브로이스터호(General A. W. Brewster)와 보딘호(Lt. Raymond O. Boudein) 2척이었다.⁴⁴

1949년 7월 1일 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정식으로 설치되었다.⁴⁵ 군사고

문단은 기본적으로 미대사관 소속이었다. 따라서 무초 대사가 군사고문단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했다.⁴⁶

2) 부평 지역의 반환과 위수사령부 설치

주한미군정 3년 동안 주둔하던 미군은 1949년 6월 30일 시설을 한국 정부에 이관하고 공식 철수하였다. 부평 지역은 국군에 인계되어 유지, 운영되었다. 국군은 미군이 철수하고 떠난 부평에 부평 지역 위수사령부를 1949년 8월 1일 설치하였다. 또한 미군이 두고 간 옛 일본군조병창을 수리하여 1950년 6월 15일에 제2조병창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조병창으로 활용하려던 국군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해방 전 부평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이 있어 일본군이 소화기와 부품을 생산하던 곳이었다. 국방부는 1949년 6월 미군으로부터 조병창을 인수하였으나 파손도가 심하여 복구할 수 없었다. 초대 육군참모총장이 된 채병덕 소장이 당시 일본군조병창의 제3공장 책임자였다.

육군본부는 1949년 1월 15일 정부 귀속업체인 유항(有恒)상공주식회사 용산 공장과 조선유지주식회사 인천공장을 접수하여 각각 제1 및 제2공장이라 지정하고 이를 모체로 육군 특별부대 소속으로 육군 병기공장을 창설하고 소화기의 부품생산에 착수하였다.⁴⁷

제1공장은 인수 즉시 시설을 보완하면서 소화기(小火器)를 정비하고 99식 소총 부속품과 수류탄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제2공장은 3개월간에 걸쳐 시설 복구와 기계 정비에 임하였다.

1949년 12월 15일 국방부에 병기행정본부가 설치되어 병기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병기행정본부는 1950년에 들어와 병기감실에 배정된 예산을 병기 생산에 전용토록 조치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소재의 삼화정공주식회사를 제3공장으로, 인천 소재의 조선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와 기아전업주식회사를 생산감독

40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First Secretary of the American Mission in Korea (Gardiner)” (1949.2.7.), FRUS 1949, Vol. VII, pp.953~955.

41 “The Position of the U. S. with Respect to Korea”(1949.3.31.), 『한국전쟁자료총서 1 -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 국방군사연구소, 1996, 36~56쪽.

42 “The Acting Secretary of the Army (Grey)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4.29.), FRUS 1949, Vol. VII, p.999.

43 “Press Release No. 28”(1949.6.30.),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RG 59, 740.00119 Control(Korea) 7-149, Report of Political Advisor for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44 “Press Release No. 28”(1949.6.30.),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RG 59, 740.00119 Control(Korea) 7-149, Report of Political Advisor for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45 “Telegram from Muccio to Secretary of State”(1949.7.1.), RG 59, 740.00119 Control(Korea) 7-149, Report of Political Advisor for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46 “The Position of the U. S. with Respect to Korea”(1949.3.31.), 『한국전쟁자료총서 1 -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 국방군사연구소, 1996, 36~56쪽.

47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 육군본부, 1970, 224쪽.

공장으로 각각 지정함으로써 병기생산능력을 확충하였다.⁴⁸

특히 인천 제2공장에서는 주로 마찰식 수류탄의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무연화약 제조방식 연구에 성공하여 화약공장이 되었다. 1950년 6월 15일에 인천의 제2공장을 제2조병창으로 개편하였지만 전쟁이 발발하여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미군이 철수한 직후 부평 지역의 또 다른 변화는 위수사령부의 설치였다. 육군의 군기와 질서유지, 그리고 군에 속한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1949년 8월 1일 경기도 인천시 부평지구위수사령부(초대 사령관 백홍석 육군대령)를 설치하고 이어서, 20일에 각 지역별로 위수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로 설치하였다.⁴⁹ 이 위수사령부의 설치 기준은 각 연대 주둔 지역별로 정하고 관할 내의 부대 및 군병원과 장병들의 군기 확립, 대민 안전 보호에 책임을 지고 통제하고 지휘하였다.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96호로 「위수령」이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각 지구 위수사령부 설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각 지구 위수사령부 설치 현황

구분	설치연월일	사령관
부평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1	부평지구 위수사령관
서울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수도경비사령관
제1사단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보병 제1사단장
제2사단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보병 제2사단장
제3사단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보병 제3사단장
제5사단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보병 제5사단장
제6사단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보병 제6사단장
제7사단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보병 제7사단장
제8사단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보병 제8사단장
웅진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웅진지구 전투사령관
제주지구 위수사령부	1949. 8. 20	제주주둔 부대장

❖ 출처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1, 국방부, 1984, 263쪽.

4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1, 국방부, 1984, 343~345쪽.

4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국방부, 1967, 390쪽.

제51통신대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색의 제1여단사령부에서 창설되었는데, 11월 25일 경기도 부평으로 이동하여 1949년 1월 6일 제1통신단으로 승격되었으나, 3월 1일 해체 후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되었다.⁵⁰

제1의무대대는 1948년 5월 1일 서울 영등포에서 통위부 직할부대로 편성되었는데, 8월 9일 제1의무단으로 개편하여 제1 및 제2 육군병원을 편입시켰으며, 1949년 초 부평으로 이동하였으나 1949년 9월 15일 의무단의 해체와 동시에 제1의무대대로 다시 환원되었다.⁵¹ 1949년 8월 15일에는 부평에 육군군의회(교장 박동균 대령)를 창설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두었다.

국가 유사시에 예비 혹은 현역 군의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자 지난 9일 입소한 전국 종합병원장 및 任明幸·李先根·崔性章·白麟濟·金晟鎭씨 등 서울의사회 간부들에 대한 제1회 예비역 군의후보생 졸업식은 23일 하오 4시부터 富平 衛戍지구 군의학교에서 申국방 장관·具보건장관·丁一權준장, 기타 내빈 다수 참석리에 성대히 거행되었다.⁵²

1948년 8월 20일에는 부평에서 제1공병단(단장 오규범 중령)을 창설하였다. 제1공병단에는 제1공병대대, 제1자동차중대, 공병 경장비중대, 제1정비중대, 제1공병기지중대 및 공병중장비중대, 육군공병학교 등이 배속되어 있었다.⁵³

1948년 10월 5일에는 부평에 육군 자동차학교가 설치되어 병기단 산하에 편입되었고, 11월 25일에는 제2병기대대가 부평의 미군 병기창고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제1병기대대로부터 병기 정비, 병기 탄약 및 병기 창고중대를 편입받아 이를 기간으로 대대편성을 완료하였다.⁵⁴

5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1, 국방부, 1984, 307쪽.

5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1, 국방부, 1984, 307쪽.

52 『서울신문』, 1950년 1월 25일자.

5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1, 국방부, 1984, 351~352쪽.

5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1, 국방부, 1984, 353쪽.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동안 양측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6·25전쟁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 선까지 이르렀던 북한군의 남침기(1950.6.25.~9.15.)이며 북한군의 공세 속에서 미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남한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기(1950.9.15.~11.25.)로 유엔군의 38선 북진과 중공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단계는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1950.11.25.~1951.6.23.)로 유엔군의 후퇴가 이루어졌고 이어 전쟁이 제한되면서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휴전회담의 진행과 더불어 쌍방이 38도선 부근에서 대진(大陣) 상태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교착전기(1951.6.23.~1953.7.27.)로 휴전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소모전이 지속되었다.

1. 6·25전쟁의 발발과 인천상륙작전

1) 북한군의 전면 남침과 당시 맥아더 사령부의 병력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암호명 아래 38도선에 배치한 전군에 남침 명령을 하달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군의 상황은 주말 외출에 더해 38도선 방어 임무를 맡고 있던 4개 사단과 1개 연대 중 단지 4개 연대와 1개 대대만이 실제로 전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웅진반도에서는 4시경 북한군 경비여단이 박격포탄을 발사하며 남하하였고, 북한군 제6사단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철원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이 제105전차여단의 지원 하에 의정부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편 춘천 방면에서는

북한군 제7사단과 제2사단이 남하했으며, 동해안 쪽에서는 북한군 제5사단이 남쪽으로 공격하였다. 북한의 전면 남침의 시작이었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된 한국군은 우선 38도선의 방어병력만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후방의 사단을 전방으로 이동시켜 대응하였다. 하지만 국군은 전차 및 자주포를 선두로 침략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군은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작전대비태세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전투부대는 인원과 장비 면에서 완전한 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방어태세에 있어서도 1개 사단이 평균 60여 km에 달하는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고, 교육 훈련 면에서도 거의 75% 이상이 대대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한 당일 은 일요일로, 부대원의 1/3 정도가 외출 중에 있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후방지역에 위치한 예비대의 운용은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이 남침 초기 공격의 수단으로 운용하였던 전차에 대한 대비태세는 57밀리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군은 병력이 2배, 장비가 3.2배에 달하는 전력을 보유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쟁 초기의 북한군의 공격은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북한군의 전격적인 서울 점령의 목표는 일단 달성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군이 신속히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국군은 한강 이북에서 비록 커다란 타격을 입었지만 한강 이남에서 점차적으로 재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 역시 재빨리 빠져나갔다. 국군과 남한 정부의 후퇴와 생존의 ‘성공’은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전진을 일시 중지했고, 중부전선을 돌파하여 수원에서 서울을 포위 공격하려 했던 북한군 2군단의 전진이 예상대로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점령 후 북한군이 전진을 일시 중지한 것은 원래의 계획이 서울 점령 자체에 치중되어 후속 행동을 곧바로 취하기 어려웠고, 한강교의 폭파로 인하여 도하장비가 부족한 북한군으로서는 한강철교가 복구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부전선에서의 지체는 산악지형에서 T-34탱크의 발이 묶였고 국군 제6사단의 선전 때문이었다.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했던 북한군은 7월 1일야 한강 도하를 시작했고 3일에는 복구한 한강철교를 이용하여 전차를 도하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남진을 시작했다.

당시 미 극동군사령관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였다. 그는 세 개의 주요 직책을 겸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일본점령을 통할하는 13개 연합국 극동위원회의 연합국최고사령관, 태평양의 미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극동군사령관, 극동미육군사령관이었다. 7월 8일에는 네 번째로 UN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극동군사령부는 UN군사령부가 되었다.

2) 남침 소식의 전달과 극동군사령부의 대응

북한의 전면 남침 소식은 무초를 통해 미 국무부에 알려졌다. 무초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에 기초해 북한군의 군사행동이 새벽 4시에 시작되었고, 공격의 성격과 방법으로 보아 남한에 대한 전면공격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시간적 지체가 있었지만 맥아더사령부 역시 북한의 전면 남침 보고를 확인했다. 맥아더사령부는 “북한군이 웅진, 개성, 춘천 등 여러 지점에서 남한 영토를 침범해 왔으며, 강릉 남부 동해안에서는 수륙양륙작전이 전개되었다. 한국 시각 11시에 북한방송은 선전포고를 하였다. 야크공군기가 서울 상공을 저공비행 정찰하였다는 보고가 있다”고 미 육군부에 보고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1950년 6월 26일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기까지는 미 군사고문단과 미 대사관에 대한 군수 지원 외에는 책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맥아더는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지원을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는 맥아더 장군의 독단으로 취해졌다. 그는 6월 26일 13시 30분까지 합참본부로부터 한국을 지원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하였다. 맥아더는 곧 극동군사령부의 13명의 참모와 2명의 사병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처치(John H. Church)준장을 단장으로 임명하였다.

3) 북한의 남침에 대한 미 정부의 초기 대응

트루먼 미대통령은 6월 25일 주말 휴양지이던 미주리에서 급거 워싱턴으로 귀환하여 고위정책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미 공군과 해군을 동원한 남한군의 지원과 대만 해역에 미 제7함대 파견을 결정하였다. 한편 미 지상군의 투입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은 주일 정치고문인 윌리엄 시볼드였다.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그는 북한군의 침입을 격퇴시키지 못한다면, 소련의 참전 위험이 있더라도 즉각 미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27일, 극동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능력으로 보아 24시간 이내에 서울이 점령당할 것으로 보았다. 극동군사령부 조사팀이 악화된 전황 때문에 되돌아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를 전달하며, 극동군사령부는 한국군이 총체적인 붕괴에 임박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련의 의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극동군사령부의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실행되면 소련의 보복행동이 일본이나 남한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이 동남아시아의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공격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6월 30일 육군부는 급히 1개 전투단을 부산으로 보낼 것을 지시했다.

6월 30일 합참은 극동군사령부 휘하의 해·공군을 동원하여 남한 지역으로부터 북한군을 몰아내고,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부산과 진해 지역에 있는 항구와 비행장의 보호를 지시했다. 이 전문에는 추가적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해·공군의 작전을 부여했지만 이것이 중국본토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군사적 목표물에 한정한다면 비행장, 항구 등 북한 지역에 대한 작전도 승인되었다. 그러면서도 합참은 만주와 소련에 접해 있는 국경지역에 대한 작전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후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맥아더는 합참에 대한 정식 보고를 통해 문제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다. 즉 정식 보고 라인을 통한 상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전역사령관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의거 이미 해·공군 작전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맥아더는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지원을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는 맥아더의 독단으로 취해졌다. 6월 26일 13시 30분까지 합참본부로부터 한국을 지원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

4) 전쟁 직후 주한외국인의 소개 계획과 집결지로서의 부평

주한미사절단은 다른 국가에 있는 미국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상시를 대비한 정보

및 소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크롤러 계획이라 명명된 이 계획은 국내소요 또는 북한의 남침 시 한국에 있는 미국 국민과 특정 외국인의 신변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개계획의 목적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2급(minor), 제한(limited), 1급(major)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2급 비상은 국내소요 또는 지방봉기가 일어났을 때 발효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제한 비상은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만 한국정부가 특정지역에서 통제기능을 상실했을 때 발효된다. 1급 비상은 한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와 북한의 침략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에 있을 때 발효된다. 비상사태의 선포는 주한미대사인 무초의 책임이었다.

소개 작전에 따르면, 2급 비상시 주한미사절단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상황과약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소개 작전을 실행에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계명령인 파이어사이드(Fireside)를 남한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전달해야 했다. 군인들은 즉각 지휘부에 합류하고, 민간인 노무자들은 자신의 담당구역으로 배치되며, 가족들은 숙소로 돌아가 집결지로 향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모든 미국인들은 추가지침을 받기 위해 WVTP방송국(주한미군방송국)에 채널을 고정시켜야 한다. 두 번째 명령, 하이볼(Highball)이 발령되면, 또 다른 소개 작전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미국인들은 군수지원사령부가 있었던 부평의 대피소에 집결해 인천항이나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었다.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국인들은 부평이나 부산 등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야 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부평과 부산에 소개 센터를 설치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⁵⁵

주한미대사인 무초(John J. Muccio)는 6월 26일 주한 미국인의 소개 작전에 대해 미국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⁵⁶

모든 대사관 소속 부녀자와 아동들이 서울 시각으로 6월 26일 오전 5시에 서울에서 부평기지로 안전하게 소개되었다. 현재 인천항에 정박 중인 노르웨이 국적의 라인홀트호와 파나마 국적의 노렐그호와 협상 중이며, 이 배들로 대다수의 미국인이 일본으로 소개될 것이다. 26일 정오에 인천항에 도착할 미국 국적의 스내퍼호와도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으로 향해 중인 미 구축함에게 소개작전을 엄호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소개 인원은 7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주한미대사관 가족 외에 선교사, 유엔 관련 인사, 영국 및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타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미국인들은 부산으로 가 대기 중인 함정에 승선하도록 하였다. 소개 대상자의 명단은 완성되는 대로 전신으로 타전할 예정이다.

5) 인천 지역의 북한군 공격과 피난행렬의 시작

개성지구에서 38도선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던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는 북한의 남침으로 방어를 하지 못한 채, 인천 쪽과 김포반도로 후퇴하게 되었다. 즉 이 당시 김포비행장을 중심으로 육군 정보학교인 남산학교와 공병학교, 그리고 공군의 항공기지사령부와 공군사관학교 및 보급창과 공군 병원들의 부대가 그 주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보급기지인 부평에는 육군의 제1공병단과 제1병기대대 그리고 병기학교와 경리학교 및 제1육군병원 등이 위치하였다.⁵⁷

인천 지역으로의 공격을 주도한 북한군은 방호산이 이끄는 제6사단이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개성-강화-김포-영등포-인천을 공격하며 남하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김포지구사령부를 급히 조직하여 강화와 인천에 진출하는 북한군 제6사단을 저지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부여하였다.

6월 25일 당일에 개성 일대를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은 강화도와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김포반도를 돌파함으로써 김포비행장을 확보한 다음, 시흥-영등포 방면으로 우회하여 경부국도에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배후를 기습하려 하였다. 김포반도를 공격하는 북한군 제6사단의 주요 부대는 제13연대와 포병연대였다.

55 로버트 소이어 저, 이상호·윤시원·이동원·박영실 역, 『주한미군사고문단사』, 선인, 2018, 39~141쪽.

56 FRUS, 1950, 154~155쪽.

5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개정판)』1, 국방부, 1977, 661쪽.

육군본부는 남산학교 교장인 계인주 대령을 김포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김포지구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적의 도하를 막도록 하였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예하 병력들은 김포와 강화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하려는 북한군 제6사단을 일시 저지하였지만 압도적인 전력차이로 인해 27일 김포와 인천으로 갈라지는 장림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6월 28일이 되자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적의 포화가 김포읍에 떨어지게 되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공군의 경비사령부와 함께 김포읍 동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당일 오후 2시에 지휘소를 김포비행장으로 옮기고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개화산 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 김포읍을 석권한 북한군은 비행장을 목표로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였고,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소사읍 사무소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병력을 수습하였다.⁵⁸

이때 부평지구의 잔류 병력도 27일 김포전선에 동원되었는데, 제1공병단 산하의 일부는 부평-심포읍 사이의 계양산 동쪽의 방축리 부근으로 배치되었고, 병기학교에서는 기간장교로서 장교특전대를 편성하여 한강변의 전호 부근에 배치하게 되었다.⁵⁹

28일 인천시장인 지중세는 시 직원들에게 개별행동으로 피난하도록 지시하였다. 6월 29일이 되자 보도연맹원들이 소란을 일으켜 인천시청을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경찰이 이들을 소탕하는 일까지 있었다.

29일 낮 인천에서는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죄수들이 탈옥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천 지역의 군과 경찰은 모두가 차출되어 각 전선으로 출전한 이후라 사태는 확대되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이 보고를 듣고 시흥사령부로 하여금 병력을 파견하여 이를 진압토록 하였다. 시흥사령부 사령관인 김홍일 소장은 제20연대장에게 1개 중대를 선발, 인천으로 출동시켜 소요를 진압하도록 명령하였다. 29일 밤 트럭 5대로 제3대대 제12중대 병력을 분승시켜 인천으로 파견하였다. 30일 새벽 3시 인천시 부근에 하차하여 도보로 시내에 진입하였다. 시내에는 붉은 벽보가 나붙어 있었는데, 정세를 살펴보니 인천형무소가 파괴되고 탈옥수들이 지방 좌익들과 연계하여 소동

5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주요전투』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7, 223~224쪽.

5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개정판)』1, 국방부, 1977, 676쪽.

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대는 자유공원에 본부를 두고, 당시 옹진반도에서 철수한 경찰과 함께 치안활동을 전개하였다. 12중대는 7월 2일까지 인천의 치안을 맡고 있다가 명령에 의거 소사로 이동하여 적을 방어하면서 3일 평택방면으로 철수하였다.⁶⁰

7월 4일이 되자 북한군이 인천에 침입하여 각 기관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군 점령 3일이 지난 7월 6일에는 원통이고개에서 북한군에 의해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6) 맥아더의 전선 시찰과 지상군 투입의 결정

전쟁이 발발한지 4일 후인 6월 29일 맥아더가 한국전선에 도착했다. 그는 한강변까지 시찰한 후 도쿄로 돌아와 “한국군은 반격작전의 능력이 없고,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으며, 적의 돌파가 지속된다면 남한은 무너질 것이다.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2개 사단을 증파할 필요가 있다”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제한전의 목적에 따라 전쟁을 국지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한국에 처음으로 진주한 부대가 바로 미 제24사단 21연대 1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대대였다. 맥아더의 회고록에 의하면 스미스 특수임무대대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미군의 참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북한군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괴뢰군이 한국전체를 석권하기 전에 그 전진을 늦추는 일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록 소규모의 병력일지라도 지상부대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일선에 배치하여 미국의 지상부대가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그것으로 적의 사령관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고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계획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에 나는 장래 작전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를 부산에 집결시킬 작정이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대대는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로서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공산군과 교전했다. 미 해·공군은 6월 27일 오후부터 적과 교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지상군은 29일에

6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개정판)』1, 국방부, 1977, 721~722쪽.

맥아더 원수가 수원에 도착한 후 트루먼 대통령이 전선 투입을 결정하고, 또한 병력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7월 5일야 북한군과의 지상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1950년 6월 30일 맥아더는 미 제8군 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에게 24사단을 한국으로 급파하라고 구두로 명령하였다. 이는 24사단이 한국에 근접해있기 때문이었다. 워커는 이를 작전명령 0315호로써 미 제24사 사단장 딘에게 즉시 예하부대를 한국 전선으로 즉시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는 ①대대장의 지휘 하에 4.2인치 박격포대와 75mm 무반동소대를 갖춘 2개 중대의 병력을 급히 부산으로 파견하여 처치(John H. Church) 준장의 명령을 받을 것, ②사단사령부와 1개 전투연대 역시 항공편으로 부산으로 파견할 것, ③나머지 사단의 예하부대는 해로로 뒤따를 것, ④사단사령부는 초기 공격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7) 맥아더의 상륙작전의 초기 구상

1950년 6월 29일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의 진격이 가속되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맥아더의 구상은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최초의 상륙작전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수작전으로 적의 후방에 우회하여 보급병참선을 공격하는 일종의 ‘섬 건너뛰기 작전(Island Hopping Operation)’은 맥아더가 즐겨 사용하는 전법이었다.

이미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맥아더는 점령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예견하고 1950년 봄에 극동미육군의 상륙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도록 미 해군 및 해병대에 요청하였었다. 1950년 4월과 5월 사이에 미 해군·해병대로부터 3개의 교관단이 일본에 도착했고 일본 주둔 미군은 대대급까지 상륙작전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8) 블루하트 작전의 구상과 취소

이것이 당시 맥아더로 하여금 한강 전선 시찰 후에 ‘블루하트(BLUEHEARTS)’라는 작전 구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7월 4일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는 육, 해, 공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맥아더와 알몬드가 상륙지점에 관해 토의하며 ‘블루하트’라는

작전을 계획하였다. 작전일자는 7월 22일이었다. 즉 극동미군 사령부 G-3 참모 라이트 준장 통제 하에 있는 합동전략기획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이 전선 남쪽에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으로 반격작전을,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 및 미 제1기병 사단을 돌격상륙부대로 삼아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내용이었다. 7월 6일 극동군사령부는 게이(Hobart R. Gay) 소장을 불러 인천에 상륙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선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7월 8일에 중단되었고 블루하트 계획은 7월 10일 무효화되었다.

9) 인천상륙작전의 재구상

맥아더는 상륙 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합동전략기획단은 인천·군산·해주·진남포·원산·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고 상이한 몇 개의 계획을 발전시켰다.

이 초안이 7월 23일 미 극동군사령부 관계 참모들에게 회람되었다.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작전 명칭으로 9월 중에 실시 예정인 이 상륙작전은 ①서해안 군산지역에 상륙할 100-A 계획, ②서해안의 인천 지역에 상륙할 100-B계획, ③인천 지역에 제10군단을 상륙시키고 제8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서해안의 군산에 추가 상륙할 100-C 계획, ④동해안의 주문진 일대에 상륙할 특수임무부대 2개 사단을 상륙할 100-D 계획 등 4개 안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1950년 7월 24일 맥아더는 도쿄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거의 예외 없이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이 유엔군사령부에 참모로 임명되었다. 사실상 유엔군사령부는 부가적인 임무를 더 부여받은 극동군사령부나 다름없었다. 맥아더는 도쿄에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다음 날 유엔군 성명서 1호를 발표하였다.

맥아더는 상륙작전을 위한 군단참모 구성에 앞서서 극동군 사령부 참모들로부터 인원을 차출하여 임시 계획 참모진을 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8월 15일 이 편성의 본래 목적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이 새로운 참모진을 극동군 사령부 내의 특별계획 참모부(Special Planning Staff)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참모장에 러프너(Clark L. Ruffner) 소

장을 임명했다. 사실상 맥아더는 알몬드를 위시하여 다른 참모들을 극동군 사령부의 참모부로부터 빌려서 상륙작전을 위한 군단사령부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결국 합동전략기획단은 8월 12일 극동미군사령부 작전계획 100-B를 하달하였다. 목표 지역은 인천-서울 지역이 특별히 지정되었으며 잠정적인 D-Day는 9월 15일이었다. 1950년 가을 인천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일자라고는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과 이 날짜들을 포함하여 전후 2~3일뿐이었다. 이미 1944년에 일본에 대한 총공격 계획 시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했던 미군으로서는 인천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즉 이에 따르면 10월은 기후 관계상 인천에 상륙하기가 너무 늦은 시기이다. 5월과 8월 사이에는 인천의 만조 때 물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10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는 비교적 수면이 높다. 9월은 전환기로서 인원과 장비를 상륙시키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춘 유일한 달이었다. 이렇게 기후 상황에 의하여 작전 개시 일자가 9월 15일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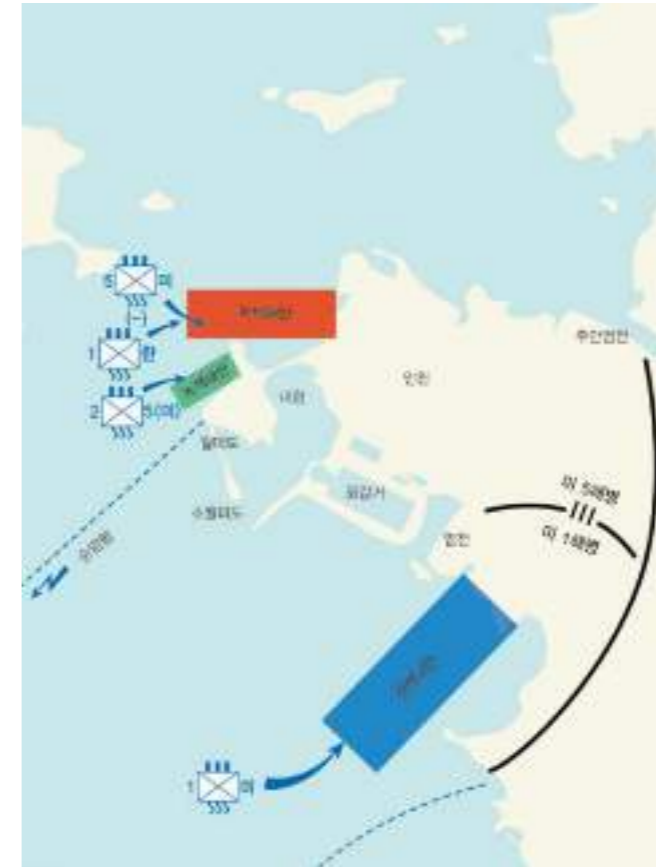
이 지역의 높은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해안 근방에 대기한 병력이 다음 만조 때까지 1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였다. 9월 15일의 만조시간은 오전 6시 50분과 오후 5시 20분이었다.

10) 월미도 공격

1950년 9월 12일 미·영 혼성의 기습 부대가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하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맹 포격을 가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동해안 지역의 포격에는 전함 미주리호가 가세하여 그 위용을 드러냈다.

9월 15일 첫 자정이 지나자 구축함을 선두고 공격부대가 인천 수로로 진입하였다. 구축함과 순양함 이외에도 3척의 로켓포함과 맥아더 장군이 탑승하고 있는 공격부대 기함인 마운트매킨리호도 동행하였다.

05:45분경 구축함이 월미도에 포격을 시작했고, 로켓포함이 해안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로켓포함이 월미도에 포격을 가하는 동안, 상륙정에 탑승한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가 공격 개시선을 통과하였다. 이들은 적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월미도 해안에 상륙하였다. 이어 제2상륙부대 및 제3상륙부대가 월미도 해안에 차례로



◆ 인천상륙작전 계획도(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 전투』1, 2017)

상륙하였다. 이들은 북한군의 수류탄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저항은 매우 미미하였다.

상륙 후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45분 미 해병대대장은 월미도를 완전 확보했다는 최초의 보고를 보내왔다. 소월미도에 대한 공격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월미도 남쪽으로 1km 정도의 방파제로 연결된 소월미도는 약 1개 소대의 북한군 병력이 방어하고 있었다. 제5해병연대 제3대대의 1개 소대가 공격하여 1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이를 확보하였다. 월미도와 소월미도에 대한 소탕작전은 정오경 완전히 정리되었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월미도와 소월미도에는 제918해안포연대 제2대대의 2개 포대 지원을 받는 북한군 육전대 소속 제226연대의 예하 부대 약 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미군은 손쉽게 교두보를 확보했다. 9월 16일 미 해병사단이 전진 교두보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진격작전의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총 손실은 전사자 4명과 부상자 21명뿐이었다. 완벽한 상륙작전의 성공이었다.

11) 상륙부대의 상륙

월미도의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공격부대 사령관 도일 소장은 오후 2시 45분 상륙부대의 상륙을 명령하였다. 여기에는 미 제5해병연대와 이에 배속된 한국 해병 제3대대, 미 제1해병연대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500정이 넘는 상륙 주정과 수륙 양용 차량에 탑승하여 상륙 준비를 완료하였다.

함포와 더불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미 해군, 해병대 항공기들이 해안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 미 제5해병연대와 미 제1해병연대가 중심이 된 상륙부대는 공격개시선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각각 작전구역인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에 상륙해야 할 각각의 부대는 공격 개시선이 적색해안은 2km, 청색해안은 5km에 설정되어 있었다.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 제3대대는 인천과 월미도로 이어지는 방파제 북쪽으로 상륙하여 인천역 및 지금의 자유공원 지역 쪽으로 상륙하여 점령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이들은 10시경에 목표지역을 점령하였다.

청색 해안으로의 상륙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미제1해병연대는 서울로 향하는 경인가도가 위치한 동인천역 및 수봉산 지역 쪽으로 상륙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그러나 미 제1해병연대는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 상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들은 목표 지역을 새벽 1시경에야 점령할 수 있었다.

12) 지원부대의 상륙

9월 15일 중 인천에 상륙한 병력은 약 1만 3,000명으로 450대의 차량을 포함한 장비와 보급품이 양륙되었다. 이러한 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연합군 모든 부대의 상륙은 적어도 5일이 예상되었다. 특히 한강도하 장비와 기타 상륙부대 및 지원부대의 필수품을 해상수송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다.

전형적인 상륙작전에 있어 군수 기능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색 해안은 9월 16일 21시에 폐쇄되었다. 9월 16일까지의 양륙 현황은 병력이 1만 5,000명 차량 1,500대 화물이 1,200톤이다. 향후 군수 지원면에서의 초점은 인천 내항 시설의 복구 및 활용 여부에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50년 5월 개정된 군 교범에 따르면 군수사령부의 유형과 병력

은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상이하였다.

1950년 8월 28일 B유형의 부대인 제3군수사령부를 창설했다. 본부 및 본부중대는 장교 118명, 부사관 16명 및 병사 285명을 인가받았다. 차후의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제10군단사령부와 협조하는 특별계획단 인원들이 제3군수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제3군수사령부는 제10군단에 군수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최초 계획은 상륙 후 30일 안에 인천에 상륙하여 군수지원사령부(ASCOM)나 기지사령부(Base Command)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군수사령부는 9월 10일에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9월 14일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선발대는 19일에 도착하여 3일 후에 인천 기지사령부 운영에 착수하였다. 사령부의 나머지 인원들은 9월 26일에 도착하였다. B형의 제3군수사령부는 9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7만여 명의 제10군단을 지원하였다. 제10군단은 10월 1~17일 기간 동안 인천-서울 지역을 출발하였으나, 제3군수사는 부평에 잔류하여 미 제8군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1950년 12월에 인천에서 철수하기까지, 사령부는 미 제8군의 20만 명의 전투 병력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1950년 11월에 제3군수사령부가 제10군단에서 제8군으로 전환되자 미 제8군은 제3군수사령부를 부산에 있는 제2군수사령부에 배속시켜 그 통제 하에 인천-서울 지역의 전방기지로 운영하였다. 미 제8군이 10월과 11월에 서해안을 따라 신속하게 북진을 하던 시기에, 제3군수사령부는 평양에 전방본부를 설치하였다.

평양의 전방본부는 미 제8군이 중공군의 압박에 후퇴함에 따라 1950년 12월 3일에 긴급히 폐쇄되었다. 전투부대가 후퇴함에 따라 제3군수사령부는 인천항 운영을 시작하여 병력과 물자를 소개시켰다. 부피가 큰 품목과 고정 시설물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모든 물자와 장비가 소개되었다. 제3군수사령부는 12월 19일에 마지막 전투부대가 배를 탄 후 수 시간 후에 부평을 떠나 부산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 지역의 제2군수사령부로 흡수되었다.

13) 인천 지역의 회복

1950년 9월 16일 오후 맥아더 장군은 인천으로 상륙하려는 미 제1 해병사단장 스미

스(Oliver P. Smith) 장군에게 “김포비행장을 가능한 조기에 탈취하라”는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107연대와 제18사단 분산 병력을 모아 4개 대대로 재편성한 후 김포·부평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있었다.

서울을 향하여 해안교두보선을 넘어서는 한미 해병부대들 앞에는 중간 목표로서 장악해야 할 김포비행장과 영등포, 그리고 자연장애물로서 극복해야 할 한강 등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김포비행장의 조기 확보였으며, 아울러 영등포 탈취를 위해 경인(京仁) 국도가 중요한 공격 축선으로 설정되었다. 9월 16일 오후 4시에 하달된 미 해병사단의 작전명령 5-50에 의하면, 9월 17일 오전 7시 동시공격을 하게 될 2개 연대 중 제5연대에 김포비행장이, 제1연대에 영등포 지역이 각각 목표로 설정되었고, 경인 국도를 횡단하는 소사(素砂) 동쪽에 제1연대의 목표 고지가 있었다. 미 해병대는 인천-서울 가도를 중심으로, 제1연대는 가도 남쪽을 제5연대는 가도 북쪽 지역을 할당받아 공격 전진하고 있었다. 상륙군의 돌격 연대는 D일에는 해안 사정으로 중장비 양륙이 늦어 포병과 전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적의 저항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다.

14) 부평 지역의 전투

9월 16일 밤 미 제5해병연대와 제1연대는 부평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까지 진출하여 부평 지역의 서쪽 경인가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미 제5해병연대 제2대대는 진지 부근으로 통과하려던 북한군 트럭 1대를 노획하고 북한군 장교 1명과 10명의 병사를 생포하였다. 9월 17일 새벽 경인가도의 오른쪽 186고지에서 전초부대가 도로상에 북한군 T-34 전차 6대와 200여 명의 적이 서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적들은 미 해병대의 진지를 알지 못하였다. 적 전차는 대대 전초진지 앞을 지나 원통이고개를 내려갔다. 대대는 적을 제압한 후 급속 전진하여 9월 17일 오후 이미 부평을 지나 김포비행장 서쪽 효성동까지 진출하였다. 미 해병 선두대대가 전진하고 있을 때 한국 해병 제3대대는 9월 17일 오전 6시경 부평역 서남고지에 진출하여 미 해병대대를 지원하였다. 그 후 한국 해병 대대는 미 해병들이 진출하기에 앞서 오전 7시부터 부평 지역 탐색전을 개시하였다. 대대 선두는 부평역 바로 북쪽 언덕(37고지)과 조병창 서쪽 고지(46고지)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대대는 미 제5해병연대의 지원을 받아 즉시 적을 소탕하였다. 미 해병 대대는 오전 9시 인천·서울가도에서 좌측방향 김포로 향하는 도로로 접어들었고, 한국 해병 대대는 오전 중 소탕작전을 전개한 후 오후 늦게 진출을 재개하였다.

한편 9월 17일 이른 아침 맥아더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마운트 매킨리 호를 떠나 미 제1해병연대 지휘소까지 방문하였다. 맥아더 장군 일행은 연대 지휘소로 이동 중 아군 항공기에 의해 파괴된 5대의 적 전차를 시찰하였고, 곧 원통이고개까지 당도하여 전선을 둘러보았다.

한국 해병대는 미 제5해병연대와 같이 인천시가 전투를 마치고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하여 부평을 점령한 다음 계속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이날 해병대사령부는 구 부평에 지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때 미 해병대 일부는 효성리를 경유하여 한강변에 있는 정곡리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북한군 패잔병들이 도주했으므로 김포 일대가 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김포비행장에 대한 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 해병 제3대대는 9월 18일 독립적으로 김포와 부평 간의 모든 지역을 경비하고 잔적을 색출 격멸하는 임무를 맡았다. 대대는 당일로 기동하여 오후 7시에는 박촌리까지 진출하였다. 같은 날 인접부대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연희리를 거쳐 정곡리로 진출하였고, 한국 해병 제2대대는 부평에 진출하여 미 제5해병연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국 해병대는 9월 21일까지 김포반도의 적 주력부대를 거의 소탕하여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하였다. 이어 제3대대는 제2단계 작전에 따라 김포읍 이북에서부터 한강 연안지역, 그리고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평정과 잔적 소탕을 담당하였다. 제3대대는 문주산과 성동리 그리고 한강하류 일대의 적 패잔병을 소탕하여 김포 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 해병사단은 9월 16일부터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시작하였다. 인천 지역의 소탕작전은 미미한 피해를 입고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김포비행장의 조기 확보였다. 김포 비행장은 한강 이북으로의 작전 수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부평 지역의 전투는 주로 서울 수복을 위한 미 해병 제1사단의 진격로를 중심으로 벌어진 셈이었다. 미 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는 16일 밤 부평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원통이고개 일

대의 주요 고지에 배치되었다.

김포비행장 탈환 임무는 미 해병 제5연대에 주어졌다. 그런데 김포비행장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평 지역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는 부평 지역의 작전을 실행한 이후 김포비행장 탈환 작전을 전개하여, 9월 17일 저녁에 이를 탈환할 수 있었다.

미 해병 제5연대가 부평과 김포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미 해병 제1연대는 경인국도를 따라 영등포를 향해 진출하였다. 결국 9월 18일경 미 해병 제1연대는 소사 동쪽 지역의 원미산을 탈환함으로써 인천 지역을 완전히 수복하였다. 인천 지역의 완전 수복과 함께 인천 시정도 어느 정도 복구되어 시정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15) 인천 지역에 포로수용소 설치

미 제8군은 1950년 7월 초 부산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재 부족으로 보류했고, 제24사단 헌병중대가 대전에 처음으로 수용소를 설치했다. 공주와 조치원은 포로집결소를 설치하여 포로들을 대전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후에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하면서 제25사단이 영천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했고, 제24사단에서는 영동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포로들이 대구로 이송되었다. 7월 14일 미 제8군은 부산에 수용소 건설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하여 18일 500명 단위의 수용소를 건설할 곳을 정했고, 24일까지 수용소 외곽에 철조망이 건설되었다.⁶¹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선의 포로집결소에서는 포로를 텐트나 노지 혹은 농가 등에 임시 수용했다가, 사단과 군단별로 합친 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임시수용소로 이송시켰다. 전선에서 떨어진 임시 포로수용소는 비교적 규모가 컸다.⁶²

인천상륙작전 후 늘어나는 포로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평양, 대전, 원주 등지에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인천포로수용소는 인천소년형무소를 개조한 것으로 수용 능력이 2,500명 정도였다. 수용소장과 경비는 미군이 담당했다가 1950년 10월 25일 한국군 제32포로경비대대가 배치되었다. 상륙작전 직후인 9월 말에 6,000여

61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도서출판 선인, 2010, 74쪽.

62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만인사, 2000, 102쪽.

명이었던 포로들이 11월 초에 3만 2,107명으로 늘어나서 2개 동이 더 건설되었다. 중국군 개입 이후 전세의 악화로 1950년 12월 폐쇄되었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포로들은 인천역에서 기차로 혹은 항구에서 수송선과 화물선으로 부산 수용소로 이동했다.⁶³

2. 반격 및 휴전과 부평

1) 1·4 후퇴와 인천으로부터의 철수

북진과 평양점령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으로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던 6·25전쟁은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새로운 전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이남으로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인천 지역의 경우 12월 24일 시민 「소개령」이 발표되었고, 1951년 1월 3일에는 대부분이 철수하여 1월 5일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시내는 텅 빈 상태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철수 상황에 따라 1월 4일 인천항의 폐쇄를 명령하고, 인천항, 김포공항, 부평보급소 등지에 있던 군수물자를 모두 파괴했다.

2) 38도선의 재돌파와 전세의 격화

중공군의 공격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국군 및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반격 작전을 개시하였다. 1월 15일에는 ‘울프하운드(Wolf-hound)’ 작전, 25일에는 ‘선더볼트(Thunderbolt)’작전, 2월 5일에는 ‘라운드 업(Round-up)’작전이 개시되었다. 이에 공산 측은 2월 11일에서 18일 사이에 2월 공세를 펼쳤으나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3월 7일에는 리퍼(Ripper)작전이 개시되었고, 15일에는 서울이 수복되었다. 유엔군은 지역의 확보보다는 공산군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안을 두고 협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및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 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중공군의 반격(제4차 공세: 1951.2.11.~18.)에 부딪쳐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이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국군 및 유엔군은 3월 15일 1·4후퇴 이후 70

63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도서출판 선인, 2010, 75쪽.

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이의 여세를 몰아 전진을 계속하여 3월 말에는 38도선을 또다시 회복하였다.

3) 전선의 교착과 맥아더의 해임

중공군의 다섯 번째의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가 시작되었다. 이 공세는 중공군의 참전 이후 최대병력이 동원된 마지막 공세이기도 하였다. 당시 중공군의 가용 병력은 4개 병단, 16개 군, 51개 사단 규모였다. 중공군은 이 병력과 북한군을 총동원하여 4월(4.22.~30.)과 5월(5.16.~22.) 두 차례에 걸쳐, 4월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 5월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전력을 집중시켜 총공세를 취하였다. 국군 및 유엔군도 사력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였으며, 무제한적인 화력을 운용하여 이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이들의 공세는 저지되었다.

중공군의 춘계공세는 양측 사이의 서울공방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던 작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군 및 유엔군은 이러한 대규모적인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곧 반격 작전을 계속하여 5월 말에는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도 그 북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유엔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세는 유리한 상태에 있었으나 전쟁 전의 원상상태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으며, 중공군이 수세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춘계공세 이래 연이은 치명적인 손실로 인하여 급격한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공격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때부터 전선은 고착화되었고,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인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하였다.

3월 말에 이르러 전선은 38선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는 38선 북진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었다. 중공군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확전 여부를 둘러싼 미 행정부 내의 논쟁은 이미 심화되고 있었다. 논쟁의 초점은 전쟁을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휴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국무성의 주장과, 중국에 대한 공격까지 허용하는 확전 또는 38선 북진을 주장하는 맥아더 중심의 군부 주장 사이의 대립이었다. 이

러한 대립 과정에서 확전과의 우두머리인 맥아더가 4월 11일 해임되었다.

4) 전선의 교착과 휴전의 모색 및 제한전

6·25전쟁이 개시된 이후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일진일퇴를 거듭한 격동의 1년이 지나고, 쌍방은 다시 형성된 38도선 부근의 새로운 전선에서 상호 대치하게 되었으며, 전투는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유엔군과 공산군이 전쟁을 제한함에 따라 전쟁의 정치적 해결, 곧 휴전협상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모색은 1951년 5월 말과 6월 초 미국의 케난과 소련의 말리크 사이의 비밀 접촉으로 시작되었고, 6월 23일 말리크의 ‘평화의 가치’라는 국제연합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의되었다. 이에 호응한 유엔 측의 제의를 북한과 중국 측이 수락함으로써 드디어 2년여에 걸친 휴전협상의 서막이 7월 10일 시작되었다.

휴전회담이 개시될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양측은 협상이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휴전회담 기간 중의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전투는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한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5) 휴전 협상 과정과 내용

휴전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협상 기간, 쟁점, 합의 내용 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휴전 협상 과정의 주요 내용

사안	기간	쟁점	합의 내용
의제 및 의사일정	1951.7.10. ~7.26.	• 유엔 측 : 군사 문제 중심 • 공산 측 : 정치 문제 포함	• 5개항 채택
군사분계선 문제	1951.7.27. ~11.27.	• 유엔 측 : 제공 제해권을 보장한 현전선 • 공산 측 : 38선	• 현지상전선, 양측 2km 비무장지대
휴전 감시문제	1951.7.27. ~1952.5.2.	• 북한 내 비행장 복구 및 건설 금지 • 휴전감시 출입지역 • 휴전 감시기구 구성	• 휴전감시 출입지역 : 쌍방 5개소 • 휴전 감시기구 구성 : 체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전쟁 포로문제	1951.12.11. ~1953.5.2.	• 유엔 측 : 자유송환원칙 • 공산 측 : 강제송환원칙	• 자유송환원칙에 유리하게 합의
관련 각국 건의문제	1952.2.6. ~1952.2.19.		• 협정 조인 후 3개월 내 정치회의 개최

❖ 출처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2.

휴전협상에 임하는 유엔 측은 군사 문제만을 취급하고자 했던 반면 공산 측은 외국 철수 등의 정치문제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 문제는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문제로 처리되어 전후로 넘겨지게 되었다. 의제는 ①의제 및 의사일정 채택, ②군사 분계선 설정, ③휴전감시 방법 및 기구 구성, ④전쟁포로 처리, ⑤관련 각국 정부에 대한 건의 등 5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1951년에는 주로 군사분계선 문제가 논의되었다. 유엔 측의 주장은 자신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보상해주는, 따라서 지상 접촉선보다 북쪽의 선을 제시했다. 공산 측은 38도선을 제시했다. 양측의 교섭은 8월 22일에서 10월 25일까지 한차례의 중단을 거친 후에 다시 재개되어 지상 접촉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 측이 공산 측이 점령하고 있던 개성을 포함한 서부전선 일부와 유엔 측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전선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교섭은 다시 난관에 봉착하였다. 결국 유엔 측이 자신의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11월 27일 쌍방은 지상의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로부터 양측 2km를 비무장지대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사이에 유엔 측은 공산 측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미 공중폭격을 통하여 북한의 대부분을 초토화시켰던 미국은 8월 15일부터 공산 측의 통신망과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교살(Strangle)’작전을 수행하였다. 9월과 10월에는 ‘허드슨항(Hudson

Harbor)’작전에 의해 북한 상공에서 모의 원폭 투하 비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지상전선에서도 유엔군은 8월 중순 이후 10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하계공세와 추계공세를 감행함으로써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켰다.

1952년에는 휴전감시 문제와 포로 처리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휴전감시 문제에 대한 유엔 측의 입장은 북한 내 비행장의 복구와 건설을 중지하고, 휴전감시 출입지역을 남북한 전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1951년 중반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 공산 측의 공군력을 약화시키고, 대부분의 병참 지원을 일본에서 지원받는 유엔군의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 전역을 감시지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반면 공산 측은 비행장 복구 건설 문제 논의를 거부하고, 휴전감시 출입지역을 제한하며, 감시기구로서 정전위원회와 별도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결국 휴전감시 문제는 1952년 5월 2일 휴전감시 출입지역을 쌍방 5개소로 하고, 휴전감시 기구로 체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등 4개국의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문제는 양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협정 조인 후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6) 휴전협상의 난항과 포로문제를 둘러싼 대립

1952년 5월 현재 합의되지 않은 문제는 전쟁포로 문제뿐이었다. 포로 문제는 유엔 측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원하는 포로만 송환하자는 ‘자유송환원칙(자원송환원칙)’을 내걸고, 공산 측이 제네바협약에 의한 ‘자동송환원칙(강제송환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해결이 지체되고 있었다. 유엔 측의 주장대로라면 원래 유엔 측이 제시한 13만 명의 공산 측 포로 중 8만 명만이 송환될 수 있었다. 공산 측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 심사와 그 과정에서의 고문, 살해 등에 저항하여 공산 포로들이 수차례에 걸쳐 폭동을 일으켰다. 결국 포로 처리 문제의 이견으로 인해 휴전협상은 1952년 10월 8일 다시 중단되었다.

휴전의 분위기는 1953년에 들어서야 분명해졌다. 새로이 미 대통령에 취임한 아이젠하워는 6·25전쟁을 종료시켜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스탈린 사후 소련의 새 지도부 역시 종전을 원했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는 군사적 압력을 통하여 종전을 모색했다.

7) 휴전의 성립

이러한 가운데 양측은 포로 문제에 합의하였다. 우선 4월에 병상포로가 교환되었다. 4월 26일에는 중단되었던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결국 양측은 귀국 희망 포로는 송환하고 귀국반대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계하여 그 의사를 확인토록 하였다.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은 포로들은 ‘정치회의’에 넘기며, ‘정치회의’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포로들은 민간인으로 석방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이 6월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했다. 이승만을 제거하고자 하는 ‘상비(常備, Everready)’ 계획까지 세웠던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전협정의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한 공약의 강화를 약속함으로써 그를 달랬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으며, 이날 오후 10시를 기하여 모든 적대 행위가 종식되고 휴전이 성립되었다.

8) 부평의 재미군기지화

1951년 봄 유엔사령부가 서울 인천 지역을 탈환했을 때 부평은 미 해병대와 전방 지역의 신병 교대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인천 지역이 수복되자 미군은 해방 이후 5년간 주둔했던 옛 인천육군조병창 자리에 보급부대를 다시 설치했다.



❖ ASCOM의 제79병참대대의 조감사진(1952.8.30.)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또한 이 지역에 1953년 3월 포로 제10수용소를 설치하여 1천 500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수용하였다. 현재 부영공원은 북한군 포로수용소(송환반대, 약 1,400명)가 위치했던 자리이다. 이곳에는 1954년 1월 중국으로 송환을 거부한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중국인포로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953년 12월 23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포로 설득작업이 완료되자, 중화민국 정부는 포로 영접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1월 20일 오전 9시 포로가 공식적으로 교환되어 포로들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비무장지대에서 나온 포로들은 트럭 16대로 각 차량에 3,000명씩 탑승해 부평 미 군수지원사령부에 도착 후 하차하여 등기를 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소독 및 식사를 했다.⁶⁴ 그리고 원래의 차량에 다시 탑승해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중공군 포로들이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2천여 명의 화교대표와 남녘학생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환영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중화민국으로의 포로 인계 작업은 부두 근처의 16개 장막에서 진행되었다. 16대 차량으로 이동한 포로들은 인천항에 도착해 16개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유엔군 및 중화민국 군관이 한 명씩 출석을 불러 인수인계했고, 그 후 쌍방이 서명했다.

정식 서명은 1월 23일 오후 4시 제8군 사령부에서 거행되었다.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해 제8군 군단장 테일러가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는 백선엽, 중화민국 대표로는 레이밍탕이 참석하였다. 서명은 테일러 장군, 백선엽 장군이 한국 측 포로 문건에 서명했고, 포로들의 총수는 1만 4,220명이었다.⁶⁵

포로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LST 15대로 이송되었다. 열차에 탑승했던 264명의 상해 포로 중 143명은 비행기 6대로 타이완으로 갔고, 경상자는 세 번째 LST에 편입되어 운송되었다. 1954년 1월 22일 모든 중공군 포로가 인천항을 떠났다.⁶⁶

64 박영실, 「타이완행을 선택한 한국전쟁 중공군 포로 연구」, 『아세아연구』59(1),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199쪽.

65 박영실, 「타이완행을 선택한 한국전쟁 중공군 포로 연구」, 『아세아연구』59(1),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200쪽.

66 『조선일보』, 1954년 1월 23일자.



❖ 부평 ASCOM 지도(출처 : NARA)



❖ ASCOM에서 인천항으로 이동하는 수송 차량에 탑승한 중공군 반공포로(1954.1.22.)(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표 3 반공포로 현황 통계

(단위 : 명)

수용소명	수용 인원	탈출 인원	사망	잔류 인원
거제리	3,065	392	1	2,672
영천	1,171	904	1	266
중동(대구)	476	232	2	242
광주	10,610	10,432	5	173
논산	11,038	8,024	2	3,012
마산	3,825	2,936	3	886
거제리(부산)	4,027	3,930	-	97
부평	1,486	538	42	906
합계	35,698	27,388	56	8,254

❖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육군본부, 1956, 137쪽.

3. 6·25전쟁과 남북한 내부 체제

6·25전쟁은 남북한 내부체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공산 측과 유엔 측이 번갈아 남북한을 점령했을 때 상대방 체제를 파괴하고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시도에서, 또한 전쟁의 잔혹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이 일시 동요되었던 자신의 체제를 재구축하고 그 속에서 남북 양측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의 와중에서 시도된 이러한 남북한 체제의 위기와 재구축 과정에서 남북의 민중들은 한편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동원되어 희생되기도 하였다.

1) 남한 체제의 재구축과 이승만의 권력 강화

북한군이 남한을 휩쓸고 물러간 후 이승만 정권은 남한 체제를 재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다시 강화시켰다. 남한 체제 재구축의 우선적인 과제는 일단 좌익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우선 좌익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점령 기간 중의 부역자들을 처리해야 했고, 남한 지역 내의 무장유격대를 진압해야 했다. 1950년 10월 4일 공식 출범한 군·검·경찰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역자 수는 55만 915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회에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고, 대신 「국가보안법」이나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대한특별조치령」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였다.

한편 북한군의 후퇴 시 남한 지역에 남았던 좌익들은 무장유격대를 조직하여 1951년 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격대 활동은 1951년 ‘취잡기 작전’과 1951년 겨울, 1952년 겨울의 동계 토벌로 인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부역자 처벌과 무장유격대에 대한 진압을 통해 남한에서 좌익적 요소를 근절할 수 있었던 이승만 정부는 전시분위기를 이용하여 체제 내부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곧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통하여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장기집권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전쟁 직전 5·30선거로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던 이승만은 전쟁에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호기를 찾았고, 전쟁이 만들어준 반공의 절대적 명분은 그 후 독재 권력이 강화될 수 있게 만든 가장 효과적인 통치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이다.

2) 북한 체제의 재구축과 김일성의 권력 강화

유엔군의 점령으로 체제의 붕괴 위기에 직면했던 북한은 1950년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모색하였다. 우선 6개월 동안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군과 당의 결합이 지적되고 그 책임이 추궁되었다. 군에서는 김열, 김일, 무정, 김한중, 최광 등이 책임을 추궁당했다. 당에서는 립춘추, 조진성, 박광희 등이 출당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반 주민의 수준에서도 유엔군에게 협력했던 자들을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와 무의식적으로 가담한 자로 구분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 좌경적 편향을 드러냈고, 당의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51년 11월에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관문주의적 책벌주의적 오류가 비판되었고, 주민과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당 조직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허가이가 철직 처분을 받고 유명무실한 부수상으로 밀려났다. 제4차 전원회의 이후 당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952년 12월 제5차 전원회의

에 이르기까지 백만 명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전쟁 책임과 관련하여 권력을 강화시킨 바 있는 김일성은 제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남로당계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전원회의 이후 전개된 전원회의 문건토의사업에서 박헌영과 이승업을 중심으로 한 ‘간첩종파집단의 반국가적 죄상’이 당원들에게 학습되었다. 이들의 혐의는 간첩행위, 남조선 민주역량의 파괴, 공화국 전복을 위한 무장폭동행위 등이었다. 요컨대 북한에서도 종전과 더불어 북한 체제가 강력하게 재구축되었고 그 속에서 김일성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3) 인적·물적 손실

6·25전쟁의 인적 손실은 단일 전쟁으로는 어느 전쟁보다도 피해가 막심하였다. 남북한 각각 약 50만 명과 70만 명이 사망하여 120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기록하였다.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이 세계전쟁사상 어느 전쟁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이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참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6·25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외국 군대의 피해를 보면 중공군 약 18만 4,000명,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3만 6,000명이 희생되었다. 실종자와 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남한은 약 137만여 명, 북한은 258만여 명, 중공군 73만여 명, 유엔군 12만여 명 등 약 480만여 명에 달한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6·25전쟁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적 손실 또한 심각한 것이었다. 6·25전쟁은 일제의 엄청난 수탈에 의하여 취약하게나마 존재하였던 사회·경제적 재생산 기반마저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다. 남한의 총 피해액은 4천 123억 환(圓)이며, 북의 피해액은 4천 200억 원이었다.

표 4 남한, 북한, 중공군 피해상황

(단위: 명)

구분	지역	남한		북한		중공군
		민간인	군인	민간인	군인	
사망		373,599	137,899	282,000	520,000	141,000
부상		229,625	450,742		-	220,000
실종		387,744	24,495	796,000	120,000	29,000
합계		990,968	621,479	1,078,000	640,000	391,000

❖ 출처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4.

4) 분단의 고착화와 체제의 이질화

6·25전쟁은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서로를 적대시하는 삶의 양식을 뿌리 깊게 이식시켜 주었다. 6·25전쟁은 또한 남북한 인구의 이동을 통한 사회체제의 재편을 가져왔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웠던 지주-자본가 계급의 이동은 물론이고 미군의 공습을 피한 농민의 월남도 상당수 있었으며 6·25전쟁을 틈타 월북하게 된 남한 내의 공산주의자도 중요한 인구 이동의 부분이었다. 따라서 6·25전쟁은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동질화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5) 국제적 영향

6·25전쟁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군사대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였다. 6·25전쟁을 서방세계에 대한 소련의 간접적인 도발로 인식한 미국은 서방 진영의 군사동맹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을 전후로 42개 우방국들과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며, 2,700여 개의 해외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봉쇄 정책의 세계화를 실현하게 되었고 세계의 최강국으로서 국제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서독의 재군비를 돕고 서독을 포함하여 1949년 4월에 조인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체의 군비를 강화시켰으며 일본의 재군비와 경제 부흥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소련은 소련대로 1949년 결성된 경제원조협의회 코메콘(COMECON)을 기반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1955년에 결성함으로써 미소 간의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 체제는 강화되고 완성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소련-중국-북한의 '북방삼각

관계'에 대치되는 미국-일본-남한의 '남방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한국전쟁특수'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나라로서 일본의 전후 경제 부흥은 6·25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6·25전쟁은 미국의 대일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48년 말 일본 총생산량은 1930~1934년도 수준의 단지 64%에 불과했고, 해외 무역은 더욱 저조하여 총무역량은 1937년 수준의 20%에 불과했다. 그 결과 1946년 무역적자가 2억 300만 달러, 1947년에 3억 5,200만 달러, 그리고 1948년에는 4억 2,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6·25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1950년 6월 일본 경제는 자본도 부족하고 상품 수출시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일본은 1949년까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6·25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급전시켜 1950년 말까지 국제수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 산업 전체가 6·25전쟁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 따라 일본 회사들의 평균 순이익률은 1949년도의 2.5%에서 1952년도에는 10%로 증가하였다. 1951년과 1953년 사이 일본은 외화 수입의 약 50~70%를 6·25전쟁에 대한 군수품 납품으로 얻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일본의 군수품 납품은 11억 달러를 넘어섰다.

6) 휴전 후 부평 재미군기지화

휴전 이후 부평의 애스컴 시티는 본격적인 후방지원사령부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애스컴 시티에는 제6의무보급창, 제4통신대, 제55보급창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60년대까지 지원부대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 부평 주둔 미군은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하여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곡동 일대에 상이군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화랑농장의 설치였다. 1953년에 창설된 화랑농장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1955년에는 신축 건물을 세우기까지 하였다.⁶⁷

그러나 1971년 6월 미 제121후송병원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1973년 1월 주요 시설은 왜관외 캠프 캐럴(Camp Carroll)로 이전되고, 애스컴의 주요부대인 제69수송대대, 제30병기중대, 제595정비중대, 제199인사중대 등도 이전되었다. 1973년 6월 30일 애스

67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화랑농장』, 부평역사박물관, 2019, 25~29쪽.

캠 대부분은 한국 국방부에 이관되고 애스컴 시티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캠프 마켓만이 남게 되었다. 2002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에 의해 김포 우편시설은 2005년 한국에 이관하고 2008년까지 이전을 결정하였다.

캠프 마켓은 미 용산기지의 지부로 부평에 위치하고 있다. 직전까지는 군수품재활용센터(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DRMO) 및 부대배치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020년 현재는 한국 전역 미군에게 제공하는 빵 제조공장만이 남아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캠프 마켓은 34개의 창고와 600명의 직원 [KSC(한국노무단)/계약직]이 근무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기능이 용산과 평택 등지로 이전되었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고든 L. 리트먼 저, 김홍래 역, 『인천 1950.』, 플래닛미디어, 2006.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韓國戰爭)』상·중·하, 국방군사연구소, 1995~199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戰爭史)』1~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01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3) : 낙동강방어작전기(韓國戰爭史(第3卷) : 洛東江防禦作戰期)』,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資料大韓民國史)』, 국사편찬위원회, 1968~2008.
- 김경일 저, 홍면기 역,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논형, 2005.
-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두레, 1998.
-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 김철범, 『한국전쟁과 미국』, 평민사, 1995.
- 김학준, 『한국전쟁 : 원인·과정·휴전·영향(개정증보판)』, 박영사, 2003.
-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韓美 軍事 關係史) :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데이비드 바인 저, 유강은 역, 『기지국가』, 갈마바람, 2017.
- 데이비드 콩드 저, 최지연 역, 『한국전쟁, 또 하나의 시각』 I·II, 과학과 사상, 1988.
- 도널드 스티븐 맥도널드 저,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역, 『한미관계 20년사 : 1945~1965 해방에서 자립까지』, 한울, 2001.
-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 나남출판, 1996.
- 브루스 커밍스 저,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인민무력부 전쟁경험연구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2, 사회과학출판사, 1973.





신복룡, 『한국분단사자료집』 III-3, 원주문화사, 1992.
 오코노기 마사오 저, 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96.
 와다 하루끼 저,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백년동안, 2015.
 이상호, 『한국전쟁』, 섬앤섬, 2020.
 이완범, 『38선 획정의 진실』, 지식산업사, 2001.
 이완범, 『한국전쟁 - 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4) :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행림출판, 1992.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주지안룡 저, 서각수 역,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외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4, 중앙일보사, 1983.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03.
 프랑크·코발스키, 『日本再軍備(勝由金次郎 譯)』, 東京 : サイマル出版會, 1984.
 竹前榮治, 『GHQ』, 東京 : 岩波書店, 1983.

논문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 사전인진설과 전략적 후퇴에 대한 반론」, 『군사』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이상호·박성진,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 『정신문화연구』3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이원덕,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연구 : 1947~1949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정용욱, 「미군정기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방한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동양학』30, 2000.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MA, RG 5,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1945-51.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NARA, RG 338, Eighth U.S. Army, 1944-1956, Adjutant General Section, Security-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8th Army, 319.1 (ORO) to 319.1 (PDS).
 NARA, RG 338, Records of U. 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office of the Inspector.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 Washin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 VIII : The Far East. Washin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ol. VI : The Far East, Washin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 VI :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 IX : The Far East : China, Washin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 Korea, Washin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Ellis A. Johnson, 1906-1973," Operations Research, Vol. 22, No. 6, 1974.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Bevilacqua, Allan C.,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September 2000.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s, 1987.
 Chief of Military History, Reports of MacArthur-MacArthur in Japan: The Occupation: Military Phase, vol. I , Supplement,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Dae-Sook Suh,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1921-1952," *Korean Studies*, Volume 2, 1978.
- Dorschner, Jim,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September 2005.
- Eiki, Takemae,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 Y: Continuum, 2002.
- Foot, Rosemary, *A Substitute for Victory-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Goncharov, Sergei N., Lewis, John W.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Heinl, Robert D.,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1998.
-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1965.
-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 Michael Schaller,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Mossman, Billy C., *Ebb and Flow: November 1950 ~ July 1951*, 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 Paschall, Rod., "A bold Strike at Inchon," *Military History*, 2002.
- Savvyer, Robert K.,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 Schaller, Michael,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 Stueck, William W.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Tucker, Spencer C. Editor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Santa Babara: ABC-CLIO, 2000.
-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 New York: The Free Press,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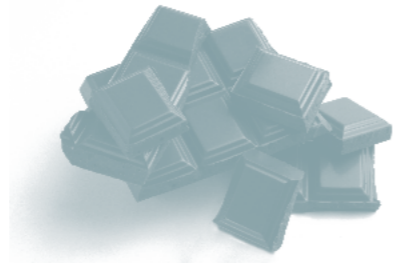
제 5 장

캠프와 기지촌 형성

제1절 _ 부평의 기지촌

제2절 _ 부평의 양키시장 형성과 부평의 변화

제5장 캠프와 기지촌 형성



김 정 아(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1960년대 말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여성이 동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인천 부평에 있는 ‘신촌’이라는 마을에서 신접살림을 차린다고 이야기하자 부평에서 군 생활을 한 동료가 “그 동네 아주 좋은 동네예요. 가면 좋은 구경 할 겁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여성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선 순간 동료의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혼하고 왔더니 동네가 그냥 판자 얽은 허름한 집인데 여자들이 염색을 하고 웃도 이상하게 입고 미군들이랑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고”¹

판자를 대충 올려 만든 허름한 집, 개천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식수로 사용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전후시대 대한민국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노랗게 탈색을 한 헤어스타일, 스스럼 없이 미군과 스킨십을 하는 여성들, 영어 간판이 더 많은 상

1 부평역사박물관 특별전시 「신촌 다시보기」 중 강명자 인터뷰(2015년 9월)

점들, 그리고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해지고 시끌벅적해지는 마을의 골목은 미국이라고 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듯 6·25전쟁 직후 부평은 전통적인 모습과 이국적인 모습이 공존하며 언제라도 두 공간이 충돌할 듯 아슬아슬한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평의 사람들은 부평기지촌을 탐탁치 않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기대었다. 기지촌 여성들이 존재함으로써 일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군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급속도로 얼어붙은 한국경제를 녹여 줄 젓줄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촌을 비롯한 부평기지촌은 미군과 한국인의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문화적 혹은 사회적 충돌의 완충 역할을 하였다.

기지촌을 통해 미군은 안전하고 고립된 지역에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가경제와 안보를 담보 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성산업의 형태, 기형적 산업 발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기지촌의 문제를 미군기지만의 문제로 고립화시킴으로써 국가의 문제라기보다 지역화, 개인화, 종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²

본 장에서는 전쟁 직후 부평기지촌의 형성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간 부평 사람들의 고단했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지촌 여성은 ‘양공주’, ‘양색시’ 더 속되게는 ‘양갈보’까지 다양하게 불린다. 미군 기지촌이 성행했던 1960~1970년대 신문기사나 국가기관 문서에서는 ‘미군위안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기지촌 여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참고문헌이나 기사를 인용한 경우 원문 그대로 표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이나영, 「기지촌 :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자화상」, 『황해문화』50, 새얼문화재단, 2006.

1. 부평기지촌의 형성

1945년 9월 인천항을 통해 미군이 들어왔다. 미군은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던 부평을 주둔지로 삼았다. 조병창은 일본군이 군수기지로 사용했던 곳으로 공장과 창고 등 건물이 꽤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은 이곳을 접수하고 장비나 보급품을 저장했다. 많은 수의 미군이 부평에 주둔하자 이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이는 부평 미군 기지촌으로서의 시작이었다.³

「혼혈문화」의 고향 「한국 속 아메리카」

인천항의 외곽지인 부평은 이들의 진주로 한국 최초의 기지촌으로 변했다. 징집된 미군들은 술과 여자들을 찾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난에 사무친 여성들이 구호품을 비롯한 군용 및 민수물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군부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판잣집일망정 술집과 간이여관 음식점이 생겨나고 윤락녀도 나타났다. 철조망 친 정문 앞 초소 부근을 오가며 미군들과 성거래를 하면서 이들이 화대로 받은 것은 잠바, 담배 등 군수물자였다.⁴

6·25전쟁으로 미군 철수와 재주둔이 이루어지면서 기지촌 역시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미군기지 주변 마을인 부평3동 신촌(新村), 부평2동 삼릉(三陵), 이 외에도 관동조(關東組), 다다구미(多田組) 등지에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각 기지촌은 나름대로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냈다. 신촌은 미군 클럽을 중심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주거지가 넓게 분포해 있었다. 산곡동 백마장의 기지촌 또한 비슷한 성격을 보였다. 삼릉은 기지촌 여성과 미군이 '계약 동거'의 형태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기지촌 중에서도 미군 물품이 가장 많이 또 활발하게 거래되던 공간이었다.

3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2, 172쪽;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등에서도 미군 기지촌이 처음 조성된 곳을 부평 신촌으로 보고 있다.

4 『동아일보』, 1995년 2월 10일자.

관동조와 다다구미는 모두 일제강점기 조병창 확장 공사에 참여했던 토목회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동조는 '관동주'라고도 불리며 산곡2동 주민센터 인근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는 개발되어 대부분의 집들은 사라졌다. 다다구미는 현재의 북인천우체국 인근 지역에 분포하였는데 미군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미군보다는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9년 『기호일보』에서는 경기도 내 기지촌 규모를 보여 주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부평기지촌이 종사자의 수가 1,500명 정도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1 경기도 내 '미군 위안부' 분포 상황⁵

(단위: 명)

지역	'미군 위안부' 수
부평	1,500
인천	200
파주	1,100
양주	900
평택	400
포천	350
안양	100
김포	100
연천	90
강화	20

부평은 기지촌으로 점점 더 유명세를 높였다. 1966년 『신동아』의 기사에는 당시 부평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이 2,000명 이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5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83쪽에서 재인용하였다.

스트리트·걸의 이모저모

언제적부터 누가 작명했는지, 양공주라고도 불리는 2천명을 헤아리는 이들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줄 인구(人口), 정확한 수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부평보건소 측의 말이다. 대략 신촌지구엔 5백여 명, 관동주(關東州)를 포함한 산곡동(山谷洞)일대(一帶)에도 5백여 명, 부평시장일원에 5백여 명씩 하나의 집단(集團)(?)을 이루고, 이 외에도 많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위 윤락여성(淪落女性)들을 위한다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시스템인 자치회(自治會)를 갖고 있다.⁶

부평기지촌 중에서도 신촌과 삼릉은 가장 대표적인 기지촌으로 꼽힌다. 기지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양공주’, ‘양색시’로 불리는 여성들과 ‘미군 클럽’, ‘양키시장’, ‘혼혈아’이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활발히 구현된 곳이 신촌과 삼릉이기 때문이다.

신촌과 삼릉은 같은 기지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었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미군부대 정문과 마주하고 있던 신촌에는 주로 일반 사병들이 찾았으며, 삼릉에는 영외생활이 가능하여 현지 처를 두고 계약 동거를 하는 장교들이 주로 살았다. 이웃하고 있는 두 마을의 이런 온도 차는 비단 미군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상대하는 미군의 계급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발생하였다.

양공주의 현황

동거양공주들의 월수는 대체적으로 최고 2백달러에서 최하 40달러까지다. 이 중엔 달러 대신 지불하는 화장품, 담배, 양주, 껌 등 각종 PX 물품이 포함된다. 모든 사회에 계급(階級)이 있듯이 이 사회에도 엄연한 계급이 있어 그 생활수준(生活水準)도 각기 다르다. 간혹 뛰어난 미모(美貌)와 유창한 영어로 미군의 인기를 얻어 월 3,4백달러의 높은 수입을 올리는 인텔리 양공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생활수준은 한국사회에서도 상급에 속할 정도로 높아 전축(電蓄)에, 텔레비에, 전화(電話), 선풍기 등을 고루 갖추고 마냥 호화롭다.

그러나 이런 급은 극소수(極少數)이고 이 반면에는 냄새나는 판잣집에서 한 달에 40달러 짜리 흑인(黑人)병사와 아귀다툼을 하며 살아가는 영세층(零細層)들이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위안부들의 경우는 운이 좋은 것이다. 일정한 상대를 가지지 못한 위안부들은 특히 여름철 같은 불경기에는 공치는 날이 많으며 며칠씩 가야 미군 한 명 끌지 못하고 끼니를 굶는 소위(所謂) 「히타리」(선도구역 밖에서 청객행위(請客行爲)를 하는 자)들도 많은 것이다. 이들의 하룻밤 몸값은 어떤 때는 50원이라는 험값으로 내려가고 있다.⁷

부평에서 미군과 계약 동거 경험이 있던 고 모 씨(1934년생) 역시 삼릉에는 미군 장교들과 계약 동거를 하는 여성들이 주로 살았고, 신촌에는 상대하는 미군을 찾아야 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은 계약 동거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할 수 있었던 삼릉에 비해 신촌의 여성들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삶이 더 피폐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촌의 여성들은 미군들의 눈에 더 띄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헤어스타일과 화장을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다른 지역 기지촌 여성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되어 화장이나 옷차림이 조금만 화려하면 “신촌년(여자)같이 꾸몄다”라는 조롱을 보냈다고 한다.⁸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을 만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출입허가증을 받아 부대 내 클럽으로 들어가 미군을 만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외출한 미군이 마을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하여 만나는 것이다. 빈도로 따지면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더 빈번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대 내 클럽 수가 미군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부대 정문과 마주하고 있는 신촌의 도로변(현 경원대로)에는 수많은 클럽이 줄지어 있었다.

6 『신동아』 9월호, 1966.

7 「양공주와 혼혈아」, 『신동아』 9월호, 1966.

8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성들(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영외 클럽은 이와 같이 미군기지 밖에서 운영된 클럽을 말한다. 이러한 클럽들은 ‘특수 관광업’의 형태로 허가를 받은 ‘특수 관광 시설업체’였다. 관세청에서는 이들 업체들을 ‘특정 외래품 취급업소’로 관리하며 ‘관세 면세제’의 혜택을 주었는데 1970년 경 전국에 169개소가 있었고, 이 중 인천은 47개소였다.⁹ 관세청의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평기지촌의 미군 클럽들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한국인들이 은밀하게 출입하기도 하였다.

순경과 여주인 목살 잡고 트집 관광할서 행패부린 박을 검거

4일 부평경찰서는 외국인만이 출입하는 관광홀에 들어가 외국 손님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제지하는 주인여자와 경찰관의 목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박○○(35=부평동 735)를 업무방해 폭행치상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 입건했다.

경찰조사로는 20일 11시 10분쯤 부평동 710 문○○ 여인이 경영하는 관광홀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며 유리컵을 깨뜨리고 만류하는 문 여인과 김○○양에게 폭행을 가하다 출두한 신촌파출소 김모 순경 목살까지 잡고 공무를 방해했다. 박은 이튿날 새벽 1시쯤 전기 관광홀 내실에 침입. 자고 있는 문○○ 여인에게 전치 3일 간의 상해도 입혔다.¹⁰

9 「특정외래품 취급업소 관세면제 폐지 검토」, 『매일경제신문』, 1970년 12월 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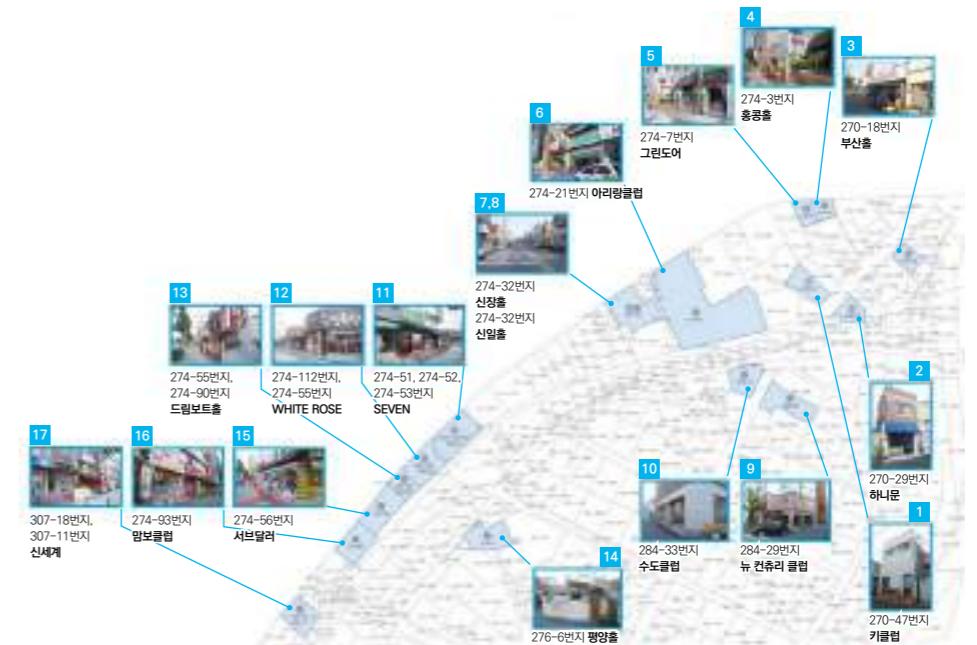
10 『경기매일신문』, 1964년 3월 4일자.



❖ 애스컴 시티 영내 클럽(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영내 클럽은 미군기지 내에서 운영되는 클럽을 말한다. 출입하는 계급에 따라서 대개 NCO club(하사관), EM club(사병), Officers club(장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외에 각종 여가시설을 갖춘 Service club도 있었다.

이러한 영외 클럽은 개업과 폐업이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의 클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2015년 부평역사박물관에서 1960년대 부평 신촌에 위치한 클럽의 위치와 상호를 복원한 결과에 따르면, 신촌의 전성기 때에는 약 20여 개의 클럽이 위치하였다고 한다.



❖ 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219쪽에서 재인용함.

신촌의 클럽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곳은 아리랑 클럽이었으며 그다음이 드림보트 클럽이었다. 신촌 지역 주민들도 이 두 개의 클럽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 클럽이 다른 클럽과 구분되는 것은 클럽의 규모뿐만 아니라 밴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밴드 공연이 돋보이도록 화려한 조명을 갖췄으며, 슬롯머신과 같은 오락기기도 마련되어 있었다. 아리랑 클럽이나 드림보트 클럽처럼 라이브 연주를 할 수 없는 중·소 규모의 클럽은 대략 20여 개의 테이블을 놓는 정도였으며, LP판을 이용해 음악을 틀고 영업을 하였다. 낯선 이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미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오른 유행곡을 확인하고 빠르게 음반을 구해오는 것은 클럽 주인들의 중요한 영업 전략 중 하나였다.

삼릉은 신촌보다 클럽의 수가 많지는 않았다. 밴드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클럽은 신촌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니버설 클럽과 원더랜드 클럽이다. 이들 클럽과 별도로 삼릉에서 경인철도를 넘어가면 아폴로 클럽이 있었다. 이곳의 클럽이 신촌의 클럽과 차이가 있다면 장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 유니버설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밴드 뮤지션(사진 구철성)



◆ 아폴로 클럽 정문(사진 구철성)

일반 사병이 주로 이용한 신촌과 장교가 주로 이용한 삼릉. 이처럼 이웃하고 있는 두 마을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낸 이유는 지리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정문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신촌의 경우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병들이 주로 이용하였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던 장교의 경우 시끌벅적한 신촌보다 조용한 삼릉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클럽을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는데, 바로 흑인과 백인이 이용하는 클럽의 구분이었다. 신촌의 클럽 역시 백인 클럽과 흑인 클럽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그 규정은 지켜졌다. 대부분의 클럽에서는 백인 병사들을 손님으로 받았고, 흑인 병사들의 출입이 가능한 클럽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시설이 좋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기지촌 여성에게도 적용되었다. 흑인 클럽에 소속된 여성은 백인 클럽에서 일할 수 없었고 백인 클럽 소속 여성 역시 흑인 클럽에서 일할 수 없었다. 흑인 병사가 백인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많은 돈을 주고 연애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백인 병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성들

은 헤어스타일을 통해 자신이 상대하는 미군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백인을 상대하는 경우 생머리를 한 뒤 자유롭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고, 흑인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파마를 하여 곱슬머리로 연출하였다.

“그 당시에는 검은애 색시는 머리를 바글바글 볶아. 백인 색시는 항상 이게 머리를 미장원에서 나 원래 곱슬이야. 미장원에 가서 이거 (머리카락) 피는 거야. …… 그래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뭐 파마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난 이걸 피려 가는 거야. 백인 색시니까. 그게 구별이 딱 돼 있었어”¹¹



❖ 신촌의 골목(사진 팀노리스)
뒤편에 키 클럽과 소울브라더 클럽의 간판이 보인다. 소울브라더 클럽은 흑인 전용 클럽이었다.

11 (사)햇살사회복지회, 「햇살 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Ⅲ, 2012, 45쪽.

2. 부평기지촌 형성에 따른 부평의 변화

부평기지촌 형성으로 인해 맞이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가게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때 생겨난 대다수의 가게는 미군과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다.

1959년부터 2006년까지 신촌에서 ‘에스컴사진관’을 운영한 김도석 씨(1935년생)에 의하면 부평기지촌이 가장 활성화됐을 때는 1960년대 무렵이었다고 한다. 사진관 역시 직원을 3명이나 고용하여 운영할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 사진관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미군이었으며, 간혹 기지촌 여성들이 여권사진을 찍으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일 년에 5~6번 정도는 미군과 기지촌 여성의 결혼사진을 촬영하였다. 결혼식의 경우 주로 부대 내 야외 혹은 인근의 클럽에서 이루어졌으며, 촬영은 뒤풀이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 김도석이 운영한 ‘에스컴사진관’ 모습(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1960년대에는 흑백사진이 대세였는데 김도석은 1960년대에는 흑백사진이 대세였는데, 김도석은 미국에서 수입한 오일 컬러로 채색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기지촌 여성들이 치장을 하고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영업 전략이었다. 온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욕탕에 들러 목욕을 하였고, 매일 다른 옷으로 치장하였다. 신촌과 삼릉 주변은 물론이고 부평시장에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양장점이 들어섰다. 또한, 새벽부터 머리를 매만지기 위해 미용실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미용실은 그 당시 가장 성행한 업종 중 하나였다.

1958년부터 신촌에서 ‘청과미용실’을 운영한 한정순 씨(1934년생)는 오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점심을 거르며 손님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 1960년대 신촌에만 청과미용실을 비롯해 경인미용실, 백마미용실, 은성미장원, 수정미장원 등 약 10여 개의 미용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사정은 비슷했다. 미용실을 찾는 손님은 전부 기지촌 여성이었다.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한가로이 미용실을 찾는 일반 주부는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다. 기지촌 여성이라면 누구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용실에서는 미용사뿐만 아니라 1~3명 정도의 보조를 두고 운영을 했다. 여성들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하면 고데기로 말아 그에 맞게 만들어주는 식이었다. 당시 부평기지촌이 전국에서도 유명했던지라 서울등지에서도 신촌으로 헤어스타일 연구를 위해 찾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정순은 하루에 60~70명의 여성들이 가게를 찾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머리를 한 후 그날그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나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지촌 여성을 상대로 하는 미용실이 성행에 따라 불법 영업을 하는 미용실도 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무허가미장원자격증 양부인대상으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소위 양부인들을 대상으로 각종각색의 장사꾼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허가 무면허 의사와 더불어 무허가 미용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요즈음 시 관계 당국에서는 무면허 의사 및 무허가 미장원 취제를 단행한 바 있었다 하는데 적발된 무허가 미장원을 동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산곡동 : 현대, 백마, 해연, 장미문화, 인천, 조창수부인, 미도파 외 3개소
- ▶ 부평2동(삼능) : 2개소
- ▶ 부평3동(신촌) : 3개소
- ▶ 부평일동 : 3개소¹²



❖ 부평 미군기지 주변에 들어선 기념품가게와 세탁소(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12 『동아일보』, 1955년 7월 18일자.



❖ 부평 미군기지 주변에 들어선 국제결혼 컨설팅 사무소(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미군기지 및 기지촌의 형성으로 이와 관련한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에 종사하는 비율이 인천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 애스컴 시티 주변지역인 부평동과 산곡동 그리고 청천동의 주민 중 서비스업이나 기타업을 가진 사람이 절반에서 3/4 정도에 이를 만큼 높았다.¹³ 부평수출공업단지가 활성화되는 1970년대까지 미군기지와 부평기지촌은 지역경제와 주민 생계를 지탱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한국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던 시절 기지촌 경제의 위력은 대단했다. 『한국관광 50년 비사』에 따르면, 1964년 미군 전용 홀에서 97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한국이 벌어들이는 외화 1억 달러의 10% 수준이었다.¹⁵ 미군 주둔으로 얻는 외화는 건설, 용역, 물품으로 구성되는 직접 군납 1억 달러와 불법 PX 경제 등을 제외하고도 연

간 1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¹⁶ 그중 경기도 내 미군 전용 홀 200여 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만 해도 연간 6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정부는 기지촌 홀들로부터 관광 진흥이라는 명목 하에 매달 일정 부분을 거두어 갔다.

부평기지촌의 형성은 경제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은 당시의 건물이 거의 헐리고 상업용 빌딩과 빌라가 들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신촌의 옛 가옥은 부평의 여타 가정집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¹⁷

가장 큰 특징은 대지 면적에 비해 방이 기형적으로 많은 구조의 가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건축 당시에는 ‘ㅡ’자 형으로 지었으나 방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ㄱ’자 형으로 개축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방을 연결한 ‘ㄷ’자 형의 가옥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세를 놓아 그 수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인데, 실제로 신촌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 중 과거 기지촌 여성들에게 월세로 방을 내준 경험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기보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이들을 ‘자치포주’라 한다. 반면 성매매 알선의 주요 거점인 클럽을 끼고 기지촌 여성들에게 클럽에 나가 술을 팔고 성매매와 호객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직접 알선하기도 한 이들을 ‘포주’라고 한다. 방이 많은 이러한 신촌의 가옥 구조는 ‘자치포주’와 ‘포주’의 존재에 따른 것이며, 이는 신촌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기지촌에서나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다.¹⁸ ‘포주’와 ‘자치포주’는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이들을 감시하고 착취했다. 감시를 위해 ‘포주’는 대부분 대문 근처의 방을 사용하며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였고, 여성들의 도망을 막기 위해 가옥 규모에 비해 현관을 좁게 만들었다.

13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35쪽.

14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185쪽.

15 이나영,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여성과 평화』5, 2010, 185쪽.

16 『신동아』, 1970년 9월호, 130쪽.

17 신촌의 주택 구조 특징은 부평역사박물관에서 2015년에 조사한 학술총서Ⅱ(『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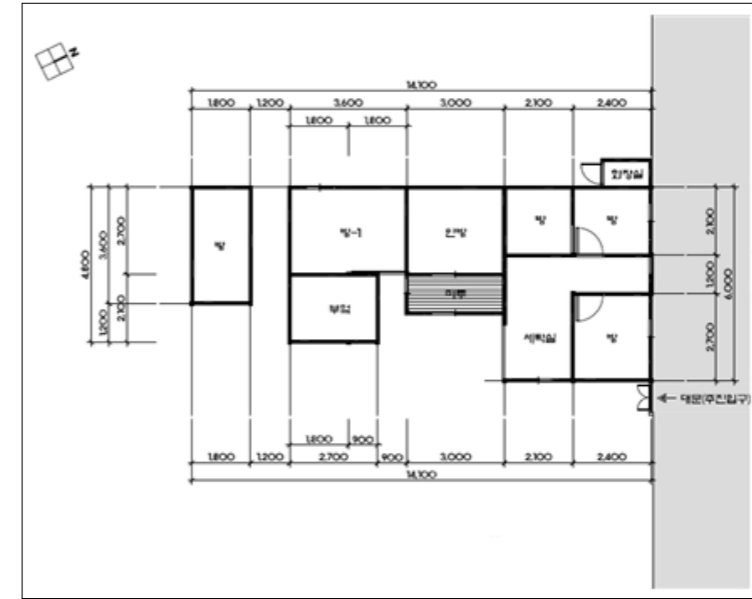
18 김정자·김현선, 『미군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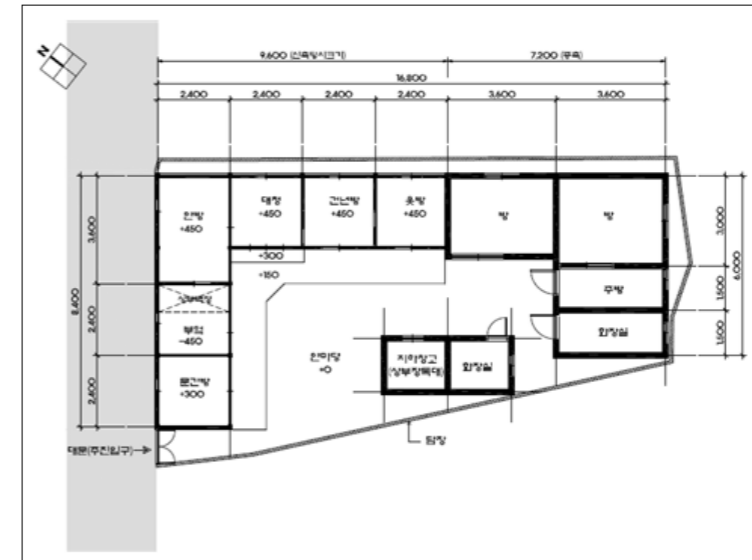
❖ 신촌의 가옥(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신촌의 가옥(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부평구 신촌로에 위치한 가옥 평면도¹⁹(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부평구 안남로에 위치한 가옥 평면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¹⁹ 가옥의 평면도는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부평역사박물관, 2015, 193-197쪽)에서 재인용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국가 권력 불균형,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 차이, 인종차별의 문제, 포주와 기지촌 여성 간의 관계 등 다양한 긴장 요소를 품고 있었던 부평기지촌은 그야말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기지촌에서는 각종 폭력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기지촌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은 가장 큰 사회문제였다.

基地村 幻覺劑 번창 一路

동두천, 의정부, 파주, 부평 등지의 기지촌 일대에 한 때 공공연히 나돌던 대마초, LSD 등 각종 환각제는 당국의 끈덕진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하로 숨어들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계속 늘어나 집단흡연기인 수연통이 등장하는가 하면 서울 도심지 히피성 다방 일부까지 번져가고 있다.²⁰

아편중독자가 우글우글 부평미군위안부촌에 적신호

미군 상대로 매음 행위하는 위안부의 '마약중독자'가 점차 늘어(4·19 전) 가고 있어 시민보전에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즉 '삼능', '신촌', '백마장' 등지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는 여성들 중에는 마약(주로 모리히네)중독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미군 사병들 중독자에게도 마약을 흡수 전파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의 원인은 악질 마약거래상으로부터 몰래 '서울', '인천' 등지에서 보급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으며 4·19 이전만 해도 당국의 강력한 취체망에 의해 검거 차단되어 마약거래 및 중독자의 수효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민주혁명 수립된 오늘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전체 국민의 의사와 경찰권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당무자와의 견제심이 또 한 가지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다.²¹

20 『동아일보』, 1972년 2월 15일자.

21 『기호일보』, 1960년 6월 12일자.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갈등은 언제나 있었지만 1968년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암살 사건 이후에는 극도로 심해졌다. 부평기지촌에서도 백인과 흑인의 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흑·백미병 패싸움

1일 하오 9시부터 12시까지 인천시 북구 부평동 284 느림보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 간에 싸움이 벌어져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패싸움은 하오 9시쯤 흑인 「잭슨」일병(22)이 드림보²²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던 백인 병사들이 감동이라고 야유, 「잭슨」일병과 백인 병사 간에 싸움이 벌어지자 이웃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흑인 병사 100여 명과 백인 병사 150여 명이 몰려와 싸운 것이다. 이 사건으로 미 「애스컴」사령부는 2일 상오 11시 동부대 장병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진상조사에 나섰다.²³

기지촌에서 여러 형태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미군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미군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클럽 주인이나 기지촌 여성들은 돈을 떼이기도 하였다. 미군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잔혹해져 주민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정도였지만 소파(SOFA) 체결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기사 원문에는 '느림보 클럽'으로 적혀있지만 '드림보 클럽'의 오타로 보인다.

23 『경향신문』, 1969년 9월 2일자.

소년 얼굴에 「콜탈」칠하고 「헤리콥터」로 실어다 유기²⁴

미군 소령이 한국소년(13세가량)의 얼굴에 새까만 “콜탈” 칠을 하여 관에 넣어 “헤리콥터”로 실어다 버린 사건이 25일 상오 당지의 미 1군단 비행장에서 발생하였다.

경기도 부평에 있는 미군지우너부다(에스캄시티) 소속 제임스 소령은 이날 아침 “헤리콥터”를 조종하여 전기 비행장에 날아와 커다란 널판상자를 내려놓으면서 기계부속품이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때 관속에서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나서 동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군들과 한국인 종업원들이 달려가 그 상자를 열어 본 바 얼굴과 목이 “콜탈”로 새까맣게 칠해진 소년이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이때 전기 미군수령은 당황하면서 이 아이는 “슬레키보이(도둑질하는 아이)”, “블랙보이”라고 외치면서 그 소년을 억지로 달아나도록 하였는데 그 소년의 신원은 방금 부평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며 미군 측에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²⁵

24 기사 속 소년은 열네 살의 김춘일 군으로 이후 미군의 주선에 의해 부평에 위치한 ‘달톤 고아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조선일보』, 1958년 3월 4일자).

25 『경향신문』, 1958년 2월 27일자.

3. 기지촌 여성의 삶

양갈보²⁶

한하운

가난을 팽개쳐버린 계집들이 가는 곳이 여기밖에는 없는가.	돈이 무서운 주인이라 애당초 이 땅의 아이를 낳아야 할 여자이건만 흰둥이 새끼를 낳는다 검둥이 새끼를 낳는다.
정조를 팽개쳐버린 계집들이 가는 곳이 여기밖에는 없는가.	흰둥이 새끼도 낳을 수 있고 검둥이 새끼도 낳을 수 있고 온갖 열두 가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편리이지만
부평. 백마장. 신부(新附)치 못한 미국 제50주 다음 가는 여기밖에는 없는가.	돈을 좇아 못해보는 것이 없지마는 막상 돈이 되지 않는 섹스 파티에
흰둥이 검둥이 2세의 흰둥이 새끼들이 2세의 검둥이 새끼들이 흰둥이를 닮아가는 것들이 검둥이를 닮아가는 것들이 국제(國際)하는 국제인간 전시장 정말 국제다.	젓 먹이며 길러온 어머니의 소원이 이가 시리게 못된 이름만 포식하고
에이·비·씨가 날아가 알파벳이 깔리고 계집의 고깃덩이밖에는 밀천이 될 것이 없고.	울어도 울어도 씻기지 않고 뼈를 깎고 죽고 싶은 신세이지만 차라리 도깨비 화상이 지 좋은 웃음이 되어
돈이 무서운 주인이라 단돈에 내 몸이 남에게 굶어 먹히고	사내들이란 “여자는 역시 돈으로 사는 것이 쉽고 탈이 없다” 하는 말에
사내들이 하는 수 없는 몸살을 풀어주며	고향도 인정도 없는 하늘에 울면서 “어메야 돈이 원데” 양갈보 양갈보.
빈혈이 오고 각혈을 하고 성병을 옮고 앓고 애를 배고 낳고 온갖 열두 가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26 나시인(癡詩人) 한하운은 1959년 나환자 50여 명과 함께 부평에 자리 잡았다. 부평에서 왕성한 시작 활동을 벌인 한하운 시인이 부평기지촌의 여성들을 향해 쓴 작품으로 당시 기지촌 여성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기지촌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다양하다.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위안부’, ‘미군위안부’, ‘기지촌위안부’, ‘양색시’, ‘양공주’, ‘양부인’, ‘양갈보’, ‘기지촌 여성’ 등으로 불렸다. 이 중 한국 정부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는 ‘위안부’이다. 1957년 제정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위안부’는 1969년의 개정 법률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다가 1977년 개정 시 삭제되었다. 1962년 10월 정부는 ‘위안부’의 인격을 존중하고 열등의식을 지양케 한다는 방침에서 ‘위안부’를 ‘특수업태부’로 바꾸어 부른다는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위안부’와 ‘특수업태부’를 혼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위안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은 한국 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윤락여성’과 구분하여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었다.²⁷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 등으로 불렀다. 아주 점잖게 표현할 때 ‘유엔 레이디’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어떤 이름으로 불리었든 기지촌 여성들을 향한 ‘경멸’ 혹은 ‘천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이중적이었다. 기지촌을 통해 나오는 달러와 물자로 인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역군’ 혹은 ‘달러전사’로 추켜세워지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미군과의 성매매로 한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혼탁하게 하는 문란한 여성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이었다.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빈곤 가정 출신의 여성 혹은 전쟁으로 부모나 남편을 잃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매춘을 선택하게 된다.

27 김정자·김현선 『미군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우리 형제가 그 비참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고 책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누님의 운명과 바꾼 것이었다. 피난길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중공군 병사들에게 일을 당하고 죽어 버렸거나, 그 후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는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굶주려 죽었든지,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불량배가 되었거나 오늘의 성공은 꿈꿀 수도 없는 낮은 신분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우리 형제의 성공은 말없이 썩는 거름처럼 스스로 묻혀 버린 누님의 땅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다.²⁸



◆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군과 여성(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미 8군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여성들이 기지촌 매매춘에 들어오게 된 요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1965년 서울에 살고 있던 18세~40세까지의 여성 가운데 60%가 실업 상태였다고 한다. 여성들이 경공업에 종사하며 남한의 경제 기적의 근간으로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여성이 일자리를 얻는 행운을 가진 건 아니었다.

28 이원규의 단편소설 「겨울의 끝」(1988)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기지촌 여성 중 어떤 이들은 인신매매단이나 포주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매매춘에 유입되기도 하였다. 인신매매단과 포주들은 기차역과 버스 정거장을 기웃거리다가 일자리나 방을 얻어 준다거나 하숙을 얻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매춘 업소에 판다.²⁹

Q. 어떻게 기지촌에서 일하게 됐나요?

A. 책자에서 숙식제공을(‘숙식제공’이라 적힌 광고물을) 보게 됐어. 일단 가서 일하려면 숙식 제공이 돼야 하잖아. 오라 해서 갔더니 직업소개소였던 거야. 거기서 소개했는데 속아서 기지촌에 들어오게 된 게지. 미군을 받는지 처음에는 몰랐어.

Q. 인신매매로 온 여성 중 도망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A. 처음 가면 항상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 (중략) 목욕탕도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항상 그 사람이 (감시하고) 있어서 도망갈 생각 못하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언니들 보면 매 맞고 그래. 감히 도망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가 않은거야.

‘미군위안부’ 피해자 김숙자(가명).³⁰

취직시켜준다 피어 두 처녀 판 여인 구속

서울종로서는 주거부정의 김영실(여, 26)을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여인은 지난 5일 하오 7시경 서울 돈의동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찾아온 이경수(가명, 18세)양과 김모양에게 “부평에 가면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고 피어 두 사람을 부평으로 데려가 돈을 받고 박모씨에게 넘겨주는 등 전문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혐의이다.³¹

29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47쪽.

30 「‘미군위안부’, 그 생존의 기억#4. “난 스스로 ‘미군위안부’가 된 게 아니야”, 『시사저널』, 2016년 8월 26일자.

31 『경향신문』, 1964년 8월 10일자.

기지촌 여성들이 생활하는 형태는 크게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포주에게 인신이 구속되어 성매매를 하는 경우 혹은 포주와 계약하지 않고 여성이 방을 얻어 성매매를 하는 경우이다. 포주와 계약하는 경우 대다수의 여성들은 ‘채무 속박 체계’로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이 기지촌으로 들어 온 여성들은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 작은 방을 얻고 침대와 옷장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마련한다. 또한 치장을 위한 비용 역시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포주로부터 돈을 빌려 시작한다. 숙식비 역시 여성들의 몫이어서 수입에서 제하게 된다. 빚으로 시작한 이러한 관계는 기지촌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였다. 부평 기지촌에서도 이러한 포주의 횡포는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촌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한정순의 증언에 따르면, 포주나 클럽 주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기지촌 여성들의 편지를 대신 받아주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이는 포주나 클럽 주인들이 여성들의 도망을 의심하여 중간에 편지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포주와의 채무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군이 빚을 갚아주는 것이었다. 미군과 단골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미군이 여성의 빚을 갚아주고 포주와의 종속 관계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하였다. 이후 여성은 미군과 계약 동거를 하며 이전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된다. 이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며 미군에게 성을 제공하고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 등의 집안 살림을 맡는다. 운이 좋을 경우 결혼으로 이어져 미군을 따라 한국을 떠나기도 한다. ‘양공주’, ‘양색시’라는 낙인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새로운 땅에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낯선 이국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군과 결혼하여 한국을 떠난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여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포주(抱主)의 굴레

양공주들의 매음생활(賣淫生活)에 큰 역할을 하는 포주란 존재(存在)는 이들을 속박하는 큰 굴레이다. 통계에 의하면 양공주들의 70%는 소위 가구주란 이름의 포주집에 하숙(下宿)하고 있으면서 미군을 받고 있는데, 5·16이후 당국이 포주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하숙주인이나 가구주(家口主)란 이름으로 둔갑한 포주들은 방세, 식모세, 식대, 연탄값, 심

지어는 이불세 등으로 위안부들의 수입의 절반가량을 착취하고 있다. 병이 난다든가 동거 중인 미군이 돈도 지불치 않고 행방이라도 감추는 날에는 양공주들의 생활비는 포주들의 빛으로 가산되고 일부 악질적인 포주들은 이자에다 다시 이자를 붙이는 악랄한 복리식 계산법으로 이 여인들을 꼼짝 달싹 못하게 옹아매는 것이다. 빛은 갚아도 갚아도 언제나 그만큼씩 남게 마련이어서 양공주들은 이 생활을 청산(清算)하지 못하고 포주의 손아귀에 더욱 말려 들어가고 있다. 빛이 많은 위안부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언제나 포주들의 심한 감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주들이 장만해준 옷이며 밥값을 비롯해 이웃 상점에 달아놓은 외상(外上)값까지 떼어먹고 달아나는 상습적인 위안부들도 많아 말하자면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콧비가 되고 있다. 이들은 내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들의 생활은 균형(均衡)을 잃은 무질서(無秩序) 바로 그것이다. 저축(貯蓄)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오늘 생기면 오늘로 다 먹어버리는 생리(生理)를 가진 것이다. 포주에게 산더미 같은 빛을 지고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썩은 육체를 가지고도 버드와 이저, 비어를 마시고 양담배를 피우며 초코렛을 깨무는 사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달미를 잡고 있는 포주의 그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마음 착한 G.I를 만나 국제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전자(前者)는 대개 이 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는 풋내기들이 품어보는 희망이지만 이 세계에서는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은 노장들의 희망은 그저 돈을 버는 것 뿐이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잠시나마 동거생활을 해온 「존」이나 「로버트」에게 행여나 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대(期待)를 걸어보았으나 결과는 번번히 배반당하기 일쑤고 남는 것은 몇 차례에 걸친 낙태수술과 유산(流産)으로 병들어 버린 육체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G.I들은 착한 아저씨들이다. 이 중엔 아가씨들에게 반해 울며 사랑을 호소하는 흑인병사가 있는가 하면 제대(除隊)한 후 이만(二萬)길을 찾아와 애인(愛人)을 데려가는 순진파도 있어 운 좋은 아가씨들은 국제결혼으로 이 생활을 청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이 모두 행복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 간 이들 중엔 변심(變心)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돌아와 다시 양공주 생활을 계속하는 여인들이 있는가하면 시집식구들의 냉대로 집을 뛰쳐나와 미국 내에서 몸을 파는 기구한 여인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의 누구나가 다 국제결혼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이 구렁텅이에서 발을 빼야겠다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자포자기(自暴自棄)와 절망(絶望) 상태에서 생의 의욕을 잃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윤락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곳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그저 먹고 마시며 밤마다 낯선 외국 군인들의 품에 안겨 쾌락 같은 것을 느끼며 그날그날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윤락 동기(動機)는 생활고(生活苦)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유인(誘引), 허영심(虛榮心), 가정불화(家庭不和), 실연(失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부양가족이 없이 단신(單身)으로서 자기(自己) 생활 유지밖에 못하고 있다.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학력(學力)은 국민학교(國民學校) 졸업 및 중퇴가 제일 많은 수를 (약 60%) 차지하며, 무학(無學)이 그 다음으로 많고 (약 23%), 중졸(中卒) 및 중퇴(中退) (14%), 고졸(高卒) 및 고퇴(高退)(4%), 대졸(大卒) 및 대퇴(大退)(1%)의 순으로 되어있다.³²

여성들은 포주와의 채무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횡포로 고통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성병과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고통 역시 경험해야 했다. 1969년 미군과 보건사회부가 공동으로 동두천, 운천, 부평 등지 5개 지역의 성병 실태조사한 결과 여성 중 38%가 성병 보균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부평은 임질과 매독 감염률이 각각 14%와 9.5%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³³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감염 문제는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고심했던 문제였다. 1954년 2월 2일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성병은 결핵, 나병과 함께 제3종 전염병에 해당되었다. 이 법에서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적 건강진단’ 규정도 마련해 두었다. 또한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도

32 「양공주와 혼혈아」, 『신동아』, 9월호, 1966.

33 「성병 보균 38% 美부대 주변 위안부」, 『경향신문』, 1969년 3월 12일자.

가능하도록 해서 '성병진료소'에 대한 근거도 닦아놓았다.

5·16군사쿠데타 직후 정부는 '위안부 등록제'를 실시했다. '유엔군 상대 위안부 성병 관리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된 등록제는 경찰서 여경반에서 접수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는 「유엔군 간이 특수음식점 사무취급 세부 기준 수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을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성병 감염 방지' 및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경기도가 추정한 도내 기지촌 여성의 수는 1만여 명이었다.

-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며 외화획득과 국가예산 절약면에 기여할 수 있음
- 영업장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
-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성병 검진을 업무책임 하에 시행케 함으로써 질병 전파를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음³⁴

법률에 따라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매주 2회씩 성병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했다. 여기서 감염자로 판명되면 집단수용소인 '낙검자(落檢者) 수용소', 즉 성병관리소에 억류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1962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성병관리소 모델이 만들어졌다. 미군과 협의 끝에 결정된 결과는 인천시가 '성병 보유 환자들의 집단수용소'를 제공하고, 미군 측이 수용 대상자들의 '이송에 필요한 트럭 동원과 약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 경기도에서는 도립병원과 부평·안성·의정부·포천·김포·강화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밖에 47개소의 위탁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부평 신촌에는 '전일의원'과 '한일의원'이 있어 여성들의 검진을 담당하였다.

34 「유엔군 간이 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경기도, 1961년 9월 14일.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88-89쪽.



❖ 신촌의 골목.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검진을 담당했던 '한일의원'의 간판이 보인다. (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이후 클럽에서 일하기 위해 여성들은 반드시 지역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앞으로 일하게 될 클럽 이름을 등록해야 했다. 또한 지역 성병 진료소에 가서 산부인과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을 받아 '안전한 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임을 증명해야 했다. 언제든 미군이 요구할 경우 보건증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성병 검진 과정 자체가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성병 검진 기피자에 대해 경찰과 보건소 관계자 등은 영장 없이 합동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기지촌 여성들은 '토벌'이라 불렀다.

미군, 한국경찰, 헌병, 통역관 등이 신촌에 있는 술집을 비롯해 길가는 여자들을 막무가내로 잡아서 성병을 검사했다. 월요일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 이런 검진이 신촌에서 이어졌다. 드림보트 홀을 비롯해 송도 홀, 유니버설 홀 등에 갑자기 들어와 그곳에 있는 한국인 여성들이 성병에 걸렸는지를 조사했다. 성병 검사에 불응해 도망가는 여자들을 잡기 위해

출입문에서는 한국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무조건 잡아 성병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해서 성병이 확인되면 모두 주안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다.³⁵

성병의 책임은 힘없는 여성들에게만 지어졌다. 검진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일명 ‘몽키하우스’라 불리는 진료소에 격리되어 완치될 때까지 나올 수 없었다. 이 당시 성병 치료를 위해 페니실린을 투약했는데 잦은 투약으로 내성이 생겨 투약 용량을 늘려나갔다. 페니실린의 부작용으로 인해 여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한 경우 쇼크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성병검진소(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35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169쪽.

‘새움터’가 녹취, 채록한 신촌기지촌

“나는 저 저기야, 저기 인천 가는 데 부평 있지? 거기에 처음에 가 가지고, 저 강패를 만난 거야. 한국사람. 강패 두목을 만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는 당해 가지고, 나이가 그때가 열세살이야, 내가. 내가 열네살인가 그때 열네살인가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하튼 열세살 먹은 해야.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끌려가서 그 사람하고 살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부평에 갔어,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주집이 있더라구. 거기도. 부평에도”

“신천(신촌)이라는데. 거기서 포주집에서 인제 거기서 살다가, 돈 벌면은 돈 구경도 못하는 거야, 나는. 미군한테 돈 받고 자기네들이 싹 가져가고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신천(신촌)가서 포주집을 들어갔어. 포주집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돈 한푼 없는 거야, 나두. 미군만 저기 했지 돈 한푼 안줘. 그래가지고선 난중에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저기 군자라는 데를 간 거야. 군자. 얘기 들었을 거예요. 군자. 거기 가 가지고선 인제 포대, 육군. 거기있다가 나왔지. 저기 뭐야 어디야 군산에서 데릴러 온 거지, 남자가. 주인이 데릴러 왔는데 돈을 몽탕이로 가져 온 거야, 내가 빚을 졌다니까”

“어휴 그리고 하룻저녁에도 몇 명씩 미군들을 받고. 여기(자궁)가 부어가지고 막 걸어나지도 못하고 여자들 막 그랬었지”

“페니실린이 무지하게 독해요. 이게 아파가지고, 난중에 붓오리 서면 염증이 생긴다고, 막 그런다고. 그 부대에서 나오는 페니실린이 말도 못하게 독했어”

“그냥 검진을 안 하면은 이 미군들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갖다가 유치장에다 그런 거야”³⁶

36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두 번째 이야기)』, 새움터, 2009.

매일같이 미군을 마주했지만 기지촌 여성 중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는 드물었다. 그저 간단한 인사와 클럽에서 술과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몇 문장 정도가 고작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과 미군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때론 미군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군과 기지촌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69년 5월 스물세 살의 젊은 여성이 미군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여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여 기지촌 여성들이 여인의 상여를 메고 부대 정문 앞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하였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 헌병 50여 명과 한국 경찰 30여 명이 출동하기도 하였다.³⁷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침을 거부한 스물다섯의 여성을 미군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도 발생하였다.³⁸

이러한 미군의 범죄에 대응하여 기지촌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군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기지촌에서 미군과 관련한 사건 혹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경우 미군들의 보호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미군의 출입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외출 금지령(Off-Limit)을 신속하게 내렸다. 포주와 포주와 상인, 관련 공무원 등은 이러한 외출 금지령으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미군 범죄를 은폐하거나 범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포주로부터의 채무 속박, 미군으로부터의 폭력과 학대, 국가가 진행한 성병 검진과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 대우 등 기지촌 여성들은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내던져진 채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37 『동아일보』, 1969년 5월 14일자.

38 『동아일보』, 1969년 5월 19일자.

4. 기지촌의 숙명, 혼혈입양아

혼혈아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시점은 1945년 미군의 주둔부터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정설이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 당시부터 혼혈인이 발생, 증가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전쟁의 산물이자 ‘비국민’인 혼혈인을 최대한 한국 사회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혼혈인을 조사하여 이들을 따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무리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혼혈인 발생 초기부터 그들을 아예 국외로 내보내는 해외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이러한 정부 방침은 전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³⁹

표 2 지역별 혼혈인 현황

(단위: 명)

연도	지역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강원	제주	합계
1955		91	76	3	10	26	2	41	146	42	2	439	
1956		221	168	3	2	31	3	34	51	22	3	538	
1957		11	178	1	10	35	1	22	83	11	3	355	
1958		292	205	13	21	91	1	19	6	17	2	701	
1959		369	336	19	17	25	2	32	88	132	3	1,023	
1960		472	353	14	12	54	3	25	96	42	4	1,075	
1961		596	510	68	15	15	5	36	65	40	4	1,354	
1962		504	596	59	14	15	4	11	133	49	4	1,389	
1963		400	680	55	34	23	29	45	50/94	49	4	1,463	
1964		527	711	8	51	26	3	33	27/70	52	3	1,511	
1965		306	707	7	58	38	4	37	43/94	81	3	1,378	

❖ 출처: 보건사회부, 「혼혈아실태표」, 「보건사회통계연보」, 해당 연도.

39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입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3-24쪽.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전국의 혼혈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기지촌이 형성되었던 서울과 경기(파주, 동두천, 송탄, 의정부, 부평), 부산 등지의 혼혈아 수가 많았다.

기지촌 여성이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 기지촌 여성이 ‘양공주’와 ‘양색시’라는 이름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만큼 미군과 기지촌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튀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이들은 혼혈이라는 것에 더해 아버지가 없다는 것, 어머니가 성매매를 하는 기지촌 여성이라는 삼중 낙인에 갇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어머니가 기지촌 여성이 아니며 미국인 아버지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은 거둬지지 않았다.

당시 혼혈아는 국적법에 따라 ‘국민’이 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와 외국 국적을 가진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은 한국의 부계 혈통을 잇지 않는 존재였고, 국적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혼혈아는 국적법에 따라 정식으로 국적을 획득하지 못하고, 호적에 입적하여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혼혈인을 기르는 경우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외가에 입적할 수 있었으나⁴⁰ 이 무렵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다수의 혼혈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던 어머니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해야 했다. 유해 환경 속에 방치된 여자 아이는 어머니처럼 양공주가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당시 피임 방법이 흔하지 않아 양공주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신촌 인근 논두렁, 발두렁에 아이를 버려 죽이는 경우도 꽤 있었다. 설사 아이를 낳아도 키우지 못하고 인근 달톤 고아원 등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혼혈아들은 같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⁴¹

40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입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5~16쪽.

41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182쪽.

대규모 기지촌이 조성되었던 부평이었기에 신촌과 삼릉 등지에서 혼혈아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1965년 개교한 산곡동의 한일초등학교는 서울의 영화초등학교와 함께 혼혈아 특수학교였다.

혼혈아들을 위한 사회 및 교육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원한 이방인의 삶을 살 바엔 아버지의 나라 혹은 제3국으로의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입양의 결정은 어머니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선호하였지만 청소년기의 아이가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부평에서 계약 동거를 하며 기지촌 생활을 했던 정 모 씨(1937년생)는 동거하던 미군이 갑자기 사망하자 평택으로 이주하였다. 평택에서 일반 사병과 계약 동거를 한 후 임신을 하였는데 아이 출산 열흘 전에 남편이 미국으로 떠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홀로 아들을 낳아 키웠으나 아이는 한국 사회의 냉대와 불편한 시선을 힘들어했다. 아들의 요구로 1992년에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아들이 열다섯이 되던 해였다.⁴²

지민 : 우리 애는 안 보낼라 했는데 자꾸만 얘기 놀리니까. 껌둥이라고.

은혜 : 살기가 힘드니까

은경 : 그 때는 많이 놀렸잖아요. 껌둥이 애라고 놀리니까

은혜 : 그러니 아버지 사는 거 보고 왔으니 아버지 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거 아니야.

가서 고생할까봐.

지민 : 그러니까. 시골 거기만 가면 만날 도끼질만 할 뿐인데. 그 때도 나이가 어리니까

내새끼라고 데리고 나온다고. 차라리 거기 나뉘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내새끼라고 데리고 나왔다가...(눈물을 흘림)

민경 : 아이고. 그 이야기는 그만 해요.

은혜 : 먹고살기 힘드니까 안 보낼 수가 없었어. 다 순수 한국 애들도 보내는 판인데

이렇게 혼혈아는 키우기 힘들어서. 안 보내고 부모가 다 같이 이쪽에 있으면

42 (사)햇살사회복지회, 「햇살 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Ⅳ, 2013, 9~17쪽.

어떻게 해서 키우겠지만 한 쪽만 떠나고 한 쪽만 있으면 안 보낼 수가 없어.
힘들어서. 키우기가...

은경 : 그리고 놀려. 둘이 사니까 힘든 것은 없었는데 놀려. 학교 땀기니까 놀려.

지민 : 애가 싫다고 그래.

은경 : 그래서 지가 간다고 그래서 보냈어. 지가 간다고 해서.

지민 : 지가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홀트에서 와 가지고 보내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보냈지. 항상 내 마음에는 같이 갔지만 ...⁴³

혼혈아들은 ‘보이지 않는 인간’, ‘골칫거리’였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국외로 보내 질 수밖에 없었다.⁴⁴

부평에서 혼혈입양아를 돌보던 대표적인 인물이 서재송(1929년생)이다. 고향인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면 서기로 일하던 중 최분도 신부(본명 Benedict Zweber, 1932~2001)의 권유로 고아와 온갖 차별로 소외된 혼혈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혼혈아들의 입양을 도왔는데 이때 ‘성 가정의 집’이 만들어졌다. 1970~1980년대 산곡동에는 미국인 신부가 운영하는 ‘성 원선시오의 집’이 있었다. 이 역시 미군기지 주변에서 생활하던 혼혈아를 돌보는 시설이었다. 시설을 운영하는 신부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서재송 옹이 이어받아 운영하였다. 1986년부터는 부평3동의 ‘성가정의 집’과 합쳐 ‘성 원선시오의 집’을 운영하였고 인천과 부평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왜관 등지의 미군 기지촌을 다니면서 혼혈아들의 입양을 도왔다. 1997년 문을 닫기 전까지 1,6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입양됐다.

제2절 | 부평의 양키시장 형성과 부평의 변화

부평에 미군기지가 들어선 후 현재의 ‘부평 문화의 거리’ 일대에 양키시장이 들어섰다. 미군 군복과 군용 담요, C-레이션, 양담배, 미제 화장품, 초콜릿과 통조림 등은 당시 내놓기가 무섭게 팔리던 물건이었다. 물건들은 모두 미군 PX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부대 담장을 넘어 시장으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물건은 어떤 방법으로 부대 담장을 넘을 수 있던 것일까?

우선 기지촌 여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군과 계약 동거를 하는 여성일 경우 미군에게 보급된 햄과 통조림, 담배, 커피 등을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 지내는 미군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사들인 후 값을 얻어 되파는 경우도 있었으며, 화대로 받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도 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부대 안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시장 상인과 결탁하는 것이었다. 부대 출입이 자유로운 한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밀반출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미군을 포섭하기도 하였다.

양담배 밀매 여인을 검거 2,800갑 압수

전매청 감시체반은 24일 양담배 도매상 김숙자 여인(50·인천시 북구 부평동 110)을 연초전매법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양담배 2천 8백갑을 압수했다.

김여인은 인천미군부대 ASC(에스컴) PX에서 양담배를 상습적으로 대량 거래해 왔었다.⁴⁵

43 (사)햇살사회복지회, 「햇살 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Ⅲ, 그룹 인터뷰, 2012.

44 「핏줄 달라도 내 아이들 …… 1073명 입양기록 못버렸죠」, 『한겨레』, 2017년 5월 12일자.

45 『경향신문』, 1973년 4월 24일자.

가짜 청구서로 미군물자 빼내

미군인을 끼고 PX 물품을 털어오던 일당 3명이 한미합동수사진에 적발, 부평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보고에 의하면 미제7사단 76포부대 1대대 C포대 소속 존 R·잭슨(18)일병과 미군 부대종업원 오테훈(44·서울 청파동 3가 119) 등 한국인 3명은 4일 하오 2시 미8군 부평 보급창 91호 창고에 트럭을 대고 미리 준비한 가짜 물품청구서로 타자기 27대 등 미화 1만 6천 8백 49불 상당 물품을 인수, 서울로 운반하다가 적발됐다.⁴⁶

이렇게 흘러나온 미제 물품은 한국 최대 암시장이었던 남대문시장까지 흘러갔다. 부평 양키시장에서도 활발히 거래되었으며, 기지촌 여성의 집에서 거래되기도 하였다. 특히 삼릉은 간부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나 오디오, 카메라 등과 같은 값비싼 물건들이 거래되기도 하였다.

“부평 양키시장에선 옷이나 담배, 이런 잡다한 것들을 팔았는데 삼릉은 카메라, 오디오 이런 걸 살 수 있던 곳이었어요. 물건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촌보다 많았죠. 여기가 미군이 비상이 걸리면 다 초상집이 돼요. 미군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전부 다 일수 갖다 쓰고 그러는데 미군이 못 나오면 돈이 안돌잖아요. 모든 게 ‘스톱’되는 거죠”⁴⁷

특정 外來品(외래품) 범람

한동안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특정 외래품이 최근 다시 시중에 범람하고 있다.

남대문시장 주변을 비롯한 시내 변화가에는 요즘 특정 외래품을 파는 여인들의 노점 행상이 점점 번창해지고 있는데 특히 자유시장과 남대문시장 사이에는 집단적으로 공공연한 노점이 형성되어 있었다.

46 『조선일보』 1965년 10월 7일자.

47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103쪽.

식료품으로부터 가정용 증기·구두·피복류에 이르기까지 거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외래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울에서 가까운 동두천·부평·의정부·문산 등지의 미군부대에서 유출되어 주로 아낙네·통근학생들의 가방속 등에 감추어져 소량으로 운반되거나 특수 자가용 차량들로 대량 반입되고 있다.

한편 상인들 말에 의하면 당국의 불규칙적인 단속이 본거지인 집하소에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한 행상노점이나 소규모 운반들만이 취체 당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⁸



❖ 여성용 미제 화장품(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파우더나 립스틱 등의 고급 여성용품도 미군 PX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됐다.

48 『매일경제신문』 1966년 1월 28일자.



❖ 미군 군복(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옷감이 변변치 않던 시절이라 미군복은 인기상품이었다. 부대에서 불법으로 흘러나온 것을 감추기 위해 감색이나 검정색으로 염색하여 판매되었다.

산업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던 때인지라 미제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이 있던 때였다. 의료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던 시절 미제 의약품은 귀한 물건 중 하나였고, 이전까지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커피는 단연 최고의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미군 PX를 통해 유통된 커피는 이내 커피에 대한 수요 급증의 결과를 가져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군 PX 물건의 밀반출과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 미제 커피(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1950~1960년대 유통되었던 미제 커피로, 6·25전쟁 이후 커피가 기호품으로 급속도로 전파되며 양키시장의 인기 품목이 되었다. 당시 국내 시장에 정상적으로 수입한 커피는 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미군 PX를 통해 유통된 것이었다.

밀반출 품목도 다양해져 급기야는 유류의 반출까지 이어졌다. 부평 미군기지에는 유류가 풍부했는데 이를 빼돌리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였다. 『중앙일보』는 1969년 8월 「부정(不正) 주요소 판처, 부대 유출 기름 뒷거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부평에는 주택가 한복판에 대규모 시설의 무허가 주유소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부정한 유류를 팔고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10개의 무허가 주유소와 5개의 허가된 주유소가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고, 미군부대에서 불법으로 유출한 유류를 수년 전부터 취급하지만 경찰 등이 묵인하고 있다며 고발하였다. 미군 물자를 훔쳐서 숨겨줬다가 붙잡힌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부평동 350번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고 모 씨는 1954년 8월 도난당한 미군 물품 50만 환어치를 구입해 옆집인 양조장 부지에다가 묻었지만 다음 해 7월 부평에 주둔한 미군 CID에 발각됐다.⁴⁹

49 한만승, 『(2018 인천광역시 민속조사 보고서 주제별 조사보고서4)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국립민속박물관, 2018, 50-51쪽.

부평은 다른 지역보다 TV나 라디오 보급률 역시 높았다. TV, 라디오와 같은 소형 가전의 보급률은 이 당시 부의 상징과도 같았다. 특히 미군기지 인근 동네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미군 PX를 통해 유통된 TV들이 기지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1973년 말, 부평3동과 십정동은 전체 2,378세대였지만, TV는 무려 1,529대로 64%의 보급률을 보였다. 또한 부평2동(삼릉)의 경우 TV 보급률이 50%로 집계되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미군 장교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은 미국의 문화를 가장 빨리 접하고 받아들인 지역 중 하나였다. 광복과 함께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AFKN(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의 전신인 주한미군방송(WVTP)을 10월 22일부터 시작했다. 6·25전쟁의 개전으로 방송을 중단한 후 미군이 참전을 하면서 다시 AFKN 방송을 시작했다. 라디오 방송은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고, 미군이 선호하는 음악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교재였다.⁵⁰

1956년 10월 『대중일보』신문 기사의 집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라디오 보유 대수는 6,037대였다. 그중 부평 지역에 1,010대가 있었다. 부평2·3동, 십정2동의 라디오 보유 대수는 95대였고, 총 호수는 1,632호를 기준으로 대비할 때 5.8%의 보유 현황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이 부평에서 높은 보유 비율을 보이는 것은 미군에 기대어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과 미군 PX를 통해 라디오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50 박용규,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1945~4950)」, 『한국언론학보』58(1), 한국언론학회, 2014, 31~32쪽.

표3 1956년 부평 지역 라디오 보유 현황

(단위: 대·호)						
동명	구분	전기식	전지식	전기전지겸용	총 대수	총 호수
부평2·3동, 십정2동		56	21	18	95	1,632
부평1동		291	0	0	291	2,185
산곡·청천동		315	50	150	515	1,351
부개·일신·구산동		45	6	3	54	486
삼산·갈산동		55	0	0	55	412
합계		762	77	171	1,010	6,066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접한 빌보드 차트의 유명 곡은 부평기지촌 주변으로 줄지어 늘어선 클럽의 문틈으로 새어 나왔고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미8군 클럽 무대에 서고자 하는 음악인들은 부평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주로 삼릉에서 거주하며 미군기지를 비롯한 부평의 규모 있는 클럽 공연에 올랐다. 미국에서 인기곡이 가장 먼저 연주되는 곳이 부평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최신 음악의 채보(採譜)를 위해 오기도 하였다.

광복 후 대규모로 조성된 부평기지촌은 6·25전쟁 이후 어려웠던 부평경제를 상당 부분 책임졌다. 1973년 캠프마켓을 제외한 미군기지가 철수되기 전까지의 부평 사람들이 미군기지와 기지촌에 직·간접적으로 의지한 채 생활해 나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기지촌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했다. 기지촌 여성들은 오랫동안 지켜 온 전통 질서를 파괴한 문란한 여성들이라는 눈총을 받았고, 미군과 기지촌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은 전쟁의 부산물 정도로 치부되었다.

기지촌 내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사건·사고 역시 이들 때문에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간 부평의 기지촌 이야기는 터부시되었고, 부평의 부끄러운 과거사 정도로만 남아 있었다.

그 때문인지 현재 부평에서 기지촌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촌에서 큰 규모로 운영되었던 드림보트 클럽 건물마저 2020년 철거되면서 그 흔적은 더욱 사

라졌다. 부평2·3동, 산곡동 등지에 조성된 부평기지촌에서 한 시대를 채웠던 이들은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 그리고 ‘미군’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부평의 현대사 중 일부분을 통째로 외면하는 것과 같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할 만큼 사회는 성숙해졌고, 혼혈인을 한국인으로서 품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졌다. 이제 부평의 기지촌 이야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황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정자·김현선, 『미군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캐서린 H.S. 문, 이정주 역, 『동명 속의 섹스』, 삼인, 2002.
 한만승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한만승, 『(2018 인천광역시 민속조사 보고서 주제별 조사보고서4)인천 미군기지과 양키시장』, 국립민속박물관 2018.
 한국여행신문사 특별취재팀, 『한국관광 50년비사』, 여행신문, 1999.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2.

논문

-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입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용규, 「주한미군방송(wtp)의 등장과 영향(1945~1950)」, 『한국언론학보』58(1), 한국언론학회, 2014.
 이나영, 「기지촌 :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자화상」, 『황해문화』50, 새얼문화재단, 2006.
 이나영,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여성과 평화』5, 2010.

신문 및 잡지

- 『경향신문』
 『경기매일신문』
 『기호일보』





『동아일보』
『대중일보』
『매일경제신문』
『시사저널』
『신동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기타

(사)햇살사회복지회, 「햇살 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 III, 2012.
(사)햇살사회복지회, 「햇살 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 IV, 2013.



부평사
富平史





제 6 장

캠프 마켓 반환 운동

제1절 _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 운동

제2절 _ 캠프 마켓 환경오염 문제

제3절 _ 캠프 마켓 문제 풀기 위해 머리 맞대 민관 거버넌스 운영

제6장 캠프마켓 반환 운동¹



한 만 승(『캠프마켓』 저자·전 인천투데이 기자)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은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준 ‘우방의 상징’이며, 세계경제를 이끄는 ‘선진국의 군대’라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조성된 미군기지과 그 주변의 기지촌조차 선망의 대상이었다. 부의 상징인 ‘달러’와 ‘서구 대중문화’가 흘러넘치는 선망의 보고 같은 곳으로 많은 국민에게 오랫동안 인식됐다.

미군의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53년 체결되어 그다음 해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약칭 한미 소파(SOFA)²] 제2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구역과 시설을 공여했다. 이렇게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은 소파(SOFA) 발효 직후인 1969년에는 277개 기지에 4

1 본 장의 주요 내용은 필자의 저서 『캠프마켓』(봉구내책방, 2013)에 수록한 글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2 흔히 ‘소파(SOFA)’로 불리는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와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의 법적 배경은 1948년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군대사령관 간에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50년 7월의 ‘주한미국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952년 5월 14일의 ‘통합사령부와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 등이다. 1차 협정은 1966년 체결돼, 1967년 발효됐다. 주한미군 범죄와 환경문제 등이 계속 발생해 1991년과 2001년 두 번 개정됐다. 이 개정을 통해 모든 미군 범죄를 재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992년, 미군 병사에 의해 자행된 엽기적 살인 범죄가 벌어져도 한국의 사법부는 살인범을 구속시키지 못했다.



❖ 캠프마켓 전경(출처 : 부평구청)

억 2,644만 평(약 1,409km²)에 달했다. ‘닉슨독트린’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에 따라 1970년과 1972년 주한미군을 감축해 공여구역은 줄었다. 지속적 미군 감축에 따라 공여구역의 면적이 줄어 1980년 9,489만 평, 2002년에는 7,400만 평으로 감소했다. 2014년 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129개소, 전체 면적 약 242km²로 여의도 면적 2.9km²의 83배이다. 그중 87%가 경기도에 있다. 2004년에는 추가 협정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 김천, 군산, 포항, 대구 기지로 통합하는 한편, 서울 도심에 소재한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³

미국은 오래전부터 외국 땅에 군사기지를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군 병력을 외국에 배치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여 년이 흐른 최근까지 독일 170여 곳, 일본 100여 곳, 이탈리아 50여 곳에 미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군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안보 협력 대상지역(소규모 기지)’도

3 전대욱,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활용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전 세계 수십여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우방인 미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된 결정적 계기는 주한미군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범죄였다. 한국 땅에서 ‘반(反) 주한미군’ 정서가 급속히 팽창하게 되는 2000년대 까지 대한민국에선 하루 평균 3~4건 이상의 주한미군 범죄가 이어졌다. 더욱이 불평등한 소파(SOFA)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를 받으면서, 주권 국가의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66년 7월 9일 조인된 소파(SOFA) 협정 후 1967년 1,710건의 소파(SOFA) 사건 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한국 사법권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이 0.5%에 불과했다. 1968년의 경우도 1,715건에 달하는 소파(SOFA) 사건 중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권을 가진 미군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신군부는 전방부대를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다.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에선 ‘주한미군의 광주학살 목인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문민정부 탄생,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 위해 ‘전투적’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뤘던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부터는 다양한 부문에서 민주화 열기가 분출됐다. 또한 각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적 요구를 해결해 나가는 시민운동이 태동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 초까지 일부 기지촌을 제외하고는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 활동은 많지 않았다. 1980년 중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미군 철수’ 구호는 대단히 정치적 주장이었다. 당시의 사회운동 진영의 주된 화두는 ‘대통령 직선제’,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 정부 수립과 억압된 노동·농민·빈민층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운동 진영의 전선이 환경과 여성, 문화, 인권 등 모순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확대됐다. 미군기지 문제는 일부 학생운동 진영의 ‘반전 반핵’과 관련된 구호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89년 ‘용산 미군기지 대전 이전 반대’ 운동이 접화되면서, 미군기지 반환과 미군과 관련된 여

러 이슈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용산 미군기지의 대전 이전 반대 운동은 미군기지 관련 첫 시민운동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대전 이전 반대 운동이 성공을 거둔 이후에 ‘대전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해산되어 이 운동은 사라질 뻔했다. 1990년 용산기지 이전 대상지역이 평택이란 말이 나오자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 결산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만들어져 미군기지 관련 시민운동이 다시 이어졌다.⁴ 이 운동을 통해 미군기지가 주둔한 지역과 일부 진보적 운동단체들이 선언적으로 제기했던 ‘미군기지 반환(返還) 및 이전(移轉)’ 등의 구호가 ‘시민구호’로서 대두됐다.

미군부대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미군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라’거나,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미국으로 떠나’라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미군기지 반환이나 이전 운동은 1993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결산 반대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김용한이 처음으로 제기했다.⁵ 그는 이 공청회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사람이 돌려받고, 평택에 있는 두 개의 또 다른 미군기지는 평택 사람이 돌려받자. 그러기 위해 미군기지 임대 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를 받아내는 운동을 하자. 소파(SOFA)에도 미군기지 반환 조항이 있고, 일본 오키나와나 필리핀 같은 곳에는 미군기지 임대 기간이 있다. 구호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가까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다수의 일반 시민도 수용하는 지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용한의 이런 주장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1996년 14개 단체가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미군기지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함께 대응했다.

4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187쪽.

5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188쪽.

1. 부평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운동, 인천 시민사회운동사에 한 획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본격적 시민사회운동이 전개됐다. 인천에서도 문민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시민운동 단체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본격적 계기는 계양산 지키기 운동이었다. 계양산은 395m에 불과한 작은 산이지만, ‘인천의 진산(鎭山; 나라나 도읍지 또는 각 고을 뒤에 있는 큰 산)’으로 불리며, 인천의 생태와 문화의 보고로 인천 시민의 사랑을 받았다. 대양개발은 1989년 처음으로 계양산 내 약 29만 평에 골프장과 위락단지를 계획할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당시 계양주민들과 풀뿌리 시민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⁶ 이후 롯데건설이 몇 차례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좌절됐다. 계양산 지키기 운동은 2000년까지 이어졌는데, 인천 지역의 대부분 시민사회 역량이 집결하는 계기가 됐다.



❖ 부평 미군 부대 이전을 위한 주민견기대회(2002, 부평구청)

6 「롯데, 인천에서 3연패 …… 야구 얘기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23일자.

선인학원 학원민주화운동도 인천 시민운동의 모태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1990년 대표적 군사도시이며, 노동자 도시로 불렸던 인천에는 당시 국내 최대 사립학교로 불린 선인학원이었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백인엽이 설립한 사학이었다. 그는 백선엽 장군의 친동생으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선인학원을 급속하게 팽창시켰다. 선인학원이 거느린 학교는 14개로, 그곳을 다닌 학생이 3만 6,400여 명, 교직원만 1,400여 명이 있었다.⁷ 계속된 전횡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학원민주화운동이 이어졌다. 대학생들뿐 아니라, 고등학생, 초·중·고교 교사 및 대학 교수 등이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지역의 민주 인사와 단체 등이 이 운동에 결합하게 됐다.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 역시 인천 시민운동이 본격화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시로 편입된 덕적도였지만,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굴업도 핵폐기장 저지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이끌었다. 이런 연대연합의 사례들은 향후 인천 시민운동의 모태가 될 수 있었다.

계양산 지키기 운동과 선인학원 학원민주화운동, 굴업도 핵폐기장 저지 운동은 모두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승리한 시민운동으로 평가된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가지고 인천 시민운동이 태동하고, 성장한 셈이다. 인천 시민운동에서 또 다른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평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운동이다. 이 운동 역시 지역 주민의 생활적 이해와 요구를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킨 범시민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5·18광주민중항쟁 16주년 기념식에 올려 퍼진 ‘우리 땅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구호

1980년 중반부터 부평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일 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이 이뤄졌다. 이때부터 부평 미군기지(이하 캠프 마켓⁸)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부평 구민에 의해서 ‘불편한 시설’

7 「선인학원에 다시 진입한 백인엽」, 『오마이뉴스』, 2015년 5월 28일자.

8 다음부터 부평 미군기지와 캠프 마켓을 혼용해 사용하였다.

로 취급을 받았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15번지의 약 16만 평에 해당하는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미군이 10여 명 정도로 알려지면서, 부평 주민들은 이 기지의 이전 또는 반환을 요구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부평공단 등지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과거 부평 기지촌에 대한 경제적 기대 등은 시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⁹ 등이 중심이 돼, 1996년 5월 17일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된 5.18 광주민주항쟁 16주년 기념식에서 ‘부평 미군기지를 되찾자’란 구호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부평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연합의 중심이 된 이 집회 참석자들은 우리 땅 부평 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미군기지가 반환돼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유인물로 제작해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①16만 평에 단 9명의 미군, 부평 구민 1인 활용 면적의 400배, ②군사적 기능을 상실한 빵공장·폐차장, ③도로 개설을 막고, 도심 교통의 기형화 초래, ④한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적 카지노 운영, ⑤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익 결함과 자산 가치 손실 등을 주장했다.



❖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띠 잇기 대회(출처: 인천시민회의)

9 인천연합은 1991년 12월 1일 연세대에서 발족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결성 후 인천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전선운동체였다. 인천연합은 선인학원 민주화운동, 부평 미군기지 반환 운동 등을 중심으로 벌여나갔다.

미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적 문제가 우리 사회에 금기 영역이었던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이라는 정치적 요구로 표출된 것이다. 인천연합 등의 단체들은 부평구가 인천 인구의 1/5 이상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평 도시 한가운데에 군사적 기능을 상실한 미군기지가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군의 1인당 활용 면적이 부평 구민의 무려 400배에 이른다는 점도 부각하면서, 캠프 마켓을 반환받자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이들 단체는 캠프 마켓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10만인 서명운동, 인간띠 잇기,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1996년 중순에는 인천 전 지역 구(區)별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도였다.

캠프 마켓 반환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군기지 앞 철야농성과 각종 집회는 점차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 시민운동으로서 자리 잡아갔다. 그해 1996년 8월 11일 캠프 마켓 앞에서 진행된 인간띠 잇기 행사는 경찰의 봉쇄로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 지역 대학생 등 64명이 연행돼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40여 명이 구류 등의 처벌을 받았다. 캠프 마켓 반환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가 처음으로 강행된 셈이다.



❖ 제5회 통일맞이 인천 시민 문화축전(1996)

9월 20일에는 인천 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우리 땅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가 부평신협 강당에서 발족했다. 인천시민회의는 인천연합을 비롯해 건강사회를 위한 인천치과의사회, 노동자 통일대 백두, 인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부평구약사회, 인천교구 사제수요모임, 평화로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¹⁰,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참여했다. 박동일 목사, 강광 인천대 교수, 선일 스님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인천시민회의는 인천연합의 중심이 돼 캠프 마켓의 반환을 주장했다. 초기에 함께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에 나섰던 일부 단체들과 부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들이 인천시민회의 활동 방향에 이견을 보이면서, 1997년 3월 부평구청에서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이하 부공추)’를 결성해 독자적으로 활동해 나가기 시작했다. 부공추에는 부평시민모임, 인천감리교목회 자협의회, 부평사랑회, 부평청년회의소, 산곡·부평동 주민대책위원회, 부평시장농산물 상인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당시 참여했다.¹¹

3.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을 둘러싼 두 진영의 행보

인천시민회의와 부공추는 모두 ‘부평 미군기지를 인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미군기지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활동 방식에 있어서 입장 차를 보였다. 인천시민회의는 부평 미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땅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전 요구는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라며, 도시민과 농촌 지역 사이의 반목만 깊게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회운동의 기본인 연대와 연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또한 이전 운동은 자칫 미군의 영구 주둔에 대해 한국 국민 스스로가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었다. 반면 부공추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

10 1996년 6월 창립했으며, 이후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로 조직이 확대됐다. 2015년부터 인천평화복지연대로 활동하고 있다.

11 송정로, 『인천 시민사회운동 20년사』, 명문미디어아트팩, 2008.

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해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요구가 시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미군 기지의 ‘이전’이나, ‘반환’이나를 놓고 이처럼 의견이 갈렸다. 이전 요구는 철수와 달라 쉽게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우리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는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자’는 대안을 미리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선 운동으로 평가됐다.¹²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했던 인천시민회의나 부공추 모두 부평 미군기지 부지를 대규모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구호를 처음부터 들고 나온 것도 같은 취지이다. 캠프 마켓의 이전과 반환을 놓고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논쟁을 물밑에서 벌였다. 우리 땅을 되찾아 활용하자는 시민운동은 두 단체를 정점으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후 향후 활동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4. 캠프 마켓 반환 운동을 주도한 인천시민회의

인천시민회의와 부공추는 1997년 초까지는 공동으로 활동을 했다. 1997년 5월 14일 공동으로 ‘부평 미군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5·14 인천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한국 상황과 비슷한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기지 반환 운동을 전개해 온 일본 활동가도 참여했다. 일본 오키나와는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주일미군 주력이 주둔하고 있다.¹³ 오키나와 반(反)기지 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은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인천시민회의 등과 교류 활동을 벌였다. 인천을 비롯한 많은 미군기지 반환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해 이들의 반기지 싸움에 연대 의사를 밝혔다. 오키나와 반기지 활동가들은 인천을 비롯한 용산, 평택, 성주

12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189쪽.

13 1960년대 안보투쟁 이후 일본 본토에서는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반기지 운동’이 전개되지 않았지만, 주일미군 주력이 주둔한 오키나와에선 계속 반기지 운동이 전개됐다. 반기지 운동이란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주거민이 기지의 철거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으로 정의된다. 일본 오키나와 활동가들은 이후부터 꾸준히 인천시민회의 등과 교류했다.

등 주한미군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을 이후 꾸준히 방문했다. 1997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오키나와 반기지 운동 교류회 방문단이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이들 방문단은 한·일간 공동으로 세 가지를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①한국, 일본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한다 ②한국과 일본이 미군기지 사용 반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전개한다 ③그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5월 14일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인간띠 잇기는 인천, 대구, 평택, 서울 등 4개 지역에서만 실시했으며, 인천에서는 걷기대회가 개최됐다.¹⁴



❖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주민걷기 대회(2000, 부평구청)

인천시민회의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평 미군기지 옛 정문 앞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개최했다. 150여 차례 집회가 이어졌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정치마당을 부평을 비롯한 인천 전 지역에서 진행했다. 이들의 집회는 미군기지의 반환 이슈 외에도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이나,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미군 범죄 등의 이슈를

14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132쪽.

제기하는 장이 됐다.

2000년에는 미군 관련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정점은 이태원 외국인 전용 클럽 여종업원 살해 사건이었다. 2000년 2월 19일 이태원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이 미국 상병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잔인한 살인 방법도 문제였지만, 한국 정부는 범인을 구속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다시금 국민에게 소파(SOFA) 개정의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5월에는 폭격 연습을 하던 미 공군 전투기가 엔진 고장이 나자 비상 대책으로 대형 폭탄 6발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농섬 앞바다에 투하해 인근 주민들이 부상당하고 100여 농가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7월 12일 시민단체 의해 주한미군이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상당량 무단 방류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결정에 이르게 됐다.¹⁵ 그해 10월에는 미군 유류저장시설이 있던 연수구 문학산 일대의 토양 오염 사건이 알려져, 인천 시민들도 주한미군을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민회의를 상징하는 활동은 674일 동안 진행된 캠프 마켓 앞 천막 농성장이었다. 2000년 김성진¹⁶ 당시 인천시민회의 집행위원장은 5월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소파(SOFA)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미군기지 앞에서 학생이나, 사회단체에서 각종 집회를 열었지만, 기지정문에서 오랜 기간 천막 농성을 벌인 경우는 인천이 유일무이했다. 천막 농성은 애초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에서 허가들 얻었으나, 관할 관청인 부평구청이 “전국적으로 농성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경찰에 의해 농성장 설치 등은 저지당했다.¹⁷

2000년 5월 23일부터 시작한 철야 천막 농성은 2002년 3월 29일 반환이 결정될 때

15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288~289쪽.

16 김성진은 인천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 사회, 시민운동을 하다가, 민주노동당,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김 씨는 1996년 노상에서 비닐 한 장을 덮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이 부평 미군기지 철야 농성으로 이어졌다. 김 씨는 “일부 시민이 색안경을 끼고 외면할 때나, 헤아릴 수 없는 집회와 행사에도 반응이 없는 미군과 한국 정부의 모습에서 힘들었다. 기약 없는 반환 운동이란 생각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도 늘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7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132~133쪽.

까지 674일간 이어졌다. 천막 농성장을 놓고 철거를 요구하는 경찰과 천막을 지키려는 인천시민회의 회원 간에 몇 차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⁸ 하지만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막 농성이 가능했던 힘은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인천 지역 시민사회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회의가 674일 동안 운영한 천막 농성장에 대한 기록인 ‘농성일기’를 통해 이는 어느 정도 확인가능하다.



❖ 미군기지 앞 노상 단식 농성 모습

오전 10시 23분께 지나가던 주부가 말없이 모금함에 무엇인가 넣고 갔고, 30대 남성이 “통근 버스 타고 지나가다 매일 보았다. 얼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오래하는 것 보니 이번엔 뭔가 되겠다”는 말과 함께 과일과 음료수를 주고 갔다. 오후에도 고등학생과 교사 한 명이 음료수를 사다주고(갔다.)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던 주부가 격려와 함께 1만 원 모금함에 넣었다.

[농성 38일 차(7월 1일), 농성자 김진덕·김학경·변길섭]

18 한만송, 『캠핑 마켓』, 봉구네책방, 2011, 270쪽.

전대희 신부와 신학생 2명이 방문해 성금 5만 원을 내주셨고, 오후 4시에 40분경에는 중학생 3명이 “아저씨 힘내요”라고 격려했다. 오후 6시 30분경에는 농성장 인근에 사는 시민 한 분이 채(인천 33다73**)를 타고 오셔서 생수 6통, 음료 3통과 얼음을 왕창 주고 갔다.

[농성 43일차(7월 6일) 농성자 김진덕·리완·안창현·장수경]

한 시민이 삼계탕을 많이 끊여 오심. 감동! 시민의 마음 받아 열심히 먹고 투쟁(웃음), 삼계탕 주신 분이 그릇을 찾으러 왔기에 월간 아름다운 청년 78호를 선물로 드리고 연락처를 드렸다.

[농성 67일 차(7월 30일)]

이처럼 미군기지 농성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했다. 농성장 인근 거주 주민 김정길, 유말순, 이연옥은 자신들의 집 전화번호를 농성 일지에 적어 놓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¹⁹ 전기와 식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협조해 주겠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또한 천막 농성장은 캠프 마켓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평 구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수행했다. 농성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등이 진행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미군기지를 되찾겠다는 활동가와 시민들을 모으는 거점의 역할을 담당했다.²⁰

특히 주목받은 것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2년 동안의 24시간 천막 농성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부평 미군부대 인근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뒤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2년 동안의 릴레이 시위를 벌여 부대 이전에 대한 여론 조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²¹

19 한만송, 『캠핑 마켓』, 봉구네책방, 2011, 271쪽.

20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133쪽.

21 이희동, 「부평의 현황과 자기 정체성」, 『인천문화비평』17,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2005, 26쪽.

인천시민회의는 2000년 8월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천시민대축전을 개최해 미군기지 반환 운동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인천시민회의는 2001년 4월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천 시민 3대 행동(1만인 선언운동, 24시간 시민감시단, 인천 시민 강강술래)'를 발표했다.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 등 인천시민회의 산하단체들은 4월 26일 캠프마켓 옛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시민감시사업'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활동 개시를 선언했다.



❖ 부평 미군기지 앞에 설치된 시민감시단 천막(출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시민회의는 회견문에서 개정 소파(SOFA)는 매년 미군기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사용하지 않는 부지와 시설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정부는 캠프마켓에 대한 실사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감시단은 캠프마켓 4개의 주 출입구의 인원, 차량 통행상황 및 기지 내 사용 실태를 주변 아파트 옥상 등지에서 감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미국에 유휴시설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캠프마켓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부대 내 폐차 작업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에 시달린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시민감시단은 캠프마켓을 출입하는 차량 중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

지 않은 무적 차량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민감시단 활동 과정 중 한국인 노무자나 캠프마켓 관리자와 충돌하기도 했다.

30일 동안 연인원 700여 명이 참여한 시민감시단 활동한 결과를 인천시민회의는 6월 27일 공개했다. 인천시민회의는 “캠프마켓은 군사기지로서의 가치는 없고 빵 공장 등 유통 보급창고시설과 폐기물하치장, 파친코장 등의 유락 영업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카지노 시설, 과외를 받기 위한 출입, 외제 가구 판매상 차량의 출입 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로의 용도보다는 단순 창고와 위락시설,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불법 영업의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감시 활동을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회의는 시민감시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과 한국 정부에 항의서 전달하고,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회의는 활동기간을 3기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평가했다. 1기는 1996~1997년 기간으로 조직의 태동과 지역 운동으로서 토대를 구축한 시기로 평가했다. 캠프마켓 문제를 대중적으로 공개하고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전국적, 국제적 연대를 시작했다. 2기는 1998~1999년 기간이다. 문제 제기는 이루어졌으나 주한미군에 대한 민감한 현안을 다루고 있어 운동의 동력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했던 시기로 보았다. 또한 인천시민회의는 토요 집회 등을 통해 꾸준히 캠프마켓 반환 이슈를 제시했는데, 이런 노력이 있어 폭발적 시민운동이 전개된 3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3기는 천막 농성과 시민감시단, 강강술래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에 부평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이어졌다. 인천시민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캠프마켓 이전 이후 친일파 후손에 의한 땅 찾기 소송과 캠프마켓 일대의 환경문제까지 포함한다”고 인천시민회의 활동을 시기별로 나눴다.

1996년 출범한 인천시민회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보면 1단계는 주한미군에 빼앗긴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 2단계는 친일파 후손에 의한 땅 찾기에 맞선 투쟁의 시기였다. 1, 2단계 모두 외세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3단계는 오염된 우리 땅을 어

떻게 정확하고 대다수 시민이 동의하는 올바른 활용 방안 도출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지금은 3단계이고 현재 진행형이다.²²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했다. ‘연합 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²³과 ‘용산기지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Plan)’ 등 한미 양국의 다양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02년 기준 전국에 산재하는 96개의 미군기지 중 20개 기지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평택에 세계 최대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부지와 비용을 미군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5. 캠프 마켓 이전 운동을 주도한 ‘부공추’, 다양한 활동 통해 캠프 마켓 이슈 쟁점화 주도

‘부공추’는 전쟁과 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금단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주한미군 문제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쟁점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민회의가 시민사회 활동가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부공추는 주민조직과 지방의회, 정치권 등과 함께하면서, 캠프 마켓 문제를 좀 더 ‘시민친화적’으로 공론화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4월 28일 산곡동과 부평동 주민들이 캠프 마켓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샘터교회에서 모인 것을 부공추 결성의 시발로 본다.²⁴ 부공추는 그해 11월 5일 인천부평청년회의소에서 가칭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

입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호인수 신부²⁵)는 부평 미군부대 되찾기를 위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공추와 인천시민회의의 회원과 부평 지역 인사 등이 참여했다. 부공추의 활동 또한 크게 3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1단계는 캠프 마켓 이전 운동 시기였고, 2단계는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인천시의 토지매각 반대 운동 시기였다. 마지막 3단계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 모색 시기이다.”

-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²⁶

부공추는 발족 후 정부와 국회에 대한 활동에 집중했다. 캠프 마켓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 운동을 개시하는 한편, 1997년 5월 14일 인천 시민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998년 4월에도 인천 시민 걷기대회를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캠프 마켓의 조속한 이전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1997년 4월 부공추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청원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특히 부공추는 1997년 11월 대선 후보들에게 캠프 마켓 이전에 관한 공약을 물어 정치권 의제로 만들었다. 인천시민회의가 집회와 홍보 등에 집중한 반면, 부공추는 캠프 마켓 이전 문제를 정치 의제화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은 모두 캠프 마켓의 조속한 이전과 공원 조성을 공약화했다. 부공추는 1999년 5월 24일 인터넷 이메일(E-Mail)을 통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캠프 마켓의 이전을 요구하는 글을 보냈다. 한국 민간단체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기지 이전 요구를 이메일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22 한만송, 『캠프 마켓』, 봉구네책방, 2011, 276쪽.

23 전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1단계로 한강 이북 기지를 동두천과 의정부로 통합하고, 2단계로 평택-군산 등으로 이전해 통폐합하는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4 한만송, 『캠프 마켓』, 봉구네책방, 2011, 286쪽.

25 호인수 신부는 1976년 사제서품을 받고 주안1동 성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1970년 중후반부터 인천에서 다양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시헌법 철폐를 외친 김병삼 신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환경운동의 태두였던 공해문제연구소를 정호경 신부·최완택 목사·최열 등과 함께 만들었다. 제정구, 이호웅, 이우재 등과 인천사회운동연합을 만든 데 이어 의사 홍성훈 등과 빈민의료협회를 결성했다.

26 인천시 소통협력관이며 최용규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였다. 한만송, 『캠프 마켓』, 봉구네책방, 2011, 286쪽.

부공추는 청원 글을 통해 “16만 평의 터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부대 근무 인원은 10명에 불과한 데다 이 부대는 보안이 필요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마켓 기능이 주된 부대”라고 밝히고 “교통 혼잡도를 완화시키려고 도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캠프 마켓의 일부 부지를 관통하는 관계로 미군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 마켓으로 인해 도로(장고개길) 건설이 중단되고 또 캠프 마켓에 있는 소각장과 쓰레기장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부공추는 캠프 마켓의 이전, 이전이 바로 어려울 경우 쓰레기장과 소각장 폐쇄 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 부대 운영에 필요한 부지 외에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 등 3개 항의 실천을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한미 정상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은 기술의 발전과도 연관된다. 1980년부터 대규모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던 표현의 방식이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진 셈이다.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 국민행동²⁷은 1999년 12월 22일부터 두 달 동안 불평등한 소파(SOFA) 전면 개정을 위한 팩스 시위를 벌였다. 팩스 시위는 미 대사관과 청와대,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기자실 등에 매일 두 차례씩 돌아가면서 전개했다.



❖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 개정 청구 인명부 제출기자회견(2001, 부평구청)

27 1999년 10월 6일 문규현 신부와 홍근수 목사, 진관 스님 등 종교계 인사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및 종교 단체 대표들은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개정 활동에 착수했다.

부공추는 1999년 5월 29일 캠프 마켓 옆 북개천에서 최용규 전 부평구청장, 신현기 부평구의회 의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 미군부대 시민공원 만들기’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풍물놀이패를 앞세우고 부평 미군부대 주변 약 3km 구간을 돌며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부공추는 2000년 28개 시민 단체를 묶어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과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띠 잇기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상임대표는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오순부 대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오용호 신부, 주안장로교회 나경일 목사, 민주당 박상규 인천시지부장, 한나라당 조진형 인천시지부장을 선임했다. 부공추 1,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9월 30일 캠프 마켓 돌레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했다.²⁸ 이에 앞선 3월에도 3·25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걷기대회는 부공추가 주도했으며 인천시민연대와 부평문화원, 경인일보사, I-TV 방송국이 후원했다.

2001년 7월 캠프 마켓 이전을 위한 최초로 합법적 주민투표가 가능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이 추진됐다. 부공추는 아파트 부녀회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 조례 제정에 1만 5,194명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청원했다. 조례안은 캠프 마켓 주둔에 대한 주민 의사를 물어 그 결과를 정부와 미군 당국에 통보하고 조례 제정 이후 150일 이내에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부평구의회는 2001년 12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전국 처음으로 미군부대 이전에 관해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평구청장이 이에 대한 공포를 거부한 채 재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인천시와 부평구는 “「지방자치법」에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의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조례 공포 직후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²⁹ 『헌법』과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주민들의 조례 제정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다. 외교와 국방 등의 국가 사무를 침해할 수 있는 조례는 제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28 송정로, 『인천 시민사회운동 20년사』, 명문미디어아트팩, 2008.

29 「부평구의회 "미군부대 이전 주민투표 강행"」, 『동아일보』, 2001년 1월 30일자.

이들은 국가 사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구청장의 정당한 ‘의견 개진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부공추는 “주민투표가 미군부대 이전을 결정하는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의사를 묻는 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 뒤 구청장이 국방부에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와 부평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단순히 묻는 것이라면, 주민투표가 아닌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주민투표가 외교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 역시 국방시설 이전 등 국방과 외교 관련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 일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부공추의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주민투표 이슈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토론회(2001, 부평구청)

부공추는 이어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캠프 마켓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보다 지역의 현안임을 인식시키는 여론전을 벌였다. 부공추도 캠프 마켓의 반환 결정 이후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부공추는 2003년 4월 11일 ‘부평 미군부대 활용 방안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한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집행위원장과 인천시 도시계획과 과장, 장은영 동아아파트 2단지 부녀회 총무, 광경전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부공추는 캠프 마켓 활용 방안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여론전을 벌였다. 부공추는 캠프 마켓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03년, 2005년, 2007년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편 부공추는 인천시민회의와 마찬가지로 1998년 7월부터 1999년 4월까지 각 1만 부씩 모두 3차례에 걸쳐 소식지를 제작해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 배포했다.

〈부공추 임원진〉

(2004년 기준)

- ▶ 회원단체 : 부평사랑회, 부평시민모임, 산곡동·부평동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포럼비전21, 인천 지역감리교목회자협의회, 인천청년회의소
- ▶ 고문단 : 김기석, 김병상, 박상규, 박수묵, 박윤배, 이찬구, 정화영, 조진형, 진영광
- ▶ 자문위원단 : 김세훈, 김덕희, 두충근, 류수용, 박남수, 손석태, 송종식, 신은호, 엄웅진, 이범호, 이익성, 임덕수, 최원식, 최주현, 황충식, 홍미영, 경남아파트 1차 부녀회, 경남아파트 2차 부녀회, 경남아파트 4차 부녀회, 동아아파트 1단지 부녀회, 동아아파트 2단지 부녀회, 대림 아파트 부녀회, 창보아파트 부녀회, 현대아파트 5단지 부녀회, 부개주공 7단지 부녀회, 부개뉴서울아파트 부녀회, 산곡뉴서울아파트 부녀회, 삼보한신아파트 부녀회
- ▶ 공동대표 : 김성복, 신종철, 안인기, 오순부, 이필주, 최용규
- ▶ 집행위원장 : 문병호
- ▶ 실무위원 : 권순덕, 박인규, 송규의, 신봉훈, 오치한, 황순형, 홍영복
- ▶ 사무국장 : 광경전

6. 캠프 마켓 활용 방안, 선거 단골 공약으로 등장

캠프 마켓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이 확정된 이후 캠프 마켓 반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인천 시민과 부평 구민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 기지 활용 방안은 곧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에서 캠프 마켓 활용 방안 관련 공약이 단골로 등장했다.

그 시작은 인천시민회의를 중심으로 활동 인사들이 결합한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부평에 역량을 투입했다. ‘시민단체 지지후보’라는 타이틀을 내건 한상욱 부평구청장 후보를 출마시켰다. 민주노동당 한상욱 부평구청장 후보는 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와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았다가 2002년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평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처음 출마한 부평구에서 한 후보는 2만 8,006표(19.11%)의 지지를 획득했다. 당시 수도권 민주노동당 후보 중 한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력을 보였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경남, 울산과 경기 성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천 부평이 가장 높은 득표력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평균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는 득표력이었다. 2002년 6·13 지방선거 정당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은 전국 평균 8.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진보정당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기세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정치적 성장은 이후 인천 지역 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형성하는 정치적 토대가 됐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최초로 기초단체장을 2010년에 2명이나 배출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제1야당과 ‘야권 연대’를 통해 2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배진교 남동구청장과 조택상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³⁰

2004년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한 한상욱 후보는 1만 5,289표(12.83%)를 얻어 열린우리당 문병호,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

30 배진교 후보는 54.98%를 득표해 45.01%를 차지한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를 10%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이겼다. 조택상 후보도 41.52%를 득표해 38.99%를 얻는 데 그친 한나라당 이흥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했다. 제17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주노동당 후보자 중 10%를 넘는 후보는 손에 꼽힐 정도였다. 이 같은 득표력은 수년에 걸쳐 캠프 마켓 반환 운동을 하면서 이룬 정치적 성과로 해석됐다. 인천시민회의는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캠프 마켓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인천 지역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평은 부상했다. 인천 민주노동당이 부평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수년에 걸쳐 진행한 캠프 마켓 반환 운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층 저변 확대와 캠프 마켓 반환이란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반면 부공추에는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정치적으로 큰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 운동한 경력을 대표 경력으로 내세운 반면, 부공추 소속의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대표 경력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주요 여야 정당 정치인들이 포진돼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겨진다. 하지만 부공추에 참여했던 정치인들도 캠프 마켓 문제를 주요 의제로 발굴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했다. 부공추 소속이었던 문병호, 홍영표 국회의원은 총선 때마다 캠프 마켓 활용 방안을 주된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부평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캠프 마켓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캠프 마켓 반환에 따른 공원 조성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 철수부터 공원 조성까지 과정을 함께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했다. 부산 시민공원 조성 과정과 문제점을 조명해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문병호·홍영표 의원이 지정 토론자로 캠프 마켓 공원화와 인근 지역 개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뒤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였다. 특히 문병호 전 국회의원은 캠프 마켓 반환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외형적으로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³¹ 문병호 전 국회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부공추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제19대 총선 때는 캠프 마켓 부지의 국가 공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에서 활동했던 홍미영 부평구청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도 캠프 마켓 활용 방안을 들고 지방선거에서 부평 유권자를 만났다. 2018년 지방선거에 부평구청장으로 당선된 차준

31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 등, 정치쟁점화?」, 『인천투데이』, 2015년 6월 17일자.

택 부평구청장도 반환되는 캠프 마켓에 '평화박물관'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 을)은 제21대 총선에서 캠프 마켓 반환 부지와 산곡동 소재 제3보급단, 부영공원까지 이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열섬화 현상³²이 심각한 부평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격한 것이다. 캠프 마켓에 예술대학 유치와, 대중문화예술 고등학교 신설도 공약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 갑)은 제21대 총선에서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문화생태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제2절 | 캠프 마켓 환경오염 문제

캠프 마켓 부지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이다.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부평구 산곡1~4동과 부평1·3동으로, 면적은 7.13km²(216만 평)이며, 캠프 마켓 면적은 44만m²에달한다. 2018년 7월 기준 캠프 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14만 3,564명에 이른다.

표 1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2018.7.기준, 단위: km²/명)

구분 \ 지역	부평1동	부평3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합계
면적	1.1	1.0	2.07	0.92	1.43	0.76	7.28
인구	36,956	15,120	15,243	33,370	23,877	18,998	143,564

³² 산업화에서 비롯된 도시 열섬화 현상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에서 생성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 도시에서 막을 형성한다. 아스팔트는 다른 물질보다 열을 2,000배 이상 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화가 진행된 부평은 인천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 캠프 마켓 전경(주안장로교회에서 부영공원 방향)(2016, 부평구청)



❖ 캠프 마켓 오수정화조 부지 전경

캠프 마켓 부지는 국방부가 99.4%인 43만 7,258㎡를 소유하고 있다. 캠프 마켓 오수 정화조 부지 4필지도 국방부가 100%인 5,921㎡를 소유하고 있다.

군수물자 저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캠프 마켓은 1951년 8월 31일자로 주한미군에 공여됐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주한미군 주둔 합의)와 소파(SOFA) 제2조(주한미군 시설과 구역 제공 합의)에 근거해 부지를 공여했다. 캠프 마켓 반환 우선 공여구역은 전체 반환구역 44만㎡ 중 21만 765㎡와 오수 정화조 부지다. 향후 반환될 부지의 면적은 22만 9,235㎡이다.

1단계 반환구역은 부평공원과 마주한 지역으로 미군이 야구장 등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인천시는 반환 공여구역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개방해 미군기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군기지 반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군수품 재활용센터)로 사용됐던 부지 또한 개방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표 2 반환 공여구역

(단위 : ㎡)				
구분	1단계(A)	1단계(B)	1단계(C)	계
면적	109,961	100,804	5,921	216,686
용도	DRMO(88,187) 포함	군 막사 부지	오수 정화조	

캠프 마켓이 평택 미군기지로 통폐합된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인천 시민과 부평 구민들의 관심은 캠프 마켓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였다. 활용 방안과 함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캠프 마켓과 주변지역의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몇 차례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진행된 환경 실태조사에서 과거 미군이 군사 기지로 활용됐던 토지 등이 유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미군이 오랜 기간 점유하여 군사기지로 사용한 부지이므로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오염원인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는 정화 주체를 분명

히 하자는 지적이었다. 정화 기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지 반환 후 즉각적 활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이로 인해 불평등한 소파(SOFA)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왔다.

소파(SOFA) 협정은 세계의 경찰국가로 자부하면서, 세계 각국에 군사 조치를 취하는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결된 측면이 강했다. 주한미군 주둔 이후 파생된 각종 문제와 관련해 대응했던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소파(SOFA)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언론과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 의무 조항 신설이 절실했다. 이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과 구역 접근 보장, 환경오염 피해 조사 요청 허가 의무화,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화 등을 미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생존권과 연결됐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분쟁을 억제한다는 다수 의견도 있지만, 미군은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미군이 철수한 뒤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하거나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를 물려줄 수 없다면 어떡하겠는가? 이에 시민사회 등은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를 한국 정부가 명령하고, 환경오염원인자가 정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미국에 꾸준히 제기했다.

연합토지관계획(LPP)에 따르면, 2005년까지 춘천 캠프 페이지(Camp Page), 파주 캠프 하우스(Camp Howze) 등 11개의 미군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단계적으로 기지들의 반환이 이어지자, 반환 공여구역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미군이 치유해야 할 오염 기준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해 국내 「토양환경오염보전법」 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미군은 자체 훈령에서 해외 활동 미군의 환경 치유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 위협에 한한다면서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결국 이는 미군이 해외 여러 곳에 주둔기지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 캠프 마켓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심각한 것으로 계속 확인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2008년 1월에 처음 진행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환경부 시행 지침에 따라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이뤄졌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에 전국 여러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110회 진행됐다. 조사 결과 토양이나 지하수에 오염 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된 경우가 무려 66회나 됐다. 2008년에는 캠프 마켓 외에도 군산비행장, 캠프 캐슬(동두천, Camp Castle), 캠프 페이지(춘천, Camp Page)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진행됐다.

2008년 캠프 마켓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는 인천 시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시했던 시절에 군부대 주둔지역의 유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은 비밀 비재했다. 부평은 미군부대와 한국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라 어느 정도의 오염은 예상됐지만,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부평구가 의뢰해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 보고서(2008.12.3.)에 따르면, 산곡3동 현대아파트에서 미군기지 옛 정문까지를 제외한 기지 주변지역 총 83개 조사 지점 중 13개 지점의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구리, 납, 비소, 아연, 불소도 우려 기준을 초과해 여러 지점에서 검출됐다. 지하수는 부영공원, 산곡동 경남4차와 2차 아파트 사이, 주안장로교회 주차장 인근 등 3개의 관측 지점에서 측정했는데, 트리클로로에틸렌(TEC, 2지점), 대장균(3개 지점), 일반 세균(4개 지점)이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³³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드라이 크리닝 세정제 성분으로 미군기지 내 세탁공장이 오랜 기간 가동돼 오염원인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2009년 초 부평구 의뢰로 1차 조사 결과 오염이 심각하다고 예상되는 16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5

³³ 한만승, 『캠프 마켓』, 봉구네책방, 2011, 304쪽.

개 구역으로 나눠 87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도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서 석유계탄화수소, 벤젠, 구리, 납, 아연 등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환경부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은 한국군 부대인 옛 68경차부대(부지는 현 부영공원 자리에 해당함) 운영에 따른 오염인 것으로 판단된 다면서 환경오염원인을 미군과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부평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운동을 벌였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박 겉핥기’ 조사라며, 미군기지 안팎을 모두 조사하는 심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⁴

캠프 마켓 주변지역이 유류 등으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여구역인 부평구 산곡동 소재 부영공원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멧뚱이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녹색연합과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³⁵의 부영공원 생태조사팀은 2007년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11차례 부영공원 일대를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서 과거 한국군 막사로 사용됐던 곳의 수로를 비롯해 부영공원 곳곳의 물웅덩이와 땅속, 나뭇더미 등에서 멧뚱이 성체 500여 마리와 수 천마리의 멧뚱이 올챙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공원 내의 옛 군부대 막사의 수로, 산곡남초등학교 쪽 주차장 부근 물웅덩이, 운동장 사이로 수로 그리고 부영공원과 캠프 마켓 경계지역 숲의 두엄과 땅속 등에서 멧뚱이가 발견된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 부대가 이전하고, 부분 개방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출입이 없어 멧뚱이의 대규모 집단 서식이 가능했다고 이 단체들은 분석했다. 인천녹색연합 등은 국방부와 환경부, 인천시,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멧뚱이의 서식 실태와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멧뚱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부영공원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천시와 부평구에는 부영공원 옆 굴포천 복개 구간에 대한 복원계획도 수립해 부평의 핵심 생태축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당시 인천에서는 녹지 공간으로 있었던 청라지구와 계양산, 굴포천 삼각지, 서창

³⁴ 한만승, 『캠프 마켓』, 봉구네책방, 2011, 306쪽.

³⁵ 부평구 산곡3동 소재 어린이도서관이다. “2003년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뜻을 모아 개관했다.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은 산곡3동의 마을사랑방에서 문화놀이터 역할을 하며, 마을공동체에 일조하고 있다.

지구 등에서만 맹꽂이의 서식이 일부 확인된 상태였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꽂이와 성체가 집단으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다.

캠프마켓 주 기능이 평택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활발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보호종인 맹꽂이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캠프마켓 공여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여구역의 일정 부분을 도시 농원으로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은 도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생태 농법의 텃밭과 논, 즉 시민농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캠프마켓에 70% 이상 공원 조성되면,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농업을 접목”하자고 제시했다. 계양산, 원적산 등의 산기슭뿐 아니라 굴포천, 승기천 등 하천 둔치, 아파트 화단 등 한 뼘의 땅만 있으면 시민들이 경작을 하는 만큼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에 농원을 조성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심 내 녹지를 확보하자는 주장이었다. 단순한 농사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자연 교육과 고령층을 위한 일거리 제공, 도시의 환경문제 해결 등을 도시 농업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이었다.



❖ 미 육군 대위 출신의 필 스투어트의 기자회견 모습

그러나 2011년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수천 통의 고엽제 물질을 매립했다는 증언과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를 한국에 묻었다는 미 퇴역

군인의 증언은 2011년 5월 발표됐다. 당시 미 애리조나주 지역 TV 방송인 CBS5는 탐사 보도를 통해 1970년대 대구 인근 캠프 캐롤(Camp Carroll)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에이전트 오렌지 수천 kg을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고 보도했고, 이로 인해 파장이 일었다. 미 육군 대위 출신 필 스투어트는 2011년 7월 28일 인천을 찾아 “한국에서 8년간 고엽제를 제조제로 뿌렸고, 애스کم 중 한 곳에서 고엽제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해 충격을 줬다. 스투어트는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인천시청,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튜어트는 1968년부터 2년 동안 주한미군 공병대 중대장으로 복무했다. 그는 ‘캠프마켓에서도 고엽제 물질을 처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애스کم 중 한 곳에서 고엽제를 사용했다는 (퇴역 군인) 3명의 진술이 있었다. 차량 운행 중 실수로 유출돼 땅을 고압 호수로 청소했고, 그것이 배수로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이 있고, 그 진술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주장했다.³⁶

이에 앞서 2011년 5월 재미 언론인 안치용도 자신의 블로그에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캠프마켓에서 유독 물질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1989년 캠프마켓에 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448드럼을 한국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1년 미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와 외부 용역을 통해 발간한 문서에는 1987년부터 캠프마켓 내 DRMO의 폐기물 처리 현황 등도 일부 공개돼 있었다. 해당 문서의 ‘DRMO 폐기물 처리 데이터’를 보면, 솔벤트 슬러지(solvent sludge, 용제 침전물), 배터리 에이씨드(battery acid, 전지산), 샌드 블래스트 레지듀(sandblast residue, 분사기 찌꺼기) 등 각종 유해 폐기물이 DRMO에서 처리됐다. 1991년 미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외부 용역을 통해 발간한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 폐기물최소화방안(Hazardous Waste Minimization and Treatment Opportunities in the Eighth U.S. Army and the U.S. Army, Japan)’에는 1987-1989년 캠프마켓 DRMO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폴리염화비페닐(PCBs) 448드럼, 수은폐기물 10파운드, 석면(asbestos) 2,580파운드, 배터리산(Battery acid) 118캔, 솔벤트슬러

36 한만승,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1, 308쪽.

지(Solvent sludge) 82드립, 하이포솔루션(Hypo solution) 77드립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2015년 5월 알려졌다.³⁷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혀 고엽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홍 의원은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2009년 수행한 캠프 마켓 1차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캠프 캐롤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맹독성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에틸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09년 조사에서 이 발암물질은 캠프 마켓 북측 측면 2개 지점, 동쪽 측면 1개 지점에서 검출됐다.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유독성 폐기물 처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캠프 마켓을 찾아 환경오염 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6월 13일 캠프 마켓 신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미군은 캠프 캐롤에서 실시한 환경조사를 캠프 마켓에서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³⁸

외신 보도와 퇴역 군인들의 증언 등이 나오면서 캠프 마켓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대적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반발이 계속되자, 인천시는 2011년 6월 다이옥신 관련 특별조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기지 면적이 60만 6,615㎡인데, 그 둘레 주변지역 9곳에서만 시료 15건을 조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달간 진행한 조사 결과, 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다이옥신은 토양 6개 지점과 지하수 등에서 검출됐지만, 수치는 평균 농도보다 낮은 수치였다.

2. 맹독성 인천대책위원회 출범과 활동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환경조사와 미군에 의한 환경 정화를 촉구하는 연대가 본격화됐다. 인천 지역 정당과 시민, 종교단체 관계자들은 2011년 6월 1일 부평구청에서 가칭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및

37 「경북 이어 부천도 고엽제 공포 …… 부평 캠프 마켓은?」, 『부평신문』, 2011년 5월 25일자.

38 「부평구의원 “캠프 마켓 환경조사 실시하라”」, 『연합뉴스』, 2011년 6월 13일자.

조기 반환 인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맹독성 인천대책위) 구성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캠프 마켓 기지 내 환경조사, 캠프 마켓에서 처리된 폐기물 처리 기록 공개, 캠프 마켓 조기 반환, 소파(SOFA) 개정 촉구 등을 활동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했다.

맹독성 인천대책위 회원들은 이에 앞선 5월 28일부터 캠프 마켓 정문 앞에서 캠프 마켓에 대한 환경조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8일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공식 출범을 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맹독성 인천대책위에는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으로 나누어졌던 시민사회 역량이 집중돼 출범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등의 정치권도 결합했다. 여기에 환경 관련 단체와 부평 지역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천시민회의와 부공추에서 1인씩 배출했으며, 캠프 마켓 환경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도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했다. 상임대표는 캠프 마켓과 인접한 부평1동 주임신부인 김일희가 맡았다. 김 신부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도 역임하고 있었다.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처리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가나다순)

가톨릭청년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굴포천시민모임 (사)나눔과함께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인천 지역본부 민주통합당인천시당 부평기독교연합회 부평 미군기지되찾기인천시민회의 부평 미군기지공원화동아아파트추진위원회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부평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생포럼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운동초심모임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시민광장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장애인자립선언 진보신당인천시당 참좋은생활협동조합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인천시당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행동하는시민모임

3. 맹독성 인천대책위원회, 캠프 마켓 주변지역 오염과 관련해 정부 책임 강조

환경단체와 캠프 마켓 주변지역 피해 주민 90여 명은 캠프 마켓 주변지역이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2년 3월 이들은 캠프 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관련해 당시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3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각종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했다면서 형법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5월 9일 캠프 마켓 주변지역 민관 공동조사단이 부영공원 등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정부가 캠프 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도 역설했다. 이들은 부영공원의 즉각적 폐쇄와 오염 대책 수립, 산곡남초등학교 부지의 오염도 조사와 후속 조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부영공원 인근 일부 주민들은 “동네가 오염지역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공원 폐쇄 등에 반대했다. 매일 같이 이용하던 공원을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염동네’라는 오명으로 집값 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³⁹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2012년 6월 14일 부평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캠프 마켓 주변지역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간담회에서 맹독성 인천대책위와 문병호·홍영표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주요 의제화, 중앙 정부 부영공원 등 주변지역 오염 정화 촉구를 위한 환경부와 국방부 장관 면담 추진, DRMO와 캠프 마켓 내부 환경오염 한미 합동 민관 공동 조사 추진, 반환 미군기지 국가 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에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12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면담하고 신속한 환경오염 정화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9 「부평 미군기지 주변 오염지역 언제쯤 정화될까」, 『연합뉴스』, 2012년 9월 28일자.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9월 27일 국회를 찾아 캠프 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일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한광용 민관공동조사단장, 홍영표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를 분석해 17종 다이옥신의 총량을 공개했다. 10월 10일에는 용산 국방부 정문에서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주한미군 독극물 매립을 규탄하고, 국방부의 신속한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염이 확인된 산곡동 부영공원 정화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도 진행됐다. 맹독성 인천대책위 회원들은 10월 23일 부평구청 정문을 비롯한 구청 주변지역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부평구에 ‘오염 정화 명령’ 조치, 국방부의 즉각적 오염 정화 예산 편성, 민관공동조사단 구성과 정밀조사 등을 주장했다.

부평구는 국방부에 부평 미군기지 주변지역(부영공원)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2012년 10월 9일 내렸다. 부평구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은 2009년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 2012년 부평구의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5조는(토양오염 방지 조치 명령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 측정, 토양오염 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 기준을 넘을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화 명령이 내려지면 오염원인자는 법적으로 오염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평구가 국방부에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국방부는 2013년 4월8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했다. 부평구는 국방부가 수행하게 될 정밀조사 항목에 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했지만, 「토양환경보전법」상 정밀조사 항목에 다이옥신은 제외됐다.

부평구가 국방부에 부영공원에 대한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공원의 오염 정화에 대한 기준을 놓고 맹독성 인천대책위와 정부의 갈등은 계속됐다. 국방부는 부영공원이 지목상 임야와 잡종지라면서, 오염 정화 기준을 임야와 잡종지 기준으로 정화하겠다는 의사였던 반면,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부영공원은 이미 많은 시민과 학생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곳이고, 2009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했다면서, 공원과 주거지에 해당하는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 부영공원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2년 조사 결과 「지적법」상 공원과 주거지에 해당하는 1지역 기준(500)을 적용할 경우 TPH 초과 지점이 13지점인데, 임야와 잡종지에 해당하는 2지역 기준(800)을 적용하면 오염 초과 지점이 9지점이 되고, 납(Pb)의 경우에도 5지점에서 3지점으로 줄어든다고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반발했다.

주한미군에 한국 정부가 공여 중인 땅은 주한미군이 규정한 환경관리기준(EGS⁴⁰)에 따라 관리되며, 이 중 반환 대상 기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한미 간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치유기준(KISE)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조치하고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한미 당국의 환경치유기준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 자체가 지연되기도 했다.

표 3 한미 환경치유기준(KISE)

구분	국방부	주한미군
기준	70년 동안 10만명 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5월 6일 부영공원 정밀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한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방부는 부영공원은 1973년 반환된 주한 미군 공여지로서 토양오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미 간 공유된 모든 정보는 소파(SOFA)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공개할 수 없고, 국방정보 공개 훈령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조사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파(SOFA) 규정은 별도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체결된 조약으로 볼 수 없고, 국방정보공개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 지침 용도에 불과하다면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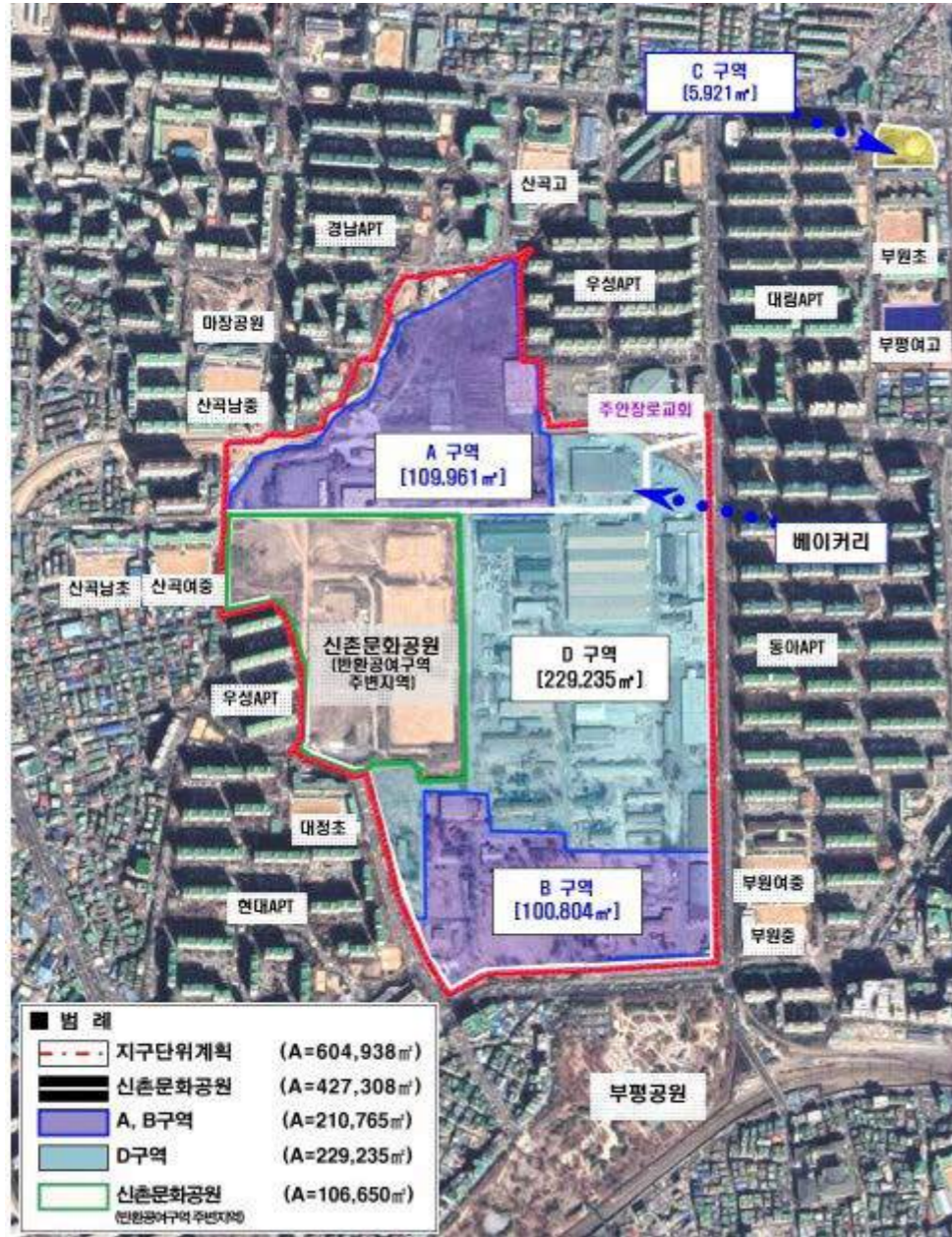
40 주한미군의 평시 환경보호를 위한 자체 기준 절차이다. 세부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관련 기자회견 모습(출처 : 인천녹색연합)

맹독성 인천대책위는 캠프 마켓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끈질기게 활동했다. 2018년에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캠프 마켓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소파(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오염 책임자인 미군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10월부터 9차례 이상 민관협의회를 국방부와 진행했다. 또한 11월 3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조속한 반환 및 1단계 환경 치유, 캠프 마켓 오수정화조 부지 1단계 잔환 사용 협조, 1단계 반환구역 내·외부 동시 정화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환경부가 실시 중인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항목’에 다이옥신 추가 등을 건의했다.



❖ 캠프 마켓 반환구역 구역도(출처: 인천광역시)

2019년 6월부터 DRMO지역 복합오염 토양 정화 용역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1월 기준 1단계 A구역 토양 정화 용역이 실시설계를 끝마친 상태다.



❖ 캠프 마켓 토양 정화 사업 현장 주민설명회(2019, 부평구청)

1. 캠프 마켓 문제 풀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 제1회 부평 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개최(2012, 인천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 제4기 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2018, 인천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지만, 핵심은 ‘시민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어려운 문제를 힘을 합쳐 풀어 나가는’ 협치에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했다가 떠나간 지역의 재생과 발전이라는 의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들의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소파(SOFA)의 문제점, 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반환 공여구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반환 공여 지역의 주민, 지방정부, 정치권 그리고 중앙 정부가 협력하는 데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만 했다. 더욱이 반환 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나, 지역별 다른 상황 등으로 인해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돼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인천시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 많은 시민, 전문가와 함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인천시는 2020년 7월 ‘제5기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인천시 캠프 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 전문가 등 참여위원을 모집했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는 2019년 말 캠프 마켓 부지 일부를 반환받은 이후 첫 시민참여위원회로 의의가 남달랐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는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 정부부시장 등 당연직 7명과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환경·역사·예술 분야 전문가 27명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캠프 마켓 부지의 일부 반환 뒤 처음으로 출범하는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인 만큼 시민 친화적 방향으로 캠프 마켓 활용 방안의 밑그림을 마련해 줄 역할을 하게 됐다. 4기 인천시



❖ 제2회 부평 캠프 마켓 시민생각 찾기 포스터 (출처 : 부평구청 공식 블로그)

시민참여위원회는 2019년 다섯 번, 2020년 몇 차례 회의를 열고 캠프 마켓 관련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2019년 첫 번째 회의 때는 캠프 마켓 DRMO 내 복합오염 토양 정화 용역 착수 보고,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진행 사항 공유, '신촌공원' 조성계획, 신촌공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회의 때는 신촌공원 명칭 변경 추진 방안과 제2회 캠프 마켓 시민참여 콘퍼런스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는 8월과 9월 10월에도 캠프 마켓의 환경, 활용, 시민참여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4기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일간 '부평 캠프 마켓 시민 생각 찾기'란 사업을 진행했다. '캠프 마켓의 미래, 과연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1일에는 시민들이 캠프 마켓에 들어가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다. 다음 날에는 부평안전체험관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모여 캠프 마켓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토론하는 콘퍼런스도 열렸다. 마지막 날에는 캠프 마켓 남쪽 야구장에서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밴드 공연과 캠프 마켓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뮤지컬 '조병창,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선보였다. 캠프 마켓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군기지 반환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의도로 진행된 행사였다.

2020년 첫 회의에서는 캠프 마켓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야구장 부지 개방 추진 계획과 DRMO 내 복합오염 토양 정화 용역 추진 사항, 건축물 관료 인수 보고, 철거 대상 건축물 내부물품 보관 현황, 음악창작소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다음 회의에선 캠프 마켓 B구역(야구장 부지) 활용 방안, 일본군의 땅굴로 추정되는 현장 확인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인천시 캠프 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 수렴 엽서 및 홍보물을 비치한 '소통박스'를 8월 31일부터 인천시 청 본관 1층 로비와 부평구청 1층 로비, 캠프 마켓 환경 정화 구역 등 3곳에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했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대변하지만, 시민 공론화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소통 박스를 설치한 것이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 마켓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 19일 제3회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미군기지 조속반환

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캠프 마켓 조기 반환과 문화공원 조성을 바라는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긴급하게 채택했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는 비오염지 내 야구장과 오수정화조 부지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하고, 제빵공장(2단계 구역)을 제외한 1단계 구역을 즉시 반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오염 정화 주체 결정 등 환경 협상은 정부에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운영 중인 제빵공장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2019년도 하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2단계 구역의 반환 협상을 조속하게 착수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캠프 마켓 남북 측으로 나누어진 1단계 반환구역에 대해 복합오염, 기타 오염 일괄 정화와 미군기지 내부 정화 시 외부 주변지역도 동시에 정화해 정화 시간을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캠프 마켓 이전과 반환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환경 분야 시민단체, 도시와 문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변화는 있었지만, 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기의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 미군부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조례에 근거해 22명의 위원이 참여해 활동했다. 6차례의 회의가 진행됐고, 캠프 마켓 반환에 따른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 견학을 통한 캠프 마켓 내 건축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2기부터는 '인천광역시 캠프 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해 활동했다. 1·2기의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인천을 대표하는 미군부대로 지역적 명칭(부평)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부지 활용 계획에 한계점이 있다는 내부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캠프 마켓이 가진 역사성과 구도심 개발의 상징이 될 미군부대의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2기 참여 위원은 기존 22명에서 34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시민사회, 학계 중심에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기의 경우 시민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한 장고개길 도로 개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부영공원 개방 가능 여부, 신촌공원 기본계획 추진 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3기의 경우 여성 위원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 1·2기에서는 여성 위원이 1~3명에 불과했지만, 3기의 경우 10명의 여성 위원이 시민위원으로 참여했다. 3기의 경우 캠프 마켓 환경오염 문제가 주되게 다루어졌다. 민관이 함께 주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콘퍼런스와 캠프 마켓 오염 토양 정화 방안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캠프 마켓 DRMO 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 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가 운영돼 활동하기도 했다. 캠프 마켓 DRMO 지역 내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 토양 정화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방부에 설치됐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씩과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속 2인, 부평구청장이 추천하는 캠프 마켓 주변지역 주민 2인, 토양, 지하수학회에서 추천하는 토양환경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활동했다.

인천시가 처음부터 캠프 마켓 반환 이후 활용 방안, 환경조사 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인천시민회의는 캠프 마켓의 인수 업무와 기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2003년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시민회의는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0명의 인사로 민관 합동의 ‘미군기지 인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와 활용 방안, 반환 비용부담 등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회의는 조례 제정을 위해 8월부터 「지방자치법」상 주민 발의에 필요한 3만 3,000명(유권자의 1/20)을 목표로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인천시민회의는 7월 16일 주민 발의 조례 제정에 필수적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발급은 외교, 국방 등과 관련된 국가 사무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인천시는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부평 미군기지 인수특위가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행정기구의 설치에 해당되고, 소파(SOFA) 협정에 따라 설치된 국방시설인 만큼 국가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인천시민회의는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인천시를 상대로 고발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와 고발도 병행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2.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을 위한 부평구 자문협의회 구성 운영



❖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을 위한 자문협의회 회의 (2015, 부평구청)



❖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을 위한 자문협의회 회의 (사진 부평구청)

캠프 마켓이 있는 부평구도 환경오염 문제와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된 이후 캠프 마켓 부지 활용과 반환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했다. 부평구는 2015년 6월 지역 주요 현안 사항인 ‘반환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민관협의회’ 명칭을 ‘자문협의회’로 변경해서 재구성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부평구의회 구의원,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등 24명이 참여해 ‘부평 미군부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당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평 미군기지 부지가 구민을 위한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문협의회가 구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활용 방안을 찾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2016년 3월 23일에도 부평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열고 캠프 마켓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자문협의회는 5월에 캠프 마켓 활용 방안을 놓고 성공

사례를 캠프 마켓 주변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캠프 마켓 주변 주민에게 반환 추진 상황을 알리고, 타지역 공원 조성 전문가 등을 초청해 국내외 미군부대 반환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다.

부평구는 2018년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위촉직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 12월에도 2016년 제3차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개최, 2016년 한 해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부평구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캠프 마켓 부지의 환경 정화 문제와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2019년도에도 자문협의회를 개최했다. 11월 7일 열린 2019년 제2차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는 7월 이후 실시된 부평 미군기지 반환 추진 상황과 캠프 마켓 주변지역 오염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다이옥신류를 포함한 캠프 마켓 복합오염 토양 정화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곧 반환될 부평 미군기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⁴¹

현재 캠프 마켓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20년 3월 열린 ‘부평 비전 2020 위원회’ 자치행정분과에서는 캠프 마켓 부지 내 예술대학을 설립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부평 지역 내 대학교가 없어 부평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 중심의 문화 풍토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문화복지분과에서는 캠프 마켓 내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천시에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 부평구에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가 있지만, 정작 부평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⁴²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41 「부평구,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열어」, 『경기신문』, 2019년, 11월 7일자.

42 「질곡의 역사 머금은 땅 …… ‘주민 목소리’ 담은 개발 이구동성」, 『기호일보』, 2018년 5월 17일자.

표 4 시민참여위원회(1~3기) 개최 현황표

연번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위원 수			회의 개최				
		법령	자치법규	남성	여성	계	일시	장소	참석(명)	기관장 참석 현황	안건
제1기											
1							2012. 04.30.	시청 장미홀	18 /22	×	협의회 기능 재정립 필요 등 논의
2							2013. 05.01.	시청 영상회의실	16 /22	×	2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보고 부평 미군부대 추진 상황 보고
3	인천광역시 부평 미군부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 미군부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2011. 10.24.)	21	1	22	2013. 06.12.	시청 영상회의실	15 /22	×	3건 인천시와 국방부 간 협약 체결 사항 협의회 논의 사항 보고 재원 확보 방안
4							2013. 08.07.	시청 영상회의실	15 /22	×	2건 캠프 마켓 그간 추진 사항 보고 토지매입 협약 세부 내용 보고
5							2013. 10.14.	부평구청 중회의실	17 /22	×	3건 운영조례 개정 검토(안) 문화재 조사범위 및 전문가 선정 사항 기타 보고 안건
6							2013. 11.06.	인천 아트플랫폼	11 /22	×	현장 견학을 통한 기존 건축물 활용 방안

연번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위원 수			회의 개최				
		법령	자치법규	남성	여성	계	일시	장소	참석(명)	기관장 참석현황	안건
제2기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2014. 1.9.)	31	3	34	2014. 04.23.	시청 영상회의실	22/32	×	캠프마켓 그간 추진 사항 보고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현황 보고
2							2014. 11.21	시청 중회의실	24/34	×	캠프마켓 반환 등 추진사항 보고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안) 보고
3							2015. 04.29.	시의회 의원총회의실	25/34	×	생태하천복원과 연계한 장고개길 도로 개설 산곡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부영공원 개방 가능 여부 신촌공원 기본계획 추진 사항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성계획(안)
4							2015. 09.07.	시청 영상회의실	20/34	×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성계획(안) 콘퍼런스 개최 방안 군 전용철도 철거 및 활용 방안
5							2015. 06.17.	동부공원사업소	7/10	×	신촌공원 기본계획 추진(반영) 여부
-			공원복지분과위원회			2015. 07.16.	미추홀타워 14층 회의실	4/8	×	산곡천 상류지역 생태하천 복원 검토	

연번	위원회 명칭	설치 근거		위원 수			회의 개최				
		법령	자치법규	남성	여성	계	일시	장소	참석(명)	기관장 참석현황	안건
제3기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2014. 1.9.)	24	10	34	2016. 6.22.	시청 영상회의실	23/34	×	공동위원장 임명장 및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부평미군기지 반환 추진 상황 보고
2							2017. 3.30.	시청 영상회의실	22/34		부평미군기지 반환 추진 현황 부평미군기지 연계 기반시설(도로, 공원) 추진 현황 발전종합계획 변경 진행 상황 콘퍼런스 개최 방안 논의
3							2017. 9.11.	시청 중회의실	21/34		분과별 운영계획 콘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위원의 소속 분과 변경
4							2017. 11.2.	시청 중회의실	16/34		시민참여 콘퍼런스 프로그램(안) 우선반환 공여구역 환경오염 정보공개
5							2017. 11.29.	시청 공감회의실	17/34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부합동 사전설명(국방부/ 환경부)
6							2018. 1.22.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 방안 주안장로교회 앞 위반 건축물 처리 방안
7							2018. 2.21.	시청 영상회의실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 방안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 방안 주민공청회 계획
8							2018. 3.23.	시청 영상회의실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 추진 (안) 보고 캠프마켓 오염 토양 정화 추진 (안) 논의
9							2018. 6.7.	시청 장미홀			민관협의회 위원 및 전문가 추천(안)

3. 81년 만에 개방된 캠프 마켓



❖ 캠프 마켓 담벼락 철거(2020.10.6., 부평구청)

캠프 마켓 일부 부지가 2020년 10월 14일 영구 개방됐다. 개방된 구역은 캠프 마켓 전체 면적 44만㎡의 21.1%에 해당되는 9만 3,000㎡로, 산곡동 소재 부영공원 남쪽 야구장 일대가 포함됐다. 개방된 부지는 캠프 마켓 반환 1단계 구역의 절반 정도다. 앞서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와 국방부는 캠프 마켓 1단계 구역의 ‘즉시 반환’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부평 캠프 마켓 외에도 원주 캠프 이글(2009.3. 폐쇄), 원주 캠프 룡(2010.6. 폐쇄),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10. 폐쇄)을 미군이 당장 폐쇄하고, 한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소파(SOFA) 관련 문서 개정 등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조건으로 4개 기지의 폐쇄와 즉각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는 용산기지의 소파(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미 이전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소파(SOFA)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캠프 마켓 반환구역(10만 9, 957㎡) 환경조사에서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유류 등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돼,

정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남측 부지에서도 오염 정화가 예정돼 있다. 국방부의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앞둔 남측 구역 정화는 2022년 말까지 계속된다. 인천시는 이곳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정화가 필요한 일부 구역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한편 캠프 마켓 토지이용 방안을 수립하는 ‘부평 미군부대 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2021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캠프 마켓 개방행사 모습(2020, 부평구청)

박남춘 인천시장은 “캠프 마켓을 되찾기 위해 인천시와 한 몸이 돼 총력을 기울여 주신 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더 확대해 완성도 높은 협치를 구현해 갈 것”이라고 2020년 10월 14일 캠프 마켓 개방 행사에서 소회를 밝혔다.⁴³

43 「[캠프 마켓, 81년 만의 귀환] 오롯이 시민 곁에 오기엔 갈 길 멀어」, 『인천일보』, 2020년 10월 14일자.



참고 문헌



단행본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발간위원회,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2001.
 송정로, 『인천 시민사회운동 20년사』, 명문미디어아트팩, 2008.
 한만승, 『캠프 마켓』, 봉구네책방, 2011.

논문

이희동, 「부평의 현황과 자기 정체성」, 『인천문화비평』17,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2005.
 전대욱,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활용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신문

『경기신문』
 『기호일보』
 『동아일보』
 『인천투데이』(전 부평신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인천일보』



찾아보기

(사)전쟁유적보존네트워크	72	고이소 구니아키	87
3·1운동	27	고즈키 요시오	225
38도선	221	고쿠라공창	99
3부조정위원회	232	공업동원	30
6·25전쟁	187	공출	50
99(구구)식 소총	174	관동군	34
AFKN	320	관동조	280
DRMO	362	관알선	55
SWNCC	228	교착전기	240
SWNCC 360/1	233	국가총동원	93
간토구미	100	국가총동원법	41
강제동원	44, 158	국가총동원체제	30
강제성	46	국공합작	39
거버넌스	369	국민근로협력령	54
고노담화	69	국민동원	30
고노에 후미마로	38	국민징용령	54
고사포	135	군무원	67
고스다 가쓰조	15	군부	65

군사분계선	260	다다구미	100, 280
군사시설	125	다마모구미	100
군사시설물	73	다운폴	214
군소	181	대본영	42, 121
군속	67, 198	대일항전	39
군수공업동원법	30	도내동원	60
군수기지	75	도교자동차공업	105
군수물자	49	독립운동	148
군수조사령	30	동경제1육군조병창	157
군요원	67	동아여행사	58
극동군사령부	243	드림보트 클럽	286
금속류 회수령	115	러일전쟁	24
기능자양성소	177	류타오거우	34
기록화사업	158	만세일계	121
기지촌	17, 279	만주사변	34
기획청	93	만주 침략	22
김우식	175	맥아더 장군	242
김포반도	255	모집	54
김포비행장	254	물자동원계획	52
남만육군조병창	143	미군 클럽	282
남만주철도	34	미군기지	14, 331
내선일체	121	미나미 지로	63
노구교 사건	86	미드웨이 해전	43, 123

미소공동위원회	233	부평기지촌	279
미쓰비시 줄사택	19	부평문화원	156
미주리호	250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336
미태평양육군	214	부평연습장	14, 98
민족자결주의	27	부평지하호	161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334	부평토굴	157
반전평화	18	부평토굴의 노래	160
반환운동	17	복곽진지	131
방공지구	128	북진기	240
방공호	13, 120, 190	블랙리스트 작전	214
백마정	177, 182	새우젓 굴	156
병기	149	섬 건너뛰기 작전	248
병기격납동굴	135	세 남매의 봄	160
병기행정본부	132	세계유산	18
병역의무	66	세계유산위원회	47
병참기지화	85	센넌바리	190
보국대	60, 205	소개	120
본토결전	121, 123	소파(SOFA)	328
부공추	336	소화고등여학교	189
부국강병	120	수송잠항정	107
부내면	12	시미즈구미	100, 113
부영공원	17, 357	시민참여위원회	369
부평공원	19, 77	시바우라 제작소	105

신탁통치	212	원더랜드 클럽	286
실포	133	원통이고개	255
아리랑 클럽	286	월미도	252
아오바료	182	월사금	198
아이젠하워	233	위수사령부	237
아폴로 클럽	286	위안소	68
암시장	316	유니버설 클럽	286
엑스컴 시티	12, 16, 229	유수명부	114
양공주	279	육군 제3보급단	167
양담배	315	육군군 의학교	239
양재형	148	육군병기본부	102
양키시장	282	육군조병창령	101
어두운 역사	72	육군특별지원병제도	64, 88
어르신문화콘텐츠사업	13	이승만	266
엑스컴사진관	289	이시와라 간지	32
역사문화콘텐츠	77	이하라 준지로	112
역사부정론자	46	인간띠 잇기	335
역사수정주의자	46	인천녹색연합	357
역사탐방프로그램	158	인천상륙작전	240
연합군최고사령관	217	인천시민회의	336, 351
영단주택	194	인천육군조병창	13
오순환	148	일본군 위안부	68
올림픽 작전	214	일성료	201

임시자금조정법	52	조선기계제작소	107
입양	313	조선기류령	66
재반격기	240	조선노무협회	55
전등사 범종	116	조선전업주식회사	140
전시동원	44	조선제강소	105
전쟁 유적	72	주민투표	348
전후 구상	211	중공군	258
정신대	191	중공군 포로	263
제10군	216	중소불가침조약	39
제17방면군	122	중일전쟁	15
제1공병단	239	지영례	189
제1제조소	15, 104	지원병	197
제24군단	218	지원병 제도	63
제24군수지원사령부	16, 228	지하공장	136
제2제조소	142	지하시설	125
제국주의	24	직업소개소	55
제네바협약	261	징병	64, 199
조병창 병원	194	징용	54
조선공창	98	채병덕	145, 200
조선군	35	천막 농성	343
조선군개요사	112	철도경찰학교	187
조선군관구	121	청년훈련소	198
조선군제시설희망요강	94	청일전쟁	24

총력전	29	한강철교	241
최덕원	197	한국 점령	216
춘계공세	258	한반도 상륙작전계획	224
침략전쟁	14, 150	한반도 주둔군	94
캐톡틴 호	221	함봉산	13, 18, 85, 132
캠퍼스 작전	214	해군공원	67
캠퍼스&벨리거 작전	222	흔혈입양아	311, 314
캠프 그랜트	145	화랑농장	156, 269
캠프 마켓	12, 332	환경문제	355
코로나 작전	214	환경조사	360
크롤러 계획	244	황국신민서사	198
통상수호조약	23	황장연	148
트루먼 대통령	248	휴전협상	260
평양제조소	15, 104		
평화박물관	352		
포로감시원	67		
포로수용소	16, 256		
포츠담선언	43		
푸이	36		
하자마구미	100		
하지(John R. Hodge)중장	218		
학도 동원	143		
학도지원병	65		



집필위원(가나다순)

김정아 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이상의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이상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조 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만송 『캠프마켓』 저자·전 인천투데이 기자

부평사 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전화 032-505-9001

디자인·편집·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 빌딩
전화 02-786-2999

ISBN 979-11-5698-337-8 94300
979-11-5698-332-3 94300(세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